



흥보가 바디별 전제 2

박록주 바디 · 박초월 바디

Bak Rok-ju Version Heungboga
(Sung by Bak Song-heui)

Bak Cho-weol Version Heungboga
(Sung by Kim Su-yeon)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호모가 바버블 전집 2

2009년 11월 25일 인쇄

2009년 12월 1일 펴냄

지은이 || 채록·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Philip Owen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02) 3704-9119

전라북도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 (063) 280-211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1층

☎ (063) 232-8398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623-5 04810

978-89-5925-621-1 (전4권)



홍보가

바디벌 전자기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2007년에는 〈춘향가〉, 2008년에는 〈심청가〉를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홍보가〉 여섯 바탕을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홍보가 바디별 전집》(1-4)을 내게 된 것이다.

이 성과물은 총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연수 바디 오정숙 창 홍보가〉, 2권은 〈박록주 바디 박송희 창 홍보가〉와 〈박초월 바디 김수연 창 홍보가〉, 3권은 〈박초월 바디 조통달 창 홍보가〉와 〈강도근 바디 전인삼 창 홍보가〉, 4권은 〈박봉술 바디 송순섭 창 홍보가〉이다. 이만하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홍보가〉 바디를 망라하고, 같은 바디인데도 창자에 따라 다른 것까지 포괄하여 자막으로 사용할 때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은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보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꼭 그런 것은 아니어서, 판소리 사설의 예술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듣기 십상이다. 그래도 잘못된 번역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변명할 뿐이다. 나중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번역을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올해에는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등 다섯 종목이 유네스코에 의해 한꺼번에 ‘인류 구전 무형 유산’으로 선언되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지는 하지만, 선정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류 구전 무형 유산’ 선정 때는 자부심을 느끼다가도 조금 지나면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들의 태도부터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키고 가꾸는 데도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업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궁지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명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예쁜 디자인을 맡아주신 여태명문자조형연구소의 여태명 선생과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분들의 귀한 관심과 애정이 판소리의 세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2009년 깊어가는 가을
최동현 · 박승배 씀

차 례

■ 책머리에 • 4

★ 박록주 바디 홍보가(박송희 창)

| | |
|-------------------------|----|
| 1. 놀보 심 | 12 |
| 2. 놀보가 홍보를 쫓아냄 | 16 |
| 3. 홍보 아내 탄식 | 20 |
| 3-1. 홍보 아내 탄식-이순단 | 22 |
| 4. 홍보 차림새 | 26 |
| 5. 돈타령 | 28 |
| 6. 홍보 아내 만류 | 34 |
| 7. 병영 길 | 36 |
| 8. 홍보 헛걸음 | 38 |
| 9. 홍보 아내 좋아함 | 42 |
| 10. 홍보가 놀보집을 건너감 | 42 |
| 11. 홍보 애원 | 46 |
| 12. 놀보 매질 | 50 |
| 13. 홍보 탄식 | 52 |
| 14. 홍보 아내 탄식 | 54 |
| 15. 중타령 | 58 |
| 16. 도승이 집터를 잡아줌 | 60 |
| 17. 집터 글자 | 62 |

| | |
|-------------------------|-----|
| 18. 홍보가 제비 구원 | 64 |
| 19. 제비 점고 | 66 |
| 20. 제비 노정기 | 68 |
| 21. 가난타령 | 76 |
| 22. 첫째 박 | 78 |
| 23. 쌀과 돈이 많이 나옴 | 80 |
| 24. 돈타령 | 82 |
| 25. 둘째 박 | 86 |
| 26. 비단 타령 | 88 |
| 27. 홍보 내외 옷차림 | 92 |
| 28. 셋째 박 | 94 |
| 29. 홍보 집 짓기 | 96 |
| 30. 놀보가 홍보 집을 찾아옴 | 98 |
| 31. 음식상 차림 | 102 |
| 32. 홍보 아내 포악 | 104 |
| 33. 화초장 타령 | 106 |
| 34. 놀보 제비 몰러 나감 | 110 |
| 35. 놀보 제비다리 부러뜨림 | 114 |
| 36. 놀보 제비 노정기 | 118 |
| 37. 놀보 첫째 박 | 124 |
| 38. 노인 등장 | 128 |
| 39. 놀보 애걸 | 130 |
| 40. 능천낭 내력 | 132 |
| 41. 놀보 둘째 박 | 134 |
| 42. 상여 등장 | 136 |

| | |
|--------------------|-----|
| 43. 놀보 셋째 박탐 | 140 |
| 44. 양산도, 장타령 | 142 |
| 45. 귀 자 노래 | 146 |
| 46. 놀보 아내 만류 | 148 |
| 47. 장비 등장 | 150 |
| 48. 홍보 애원 | 152 |
| 49. 후일담 | 154 |

*** 박초월 바디 심청가(김수연 창)**

| | |
|-----------------------|-----|
| 1. 놀보 심술 | 196 |
| 2. 놀보가 홍보를 쫓아냄 | 198 |
| 3. 홍보 아내 탄식 | 202 |
| 4. 돈타령 | 204 |
| 5. 홍보 아내 만류 | 208 |
| 6. 병영 길 | 210 |
| 7. 홍보 헛걸음 | 210 |
| 8. 홍보 아내 좋아함 | 214 |
| 9. 홍보가 놀보집을 건너감 | 216 |
| 10. 홍보 애원 | 218 |
| 11. 놀보 매질 | 218 |
| 12. 홍보 탄식 | 222 |
| 13. 홍보 아내 탄식 | 222 |
| 14. 중타령 | 226 |
| 15. 도승이 집터를 잡아줌 | 228 |

| | |
|-------------------------|-----|
| 16. 제비가 찾아옴 | 230 |
| 17. 제비 강남으로 날아감 | 232 |
| 18. 제비 점고 | 234 |
| 19. 제비 노정기 | 236 |
| 20. 가난타령 | 244 |
| 21. 첫째 박 | 246 |
| 22. 쌀과 돈이 많이 나옴 | 248 |
| 23. 흥보 내외 좋아함 | 250 |
| 24. 둘째 박 | 254 |
| 25. 비단 타령 | 256 |
| 26. 흥보 내외 옷차림 | 258 |
| 27. 셋째 박 | 260 |
| 28. 흥보 집 짓기 | 260 |
| 29. 놀보가 흥보 집을 찾아옴 | 264 |
| 30. 음식상 차림 | 268 |
| 31. 흥보 마누라 포악 | 270 |
| 32. 화초장 타령 | 272 |
| 33. 놀보 제비 몰러 나감 | 274 |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박송희 창

Sung by Bak Song-heui

1. (놀보 심술)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가 만나는 지역에
놀보와 흥보 형제가 살았는데, 형 놀보는 심술이 사납기
로 유명하였다.

[아니리] 우리 동방¹⁾이 군자지국²⁾이요, 예의지방³⁾이라.
십설지읍⁴⁾에도 충신⁵⁾이 있고,
칠세지아⁶⁾도 효제⁷⁾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⁸⁾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요순시절⁹⁾에도 사흉¹⁰⁾이 났었고,
공자님 당년¹¹⁾에도 도척¹²⁾이 있었으니,
아마도 일종¹³⁾ 여기¹⁴⁾를 어찌할 수 없는 법이었다.
중년¹⁵⁾에 경상 · 전라 · 충청 삼도¹⁶⁾ 얼푼¹⁷⁾에 놀보 형제가 사는데,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사람마다 오장¹⁸⁾이 육본디,¹⁹⁾ 놀보는 심술보 하나가 더 있어, 오장이
칠보였던²⁰⁾ 것이었다.
놀보는 본디 심술이 많은 놈이라,
그 착한 동생을 내쫓을 양으로, 날마다 심술 공부를 허는데, 꼭 이렇
게 하던 것이었다.
[자진모리] 대장군방²¹⁾ 벌목²²⁾허고,
삼살방에²³⁾ 이사 권코,²⁴⁾
오구방에다²⁵⁾ 집을 짓고,
불 붙는 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 가는 과객²⁶⁾ 양반 재울 듯기²⁷⁾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초란이²⁸⁾ 보면은 땀 낮 짓고,²⁹⁾

1. (Nolbo's Perverseness) Two brothers, Nolbo and Heungbo, lived near the border among Gyeongsang, Jeolla, and Chungcheong Provinces. The elder brother, Nolbo, was notorious for his perverseness.

[Aniri] Korea has been a country of virtue.

There is a loyal subject even in a small village.

Even a young child is nice to his parents and siblings.

How could there be a bad person?

But there were robbers even during the peaceful time.

There was a thief even in the period of Confucius.

Perhaps, that is the way the world is.

Once upon a time, Nolbo and Heungbo lived in a region where Gyeongsang, Jeolla, and Chungcheong Provinces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The elder brother is Nolbo, and the younger brother is Heungbo.

Unlike other human beings, Nolbo has an extra internal organ called a perversity bag.

Nolbo is a perverse person.

With a view to kicking out his younger brother, he practices his perversity as follows:

[Jajinmori] Nolbo tells others to cut down trees to bring bad luck to them.

He encourages people to move to unlucky sites.

He tells people to build houses in unlucky sites.

He fans burning houses.

He drives stakes into young pumpkins.

He detains travelers as if he will provide a place to sleep, but kicks them out after the sun sets.

He casts an amorous glance at a traveling entertainer.

거사³⁰⁾ 보면 소고³¹⁾ 도적,
 의원 보면은 침 도적질,
 양반 보면은 관³²⁾을 찢고,
 다 큰 큰애기 겁탈,³³⁾
 수절 과부³⁴⁾는 모함잡고,³⁵⁾
 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잖히고,³⁶⁾
 제주³⁷⁾ 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³⁸⁾ 넣고,
 새 망건³⁹⁾ 편자⁴⁰⁾ 꿇고,
 새 갓 보면은 땀때⁴¹⁾ 떼고,
 앓은뱅이는 택견,⁴²⁾
 곱사둥이⁴³⁾는 뒤집어놓고,
 봉사 눈 똥 칠허고,
 애 뺨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놓고,⁴⁴⁾
 웅기전⁴⁵⁾에다 말 달리기,
 비단전⁴⁶⁾에다 물총 놓고,⁴⁷⁾
 이놈의 행실이 이래노니,⁴⁸⁾ 삼강⁴⁹⁾을 아느냐? 오륜⁵⁰⁾을 아느냐?
 이런 모질고 독한 놈이 어디가 있더라 말이나?

He steals a drum from an entertainer.
He steals acupuncture needles from doctors.
He tears the hats off high class people.
He rapes young ladies.
He puts a false charge on faithful widows.
He lets crying babies suck his toe.
He presses down babies relieving themselves.
He pees on in the wine for rituals.
He pours poison into wine.
He cuts off a string of a new headband.
He takes a thread off a new cylindrical hat.
He kicks crippled people.
He lays hunchbacks on their backs.
He pastes dung on a blindman's eyes.
He kicks pregnant women in the belly.
He digs holes in the road.
He runs a horse in a pottery store.
He sprays water in silk stores.
His behavior is far from the basic ethical rules.
Who could be more cruel and ruthless than he?

2. (놀보가 흥보를 쫓아냄) 하루는 놀보가 공연한 트집을 잡아 흥보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니, 흥보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울면서 떠나간다.

[아니리] 이놈이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기인들⁵¹⁾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루는 놀보가 심술이 나서 비 오는 날 와가리⁵²⁾ 성음⁵³⁾을 내어,
“네 이놈,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늬이 골머리⁵⁴⁾에 손 넣고

서리 맞은 구렁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방⁵⁵⁾ 출입⁵⁶⁾만 하여 자식새끼만 돼야지⁵⁷⁾ 이물돌⁵⁸⁾ 퍼
넣듯허고,⁵⁹⁾

나만 못 살게 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 살아봐라.”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잔소리 말고 썩 나가거라!”

[중모리] 나가란 말을 듣더니마는,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이 엄동⁶⁰⁾ 설한풍에⁶¹⁾ 어느 곳으로 가면 살 듯허오?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⁶²⁾ 주려⁶³⁾ 죽던 수양산⁶⁴⁾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 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2. (Nolbo Kicks Heungbo Out.) One day, Nolbo makes a false charge against Heungbo and tells him to get out of his house. Heungbo and his wife walks out with their children in tears.

[Aniri] Nolbo doesn't know the basic ethical rules.

How could he know the ethical rules related to brothers?

On a rainy day, Nolbo yells at his brother like a heron.

"Heungbo, you bastard!

You are getting old, but you put your hands inside your trousers.

I don't want to see you sneak around secretly like a snake with frost.

You had fun with your wife day and night, and begot a lot of children just like a pig.

I can't bear you because you rely on me.

Get out of my house today."

"Brother, please forgive me."

"Cut out the noise. Get out!"

[Jungmori] Heungbo responds to Nolbo.

"Alas, brother. I am your brother. Where should I go?

Where do you think I can survive in this cold and snowy weather?

Should I go to Jiri Mountain?

Should I go to Shouyang(首陽) Mountain where ancient royal subjects died of hunger?"

"You villain. Should I tell you where to go?

Cut out the noise. Get out."

Dumfounded, Heungbo goes into his room.

"Honey, my brother tells me to get out of here.

어느 영⁶⁵)이라 기억하며,
 어느 말쑤이라고 안 가겠소?
 자식들을 챙겨 보오.
 큰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놈아,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 지고, 놀보 앞에 가 들어서서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옵시오.”
 “오냐, 잘 가거라.”
 홍보 신세 불작시면,⁶⁶⁾
 울며불며 나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네 것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에 호의호식,⁶⁷⁾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도, 입고 남아
 세상분별⁶⁸⁾을 내가 모르더니마는,
 홍보놈의 신세가 일조예⁶⁹⁾ 이리 될 줄을 귀신인들 알겠느냐?
 여보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⁷⁰⁾ 산중⁷¹⁾으로 가자.
 전라도는 지리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에⁷²⁾ 가 사자허니⁷³⁾ 백물⁷⁴⁾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⁷⁵⁾으로 가자.
 일 원산, 이 강경이,⁷⁶⁾ 삼 포주,⁷⁷⁾ 사 범성이,⁷⁸⁾
 도방에 가 살자허니, 비린내 찌우어⁷⁹⁾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허니, 경우⁸⁰⁾를 모르니 따귀⁸¹⁾만 맞고,

How can I disobey his order?
How can I refuse to get out?
Get the children ready.
First child, where are you?
Second child, come here.”
They pack their things and stand in front of Nolbo.
“Brother, we are leaving. Take care.”
“So long.”
Behold Heungbo.
Heungbo leaves in tears.
“How miserable my fate is!
I can’t believe my fate.
When my parents were alive, my brother and I shared everything.
We had enough clothes and food for the rest of our lives.
I didn’t know the cold reality of life.
How could I have known my fate would fall down like this in a day?
Hello, honey! Where should we go?
Let’s go to a mountain.
There is Jiri Mountain in Jeolla Province.
There is Taebaek Mountain in Gyeongsang Province.
We can’t live on a mountain because there aren’t enough daily necessities.
Let’s go to a crowded place.
Weonsan, Ganggyeong, Poju, and Beopseong are crowded places.
We can’t live in a crowded place because it is smelly there.
Let’s go to Seoul.
We can’t live in Seoul because we don’t know the customs there and we will be hit on the cheek.

충청도 가 살자허니, 양반들이 억세어서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면 살 듯허오?”

3. (홍보 아내 탄식) 홍보네가 고생하며 사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조르자, 홍보 아내가 집안 형편을 생 각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그렇저렇 다니다가 성현동 복덕촌⁸²⁾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심⁸³⁾헐 제,
철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부모를 조르는데,
밥 달라는 놈, 떡 달라는 놈, 엿을 사달라는 놈,
각심으로⁸⁴⁾ 조를 적에,
홍보 큰아들이 나왔으며,
“아이구,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고동부사리⁸⁵⁾ 목성음⁸⁶⁾이 나오느냐?”
“어머니! 낮이나 밤이나 불매증⁸⁷⁾으로 잠 안 오는 설움이 있소.”
“그래, 네 설움이 무엇이냐? 말을 해라. 보자.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쉽드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⁸⁸⁾하고, 나 장가 좀 보내 주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허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늙어갑니다.”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진양조] “어따,⁸⁹⁾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⁹⁰⁾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
중한 가장⁹¹⁾을 못 먹이고,

We can't live in Chungcheong Province because high class people will harrass us.
Where can we survive?"

3. (Heungbo's Wife Laments.) Heungbo's family lives a hard life. The oldest son asks to be married, Heungbo's wife laments over their fate.

[Aniri] After moving around, Heungbo's family arrive at Virtue Village.

Their life is hard.

Immature, the children badger their parents with the food song. One asks for rice, another for rice cake, and another for rice jelly.

Each has his own wish.

Heungbo's eldest son steps forward.

"Mother!"

"You rascal. These days, your voice is as virile as that of a bull." I've got a sorrow that keeps me awake day and night."

"What is that sorrow? Shoot. For me, hunger makes me the most sorrowful."

"Discuss my marriage with father, and get me a girl to marry! It's not that I want to get married myself.

On close thought, however, mother and father might not see their grandchild until it is too late."

At his words, Heungbo's wife is stunned.

[Jinyangjo] "God, you rascal! Listen to me.

If I were rich, would you still be unmarried?

Would your father be starving?

어린 자식을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⁹²⁾이 다 녹는다.”

**3-1. (홍보 아내 탄식—이순단) 홍보네가 고생하며 사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조르자, 홍보 아내가 집
안 형편을 생각하며 탄식한다.**

[중중모리] 한 곳을 당도하니 촌명⁹³⁾은 복덕이요,
인심은 순후⁹⁴⁾헌디,
빈집 한 칸⁹⁵⁾이 서 있다.
잠시 저 집에 살아볼 제,
집 끝이 말 안 되어,
문밖에 세우⁹⁶⁾ 오면 천장은 큰비 오고,
부엌에 불을 때면 방안은 굴뚝인디,
흙 떨어진 외대⁹⁷⁾ 궁기⁹⁸⁾ 바람은 살 쏘 듯이 들이불고,⁹⁹⁾
틀만 남은 현 문짝 공석¹⁰⁰⁾으로 창호¹⁰¹⁾허고,
방에 반듯 드러누워 천정을 완경¹⁰²⁾허면, 개천도¹⁰³⁾ 붙인 듯이 이십
팔수¹⁰⁴⁾를 헤아리며
근근이¹⁰⁵⁾ 지내갈 제, 현순백결¹⁰⁶⁾이 되었다.

[아니리] 홍보가 이리 고생을 하면서도
내외간¹⁰⁷⁾에 금슬¹⁰⁸⁾이 좋아 자식들을 풀풀이¹⁰⁹⁾ 낳는데,
돌 돌아가면 썩 낱고, 세 살 먹여 놓은 죽은 썩 낱고,
그렇저렇 보태는 것이 감부기¹¹⁰⁾ 하나 없이 꼭 아홉을 낳았겠다.
하루는 홍보가, “여보 마누라. 내가 먹고 살기 정신없이 지내노라 내
속으로 난 아들 얼굴을 모르니,

Would young children be poorly clothed?
I feel bad because I can't give them food and clothes."

3-1. (Heungbo's Wife Laments.—Lee Sun-dan) Heungbo's family lives a hard life. The oldest son asks to get married. Heungbo's wife laments over their financial situation.

[Jungjungmori] Heungbo's family arrive at a village called Virtue Village.

People are nice there.

There is an empty house.

They stay in the house for the time being.

The house looks terrible.

If a light rain comes down outside, a heavy rain comes down inside.

If a fire is made in the kitchen, the room becomes a chimney.

A wind blows through the holes of the wall like an arrow.

A straw bag hangs on the framework of a door.

If they lie down on the floor and face the roof, they can see the night sky and count the stars in it.

They manage to get by, wearing worn out clothes.

[Aniri] Heungbo's life is hard.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his wife, Heungbo has begotten a lot of children.

They have a child two or three years after the last one.

In total, they have nine children, none of whom is deformed.

One day Heungbo says, "Honey, I was so busy working outside that I can't even identify the faces of my children.

그도 한심가탄¹¹¹)일세.
 말끔¹¹²) 이리 불리오소.”
 자식들을 불러노니, 군마떼¹¹³) 몰리듯이 우 모도¹¹⁴) 왔것다.
 흥보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없는 것을 한을 마소.
 고금을 헤아리니, 수복¹¹⁵)을 다 임의로 못하거늘,
 우리 신세 구차하여 조석¹¹⁶)이 난감¹¹⁷)하나,
 자식 복은 요만하니,
 이놈들이 장성하여 제 구실을 하게 되면, 우리 양주¹¹⁸) 말년 신세
 초년¹¹⁹)에다 비할쏜가?”¹²⁰)
 이때에 자식들이 차례로 나왔으며, 제각기 입맛대로 음식을 청하것다.
 한 놈이 나왔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 배가 고과 못 살것소.
 육개장국¹²¹)에다 하얀 쌀밥 좀 말아 먹었으면 꼭 좋겠소.”
 또 한 놈이 나왔으며, “어머니, 나는 호박떡 좀 해주시오.
 호박떡은 더위도 달고, 식어도 달고 맛이 참 좋든디요.”¹²²)
 흥보 큰아들이 나왔으며, “어머니!”
 “너는 왜 고동부사리¹²³) 성음¹²⁴)으로 우느냐?”
 “나는 옷도 싫고, 밥도 싫고,
 밤이나 낮이나 잠 못 드는 병이 있소.”
 “나는 없는 설움이 제일 크더라.
 너는 무슨 설움이 있어 우느냐?”
 “아버지 어머니 공론¹²⁵)하고, 나 장가 좀 보내 주오!”
[진양조] 흥보 마누라 기가 맥혀,
 섰다가 절컹¹²⁶) 거꾸러지드니마는,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¹²⁷)가 있고 보면, 네 장개¹²⁸)가 여태 있으며,
 중한 가장¹²⁹)을 못 먹이고,

How deplorable that is!
Please bring them all here.”
At her shout, the children get together like a group of horses.
Heungbo speaks, “Honey, don’t resent out poverty.
Throughout history, wealth and longevity are beyond human control.
We are poor, not having enough food.
But we are rich in children.
If they grow up and play their roles, the rest of our lives will be much better than our lives so far.”
Just then, the children speak one by one, asking for their own favorite food.
One steps forward. “Mother, I am about to starve to death. I wish I had hot spicy meat soup and white rice.”
Another speaks, “Mother, I would like pumpkin rice cake. It is sweet and delicious, whether it is hot or not.”
The eldest son speaks, “Mother!”
“Why is your voice as virile as that of a bull?”
“I want neither clothes nor food.
I’ve got a disease that makes me awake day and night.”
“For me, being poor makes me sorrowful the most.
What makes you sorrowful?”
“Discuss my marriage with father. Get me a girl to marry!”

[Jinyangjo] Heungbo’s wife is stunned.
She slumps down on the spot.
“God, you rascal! Listen to me.
If I were rich, would you still be unmarried?
Would your father be starving?

어린 자식들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¹³⁰)이 다 녹는다.”

4. (홍보 차림새) 홍보가 관가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기 위해, 다 떨어진 의복을 차려 입고 나간다.

[아니리] 이때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거, 없이 사는 살림에 밤낮으로 눈물만 짜니,

거 무슨 재수¹³¹)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 좀 갖다 오리다.”

“읍내는 뭇하러 가실라요?”

“환자¹³²) 맡은 호방¹³³)한테 환자섬¹³⁴)이나 얻어야 굶어가는 자식을 구하지 않겠소?”

“나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아, 구사일생이지,¹³⁵)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 오오.”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아니 여보, 갓을 어째서 굴뚝 속에다 두었던 말ियो?”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¹³⁶) 얻어 쓴 백립¹³⁷)이 갓양¹³⁸)이 단단하다 해서,

돈이 없어 칠¹³⁹)은 못하고

그을음에 끄슬러¹⁴⁰) 끌려고 굴뚝 속에 두었지.

내 도복¹⁴¹) 좀 내 오오.”

Would the young children be poorly clothed?
I feel bad because I can't give them food and clothes."

4. (Heungbo's Appearance) Heungbo goes out in shabby clothes to get food from the local government office.

[Aniri] Heungbo comes in the house. "Hello, honey.
We are poor, and you weep day and night.
How can we be lucky?
Let me go downtown today."
"What do you go downtown for?"
"Let me borrow a bag of relief rice from the government office
so that I can save our starving children."
"The government will not give us rice."
"I am drowning and trying to catch a straw.
I am just adventurous.
Please bring me my hat."
"Where did you put your hat?"
"I put it in the chimney."
"Darling, why did you put it in the chimney?"
"A white cylindrical hat was used during the state funeral of a
king's mother. Its frames were fine.
But I didn't have money to have it dyed.
I put the hat in the chimney to make it black with the soot.
Please bring me my coat too."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장¹⁴²⁾ 안에 두었지.”

“아니 여보. 우리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यो?”

“허허, 이 사람아. 달구장¹⁴³⁾은 장이 아닌가?”

홍보가 치장¹⁴⁴⁾을 차리고 질청¹⁴⁵⁾을 들어가는디,

[자진모리]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 치레¹⁴⁶⁾를 불작시면,

철대¹⁴⁷⁾ 떨어진 현 파립¹⁴⁸⁾

별잇줄¹⁴⁹⁾ 총총¹⁵⁰⁾ 매어 조새갓끈¹⁵¹⁾을 달아 써,

편자¹⁵²⁾ 떨어진 현 망건, 갓풀관자,¹⁵³⁾ 종이당줄¹⁵⁴⁾ 두통나게¹⁵⁵⁾ 줄
라매고,

떨어진 현 도포 실띠¹⁵⁶⁾로 총총 이어 고평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조대¹⁵⁷⁾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 자 걸음¹⁵⁸⁾으로 어식비식¹⁵⁹⁾ 들어간다.

5. (돈타령) 홍보가 매품을 팔기로 하고 돈을 받아, 돈타령 을 부르며 돌아오자, 홍보 마누라도 돈타령을 하며 좋아 한다.

[아니리] 홍보가 들어가다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¹⁶⁰⁾ 남아¹⁶¹⁾가 되었을망정 반남 박 가¹⁶²⁾ 양반인데,
호방¹⁶³⁾을 보고 ‘허게’를 허나, 존경을 허나?¹⁶⁴⁾

“Where did you put the coat?”

“I put it in the wardrobe.”

“Sweetheart, do we have a wardrobe in this house?”

“How foolish! Isn’t the hencoop our wardrobe?”

Heungbo gets dressed up and goes to the government office.

[**Jajinmori**] Heungbo goes into the government compound. He goes in.

Behold Heungbo.

The rim of his cylindrical hat is broken.

His hat is fastened with a string on his chin.

He fastened an old headband tight with a leather ring and a paper string.

A string ties his old coat around his hungry belly.

He holds a stone pipe in one hand.

He holds an old fan in the other hand.

He swaggers as an upper class person should do.

5. (Money Song) On the promise to be caned for money, Heungbo comes back home with some money. Ecstatic, his wife sings the money song.

[**Aniri**] While going into the government office, Heungbo becomes nervous.

‘Even though I am poor, I am from an upper social class family line.

Should I use honorific expressions to the officer in charge of relief rice?

아서라,¹⁶⁵⁾ 말은 하되 끝은 짓지 말고¹⁶⁶⁾ 웃음으로 닭을 수밖에 없다.’

질청을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박생원¹⁶⁷⁾ 들어오시오?”

“호방 뵈 지 오래군, 하하하하.”

“어찌 오셨소?”

“거, 양도¹⁶⁸⁾가 부족해서.

환자 한 섬만 꾸어주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하하하하.”

“박생원, 품¹⁶⁹⁾ 하나 팔아보시오.”

“아,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말고 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골 좌수¹⁷⁰⁾가 영문¹⁷¹⁾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¹⁷²⁾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서른 냥은 꼬아논¹⁷³⁾ 돈이요,

마삿¹⁷⁴⁾까지 닷 냥 제시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 보시오.”

“매품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정강말¹⁷⁵⁾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닷 냥을 나를 내어주자.”¹⁷⁶⁾

[중모레] 저 아전 거동¹⁷⁷⁾을 보아라.

케문¹⁷⁸⁾을 철컹¹⁷⁹⁾ 열고 돈 닷 냥을 내어주니,

홍보가 받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오.”

박홍보 좋아라고, 질청¹⁸⁰⁾ 밖을 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I will speak in an ambiguous manner and cover this thorny issue with my laughter.'

He gets into the government office.

The officer in charge of relief rice opens the door.

"Isn't that Mr. Bak?"

"Officer, long time no see. Hahaha."

"What brought you here?"

"I need grain.

If you lend me a bag of relief rice, I will repay it in the fall without fail.

What do you say, officer? Hahaha."

"Mr. Bak, why don't you work for money?"

"Oh, I'd be happy to if only I could make some money."

"An influential man of this village is held at the military office.

Be beaten with a cane ten times on his behalf.

And you will make 30 dollars, 3 dollars for each stroke.

You will also be given an extra 5 dollars for a horse ride.

Be caned for money."

"I don't need a horse ride because I am going to be caned.

I will go there on foot.

Give me 5 dollars now."

[Jungmori] Behold that officer.

He opens a coffer, making a loud sound, and gives Heungbo 5 dollars.

Heungbo takes the money.

"Take care."

"Come back in one piece."

Delighted, Heungbo leaves the government office.

"Hurrah! Whoopee!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¹⁸¹⁾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 나는¹⁸²⁾ 지화¹⁸³⁾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보이는 게 돈밖에 또 있느냐?
 돈 돈 돈 돈 봐라, 돈.”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쪼¹⁸⁴⁾ 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쪼 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늘이우고, 죽통¹⁸⁵⁾을 빼뜨리고,¹⁸⁶⁾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¹⁸⁷⁾ 서른닷 냥이 들어를 간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 옳제,
 계집이 이 사람아, 당돌히 앉아서 좌이부동¹⁸⁸⁾이 웬 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중중모리] 흥보 마누라 나온다. 흥보 마누라 나온다.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¹⁸⁹⁾을 자네 아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¹⁹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권¹⁹¹⁾을 가진 돈,
 부귀공명¹⁹²⁾이 붙은 돈.

Look at this money. Money, money, money! Look at this money.
The basic ethical rules can be seen through this coin.
The basic ethical rules disappear once I gets the bill later.
Only money can be seen,
Look at this money.”
He goes into the rice cake soup restaurant.
He eats rice cake soup.
He goes into a rice wine bar.
He drinks rice wine.
His shoulder hangs down, and his mouth sticks out.
“A man can make 35 dollars in one move.
Whoopee! Look at this money.”
He goes home.
“Hello, sweetheart!
If a family head comes back home, you ought to come out fast
and greet him.
You woman, how dare you sit there without moving?
How rude you are!”

[Jungjungmori] Heungbo’s wife comes out. She comes out.
“Where is the money? Let me take a look at it.”
“Leave me alone, woman.
Do you know about the nature of money?
People want money whether they are rich or poor.
Money is round like a wheel of a cart and moves around.
Money can make a person live or die.
Money is accompanied by wealth, nobility, and fame.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봐라.”

6. (홍보 아내 만류) 홍보 아내가 홍보의 매품팔이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레] “여보, 마누라.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고,
육죽¹⁹³⁾을 누구름하게¹⁹⁴⁾ 열한 통만 주소.”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먹어노니
식곤증¹⁹⁵⁾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배기잠¹⁹⁶⁾을 자는데,
죽 말국¹⁹⁷⁾이 코끝에서 소주 후주¹⁹⁸⁾ 내리듯 땡강땡강¹⁹⁹⁾하것다.
홍보 마누라가 “여보, 영감. 이 돈이 웬 돈이오?
돈 속²⁰⁰⁾이나 좀 압시다.”
“이 돈 속 알면 일 낼 돈이시.²⁰¹⁾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서른 냥을 준다가에,
샅전²⁰²⁾으로 받아온 돈일세.”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두 눈이 캄캄하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여보, 영감. 중한 가장 매품 팔아 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지²⁰³⁾ 어디
가 보았소?”

Money! You rascal!
Where have you been?
Hurray! Oh boy!
Money, money, money! Look at this money.”

6. (Heungbo’s Wife Pleas.) Heungbo’s wife asks her husband not to be caned for money.

[Aniri] “Hello, honey.
Buy rice and meat with this money.
Make 10 buckets of watery meat soup.”
Each of them, the children and the adults, ate a bucket of the soup.
They feel sleepy and fall asleep quietly just where they were sitting.
Soup leaves out of the children’s noses.
Heungbo’s wife speaks, “Honey, how did you get this money?
Tell me how you got it.”
“You might cause trouble if you know the story behind it.
An influential man of this town was arrested at the military office.
If I am caned 10 times on behalf of him, I will earn 30 dollars,
3 dollars for each stroke.
I got the money in advance.”
After listening to him, Heungbo’s wife gets confounded and trembles.
“Honey, I have never heard of a case in which a family head,
a precious member, supports his family by being caned for money.”

[진양조]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아, 가지를 마오.

천불생무룩지인이요, 지부장무명지초라.²⁰⁴⁾

하늘이 무너지도 솟아날 궁기²⁰⁵⁾가 있는 법이니,

설마한들 죽사리까?²⁰⁶⁾

제발덕분에 가지 마오.

병영 영문 곤장²⁰⁷⁾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²⁰⁸⁾ 골병²⁰⁹⁾이 된답디다.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7. (병영 길) 흥보가 신세자탄을 하며 병영 길을 간다.

[아니리] 이놈의 흥보 자식들이 저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위²¹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 병영²¹¹⁾ 가십니까?”

“오냐. 병영 간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담뱃대 하나만 사다주시오.”

“야, 이 후레이들놈²¹²⁾ 같으니라구.”

또 한 놈이 나왔으며,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풍안²¹³⁾ 하나 사다주시오.”

“풍안은 무엇 하게?”

“뒷동산에 가서 나무할 때 쓰고 하면, 눈에 먼지 한 점 안 들고 참 좋답디다.”

흥보 큰아들이 나왔으며, “아이고, 아버지!”

“이 자식아, 너는 왜 또 부르느냐?”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주시오.”

[Jinyangjol] “Don’t go there.
My poor husband! Don’t go.
Each person is fated to eat something and have a job.
We have a way to survive even if heaven collapses.
I don’t believe we will starve to death.
Please don’t go.
I heard even one stroke of the military office causes an
everlasting wound.
My poor husband! Don’t go there.”

7. (On the Way to the Military Office) Heungbo goes to the military office, lamenting over his fate.

[Aniri] Heungbo’s children hear their mother’s cry.
They raise their heads like geese which hear running water.
“Father, are you going to the military office?”
“Yes, I am.”
“Please buy me some tobacco on your way back home.”
“How rude and audacious you are!”
Another speaks, “Father, please buy me protective eyeglasses on
your way back home.”
“What do you need the protective glasses for?”
“When I cut wood on a near mountain, it can protect my eyes
from dust.”
The eldest son says, “Oh, father!”
“You rascal. What do you want?”
“Please buy me my wife on your way back from the military
office.”

“각시는 무엇 하께?”

“어머니 아버지 재산 없어 날 못 여워주니,²¹⁴⁾

데리고 막걸리 장사 할라요.”

[중모레] 아침밥을 지어 먹고, 병영길을 내려간다.

허유허유²¹⁵⁾ 내려가며, 신세자탄²¹⁶⁾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영화²¹⁷⁾로 잘 시는데,

이녀르²¹⁸⁾ 팔자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병영골²¹⁹⁾을 당도하여,

쳐다보니

대장기²²⁰⁾요,

내려 굽어보니

숙정패²²¹⁾로구나.

심산 맹호 위용같은²²²⁾ 용 자 붙인²²³⁾ 군로사령²²⁴⁾이 이리 가고, 저

리 갈 제,

그 때여 박홍보는 숫한²²⁵⁾ 사람이라, 벌벌벌 떨며 서 있구나.

8. (홍보 헛걸음) 홍보가 매품을 팔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홍보 아내는 걱정하며 기다린다.

[아니리] 방울이 ‘떨렁’,

사령²²⁶⁾이 “예이!”

야단났지.

홍보가 삼문간²²⁷⁾을 들여다보니

“What do you need your wife for?”

“Poor, mother and father cannot afford to have me get married.
I will sell rice wine with her.”

[Jungmori] Heungbo eats breakfast and goes to the military office.

While walking down the road, he laments over his own fate.
“Alas! Woe is me.

Some people wer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their mouths,
living happily.

I can’t believe my fate.

I can’t believe what happens to me.”

He arrives at the military office of the village.

He looks up.

There is a commander’s flag.

He looks down.

There is a plank which says, “Be quiet.”

The guards and soldiers move around like fierce tigers and
dragons in the military office.

Heungbo, timid by nature, trembles as he stands up.

**8. (Heungbo’s Effort Comes to Nothing.) Heungbo
comes back with empty hands, while his wife waits
for him with concern.**

[Aniri] A bell jingles.

An officer says, “Yes!”

There is quite a noise.

Heungbo peeps through the main gate.

죄인이 불기²²⁸⁾를 맞거늘,
 흥보 숫한 마음에, 저와 같이 돈벌러 온 줄 알고,
 ‘저 사람들은 먼저 와 돈 수백 냥 번다.
 나도 불기를 까고 얹겨²²⁹⁾ 볼까.’
 삼문간에서 불기를 까고 얹겨노니,²³⁰⁾
 사령 한 쌍²³¹⁾이 나오더니,
 “병영 배판지이후²³²⁾에 불기전²³³⁾ 보는 놈이 생겼구나!
 아니,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 맞추었소.”
 “당신 꿏았소.”²³⁴⁾
 “아, 꿏다니? 계란이 꿏지, 사람도 꿏나?”
 “거, 박생원 대신이라고 하고 와서 곤장 열 대 맞고, 돈 서른 냥 받아
 가지고 벌써 갔소.”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마는 “아이고,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키가 구 척²³⁵⁾이요, 기운 좋습니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어젯밤 우리 마누라가 가지 마오, 못 가지요, 밤새도록 울더니마는,
 옆집 피쇠애비²³⁶⁾란 놈이 발등거리²³⁷⁾했구나.”
[중모레] “번수네들,²³⁸⁾ 그리 험가?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수번²³⁹⁾이나 평안히 하소.
 내 집이라 들어가면, 옛 달라고 우는 놈은 떡 사주마고 달래고, 떡
 달라고 우는 놈은 밥해 주마고 달랬는데,
 돈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렇저렇²⁴⁰⁾ 당도하니,

Criminals are caned on the buttocks.
Innocent, Heungbo thinks they are here to be caned for money like him.
‘Those people came ahead of me, making hundreds of dollars. Let me pull down my pants and get down.’
He exposes his buttocks and lies down.
A couple of officers come to him.
“For the first time in this military office, a man opened a butt store!”
Isn’t that Mr. Bak?”
“That’s correct.”
“Something went wrong.”
“It can’t be that I made a mistake.”
“A man took 10 strokes allegedly instead of you, got 30 dollars, and already left.”
Heungbo responds, “What did he look like?”
“He is really tall and strong.”
Heungbo speaks, “Alas! What should I do?”
My wife wept all night, telling me not to come here.
Mr. Sly living next door made a move ahead of me.”

[Jungmori] “Officers, I understand.

I am leaving. So long.

Take it easy.

Back home, I appeased a child crying for rice jelly with the promise to buy him a rice cake, and a child crying for a rice cake with the promise to give him rice.

Having no money, I can say nothing to them.”

He manages to arrive home.

**9. (홍보 아내 좋아함) 홍보가 매를 맞지 않고 돌아오자,
홍보 아내가 좋아하며 춤을 춘다.**

[아니리] 홍보 마누라가 밖을 나와 보니 홍보가 당도하거늘,

“여보 영감 얼마나 맞았소?

맞은 상처나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말어.

요망스럽게²⁴¹⁾ 계집이 밤새도록 울더니마는,

그것이 마전되어²⁴²⁾ 돈 한 푼 못 벌고,

매 한 차례를 맞았으면 인사불성²⁴³⁾ 쇠아들놈²⁴⁴⁾이여.”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좋아라, 홍보 마누라 좋아라,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영감이 엇그저께 병영 길을 떠날 때,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님전에 빌었더니,

매 아니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 아니 즐거운가?

얼씨구나 절씨구.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어어어어어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10. (홍보가 놀보집을 건너감) 홍보가 곡식을 얻으러 놀보
집으로 간다.**

[아니리] 홍보도 어찌 좋았던지 절굿대춤²⁴⁵⁾을 한번 추었겠다.

홍보 마누라가, “여보, 영감.

9. (The Joy of Heungbo's Wife) Heungbo returns home without being caned. His wife dances with joy.

[Aniri] Heungbo's wife comes outside and sees Heungbo.
"Honey, how seriously were you hit?
Let me take a look at your wounds."
"Leave me alone.
You were inconsiderate to weep all night.
Unfortunately, I failed to make money at all.
If I had been caned, I would have been an insane son of a cow."

[Jungjungmori] Heungbo's wife is joyous. She is joyful.
"Yippee! Hurray! Oh boy! Hurrah!
After you left for the military office, I prayed hard to God day
and night that you would come back without being caned.
It is great you came back without being caned.
Hurrah! Whoopee!
I am happy even if I am poorly clothed.
I am fine even if I am hungry.
Hurrah! Whoopee! Yippee! Hurrah! Whoopee! Yippee!"

10. (Heungbo Goes to Nolbo's House) Heungbo goes to Nolbo's house to get grain.

[Aniri] Heungbo is also so happy that he dances, jumping up
and coming straight down.
Heungbo's wife says, "Hello, honey."

건너 마을 시숙댁²⁴⁶)에 건너가서 죽게 된 자식들 사정을 여쭙으면,
다소간²⁴⁷) 전곡간에²⁴⁸) 줄 터이니 건너가 보오.”

“만일 건너갔다가 쌀을 주면 좋지만,
보리²⁴⁹)를 주면 어찌나?”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이 사람아. 거, 먹는 보리가 아니고, 몽둥이보리²⁵⁰) 말일세.”

“형제간에 윤기²⁵¹)가 있으매²⁵²) 그럴 리가 없으니,
건너가 보오.”

홍보가 자기 마누라 말이 옳다하고 형님댁을 건너가는데,

[자진모리]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 치레²⁵³)를 불작시면,

철대²⁵⁴) 떨어진 헌 파립²⁵⁵)

벌잇줄²⁵⁶) 총총²⁵⁷) 매어 조사갓끈²⁵⁸)을 달아 써,

떨어진 헌 망건,

갓풀관자,²⁵⁹) 종이당줄²⁶⁰) 두통나게²⁶¹) 줄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 실띠²⁶²)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조대²⁶³)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서리 아침²⁶⁴) 찬바람에 옆걸음쳐²⁶⁵) 손을 붙며, 이리 저리 건너간다.

Please go to your brother in the neighboring village and tell him our children are starving.

He will give us some grain. Please go there.”

“It would be nice if he gives me rice.

But what if he gives me barley?”

“Barley would be great too if he gives a lot of it.”

“You fool. By barley, I don’t mean the edible thing but being beaten with a stick.”

“Given there are ethical rules between brothers, he can’t beat you.

Please go there.”

Persuade by his wife, Heungbo goes over to Nolbo’s.

[Jajinmori] Heungbo goes to Nolbo’s house.

Behold Heungbo.

The frame at the edge of his old hat is broken.

His hat is fastened with a string under his chin.

His headband is old.

He fastened it tight with a leather ring and a paper string.

He tightened his old coat over his hungry belly with the belt made of thread.

He holds a tobacco pipe made of stone in one of his hands.

He holds an old fan in the other hand.

He blows on his hands in the cold, frosty, windy morning, as he goes over to Nolbo.

11. (홍보 애원) 홍보가 놀보에게 처자식이 굶고 있으니 곡 식이나 돈을 달라고 애원한다.

[아니리] 건너가다 놀보 하인 마당쇠를 만났지.

“아이고, 작은서방님²⁶⁶ 아니시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냐, 너도 잘 있었으며 큰서방님께서도 안녕하시냐?

그런데 요새 큰서방님 성질이 어떠시냐?”

“말씀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계실 적에는, 제향²⁶⁷을 모시면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호군²⁶⁸을 시키더니,

작은서방님이 가신 후로는, 제향을 모시면 대전²⁶⁹으로 바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접시에다 제육²⁷⁰이다, 편육²⁷¹이다, 모두 표지²⁷²를 써 붙여놓고
엽전을 냈다가,

닭만 올면 짝 걸어 들인대요.

그러니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엽전 한 푼 못 얻고

매만 실컷 얻어맞을 테니,

그냥 건너가십시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와서 형님을 안 뵈고 간대서야 말이 되겠느냐?
인사나 드리고 갈란다.”

홍보가 놀보 사랑채를 당도하여

대문 안을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던지,

“형님 소인놈 문안이요!”

“예, 성씨가 뉘 댁이시오?”

11. (Heungbo Implores.) Heungbo begs Nolbo for some food or money, saying that his wife and children are starving.

[Aniri] On his way, Heungbo meets a servant called Madangsoe.

“Oh, isn’t this young master?

How are you doing?”

“Good. How about you and the old master?

By the way, how is his temper these days?”

“This might sound crazy.

While you were here, he prepared a lot of food for the annual ritual and fed the villagers.

After you left, however, he offers money instead of food during the ritual.”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 puts on plates notes with the words for pork and the sliced meat of crawling animals.

He also places coins on the plates.

Once the rooster cries, he takes all of them back.

In such circumstances, if he lets you in, you will not even get a coin.

You will only be beaten.

Please go back home.”

“But I came all the way here. How can I go back without seeing him?

Let me just say hello to him.”

Heungbo arrives near the auxiliary house.

He goes through the main gate and feels scared.

“Brother, I am here to say hello to you!”

“What is your last name?”

“아이고, 형님. 홍보 동생을 모르시오?”

“나는 오대차²⁷³⁾ 독신²⁷⁴⁾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시오!”

홍보가 이 말을 듣더니마는,

[진양조] 두 손 합장²⁷⁵⁾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전에²⁷⁶⁾ 비나이다.

살려 주오. 살려 주오. 불쌍한 동생을 살려 주오.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²⁷⁷⁾가 어제 저물도록 그저 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드려니²⁷⁸⁾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²⁷⁹⁾ 있사
오니,

인명이 재천이라²⁸⁰⁾ 설마한들 죽사리까마는,²⁸¹⁾

여러 끼니를 굶사오면 하릴없이²⁸²⁾ 죽게가 되니,

형님 덕택에 살것내다.²⁸³⁾

벼가 되거든 한 섬²⁸⁴⁾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닷 말만 주시고,

돈이 되거든 닷냥만 주옵시고,

그도²⁸⁵⁾ 저도²⁸⁶⁾ 정 주기가 싫거든 이맥²⁸⁷⁾이나 싸라기²⁸⁸⁾나 양단간
에²⁸⁹⁾ 주옵시면,

죽게 된 자식을 살리겠소.

과연 내가 원통하오.

분하여서 못 살겠소.

천석꾼²⁹⁰⁾ 형님을 두고 굶어죽기가 원통합니다.

제발덕분에 살려 주오.”

“Brother, I am your younger brother, Heungbo.”

“As the only son for five generations in a row, I don’t have a younger brother.”

Heungbo responds to Nolbo’s words.

[Jinyangjo] Heungbo places his hands together and kneels down.

“I beg you. I beg you, brother.

Please help me. Please help your poor younger brother.

My wife and children didn’t eat anything yesterday or the day before yesterday.

They didn’t eat yesterday or this morning.

A human life is up to heaven, so it won’t die easily.

But my family hasn’t eaten for a long time, so they might die.

I want to save them with your help.

Please give me a little unhulled rice.

Or please give me a little hulled rice.

Or please give me some money.

If you hate to give any of those things, please give me oats or crushed rice.

Then, I can save my starving children.

I feel bitter.

I feel resentful.

It feels bitter to die when my brother is a millionaire.

Please help me.”

12. (놀보 매질) 놀보가 마당쇠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홍보를 마구 때린다.

[아니리] 과거를 짹짹 대노니 뭘 수가 없지.

“오, 이제 보니 네가 홍보놈이로구나.

거 심심하던 중에 마침 잘 왔다.

애, 마당쇠야! 대문 열고,²⁹¹⁾

아래 행랑²⁹²⁾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건목²⁹³⁾ 처²⁹⁴⁾ 내온 박달
홍두깨²⁹⁵⁾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이런 놈은 그저 복날²⁹⁶⁾ 개 잡듯 해야 하느니라.”

[자진모리] 놀보놈 거동²⁹⁷⁾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듯²⁹⁸⁾ 들고,

“네 이놈, 홍보놈아!

잘 살기 내 복이요,

못살기도 네 팔자라,

끓고 먹고 내 모른다.

벗섬²⁹⁹⁾ 주자한들,

마당의 뒤주³⁰⁰⁾ 안에 다물다물이³⁰¹⁾ 들었으니,

너 주자고 뒤주 혈며,

전곡간³⁰²⁾ 주자한들,

천록방³⁰³⁾ 금궤³⁰⁴⁾ 안에 가득가득히 관³⁰⁵⁾을 지어 떼돈³⁰⁶⁾이 들었
으니,

너 주자고 쾌돈³⁰⁷⁾ 혈며,³⁰⁸⁾

찌갱이³⁰⁹⁾ 주자한들

구진방³¹⁰⁾ 우리 안에 떼돼야지³¹¹⁾가 들었으니,

12. (Nolbo's Beating) Nolbo orders his servant to bring a club and beats Heungbo.

[Aniri] Nolbo can't push Heungbo away because of Heungbo's talk about the past.

"On closer look, you are Heungbo.

I was bored, so I am glad to see you.

Hey Madangsoe! Lock the main gate.

There is a birch stick from Jiri Mountain below the eaves of an auxiliary house in the east.

Bring it over here.

Such a villain should be hit like a dog to be eaten in midsummer."

[Jajinmori] Behold Nolbo.

He holds up a stick over his heads.

"Heungbo, you villain!

I am fated to be rich.

You are fated to be poor.

I don't care if you are starving.

I could give you some unhulled rice.

Rice is piled up in a rice chest on the yard.

How can I pull down the pile for you?

I could give you some money or gain.

My large safe is full of money in bundles in a fancy room.

How can I untie a bundle for you?

I could give you some remnants from the rice wine.

But I have a herd of pigs in a pigsty.

너 주자고 돌³¹²⁾ 굶기며,
 싸라기 주자한들,
 황계³¹³⁾ 백계³¹⁴⁾ 수백 마리가 텅텅하고,³¹⁵⁾ 꼬꼬 우니,
 너 주자고 닭 굶기랴?”
 몽둥이를 드러메고,³¹⁶⁾
 “네 이놈 강도놈!”
 좁은 골³¹⁷⁾ 벼락 치듯, 강짜 싸움³¹⁸⁾에 계집 치듯, 닭에 걸친 구렁이
 치듯, ‘후닥딱!’ ‘철퍽!’
 “아이고, 박³¹⁹⁾ 터졌소!”
 “네 이놈!”
 ‘후닥딱!’
 “아이고, 다리 부러졌소. 형님!”
 홍보가 기가 막혀, 몽둥이를 피하느라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노니 날도³²⁰⁾ 뛰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는데,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좀 살려주오!
 아이고, 형수씨! 날 좀 살려주오!”

13. (홍보 탄식) 형수에게 밥주적으로 뺨을 맞은 홍보가 통곡하며 돌아온다.

[아니래] 이려고 들어가거든,
 놀보 계집이라도 후해서 전곡간에 주었으면 좋으련마는,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심술보 하나가 더 있겠다.
 밥 푸던 주걱자루를 들고 중문³²¹⁾에 딱 붙어 섰다가,

How can I give you the remnants, letting the pigs go hungry?
 I could give you some crushed rice.
 But hundreds of yellow hens and white hens flap their wings
 and cry.
 How can I give you the crushed rice, letting the hens go
 hungry?"

Nolbo carries the cudgel on his shoulder.
 "You robber!"

Nolbo hits Heungbo as if lightning struck in valley, as if he hit
 an unfaithful wife, and as he would hit a snake on the fence.
 "Ouch! My head fell apart."

"You bastard!"

Nolbo moves fast.
 "Ouch! Brother, my legs are broken!"

Stunned, Heungbo runs here and there to avoid the club.
 With the gate locked, he can't avoid the cudgel.
 He takes the strokes.
 He is chased deep into the house.
 "Sister-in-law! Please help me.
 "Sister-in-law! Please help me."

13. (Heungbo Wails.) Heungbo wails, beaten on the cheek with a rice scoop by his sister-in-law.

[Aniri] Heungbo goes in.
 It would be nice if Nolbo's wife were generous and gave
 Heungbo some money or rice.
 But Nolbo's wife is more perverse than Nolbo.
 She stands at the middle gate, holding a rice scoop.

“아니, 여보! 아주뽀³²²⁾이고, 동아뽀³²³⁾이고 세상에 귀찮허오.
 언제 전곡을 갖다 맡겼던가?
 아나³²⁴⁾ 밥! 아나 돈! 아나 쌀!”
 하고 뽀를 때려노니,
 형님한테 맞던 것은 여반장³²⁵⁾이요,
 형수한테 뽀를 맞아노니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툭 꺼지는 듯.
[진양조] 흥보가 기가 막혀 섰던 자리에 거꾸러지며,
 “여보 형수씨! 여보, 여보, 아주머니!
 형수가 시아재³²⁶⁾ 뽀 치는 법은 고금천지³²⁷⁾ 어디 가 보았소?
 나를 이리 치지 말고,
 살지³²⁸⁾ · 중지³²⁹⁾ · 능지³³⁰⁾를 하여, 아주 박살³³¹⁾ 죽여 주오!
 아이고 하느님! 박흥보를 벼락을 때려 주면,
 염라국³³²⁾을 들어가서 부모님을 뵈옵는 날은 세세원정³³³⁾을 아뢰련
 마는,³³⁴⁾
 어이하여 못 죽는 거나?”
 매운 것 먹은 사람처럼 후후 불며, 저의 집으로 건너간다.

14. (흥보 아내 탄식) 흥보 아내가 사정을 짐작하고 울며 목을 때려 하니, 흥보가 만류하고 함께 운다.

[아니리] 그 때에 흥보 마누라는 막내둥이를 안고 밖을 나와 보니,
 먼 산 빗돌길³³⁵⁾에서 작지³³⁶⁾ 짙고 절뚝절뚝하고 오는 모양이,

“Forget I am your sister-in-law. Don’t bother me.
 Did you leave rice to us?
 Money? No way! Rice? No way!”
 She hits him on the cheek.
 His brother’s strokes were softer.
 After being hit on the cheek by his sister-in-law, he feels as if
 the sky swirls and the ground collapses.
[Jinyangjo] Astonished, Heungbo slumps down on the spot.
 “Hello, sister-in-law! Hello, sister-in-law!
 How on earth can a sister-in-law hit a brother-in-law on his
 cheek?
 Don’t hit me like this.
 Hit me with a cudgel. Tear my body apart and break my body
 into small pieces!
 Oh God! Please kill me with lightning.
 I’ll go to the world of the dead, meet my parents, and tell them
 everything.
 Please kill me.”
 Heungbo goes back to his home, blowing on his wounds.

**14. (The Lamentation of Heungbo’s Wife) Having
 guessed what had happened, Heungbo’s wife cries
 and tries to hang herself. Heungbo stops her and
 cries together with her.**

[Aniri] Meanwhile, Heungbo’s wife is outside the gate with the
 youngest son in her arms.
 Heungbo comes on the distant slope. He hobbles, holding a
 cane.

돈과 쌀을 많이 얻어오는 듯하거늘,
 흥보가 당도하니,
 “여보, 영감. 얼마나 얻었소?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말어.”
 “당신 맞았소?”
 “여보, 내 말을 들어 보오.
 형님택을 건너갔더니,
 두 양주³³⁷⁾분이 어찌 후하시든지 전곡을 한 짐 주시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요 너머 강정모퉁이³³⁸⁾에서 도적놈을 만나
 모조리 다 빼앗기고,
 매만 실컷 맞고 왔소.”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힘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모레] “그런대도 내가 알고, 저런대도 내가 아요.
 가빈에는 사헌처요,
 국난에는 사양상이라,³³⁹⁾
 내가 얼마나 의젓하면³⁴⁰⁾ 중한 가장 못 먹이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
 겠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요.”
 밖으로 우루루루루루루루루 뛰어나가
 서까래³⁴¹⁾에 목을 매고 죽기로만 작정을 하니,
 흥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대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들을 어이할
 거나?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둘이 서로 부여잡고,³⁴²⁾ 퍼버리고³⁴³⁾ 앉아서 울음을 우니,
 자식들도 모두 설리³⁴⁴⁾ 운다.

It appears he is coming with a lot of money and rice.
Heungbo arrives at his house.
“Honey, how much did you get? Let me take a look.”
“Leave me alone.”
“Were you hit?”
“Honey, listen to me.
I went to my brother’s house.
Generous, my brother and sister-in-law gave me a lot of money
and rice.
I was carrying them here.
I came across a bandit around the corner near the pavilion by
the river.
I was robbed of everything.
I was beaten up.”
After listening to him, Heungbo’s wife looks at him vacantly.
[Jungmori] “I know the truth whatever you say.
When a family is poor, people want a wise wife.
When a country is in chaos, people want a wise premier.
Because I am not wise, the precious family head is poorly-fed,
and the children are poorly-clothed.
I would rather die.”
She runs outside.
She is determined to kill herself, hanging herself on the rafter.
Heungbo runs to her.
“Hello, sweetheart. What would become of the children if you
died?
I would rather die instead of you!”
They hold each other, slump down, and cry.
The children cry plaintively too.

15. (중타령) 중 하나가 홍보 집에 와서 동냥을 청한다.

[아니리] 이리 한참 말리고 울고 야단났을 적에,
그 때에 도승³⁴⁵이 홍보를 살리려고 내려오것다.
[엇모리]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 중의 거동을 보소.
연년 묵은 중,³⁴⁶ 헐디헌³⁴⁷ 중.
다 떨어진 송낙³⁴⁸ 요리³⁴⁹ 송치고,³⁵⁰ 조리³⁵¹ 송치고, 흠뻑³⁵² 늘
러 쓰고,
노닥노닥³⁵³ 기운 장삼³⁵⁴
실띠를 띠고,
염주³⁵⁵ 목에 걸고, 단주³⁵⁶ 팔에 걸어,
소상반죽³⁵⁷의 열두 마디 용두 새김³⁵⁸ 육환장,³⁵⁹ 쇠고리 길게 달아
처절절절절 흔들흔들 흐늘거리고³⁶⁰ 내려오며,
염불³⁶¹하고 내려온다.
“아 예헤 헤 헤 으으으 나아아아,
나무아미타불³⁶² 관세음보살.³⁶³
상래소수공덕해³⁶⁴요
회향삼천실원만,³⁶⁵
봉위³⁶⁶ 주상전하수만세요,³⁶⁷
왕비전하수제년,³⁶⁸
세자전하수천추,³⁶⁹
국태민안법륜전,³⁷⁰
나무아미타불.”
홍보 문전을 당도하여,

15. (Monk Song) A Buddhist monk comes and begs for food.

[Aniri] Heungbo's family cries, creating a disturbance.

Just then, a divine monk comes down to save Heungbo.

[Eonmori] A monk comes down from a mountain.

Behold the monk.

The monk is old and in shabby clothes.

His hat is old and loosely sewed here and there. He jams his hat on.

His hemp coat is patched up in many places.

His belt is made of thread.

He wears beads on his neck and on his arm.

A dragon head is engraved on his bamboo cane of twelve joints, and six iron rings are attached to the bamboo cane.

The rings on the cane sway and make sounds, as he comes down.

He chants a prayer, as he comes down

“Oh, oh, oh!

Merciful Buddha and Goddess of Mercy.

The virtue acquired so far is as wide as a sea.

Praying for the dead makes the world peaceful.

May the king live long!

May the queen live as long as the king!

May the prince live long!

May Buddha's teachings pervade all of the people in a peaceful country!

Merciful Buddha and Goddess of Mercy.”

The monk arrives in front of Heungbo's house.

개 커경경 짓고 나니,
“이 댁에 동냥 왔소!”
홍보가 깜짝 놀라,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밖에 중이 왔으니, 우지를 마오.”

16. (도승이 집터를 잡아줌) 도승이 사정을 듣더니, 집터 하나를 잡아준다.

[아니리] 홍보가 밖을 나가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 내 집을 둘러 보오.
세 밭³⁷¹ 장대를 휘둘러대야 거칠 문적³⁷²이 없는 집이오.”
저 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결승³⁷³으로,
댁 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³⁷⁴가 나거늘, 생사가 미판³⁷⁵이라,
무슨 연고³⁷⁶가 계시오니까?”
홍보가 대답하되, “권속³⁷⁷들은 다술³⁷⁸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서 우는 길이오.”
저 중이 대답하되,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없는 것이니,
소승의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진양조] 박홍보가 좋아라고, 대사³⁷⁹ 뒤를 따라간다.
이 모룻³⁸⁰을 지내고, 저 고개를 넘어 서서
한 곳을 당도하여, 그 자리에 우뚝 서더니마는,
“이 명당³⁸¹을 알으시오?
천하지제일강산³⁸² 악양루³⁸³같은 명당이니,
이 명당에다 대강 성조³⁸⁴를 하시되,
임좌병향오문³⁸⁵으로 대강 성주를 하게 되면,

A dog barks.
“I am here to beg.”
Heungbo is surprised.
“Sweetheart, don’t cry. A monk is outside. Don’t cry.”

16. (The Monk Picks a House Site.) Hearing the story, the monk picks a lucky house site for Heungbo.

[Aniri] Heungbo goes outside and sees the monk.
“Take a look around my house.
I have nothing in my house.”
The monk responds, “I am a begging monk.
I was passing by your house when I heard the crying sound
indicating death.
Can you tell me the reason for the cry?”
Heungbo answers, “I have a lot of family members.
Having no food, we decided to die together.”
The monk replies, “How poor!
Anybody can be lucky.
If you follow me, I will pick a house site for you.”

[Jinyangjo] Joyous, Heungbo follows the monk.
The monk turns around corners and goes over a pass.
He arrives at a certain place and stands up straight.
“Do you know this is a lucky site?
This is the best site in the world.
Build a simple house on this lucky site.
Make the house face the south-southeast. Make the door to the
south.

명년³⁸⁶⁾ 팔월 십오일날은 억십만금³⁸⁷⁾ 장자³⁸⁸⁾가 되고,
 삼대 진사³⁸⁹⁾, 오대 급제,³⁹⁰⁾ 병감사³⁹¹⁾가 날 명당이 적실하니,³⁹²⁾
 그리 알고 잘 지내오.”
 한두 말을 마친 후에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고,
 손을 꼽아³⁹³⁾ 무엇을 생각터니, 인홀불견³⁹⁴⁾ 간 곳이 없다.

17. (집터 글자) 흥보가 도승이 잡아 준 집터에 집을 짓고 사는데, 봄이 돌아온다.

[아니리] 흥보가 그제야 도승³⁹⁵⁾인 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한 연후에,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다 집을 짓고 살아갈 제,
 차차 차차 살림이 나아지거늘,
 흥보가 좋아라고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본 즉,
 [중중모리] ‘겨우 동 자³⁹⁶⁾ 갈 거 자,³⁹⁷⁾
 삼월삼질³⁹⁸⁾에 올 래 자,³⁹⁹⁾
 봄 춘 자⁴⁰⁰⁾가 좋을시고.
 도화행화분분이요,⁴⁰¹⁾
 이화만지불개문⁴⁰²⁾허니
 실실 동풍의⁴⁰³⁾ 꽃 화 자.
 나비 접 자⁴⁰⁴⁾ 펼펼,
 춤출 무 자⁴⁰⁵⁾가 좋을시고.

And you will become a billionaire on August 15, next year.
Your descendents will pass state-run exams and become high
government employees.
Keep in mind what I said, and take care.”
After saying a few words, the monk moves his eyes up and
looks around.
He counts on his fingers, thinking for a moment, and suddenly
disappears.

**17. (A Word for the House Site) Heungbo lives in a
house on the site the monk picked for him. Spring
comes.**

[Aniri] Heungbo now thinks that the monk has divine power.
He bows to the sky numerous times.
He tears down his hut.
He builds a house on the site and lives in it.
His financial situation gets better.
Delighted, one day Heungbo tries to find a word for the house
site.
[Jungjungmori] ‘Winter(冬) has gone(去).
March has come(來).
Spring(春) is good.
Peach and apricot blossoms are in bloom together.
Pear blossoms fall down, but the door was not open.
A spring wind blows on blossoms(花).
A butterfly(蝶) flies.
It’s good to see it dance(舞).

피꼬리 수리루 날아 노래 가 자가 좋을시고.⁴⁰⁶⁾

기는⁴⁰⁷⁾ 건 짐승 수,⁴⁰⁸⁾

나난⁴⁰⁹⁾ 것은 새 조⁴¹⁰⁾라.

쌍쌍이 왕래허니, 제비 연 자⁴¹¹⁾가 좋다.’

18. (홍보가 제비 구원) 하루는 홍보가 다리 부러진 제비새 끼 한 마리를 구한다.

[아니리]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늘,

홍보가 좋아라고,

“반갑다, 저 제비야. 고루거각⁴¹²⁾ 다 버리고, 궁벽강촌⁴¹³⁾ 박홍보 움
막⁴¹⁴⁾을 찾아오니,

어찌 아니 기특하랴!”

수십 일만에 새끼 두 마리를 낳겠다.⁴¹⁵⁾

먼저 깐 놈은 날아가고,

나중 깐 놈이 날기 공부 힘을 쓰다 툇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렸겠다.

홍보가 명태 껍질을 얻고 당사실⁴¹⁶⁾을 구하여, 부러진 다리를 동
여⁴¹⁷⁾ 제 집에 넣어주며,

“부디 죽지 말고 살아 멀고먼 만 리 강남⁴¹⁸⁾ 부디 평안히 잘 가거라.”

미물⁴¹⁹⁾의 짐승이라도 홍보 은혜 갚을 제비거든 죽을 리가 있으리오?

수십 일만에 부러진 다리가 나아 날기 공부 힘을 쓰는데,

[진양조] 떴다, 보아라.

저 제비가 둥그렇게 둥그렇게 구만 장천⁴²⁰⁾에 높이 떠,

거중⁴²¹⁾으로 둥둥, 펄펄 날거늘,

A nightingale flies and sings a pleasant song(歌).
A beast(獸) crawls.
A bird(禽) flies.
It is good that swallows(燕) come in pairs.'

18. (Heungbo Saves a Swallow.) One day Heungbo saves a swallow whose legs were broken.

[Aniri] One day, a couple of swallows come to Heungbo's house.

Heungbo is delighted.

"Welcome, my swallows. You rejected good houses and build a nest in my hut in the remote region.

How commendable you are!"

In several days, the swallows have two baby swallows.

The first baby swallow flies away.

The second baby swallow falls down while practicing flying, and breaks its legs.

Heungbo wraps the legs with a pollack's skin and a silk thread, and puts the swallow back in the nest.

"Please survive and fly safely to Jiangnan(江南)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wallow is a mere animal, but it is to return Heungbo's favor. How can it die?

In several days, the broken legs are healed, and the swallow practices flying.

[Jinyangjo] Look. The swallow took off.

The swallow makes a circle high in the sky.

It flies around in the sky powerfully.

홍보가 보고서 좋아라고,
 “반갑구나, 내 제비야.
 부러진 다리를 원망을 말아라.
 고적의⁴²² 손빈⁴²³이도 양족⁴²⁴이 없었으되 제나라⁴²⁵ 가서 대장이
 되고,
 초한 적⁴²⁶ 한신⁴²⁷이도 일지수가 없었으되,⁴²⁸ 대장단⁴²⁹ 높이 앉
 아 일군개경⁴³⁰을 하였으니,
 멀고먼 만 리 강남을 부디 평안히 잘 가거라.”
 제비 저도 섭섭하여라고
 빨랫줄에 가 내려앉더니마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구만장천⁴³¹에 높이 떠서
 이리저리 노니는⁴³² 거동은 아름답고 반가워라.
 “잘 가거라, 내 제비야.”
 만 리 강남을 훨훨 날아 들어간다.

19. (제비 점고) 강남으로 간 제비는 제비 왕에게 홍보가 구해준 사연을 알리고,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한다.

[아니리] 강남 두견은 조종지망제라⁴³³
 백조⁴³⁴들이 점고⁴³⁵를 하는데,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중원⁴³⁶ 나갔던 명매기.⁴³⁷
 만 리 조선⁴³⁸ 나갔던 홍보제비!”

Heungbo is pleased.
 "I am happy, my swallow.
 Don't feel bitter about your broken legs.
 Sun Pin(孫臏) didn't have legs, but he became the commander-
 in-chief of Qi(齊) Country.
 Han Xin(韓信) lost his arm, but he became the commander-
 in-chief to the surprise of the troops.
 Have a safe trip to Jiangnan(江南) far from here."
 The swallow also feels sad.
 It sits down on a clothesline.
 It says something and flies high in the sky.
 The way it flies around is beautiful and pleasing.
 "So long, my swallow."
 The swallow flies into Jiangnan(江南) far from here.

**19. (Inspection of Swallows) The swallow flies to
 Jiangnan(江南). He tells the king of the birds that
 Heungbo saved him, and that he wants to return
 his favor.**

[Aniri] In Jiangnan(江南), a cuckoo is the king of the birds.
 He inspects all sorts of birds.
 "The pink swallow who has been to the US!
 The green swallow who has been to Germany!
 The swift who has been to China.
 Heungbo's swallow who has been to Korea thousands of miles
 away!"

“나오!”

[중중모리]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붕통아지가 저서⁴³⁹⁾ 전동거리고⁴⁴⁰⁾ 들어와,
“예!”

제비 장수 호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붕통아지가 졌노?”

흥보 제비 여짜오되, “소조⁴⁴¹⁾가 아뢰리다.⁴⁴²⁾ 소조가 아뢰리다.

만 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 운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대번에⁴⁴³⁾ 다리가 찢깁⁴⁴⁴⁾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소리까?⁴⁴⁵⁾

제발 덕분에 통촉⁴⁴⁶⁾하오.”

20. (제비 노정기) 다음해 봄이 되자, 제비가 보은포 박씨를 입에 물고 흥보 집을 찾아온다.

[아니리] “글쎄, 그러기에 너의 부모가 내 영⁴⁴⁷⁾을 여기더니, 그런
변⁴⁴⁸⁾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⁴⁴⁹⁾에 나갈 적에 출행⁴⁵⁰⁾ 날짜를 내가 받아줄 터이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⁴⁵¹⁾이 다 지나고 춘삼월⁴⁵²⁾이 방장커늘,⁴⁵³⁾

흥보제비 보은포⁴⁵⁴⁾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만 리 조선을 나가는데,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중중모리] 흑운⁴⁵⁵⁾ 박차고,⁴⁵⁶⁾ 백운 무릅쓰고,

"I am here!"

[Jungjungmori] Heungbo's swallow comes in. He comes in.
The broken legs are out of shape, so he hobbles in unsteadily.
"Yes!"

The swallow general asks, "You rascal! Why are your legs swollen?"

Heungbo's swallow answers, "Let me tell you, sir. Let me tell you.

I was born in Korea thousands of miles away.

Unfortunately, I fell down.

I broke my legs, putting myself near death.

Heungbo, a virtuous man, saved my life.

How can I return his favor?

Please be considerate of my wish."

20. (Swallow's Journey) In the following spring, the swallow brings a favor-returning gourd seed to Heungbo.

[Aniri] "Your parents disobeyed my order, so you got into the disaster.

Next spring, I will choose a departure date for you.

Leave here on that date without fail."

Winter goes, and spring has come.

Heungbo's swallow holds the gourd seed in its mouth and heads to Korea.

It comes to Korea as follows:

[Jungjungmori] The swallow passes through black and white clouds.

거중에⁴⁵⁷⁾ 등등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⁴⁵⁸⁾ 지척이요,⁴⁵⁹⁾
 동해 창망⁴⁶⁰⁾하구나.
 축융봉⁴⁶¹⁾을 올라가니
 주작⁴⁶²⁾이 넘는 듯.⁴⁶³⁾
 황우토 · 황우탄⁴⁶⁴⁾ · 오작교⁴⁶⁵⁾ 바라보니,
 오초동남⁴⁶⁶⁾ 가는 배는 북을 등등 울리며
 어기야 어야 저어가니, 원포귀범⁴⁶⁷⁾이 이 아니냐.
 수벽사명양안태
 불승청원각비래라.⁴⁶⁸⁾
 날아오는 저 기리기 갈대를 입에 물고,
 일점 이점⁴⁶⁹⁾ 떨어지니 평사낙안⁴⁷⁰⁾이 이 아니냐.
 백구⁴⁷¹⁾ · 백로⁴⁷²⁾ 짝을 지어 창과상⁴⁷³⁾에 왕래하니,
 석양춘⁴⁷⁴⁾이 거기노라.⁴⁷⁵⁾
 회안봉⁴⁷⁶⁾을 넘어 황릉묘⁴⁷⁷⁾ 들어가,
 이십오현탄야월⁴⁷⁸⁾의
 반죽⁴⁷⁹⁾가지 쉬어 앉아
 두견성⁴⁸⁰⁾을 화답⁴⁸¹⁾하고,
 봉황대⁴⁸²⁾ 올라가니
 봉거대공강자류,⁴⁸³⁾
 황학루⁴⁸⁴⁾를 올라가니
 황학일거불부반
 백운천재공유유라.⁴⁸⁵⁾
 금릉⁴⁸⁶⁾을 지내어
 주사춘⁴⁸⁷⁾ 들어가,
 공숙창외도리개⁴⁸⁸⁾라.

It flies high in the sky and looks around.
 Xishu(西蜀) is close.
 The East Sea is far away.
 The swallow flies over Zhurong(祝融) Mountain Peak,
 as if a red phoenix flies up and down there.
 The swallow gazes at the Wuqu(烏鵲) Bridge on Huangniu(黃牛)
 River.
 A boat heads to Wu(吳) Country in the east and Chu(楚) Country
 in the south, while drumming.
 Yo-heave-ho. It is a fishing boat coming back to port from the
 sea.
 Moss is on both banks near blue water and shiny sand.
 A bird overpowered by grief comes back.
 Wild geese fly, holding reeds in their mouths.
 They landed down on a flat sandy plain one by one.
 Sea gulls and white herons move back and forth in pairs on the
 surface of blue water.
 The sun sets now in this village.
 The swallow passes over Huiyan(回雁) Mountain Peak and
 reaches Huangling(皇陵) Tomb.
 A lute with 25 strings is played.
 The swallow takes a rest on a bamboo branch.
 He responds favorably to a cuckoo's song.
 The swallow flies up to Fenghuang(鳳凰) Tower.
 The phoenix left a tower below which a river flows.
 The swallow flies up to Huanghe(黃鶴) Tower.
 The yellow crane has gone and never comes back.
 Only white clouds have been floating for a thousand years.
 The swallow passes over Nanjing(南京).
 It arrives at a village with a tavern.
 Peach flowers and plum flowers bloomed, exciting a sexual
 desire.

낙매화를 툇 차 무연에 펄렁 떨어치고,⁴⁸⁹⁾
 이수⁴⁹⁰⁾를 지내어 계명산⁴⁹¹⁾을 올라,
 장자방⁴⁹²⁾은 간 곳 없고,
 남병산⁴⁹³⁾ 올라가니 칠성단⁴⁹⁴⁾이 빈 터요,
 연조지간⁴⁹⁵⁾을 지내어,
 장성⁴⁹⁶⁾을 지내어, 갈석산⁴⁹⁷⁾을 넘어
 연경⁴⁹⁸⁾을 들어가 황극전⁴⁹⁹⁾에 올라 앉아 만호장안⁵⁰⁰⁾ 구경하고,
 정양문⁵⁰¹⁾ 내달아, 상달문⁵⁰²⁾ 지내
 봉관⁵⁰³⁾을 들어가니, 살 · 미륵⁵⁰⁴⁾이 백이로다.⁵⁰⁵⁾
 요동 칠백 리를 순숙히⁵⁰⁶⁾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영고탑,⁵⁰⁷⁾ 통군정⁵⁰⁸⁾ 올라앉아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 뱀남산⁵⁰⁹⁾ · 석벽강⁵¹⁰⁾ · 용천강⁵¹¹⁾ · 좌호령⁵¹²⁾을 넘어,
 부산 파발⁵¹³⁾ · 환마고개⁵¹⁴⁾ · 강동다리⁵¹⁵⁾ 건너,
 평양의 연광정⁵¹⁶⁾ · 부벽루⁵¹⁷⁾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림⁵¹⁸⁾을 지내,
 송도⁵¹⁹⁾로 들어가
 만월대⁵²⁰⁾ · 관덕정⁵²¹⁾ · 박연폭포⁵²²⁾를 구경하고,
 임진강을 시각에⁵²³⁾ 건너,
 삼각산⁵²⁴⁾에 올라 앉아

The swallow snatches a falling ume flower and throws it to a dancing party.

The swallow flies over Zhongnan(終南) Mountain, Ershui(二水) River, and Jiming(鷄鳴) Mountain.

Zhang Zifang(張子房) is gone.

The swallow flies up to Nanping(南屏) Mountain where there is an altar site.

The swallow flies in between Yan(燕) Country and Qi(齊) Country.

The swallow passes over the Great Wall and Jieshi(碣石) Mountain.

It flies to the emperor's office in Beijing and sees the numerous houses in the city.

It gets out of the city vigorously through the big gates.

It arrives at a region where there are many Buddhist statues.

The swallow passes through the wide region, Liaodong(遼東), in a breath.

The swallow crosses Amnok River and arrives at Euiju City.

It goes over a tower and sits on a pavilion, looking around.

The swallow flies over mountains, rivers, and passes on the left and right.

The swallow moves over a busy pass and a bridge.

The swallow watches Yeongwang Pavilion and Bubyek Tower in Pyeongyang City.

The swallow now passes by a place called Jangnim by Daedong River.

The swallow now enters Gaeseong.

It sees Manweol Pavilion, Gwandeok Pavilion, Seonjuk Bridge, and Bagyeon Waterfall.

The swallow now crosses Imjin River quickly.

The swallow arrives at Bukhan Mountain.

지세⁵²⁵)를 살펴보니,
 천룡⁵²⁶)의 대원맥⁵²⁷)이 중령⁵²⁸)으로 흘러져,⁵²⁹)
 금화⁵³⁰) · 금성⁵³¹) 분계⁵³²)하고, 춘당⁵³³) · 영춘⁵³⁴)이 휘돌아 도
 봉⁵³⁵) · 망월대⁵³⁶) 솟아 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⁵³⁷)
 풍속이 회회하여⁵³⁸)
 만만세지금탕⁵³⁹)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 함양 두 얼품에⁵⁴⁰) 홍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거중에 둥둥 높이 떠,
 남대문 밖 썩⁵⁴¹) 내달아
 칠패⁵⁴²) · 팔패⁵⁴³) · 배다리⁵⁴⁴) 지나, 애고개⁵⁴⁵)를 얼른 넘어
 동작강⁵⁴⁶)을 월강,⁵⁴⁷) 승방⁵⁴⁸)을 지내어,
 남태령⁵⁴⁹) 고개 넘어,
 두 쪽지⁵⁵⁰) 옆에 끼고
 거중에 둥둥 높이 떠,
 홍보 집을 당도, 안으로 펄펄 날아들 제,
 들보⁵⁵¹) 위에 올라 앉아 제비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요,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포지 내지배요,⁵⁵²) 빼드드드드.”⁵⁵³)
 홍보가 보고서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It investigates the geographical features.
 The central energy that produces lucky sites flows through half
 of the mountain range.
 It splits into two courses, getting around a pavilion and a gate,
 and producing mountains and mountain peaks.
 Things are shiny.
 Social customs are good.
 This place is a fortress.
 Hamyang is in Gyeongsang Province.
 Unbong is in Jeolla Province.
 Heungbo lives in a region where the two places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Behold how the swallow moves.
 It flies high in the sky with the gourd seed in its mouth.
 It flies through South Gate in Seoul.
 It quickly goes over streets, Bae Bridge, and Ae Pass in Seoul.
 It crosses a branch of the Han River and passes by a Buddhist
 temple.
 It goes over a pass near Seoul.
 It opens its wings wide.
 It flies high in the sky.
 It arrives at Heungbo's house and flies in fast.
 It sits on a crossbeam and speaks the swallow language.
 "Do you remember me, master?
 I left, came back, and say hello to you.
 I fell down and broke my legs.
 I brought you a gourd seed to return the favor of taking treating
 my legs."
 Heungbo is pleased.
 "Welcome, my swallow.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당상당하 비거비래⁵⁵⁴⁾

편편히⁵⁵⁵⁾ 노는 거동은 무엇을 같다고 이르랴?

북해 흑룡⁵⁵⁶⁾이 여의주⁵⁵⁷⁾를 물고 채운간⁵⁵⁸⁾으로 넘논⁵⁵⁹⁾ 듯,

단산⁵⁶⁰⁾ 봉황이 죽실⁵⁶¹⁾을 물고 오동 속으로 넘논 듯,

유곡 청학⁵⁶²⁾이 난초를 물고 송백간⁵⁶³⁾으로 넘논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 제,

홍보가 보고 고이⁵⁶⁴⁾ 여겨 찬찬히⁵⁶⁵⁾ 살펴보니,

절골양각⁵⁶⁶⁾이 완연.⁵⁶⁷⁾

“오색 당사⁵⁶⁸⁾로 감은 흔적이 아리롱아리롱하니⁵⁶⁹⁾

어찌 아니가 내 제비?”

저 제비 거동을 보아.

보은포⁵⁷⁰⁾ 박씨를 입에다 물고 이리저리 넘놀다,

홍보 양주⁵⁷¹⁾ 앞은 앞에 ‘뚝 떼그르르르’⁵⁷²⁾ 떨어버리고⁵⁷³⁾ 백운

간⁵⁷⁴⁾으로 날아간다.

21. (가난타령) 추석이 다가와도 먹을 것이 없자, 홍보 아내 가 가난타령을 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홍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 들고,

“여보, 영감! 제비가 연실⁵⁷⁵⁾을 물고 왔소.”

홍보가 보더니, “그게 연실이 아니라 박씨로세.”

동편 처마 끝에 심었더니,

Where have you been?
 The swallow moves up and down the eaves.
 It seems to have fun. How can it be described?
 It looks as if a black dragon of a northern sea flies up and down
 the colorful clouds with a divine pearl in its mouth.
 It looks like a phoenix of Danshan(丹山) Mountain of red sand
 flying to and from a paulownia tree with a bamboo seed in its
 mouth.
 It looks like a blue crane of a deep valley moving between a
 pine and a fir tree with an orchid in its mouth.”
 The swallow flies into the house.
 Heungbo, puzzled, takes a close look at it.
 It is clear that the two legs were broken.
 “The traces of the legs which were wrapped with silk thread can
 be seen.
 You must be my swallow.”
 Behold how the swallow moves.
 It moves around, holding the gourd seed in its mouth
 It throws the gourd seed in front of Heungbo and his wife, and
 flies away between white clouds.

**21. (Poverty Song) Thanksgiving Day comes. Having
 no food, Heungbo's wife laments and sings the
 poverty song.**

[Aniri] Heungbo's wife picks up the gourd seed.
 “Honey, the swallow brought us a lotus seed.”
 Heungbo looks at it. “It is not a lotus seed but a gourd seed.”
 He plants it below the east eaves.

수십 일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겠다.

팔월 추석은 당하고⁵⁷⁶⁾ 먹을 것이 없어,

홍보 마누라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타령으로 우는데,

[중모레]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르⁵⁷⁷⁾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어이하면은 잘 타는고?

복두칠성님⁵⁷⁸⁾이 복 마련을 하시는가?

삼신 제왕님⁵⁷⁹⁾이 쪼자리에 떨어칠 적에⁵⁸⁰⁾ 명⁵⁸¹⁾과 수복⁵⁸²⁾을 짐
지⁵⁸³⁾하느냐?

몹쓸녀르⁵⁸⁴⁾ 팔자로다.

이년의 신세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 일이란 말이냐?”

퍼버리고⁵⁸⁵⁾ 앉아서 설리 운다.

22. (첫째 박) 홍보 내외가 첫째 박을 타면서 밥이 나오기를 빈다.

[아니레]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올지만 말고,

저기 저 지붕 위의 박을 따다가 타서,⁵⁸⁶⁾ 박숙⁵⁸⁷⁾은 끓여 먹고, 바가
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홍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먼저 한 통을 들여다 타는데,

[진양조] “시르르르르릉⁵⁸⁸⁾ 실건,⁵⁸⁹⁾ 당겨 주소. 예여루 당겨 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은 아무 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의 포한⁵⁹⁰⁾이로구나.”

“예여루, 당기여라, 톱질이야.”

In several days, three gourds sprout.
Thanksgiving Day comes, but Heungbo's family has no food
Heungbo's wife sings the poverty song in tears with her children.

[Jungmori] "Poverty! Poverty! Evil poverty!
How can one be born with a good fate?
Does good luck come from the Big Dipper?
Or does the goddess governing childbirth determine our fate
when we come to the world?
How bad my fate is!
I can't believe my fate. I can't believe what happens to me."
She weeps sadly, slumping to the ground.

22. (First Gourd) Heungbo and his wife saw the first gourd, wishing that rice comes out.

[Aniri] Heungbo comes in.
"Sweetheart, stop crying.
Let's bring the gourds from the roof over here, cook the inside
flesh, sell the shell to the rich, and save the children."
Heungbo picks the three gourds.
He brings a gourd and saws it.
[Jinyangjo] "Move the saw back and forth. Pull and push the
saw."
"I hope when this gourd is sawn open, nothing but a bucket
of rice comes out!
Rice is what I earnestly wished for throughout my life."
"Pull the saw. Here goes the saw."

여보게, 마누라. 툽소리⁵⁹¹⁾를 어서 맞소.”⁵⁹²⁾

“툽소리를 내가 맞자고 한들, 배가 고파서 못 맞겼소.”

“배가 정 고프거들랑은 허리띠를 졸라를 매소.”

“에여루, 당겨 주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자식은 나한테로⁵⁹³⁾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속일랑 끓여먹고,

바가질랑은 부잣집에다 팔아다가 목숨 보명⁵⁹⁴⁾ 살아나세.”

“당겨 주소.”

“강상에⁵⁹⁵⁾ 뗏는 배가 수천 석⁵⁹⁶⁾을 제가 싣고 간들, 저희만 좋았지
내 박 한 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시르르르르르르링 실건 시르러어어어어영 시르렁 시르렁 실건 당
기어라, 툽질이야.”

[휘모리]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식 삭 톱 캐.

23. (쌀과 돈이 많이 나옴) 박 속에서 쌀과 돈이 들어있는 괘짝 두 개가 나오는데, 아무리 부어도 도로 가득해진다.

[아니리] 박을 딱 쪼개노니, 박속은 텅.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⁵⁹⁷⁾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다 가져가고, 난데없는 웬 조상께⁵⁹⁸⁾를 갖다
왔네, 요.

홍보 마누라가, “여보 영감, 한번 일어나 봅시다.”

“글쎄,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은 좋지마는

“Hello, darling. Lead the saw song.”

“I am too hungry to lead the saw song.”

“If you are that hungry, tighten your belt.”

“Pull the saw.”

“The second son, go away.

The first son, come here.

When this gourd is sawn open, let’s cook the flesh inside.

Let’s sell the shell to the rich and live on.”

“Pull the saw.”

“People are delighted to see a ship with tons of rice on a river.

But can it exceed my gourd?”

“Move the saw back and forth so that it makes sounds. Pull and push the saw.”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23. (A Lot of Rice and Money Come Out.) A rice box
and a money box come out of the gourd. They get
refilled no matter how much is taken out.**

[Aniri] The gourd is cut open, but it seems to be empty.

“For an unlucky person, even a good start leads to a bad end.
Somebody has eaten the flesh of the gourd and put coffers for
his ancestral tablets here.

Heungbo’s wife speaks, “Honey, let’s open them.”

“It would be all right if good things come out.

곳은⁵⁹⁹) 것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여튼 한번 열어나 봅시다.”

홍보가 자기 마누라 말을 듣고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

또 한 께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뜩.

홍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비워 떨어내는데,

[휘모리]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궀 두 짝을 떨어 붓고 나면 도로 수북.

톡톡 떨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뜩,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과 도로 가뜩.

“아이고, 좋아 죽겠다!

일 년 삼백육십일을 그저 꾸여어어어어어억 꾸여어어어어억 나오너라.”

24. (돈타령) 홍보가 돈 한 궀미를 들고 돈타령을 한다.

[아니리] 어찌 떨어 부어났던지, 쌀이 일만 구만 석⁶⁰⁰)이요, 돈이 일만
구만 냥⁶⁰¹)이라.

홍보가 좋아라고,

What if bad things come out?"

"Whatever. Let's open them."

Persuaded by his wife, Heungbo opens them.

One is full of rice.

The other is filled with money.

Ecstatic, Heungbo shakes things out of the boxes.

[Hwimori] Heungbo is joyous and pleased.

He pours things out of the two boxes, and they get refilled.

He shakes things out, turns around, and sees the boxes refilled.

He turns around and sees the boxes full of money and rice.

He turns around and sees the boxes refilled.

He turns around and sees the boxes refilled with money and rice.

He turns around and sees the boxes refilled.

He turns around and sees the boxes refilled with money and rice.

He turns around and sees the boxes refilled.

He turns around and sees the boxes refilled with money and rice.

"This is fantastic!

Come out continuously 365 days a year."

24. (Money Song) Heungbo sings the money song, holding a string of coins.

[Aniri] Heungbo poured out so much rice and money that they are piled up like mountains.

Heungbo is happy.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오그러.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절굿대춤⁽⁶⁰²⁾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홍보가 돈 한 쾌⁽⁶⁰³⁾를 들고 노는데,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바라. 돈 바라.

잘난 사람도 못한 돈. 못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⁶⁰⁴⁾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권⁽⁶⁰⁵⁾을 가진 돈,

부귀공명⁽⁶⁰⁶⁾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아라, 큰자식아.

건넌말⁽⁶⁰⁷⁾ 건너가서, 너의 백부님⁽⁶⁰⁸⁾을 오시래라.

경사⁽⁶⁰⁹⁾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⁶¹⁰⁾를 말고,

가난타고 한⁽⁶¹¹⁾을 마소.

엇그저께까지 박홍보가 문전걸식⁽⁶¹²⁾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석숭⁽⁶¹³⁾이를 부러워하며, 도주공⁽⁶¹⁴⁾을 내가 부러워하리?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Honey, since the money and rice are piled up like this, I feel full even if I don’t eat.
Let’s have some fun, dancing.”
“I don’t know how to dance.”
“Just move up and down.”
Heungbo enjoys himself, holding a string of coins.

[Jungjungmori] “Yippee! Hurray! Oh boy! Hurrah!
Look at this money.
People want money whether they are rich or poor.
Money is round like a wheel of a cart.
It can make a person live or die.
Money accompanies honor and wealth.
Money, you rascal!
Where have you been?
Whoopee! Yippee!
Look, my eldest son!
Go to the neighboring village and bring your uncle here.
A happy event should be shared between brothers.
Yippee! Hurray! Oh boy!
Hello, folks! Listen to me.
Don’t act arrogantly because you are rich.
Don’t feel bitter because you are poor.
I was a beggar up until yesterday.
I became rich today.
I don’t envy ancient billionaires.
This is fantastic.

얼씨구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홍보를 찾아 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줄란다.⁶¹⁵⁾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절씨구.”

25. (둘째 박) 홍보가 둘째 박을 타다가, 은금보화가 나오면 형님을 주겠다고 하며 마누라에게 형제 윤리를 이른다.

[아니리] 한참 이렇게 놀더니,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니,

저 박을 또 한번 타봅시다.

그 박통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나 보게.”

홍보가 또 한 통을 갖다놓고 타는데,

[진양조] “시르르렁 실건, 당겨주소. 예여루, 당겨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은 아무 것도 나오지를 말고, 은금보화⁶¹⁶⁾만 나오
너라!

은금보화가 나오게 되면, 형님 갖다가 드릴란다.”

홍보 마누라 기가 막혀,

“나는, 나는 안 탈랴요.

여보, 영감, 형제간이라 잊었소?

엄동설한⁶¹⁷⁾ 추운 날에, 구박을 당하여⁶¹⁸⁾ 나오던 일을 꼭 속에 들어
가도⁶¹⁹⁾ 못 잊었소.”

홍보가 화를 내며,

“갑갑허구나, 이 사람아.

Whoopee! Yippee!
Poor and pitiful people, come to my house!
I'll give out food to starving people from now on.
Hurrah! Whoopee! Yippee! Hurray! Oh boy! Hurrah! Yippee!"

**25. (Second Gourd) While sawing the second gourd,
Heungbo says that if jewels come out, he'll give
them to his brother, and talks about ethical rules
between brothers.**

[Aniri] Heungbo enjoys himself for a while.
"Hello, honey. A lot of rice and money came out of this gourd.
Let's saw that gourd.
Let's see what comes out of it."
Heungbo brings another gourd and saws it.

[Jinyangjo] "Move the saw back and forth. Pull and push the
saw."
"I hope when this gourd is sawn open, nothing comes out
except jewels!
If they come out, I'll give them to my brother."
Heungbo's wife is angry.
"I don't want to saw the gourd anymore.
Did you forget all because he is your brother?
Even when I'm dead and buried, I won't forget how we were
kicked out of his house on that cold day in winter."
Heungbo goes berserk.
"What a narrow-minded woman!"

계집은 상하 의복이요,
 형제는 일신수족⁶²⁰이라,
 의복은 떨어지면 해 입기가 쉽거니와,
 형제 일신수족은 아차 한번 뚝 떨어지면, 다시 잇지를 못하는 법이라.”
 “시르르르르렁 실건, 시르러어어어어영 시르렁, 시르렁 실건, 당기
 어라, 툭질이야.”
 [휘모리]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식 삭 툭 책.

26. (비단 타령) 둘째 박 속에서 온갖 비단이 나온다.

[아니리] 박을 딱 쪼개노니,
 이 박통 속에서는 온갖 비단이 나오던 것이었다.
 [중중모리]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요간부상삼백척⁶²¹ 번뜻 떴다 일광단,⁶²²
 고소대⁶²³ 악양루⁶²⁴의 적선아미가 월광단,⁶²⁵
 서왕모⁶²⁶ 요지연⁶²⁷의 진상하던⁶²⁸ 천도문,⁶²⁹
 천하 구주⁶³⁰ 산천초목⁶³¹ 그려내던 지도문,⁶³²
 등태산소천하⁶³³의 공부자⁶³⁴의 대단,⁶³⁵
 남양 초당⁶³⁶의 경⁶³⁷ 좋은 데 천하 영웅 와룡단,⁶³⁸
 사해⁶³⁹가 분분⁶⁴⁰ 요란하니 뇌고함성⁶⁴¹의 영초단,⁶⁴²

A woman is like a piece of clothing.
 A brother is like a hand or a leg.
 If clothes get old, we can mend them.
 If a hand or a leg is cut off, we can't connect it with our body."
 "Move the saw back and forth so that it makes sounds. Pull and
 push the saw."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26. (Silk Song) All sorts of silk come out of the second gourd.

[Aniri] The gourd is sawn open.
 All sorts of silk come out of the gourd.
[Jungjungmori] All sorts of silk come out. They come out.
 The sunlight silk: The sun rises in a high place, casting long sunbeams.
 The moonlight silk: The moon is over Gu Su(姑蘇) Pavilion and Yue Yang(岳陽) Tower
 The divine peach silk is associated with a story that a divine peach is offered to an ancient goddess, Xi Wang Mu(西王母), during the party by a divine pond, Yaochi(瑤池).
 The map silk: There are mountains, rivers, grass, and trees in the world.
 Confucius wearing a silk said on Tai(泰) Mountain that the world looks small.
 Kong Ming(孔明) silk was worn by the hero, Kong Ming(孔明), who lived in a thatched house in a beautiful scenery.
 The loud silk: The world is chaotic and noisy.

풍진⁽⁶⁴³⁾을 시르르르르 그치니 태평건곤⁽⁶⁴⁴⁾ 대원단,⁽⁶⁴⁵⁾
 염불타령⁽⁶⁴⁶⁾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⁶⁴⁷⁾
 큰방⁽⁶⁴⁸⁾ · 골방⁽⁶⁴⁹⁾ · 가로단이⁽⁶⁵⁰⁾ 국화 새김 완자문,⁽⁶⁵¹⁾
 초당전⁽⁶⁵²⁾ 화계상⁽⁶⁵³⁾의 머루 · 다래 · 포도문,⁽⁶⁵⁴⁾
 화란춘성⁽⁶⁵⁵⁾ 만화방창⁽⁶⁵⁶⁾ 봉접⁽⁶⁵⁷⁾ 분분⁽⁶⁵⁸⁾의 화초단,⁽⁶⁵⁹⁾
 꽃수풀 곁가지에 얼크러졌다 년출문,⁽⁶⁶⁰⁾
 통영칠⁽⁶⁶¹⁾ 대모반⁽⁶⁶²⁾의 안성 유기⁽⁶⁶³⁾ 대접문,⁽⁶⁶⁴⁾
 강구연월⁽⁶⁶⁵⁾ 격양가⁽⁶⁶⁶⁾의 배부르다 함포단,⁽⁶⁶⁷⁾
 알뜰 사랑 정든 님이 나를 버리고 가져주,⁽⁶⁶⁸⁾
 두 손길⁽⁶⁶⁹⁾ 덩벽⁽⁶⁷⁰⁾ 잡고 가지 말라 도리불수,⁽⁶⁷¹⁾
 임 보내고 홀로 앉아 독수공방⁽⁶⁷²⁾의 상사단,⁽⁶⁷³⁾
 추월⁽⁶⁷⁴⁾ 적막 공단⁽⁶⁷⁵⁾이요,
 심산궁곡⁽⁶⁷⁶⁾ 송림간⁽⁶⁷⁷⁾의 무섭다 호피단,⁽⁶⁷⁸⁾
 쓰기 좋은 양태문,⁽⁶⁷⁹⁾
 인정 있는 은조사,⁽⁶⁸⁰⁾
 부귀다남⁽⁶⁸¹⁾ 복수단,⁽⁶⁸²⁾
 포식⁽⁶⁸³⁾ 과객⁽⁶⁸⁴⁾의 궁초단,⁽⁶⁸⁵⁾
 행실 부족의 피초단,⁽⁶⁸⁶⁾
 절개 있는 송죽단,⁽⁶⁸⁷⁾
 서부령섭적⁽⁶⁸⁸⁾ 세발랑능,⁽⁶⁸⁹⁾
 노방주,⁽⁶⁹⁰⁾ 청사⁽⁶⁹¹⁾ · 홍사⁽⁶⁹²⁾ · 통견⁽⁶⁹³⁾이며,

The hope silk: The world became peaceful after a war.
 A rhythm silk: It is good to dance in accordance with a prayer.
 The chrysanthemum silk: A small room is attached to a large room with a sliding window.
 The grape silk: Wild grapes are in the garden in front of a small cottage near a main building.
 The flower silk: Flowers bloom and living things grow up in spring, while bees and butterflies move around.
 A picture of tangled vines: There are flowers, grass, and branches.
 The silk of round figure: There are a small lacquerware meal table decorated with golden seashell from Tongyeong and fancy brassware from Anseong.
 The full-belly silk: An old man sings a happy song on the street.
 The parting silk: My longtime love leaves.
 The trinket silk: A woman grabs a man's hands swiftly to stop him from leaving.
 The love silk: A woman is alone in an empty room after her love is gone.
 The thick plain silk: The moon is quiet in fall.
 The tiger skin silk: There is a fearful tiger between pine trees on a high mountain and a deep valley.
 Fine silk is useful for making a hat string.
 A thin Chinese silk is associated with compassion.
 Good luck and life silk signifies wealth and many sons.
 A sort of thin silk is related to a full traveler.
 A kind of silk reminds us of mediocrity of mind.
 Pine and bamboo silk represents integrity.
 A kind of thin silk moves gracefully.
 A Chinese silk thread, a blue thread, a red thread, thin silk for a ponytail ribbon,

백랑능,⁶⁹⁴ 흑랑능,⁶⁹⁵
 월하사주,⁶⁹⁶ 당포,⁶⁹⁷
 윤포,⁶⁹⁸ 세양포,⁶⁹⁹
 수주,⁷⁰⁰ 통의주,⁷⁰¹
 경상도 황저포,⁷⁰² 매매 홍정⁷⁰³의 감사⁷⁰⁴로다.
 해주, 원주, 공주, 옥구, 나주, 길주, 명천 세마포,⁷⁰⁵
 강진 나주 극상 세목⁷⁰⁶이며,
 한산 세모시,⁷⁰⁷ 생초,⁷⁰⁸ 삼팔,⁷⁰⁹
 갑주,⁷¹⁰ 고사,⁷¹¹ 관사,⁷¹²
 청공단⁷¹³ 홍공단⁷¹⁴ 백공단⁷¹⁵ 흑공단,⁷¹⁶ 송화색⁷¹⁷까지
 그저 꾸역 꾸역 꾸역 꾸역 꾸역 꾸역어어어어어 나오너라,

27. (홍보 내외 옷차림) 홍보와 홍보 아내가 비단으로 옷을 차려 입는다.

[아니레] 어찌 많이 나왔던지 홍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수년⁷¹⁸ 의복이 그리웠으니,
 마누라 마음껏 하나 골라 입어보오.
 무엇이 좋은가?”
 “아이구 여보, 영감. 나는 평생 원⁷¹⁹이 송화색 삼회장⁷²⁰ 저고리가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무엇이 좋소?”
 “나는 제비 은공⁷²¹을 생각해서라도 검지 않는⁷²² 흑공단이 제일 좋네.”
 “그럼 영감 먼저 한번 꾸며 보시오.”
 홍보가 흑공단으로 한번 꾸며보는데,

a white thin silk, a red thin silk,
a sand silk, a ramie cloth,
a hemp cloth, a fine Western cloth,
an excellent silk, a cloth for military uniforms,
a hemp cloth from Kyeongsang Province, and a good thin silk
to sell come out.

A purple silk, a beautiful hemp cloth woven with fine threads,
a fine cotton cloth from Gangjin and Naju,
a fine hemp cloth from Hansan, a sort of silk, a kind of Chinese silk,
a silk thread of high quality, a sort of fancy silk, a raw silk for
summer clothes,
and a kind of fancy silk of blue, red, white, black, and yellow
colors
come out continuously without an end.

27. (Heungbo and His Wife Dress Up.) Heungbo and his wife dress up in silk.

[Aniri] Heungbo is pleased to see the large amount of silk.

“Darling, you wished for fancy clothes for years.

Choose whatever silk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Oh, darling. It is my lifetime wish to have a yellow coat with
purple sleeves.

What would you like?”

“Thinking about the swallow, I prefer black silky clothes that
don’t get dirty.”

“Please dress yourself first.”

Heungbo dresses himself up with black silky clothes.

[중중모리] 흑공단 망건,⁷²³⁾ 흑공단 갓끈,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두루막,⁷²⁴⁾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⁷²⁵⁾
 흑공단 대님,⁷²⁶⁾ 흑공단 버선,
 흑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어떤가, 내 맵시?”⁷²⁷⁾
 흥보 마누라도 꾸민다.
 송화색 땡기,⁷²⁸⁾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허리띠,⁷²⁹⁾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단의,⁷³⁰⁾ 송화색 고쟁이,⁷³¹⁾
 송화색 속속곳,⁷³²⁾ 송화색 버선,
 송화색으로 수건을 들고,
 “어떻소, 내 맵시?”

28. (셋째 박) 흥보 내외가 노래를 부르면서 셋째 박을 탄다.

[아니리] “마누라는 하릴없는⁷³³⁾ 찌꼬리 같네.”
 “영감은 영락없는⁷³⁴⁾ 까마귀 같구려.”
 “여보, 마누라. 박 세째 통을 마저 타 보세. 무엇이 나올라는가.”
[중모리] 또 한 통을 들여놓고,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시르렁 시르러어어영 실건 실건 실건 톱질이야.”
 “이 박 속에서 나오는 보화⁷³⁵⁾는 김제 만경 외에미 들⁷³⁶⁾을 억십만
 금⁷³⁷⁾을 주고 사자.
 충청도 소사 들⁷³⁸⁾을 수만금⁷³⁹⁾을 주고 사면, 부익부⁷⁴⁰⁾가 되겠구나.”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Jungjungmori] Heungbo wears a black headband, a black hat-string,
a black jacket, a black coat,
black trousers, black cloth at the knees,
black ankle bands, and black socks.
He holds a black handkerchief.
“How do I look?”
Heungbo’s wife dresses herself up too.
She wears a yellow ponytail ribbon, a yellow jacket,
a yellow belt, a yellow skirt,
yellow underwear, yellow summer underwears,
yellow panties, and yellow socks.
She holds a handkerchief.
“How do I look?”

28. (Third Gourd) Heungbo and his wife saw the third gourd, as they sing a song.

[Aniri] “Certainly, you look like a nightingale.”
“Obviously, you look like a crow.”
“Darling, let’s saw the third gourd and see what comes out.”
[Jungmori] Heungbo brings the last gourd.
“Here goes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so that it makes sounds.”
“If jewels come out of this gourd, I’ll buy wide rice paddies in Gimje with a lot of money.
If I buy fields in northern Chungcheong Province, I’ll become richer.”
“Here goes the saw.”

29. (홍보 집 짓기) 박통 속에서 사람들이 나와 홍보 집을 지었는데, 대궐 같은 집에 온갖 살림살이가 가득하다.

[휘모리]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박이 반쯤 벌어진다.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군수군.⁷⁴¹⁾

대자귀⁷⁴²⁾ 든 놈, 소자귀⁷⁴³⁾ 든 놈, 끝⁷⁴⁴⁾ 든 놈, 호미 든 놈, 몽치⁷⁴⁵⁾

든 놈, 가래⁷⁴⁶⁾ 든 놈이 그저 꾸역 꾸역 꾸역 나오더니,

홍보 집을 짓는데,

[진양조] 동산하⁷⁴⁷⁾ 너룬⁷⁴⁸⁾ 터에 임좌병향⁷⁴⁹⁾ 터를 다저,

팔괘를 놓아⁷⁵⁰⁾ 엔담⁷⁵¹⁾을 치고,

주란화각⁷⁵²⁾을 좌우로 세웠는데,

안팎 중문,⁷⁵³⁾ 소소리대문⁷⁵⁴⁾

풍경⁷⁵⁵⁾ 소리가 더욱 좋다.

천석지기⁷⁵⁶⁾ 발문서와, 만석지기⁷⁵⁷⁾ 논문서와, 백 가구 종문서⁷⁵⁸⁾가

가득 담뱃⁷⁵⁹⁾ 들어 있고,

안방 치레⁷⁶⁰⁾ 볼작시면, 큰 병풍, 작은 병풍, 셋별같은 순금대야 다

문⁷⁶¹⁾ 담뱃 놓였으니,

홍보가 보고 좋아한다.

[중모리] 사랑⁷⁶²⁾ 치레⁷⁶³⁾ 볼작시면,⁷⁶⁴⁾ 각장 장관,⁷⁶⁵⁾ 소래 반자,⁷⁶⁶⁾

완자 밀창의⁷⁶⁷⁾ 화류 문갑,⁷⁶⁸⁾ 대모 책상⁷⁶⁹⁾까지 놓여 있고,

시전,⁷⁷⁰⁾ 서전,⁷⁷¹⁾ 주역⁷⁷²⁾이며, 이백,⁷⁷³⁾ 두시⁷⁷⁴⁾에 통사략⁷⁷⁵⁾을 좌

우로 좌르르르르 벌였는데,

박홍보가 좋아라고, “얼씨구나!

29. (Building a House for Heungbo) People come out of the gourd and build a palace-like house for Heungbo. It is filled with all kinds of household goods.

[Hwimori] “Move the saw back and forth.”

The gourd is half-open.

Whispering sounds are heard from the gourd.

People holding a large tool for slicing wood, a small tool for slicing wood, a chisel, a hoe, a stick and a plow come out continuously.

They build a house for Heungbo.

[Jinyangjo] They make a wide house site below the east mountain facing the south.

They set up a wall arou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nature.

They build beautiful towers on the left and right.

There is a gate after the high main gate.

A bell makes a beautiful sound on the eaves.

The house is full of title deeds of fields, rice paddies, and servants.

In the main house, there are a large folding screen, a small folding screen, and golden basins looking like Venus.

Heungbo is joyous.

[Jungmori] In the auxiliary house, a thick laminated floor paper, a mosaic ceiling,

a sliding door, a stationery chest, a desk made of turtle shell, classical books, ancient poetry books, and ancient history books are displayed.

Heungbo is joyful. “Whoopee!

여보아라, 큰자식아. 건넌말⁷⁷⁶⁾ 건너 가서 너의 큰아버지를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불란다.
어어얼씨구나, 줌도⁷⁷⁷⁾ 좋네.”
이르령성 저르령성⁷⁷⁸⁾ 흐트러진 근심일랑⁷⁷⁹⁾ 마누라와 같이 모여 앉
아서 거드령거리고⁷⁸⁰⁾ 지낼 적에,

**30. (놀보가 홍보 집을 찾아옴) 놀보가 찾아오자 홍보는 놀
보를 반가이 맞아 부자된 내력을 말하고, 아내에게 인사
를 여쭙도록 하니, 홍보 아내가 인사를 드리러 나온다.**

[아니리] 그때여 놀보가 홍보 부자 되었던 말을 듣고 건너 왔제.
“야, 이놈이 정말로 부자가 되었네.”
“여봐라, 홍보야” 하고 불러노니,
홍보가 자기 형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나오며,
“형님 건너 오셨습니까?”
“오냐, 너 요새 성하냐?”⁷⁸¹⁾
“그런데 네가 요새 밤이슬을 맞는다지?”
“형님, 그 밤이슬이 뿔이오니까?”⁷⁸²⁾
“네가 도적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관가⁷⁸³⁾에서 너를 잡으러 다니니,
네 집과 재산을 나한테 인계하고 먼 곳으로 가서 십 년만 있다 오너라.
네 집은 내가 잘 봐주마.”
“형님 그제 아니올시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Hey the eldest son. Go to the neighboring village and ask your uncle to come over here.

A good thing is to be shared between brothers.

Whoopee! It is fantastic.”

Heungbo shakes off anxieties, and lives a comfortable and exciting life with his wife.

30. (Nolbo's Visit to Heungbo's House) Nolbo visits Heungbo's house. Heungbo welcomes him and tells him how he became rich. He asks his wife to say hello to Nolbo. She comes out to say hello to Nolbo.

[Aniri] Meanwhile, Nolbo hears that Heungbo has become rich, and visits Heungbo.

“This villain has really become rich.”

He calls Heungbo. “Hey Heungbo!”

Surprised to hear Nolbo's voice, Heugbo comes out.

“Brother,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I heard you are working at night these days.”

“Brother, what is night work?”

“You became this rich because you stole from others.

Police officers are out there to arrest you.

Leave your house and other property to me and live in a remote place for ten years.

I will take good care of this house.”

“Brother, I didn't steal.”

“Then, how did you become so rich?”

“그런게 아니라 제비 다리 부러진 것을 동여⁷⁸⁴) 살려 보냈더니,
 그 이듬해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동편 처마 끝에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려,
 박통 속에서 은금보화⁷⁸⁵)가 나와 부자가 되었지,
 도적질은 무슨 도적질이오니까?”
 “야, 그 부자 되기 천하⁷⁸⁶) 쉽구나.”
 홍보가 자기 형님을 사랑에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건넌마을 시숙⁷⁸⁷)님이 건너오셨으니 나와 인사나 드리
 시요.”
 홍보 마누라가 시숙한테 구박 당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⁷⁸⁸)가 벌렁
 벌렁 떨리나,
 가장⁷⁸⁹)의 명령을 거역 못하여 나오는데,
[중모레] 홍보 마누라가 나온다. 홍보 마누라가 나온다.
 전일⁷⁹⁰)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이야 비단이 없나,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금보화가 없나, 녹용
 인삼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⁷⁹¹)를 많이 시키고,
 홍보 마누라도 한산 세모시⁷⁹²)에다가 당청엿물⁷⁹³)을 포로소름하게
 놓아,⁷⁹⁴)
 주름은 잘게 잡고,
 말⁷⁹⁵)은 널리⁷⁹⁶) 달아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I didn't steal. I treated a swallow's broken legs and released it.

In the following year, the swallow brought me a gourd seed. I planted it below the east eaves, and got three gourds.

Jewels came out of the gourds, and I became rich.

How could I steal from others?"

"It is very easy to become rich."

Heungbo leads his brother to an auxiliary house.

"Sweetheart, my brother has come here from the neighboring village. Say hello to him."

Recollecting how Nolbo mistreated her family, Heungbo's wife trembles.

She comes out because she can't disobey her husband.

[Jungmori] Heungbo's wife comes out. She comes out.

In the past, she was hungry and poorly-clothed.

But she now has money, rice, jewels, deer's antlers, and ginseng.

Her daughters-in-law wear luxurious clothes.

She also wears a fancy cloth of Hansan ramie dyed blue.

Her pleat is short.

She wears a wide skirt. She toddles out.

31. (음식상 차림) 홍보 아내가 온갖 음식을 준비한다.

[아니리] 시숙께 인사를 드리면,

이놈이 제수⁷⁹⁷)가 인사를 허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홍보야! 제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 되었구나.”

홍보 마누라 들은 체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리는데,

[자진모리] 음식을 차리는데,

안성 유기⁷⁹⁸) · 통영 칠판⁷⁹⁹) · 천은⁸⁰⁰) 수저 · 구리 저,⁸⁰¹) 집리 서

리⁸⁰²) 수 벌이듯⁸⁰³) 주루루루루 벌여놓고,

꽃 그렸다 오죽판,⁸⁰⁴)

대 모양 양각 당화기,⁸⁰⁵)

얼기설기⁸⁰⁶) 송편,

네 귀 번듯⁸⁰⁷) 정절편,⁸⁰⁸)

주루루 엮어 산피떡⁸⁰⁹)과,

평과⁸¹⁰) · 진청⁸¹¹) · 생청⁸¹²) 놓고,

조란 산적⁸¹³) 옷김쳐,⁸¹⁴)

양회⁸¹⁵) · 간 · 처넵⁸¹⁶) · 콩팥 양푼⁸¹⁷)에다가 벌여놓고,

청단⁸¹⁸) · 수단⁸¹⁹) · 잣배기며,⁸²⁰)

인삼채 · 도라지채 · 낙지 · 연포⁸²¹) · 콩기름에,

갓은 양념 모아놓고,

산채⁸²²) · 고사리 · 수근⁸²³) · 미나리 · 녹두채 맛난 장국 주루루루루

들어부어,

청동화로⁸²⁴) 백탄숯⁸²⁵) 부채질 활활,

31. (Making Food) Heungbo's wife prepares all sorts of food.

[Aniri] Heungbo's wife bows to Nolbo.

Nolbo is supposed to answer his sister-in-law's bow in a proper manner.

"Heungbo,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her since she was kicked out.

It looks like a mudfish became a dragon.

Heungbo's wife pretends not to hear him.

She goes into the kitchen and prepares food.

[Jajinmori] Heungbo's wife makes food.

Good brassware, a good meal table, silver spoons, and a copper grill are laid out in an orderly manner.

On the meal table there is a picture of a black bamboo tree and flowers.

A bamboo tree is engraved on the china.

Some rice cakes look like a half-moon.

Some rice cakes are four-sided.

Some red-bean rice cakes are tied together.

An apple, honey, unboiled honey,

roasted meat with egg and vegetables,

raw cow meat, a liver, a cow's third stomach, and a kidney are laid out on the left and right.

A mixture of honey and rice cake, a mixture of tea and rice cake, a mixture of pine-nuts and honey,

ginseng, platy codon, a small octopus, dried meat, bean oil, and all sorts of sauce are prepared.

She puts wild greens, fernbrake, parsley, dropwort, mung beans, soup into the bowls.

She fans the oak charcoal fire under a bronze fire pot.

계란을 툇툇 깨어, 웃딱지⁸²⁶)를 떼고 길게 드리워라.⁸²⁷⁾
 꼬끼오 울었다 영계찜,⁸²⁸⁾ 오도독⁸²⁹⁾ 포도독⁸³⁰⁾ 메추리탕,⁸³¹⁾
 손 뜨진데⁸³²⁾ 쇠저⁸³³⁾ 말고 나무 저⁸³⁴⁾를 드러라.
 고기 한 점을 덩벽⁸³⁵⁾ 집어 맛난 기름의 간장국에다 풍덩 들어
 쳐,⁸³⁶⁾ 피~.

32. (홍보 아내 포악) 놀보가 권주가를 요구하니, 홍보 아내 가 화를 내며 나간다.

[아니리] 과하주⁸³⁷⁾ 좋은 술을 화잔⁸³⁸⁾에다가 가득 부어,
 “옛소,⁸³⁹⁾ 시숙님. 박주하나⁸⁴⁰⁾ 약주 한 잔 잡수시오.”
 이놈이 제수⁸⁴¹⁾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홍보야! 너는 형제간이라 내 속⁸⁴²⁾을 잘 알지?
 나는 남의 소대상날⁸⁴³⁾에 가서 술을 먹어도, 술잔 끝에 권주가⁸⁴⁴⁾
 없이는 술 안 먹는 줄 너 잘 알제?
 권주가 한 마디 시켜라.”
 “형님 권주가 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야, 이놈아. 네 여편네 매초초롬하게⁸⁴⁵⁾ 꾸민 김에
 권주가 하나 시켜, 이놈아!”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마는,
 [진양조] “여보시오, 시숙님!⁸⁴⁶⁾ 여보 여보, 아주버님!⁸⁴⁷⁾ 제수더러 권
 주가 하란 말씀은 고금천지⁸⁴⁸⁾ 어디서 보았소?
 지성이면⁸⁴⁹⁾ 감천이라,⁸⁵⁰⁾
 나도 오늘은 쌀과 돈이 많이 있소.
 전곡자세⁸⁵¹⁾를 그만하오.

She breaks an egg, takes out the shell, and puts the egg over.
She boils cackling young chicken and a crunchy quail soup.
She brings wooden chopsticks instead of iron chopsticks
because they get hot.
She grabs the meat, dips it into delicious oily soy sauce, and
roasts it.

**32. (Heungbo's Wife Expresses Her Anger.) Nolbo asks
Heungbo's wife for the drinking song. She loses
her temper and goes out of the room.**

[Aniri] Heungbo's wife pours wine in a flower glass.
"Here you are, brother-in-law. Drink this wine."
Nolbo is supposed to just drink the wine offered by his
sister-in-law.
"Hey Heungbo! You should know about me because you are
my brother.
I don't drink wine without the wine-offering song even in a
house in mourning.
I need the wine-offering song."
"Brother, who could sing the wine-offering song here?"
"You bastard! Your wife looks young and good.
Tell her to sing the wine-offering song. You rat!"
Heungbo's wife responds to Nolbo.
[Jinyangjo] "Look, brother-in-law. How on earth can you tell
your sister-in-law to sing the wine-offering song?
Hard efforts have paid off.
I am now rich too.
Don't act arrogantly because you are rich.

엄동설한⁸⁵²) 추운 날에 자식들을 앞세우고, 구박을 당하여⁸⁵³) 나오던
 일을 꼭⁸⁵⁴) 속에 들어도 못 잊었소.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속을 차리면⁸⁵⁵) 뫼하러 내 집에 왔소?
 안 갈라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떨쳐버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33. (화초장 타령) 놀보가 홍보에게 화초장을 얻어, 이름을 외우며 집으로 돌아간다.

[아니리] 놀보가 이만하고⁸⁵⁶) 보더니마는,
 “야, 홍보야. 네 계집 못 쓰겠다. 썩 버려라.
 내가 다시 새 장가 들어주마.”
 “형님 처분대로 하옵시오.”⁸⁵⁷)
 “그런데 저 윗목⁸⁵⁸)에 있는 빨간 것이 무엇이야?”
 “화초장⁸⁵⁹)이올시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금보화가 들었습지요.”
 “거 날 다오.”
 “그란해도⁸⁶⁰) 형님 드리려고 은금보화 담뱃 넣어서 제직⁸⁶¹)해 났습
 니다.”
 “이리 내 뵈라, 내가 짚어지고 갈란다.”
 “형님 건너가시면 내일 하인에게 지워 보낼테니
 그냥 건너가십시오.”
 “에이, 식식치 못한⁸⁶²) 놈.

I can't forget even after I die that you kicked us, including the children, out of your house on a cold day in winter.
I hate you. Get out of here now!
If you wanted to act this way, why did you come here?
If you don't get out, I will leave."
She goes in, leaving them behind.

33. (Flower Wardrobe Song) Nolbo gets a flower wardrobe and goes back home, reciting the name of the wardrobe.

[Aniri] Nolbo has been watching Heungbo's wife.
"Heungbo, your wife is bad. Dump her.
I will get you a new girl."
"Brother, suit yourself."
"By the way, what is that red thing in the back of the room?"
"It is a flower wardrobe."
"What's in it?"
"Jewels are in it."
"Give it to me."
"I previously filled it up with jewels and set it aside for you."
"Bring it here. I will carry it home myself."
"After you are gone, I will have a servant send it to you tomorrow.
You just go back home."
"You scoundrel,

나 간 뒤에 좋은 보물은 다 빼내고, 빈 궤만 보낼라고?
 아니다. 매사⁸⁶³)는 붙여튼튼⁸⁶⁴)이라 허였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리 내놔라.”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외고 가는데,
 [중모레]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
 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도랑⁸⁶⁵)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⁸⁶⁶) 천장. 아니다.
 고초장,⁸⁶⁷)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⁸⁶⁸)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아이구, 이것 무엇이냐?
 갑갑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가 옳제,
 좌이부동⁸⁶⁹)이 웬 일인가?
 에라, 이사람 몸쓸 사람.”
 놀보 마누라 나온다. 놀보 마누라가 나와.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

After I leave here, you will take all the jewels out of it and send only the shell to me.

No. We are to play safe in all matters.

I will carry it myself. Give it to me.”

As Nolbo carries the flower wardrobe, he keeps saying the name so as not to forget it.

[Jungmori] “I got a flower wardrobe. I got a flower wardrobe. I got a flower wardrobe.”

He crosses a stream.

“My god! I forgot the name!

Wardrobe, wardrobe. No.

Screen, roof. No.

Pepper paste, bean paste. No.

Dead body, floor stone. No.”

Changing the order of the words doesn’t help.

“Robe flower ward. Wardrobe flower. What is this?

I am anxious to know. What is this?”

He goes into his house.

“Hello, my wife!

If the family head comes back home, you ought to come out fast and greet him.

How can you just sit there?

How rude you are!”

Nolbo’s wife comes out. She comes out.

“I didn’t know you had come.

I didn’t know you had come.

I am sorry.

Come here. This way, please.”

34. (놀보 제비 몰러 나감) 놀보가 이리저리 제비를 몰러 다닌다.

[아니리] 화초장을 짚어지고 들어가면서

저의 마누라더러 묻것다.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짚어진 것이 무엇이오?”

“영감은 무엇이오?”

“아, 나는 알지마는 임자⁸⁷⁰⁾가 알아맞춰 보란 말이여.”

“우리 친정에서 그러는데, 그걸 화초장이라 합디다.”

놀보가 어찌 좋았던지, “얼씨구, 내 딸이야!”

“아니 여보, 마누라보고 딸이란 데가 어데 있단 말이오?”

“급할 때는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제.”

“그런데 그 화초장은 어디서 났소?”

“홍보 집을 갔더니,

홍보가 과연 부자가 되었는데.

제비 다리 부러진 것을 동여 살려 보냈더니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어,

그걸 심어 박 세 통이 열려

박통 속에서 은금보화가 나와 부자가 되었다네.

그놈은 한 마리를 분질러⁸⁷¹⁾ 보내 부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제비 여남은⁸⁷²⁾ 마리만 분질러 살려 보내면

거부⁸⁷³⁾ 장자⁸⁷⁴⁾가 될 것이 아닌가?”

그날부터 제비 딱지⁸⁷⁵⁾ 수천 개를 만들어서 동편 처마 끝에 달았더니,

집이 동편으로 썩름했었다.⁸⁷⁶⁾

아무리 제비를 기다려도 죽을 제비가 들어 올 리 있겠느냐?

하루는 기다리다 못해 그물을 메고 제비를 후리러⁸⁷⁷⁾ 나가는데,

34. (Nolbo Goes Out to Snatch Swallows.) Nolbo runs around to chase swallows.

[Aniri] Nolbo gets into his house with the flower wardrobe on his back.

He asks his wife.

“Sweetheart, what is this thing on my back?”

“What do you think?”

“I know what it is. I am asking you to tell me the right answer.”

“In my parents’ family, they called it flower wardrobe.”

Nolbo is so happy that he says, “Yippee! My daughter!”

“Darling, how can you call your wife ‘daughter’?”

“When in a hurry, I can go this way or that way.”

“How did you get the flower wardrobe?”

“I have been to Heungbo’s house.

He really became rich.

He saved a swallow whose legs were broken.

The swallow brought him a gourd seed.

He planted the seed and got three gourds.

Jewels came out of the gourds, and he became rich.

He became rich as a result of breaking a swallow’s legs.

I will break a dozen of swallows’ legs and treat them.

I will be far richer than he.”

From that day on, Nolbo builds thousands of swallow nests at the end of the east eaves.

His house is tilted toward the east.

He looks forward to swallows in vain.

One day, he gets impatient, carries a net on his back, and goes out to snatch a swallow.

[중중모리] 이 때 춘절⁸⁷⁸⁾ 삼각⁸⁷⁹⁾ 하사월⁸⁸⁰⁾ 초파일,⁸⁸¹⁾ 연자⁸⁸²⁾ 나
비는 펄펄.

수양버들에 앉은 피꼬리 제 이름을 제 불러.⁸⁸³⁾

그물을 맺어 드리메고⁸⁸⁴⁾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방장산⁸⁸⁵⁾으로 나간다.

이편은 우도봉,⁸⁸⁶⁾ 저편은 좌도봉,⁸⁸⁷⁾ 건넌봉,⁸⁸⁸⁾ 맞은봉⁸⁸⁹⁾ 좌우로
칭칭⁸⁹⁰⁾ 돌렸는데,⁸⁹¹⁾

“아, 이리 워!”

덤불⁸⁹²⁾을 툭 쳐,

“후여!⁸⁹³⁾ 허허허 으차 저 제비.”

방장산에 깃들리⁸⁹⁴⁾ 덩불을 툭 쳐,

“후여어어어 으어, 땀다, 저 제비 어느 곳으로 행하느냐?”⁸⁹⁵⁾

연비여천⁸⁹⁶⁾의 소리개⁸⁹⁷⁾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남비오작⁸⁹⁸⁾의 까치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춘일황앵⁸⁹⁹⁾의 피꼬리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충암절벽⁹⁰⁰⁾의 비둘기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저기 가는 저 제비아!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천화일⁹⁰¹⁾에 지은 집이로다.

화급동량⁹⁰²⁾이라.

내 집으로 들오너라. 이 이 이리 와.”

[Jungjungmori] Swallows and butterflies fly in a spring day,
A nightingale sings a song on a willow tree.
He carries a net on his back and goes out to snatch a swallow.
He goes to Jiri Mountain.
There are many mountain peaks here and there, in the front and
back, on the left and right.
“Come here!”
Nolbo hits the bush.
“Hey swallow over there.”
He hits the bushes around Jiri Mountain.
“Look, swallow! Where are you headed?”
An eagle flies in the sky; he takes it to be a swallow.
A crow and a magpie fly to the south sky; he takes it to be
swallows.
He sees a yellow spring nightingale which he takes to be a
swallow.
He spots a pigeon on a cliff: he takes it to be a swallow.
“Swallow, flying over there!
Don’t go to that house.
It was built on an unlucky date.
It is fated to be burned down.
Come to my house. Come here.”

35. (놀보 제비다리 부러뜨림) 놀보가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박씨를 물어올 것을 부탁한다.

[아니리] 하루는 신수⁹⁰³) 불길한 제비 한 쌍이 놀보집 처마 끝에다 성주⁹⁰⁴)를 하니,
놀보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 내 제비 왔구나!
저 제비가 멋기⁹⁰⁵)가 있는 제비로구나,
좋은 집 다 버리고 내 집에 와서 성주를 하는 것을 보니 참 고맙다,
어서 새끼 많이 까가거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라.
힐지향지⁹⁰⁶) 하더니마는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놀보란 놈이 제비 집 밑에다가 초석노⁹⁰⁷)를 딱 달아놓고 비비면서,
어디 시조인지 미국 장단에다가 청국시조⁹⁰⁸)를 내가지고,
그 제⁹⁰⁹)로 제비알 낳는 족족 점고⁹¹⁰)를 하는데,
“아아, 제비 알을 만져보자.
이이이, 옳다! 하나 낳구나!
어흐 이이 옳다! 또 하나 낳구나.”
어찌 만졌던지, 조독⁹¹¹)이 올라 싹 다 훑아 버리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날기 공부 하느라고 파닥파닥⁹¹²)하니,
놀보 보고, “떨어지거라. 떨어지거라.”
도로 부르르르⁹¹³) 기어 올라가니,
“예게, 이놈을 내가 그냥 두었다가는 실물⁹¹⁴)을 당할 것이니,
내가 자장작기⁹¹⁵) 할밖에 수⁹¹⁶)가 없다.”
제비 새끼를 잡아내어 무릎에다 대고 다리를 작신⁹¹⁷) 분질러노니,

35. (Nolbo Breaks a Swallow's Leg.) Nolbo breaks a young swallow's leg on purpose, and asks the swallow to bring him a gourd seed.

[Aniri] One day, a couple of unlucky swallows build a nest at the end of the eaves of Nolbo's house.

Nolbo is pleased to see them.

"Oh boy! My swallows have come!

Those swallows look good.

I thank you for choosing my house over others and building a nest on it.

Give birth to babies quickly."

Behold the swallows.

They fly up and down, and begin to lay eggs.

Nolbo puts a straw mat below the swallow nest, lies down on the mat, and rubs the nest.

He recites a Chinese poem in accordance with an American rhythm.

In that rhythm, he inspects eggs one by one as they are laid.

"Let me touch swallow eggs.

Good. I got one egg!

That's right! Another egg is laid!"

He touches the eggs so much that they go rotten due to an infection from his fingers.

One baby swallow survives and moves its wings up and down to practice flying.

Nolbo says, "Fall down. Fall down. Fall down."

The swallow vigorously flies up.

"My goodness. If I leave the swallow alone, I will lose it.

I cannot but make a smart move.

He snatches the baby swallow, place it on his knees, and breaks its leg.

“ 짹짹!”

짹이고 뿔이고 마당에다 훌 집어 던져 놓더니,

부르르르 쫓아가서 제비 새끼 주워 들고,

“ 아이고 불쌍타, 내 제비야.

여보소, 마누라. 여 제비 다리가 부러졌네.

우리 제비 다리 이어 주세.”

된장 떼다 붙이고 형뿔으로 칭칭 동여서 제비 집에 넣어주면서,

“ 부디 죽지 말고 살아 박씨 하나만 물어 오너라, 잉?”

저 제비 거동을 보아라.

놀보 원수 갇을 제비어든 죽을 리가 있으리오.

수십 일이 지나더니 부러진 다리가 나아 날기 공부 힘을 쓰는데,

[진양조] 떴다, 저 제비 거동을 보아라.

거중⁹¹⁸)으로 둥둥 떠 이리저리 날아보고,

구만장천⁹¹⁹)에 높이 떠서 배도 쓱 스쳐보고,

빨랫줄에 가 날아 앉더니 한들한들⁹²⁰) 놀아보니,

놀보가 보고 좋아라고,

“ 얼씨구, 내 제비. 살았구나!

박씨 하나만 물어다 주면 성한⁹²¹) 다리를 마저 분질러 주마.”

저 제비 거동을 보아라.

무엇이라고 지지지지 하더니마는 만 리 강남⁹²²)을 훨훨 날아 들어간다.

“Peep, peep, peep!”

He doesn't care about its cry, throwing it away.

He runs to the swallow and picks it up.

“How poor you are, my swallow!

Honey, this swallow broke its leg.

Let's treat its leg.”

He puts bean paste on the leg, wraps it up with a cloth, and puts the swallow in the nest.

“You must survive and bring me a gourd seed. OK?”

Behold the swallow.

The swallow is to revenge itself on Nolbo. How can it die?

Several days pass, its leg is healed, and the swallow practices flying.

[Jinyangjo] The swallow flies. Behold it.

It flies around in the sky.

It strokes its belly high in the vast sky.

It sits on a clothesline and has fun there.

Nolbo is delighted to see it.

“Yippee, my swallow! You survived!

If you bring me a gourd seed, I will break the other normal leg too.”

Behold the swallow.

It speaks the swallow language and flies to Jiangnan(江南) far from Korea.

36. (놀보 제비 노정기) 봄이 되자 제비는 놀보에게 원수 값을 박씨 하나를 물어다 준다.

[아니리] 강남지두견⁹²³⁾은 조종지망제라⁹²⁴⁾

백조⁹²⁵⁾를 점고⁹²⁶⁾하는데,

“일본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국 들어갔던 명매기!”⁹²⁷⁾

“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조선서 태어난 놀보 제비!”

[중중모리] 놀보 제비가 들어온다. 놀보 제비가 들어와.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지가 저서⁹²⁸⁾

전등거리고⁹²⁹⁾ 들어오며,

“예!”

제비 장수 호령하되,

“너는 왜 다리가 저리 봉통아지가 졌노?”

“예, 소조⁹³⁰⁾가 아뢰리다.”⁹³¹⁾

조선국서 태어나

날기 공부 힘을 쓸 적에,

불측한⁹³²⁾ 놀보 주인놈이 소조 다리를 분질러서 거의 죽게 되었던니,

천행⁹³³⁾으로 다리가 나아서 이렇게 왔사오나,

어찌하면은 그놈의 원수를 갚으리까?

제발 덕분에 통촉⁹³⁴⁾하오.”

[아니리] 제비 장수 들으시고 “어, 불측한⁹³⁵⁾ 놀보놈 심술은 강남까지
도 유명한 놈이로구나.

36. (The Journey of Nolbo's Swallow) Spring has come,
Nolbo's swallow brings Nolbo a gourd seed with
which to revenge itself on him.

[Aniri] In Jiangnan(江南), a cuckoo is the king of the birds.
He inspects all sorts of birds.

"The green swallow who has been to Japan!"

"I am here!"

"The swift who has been to China."

"I am here!"

"The pink swallow who has been to the US."

Nolbo's swallow who was born in Korea!"

[Jungjungmori] Nolbo's swallow comes in. He comes in.

The broken leg is out of shape.

He hobbles in unsteadily.

"Yes!"

The swallow general yells at him.

"Why is your leg swollen?"

"Let me tell you, sir.

I was born in Korea.

I was practicing flying.

My vicious master, Nolbo, broke my leg, putting me near death.

Luckily, my leg healed and I came here.

How can I revenge myself on him?

Please be considerate of my wish."

[Aniri] The swallow general responds, "Nolbo is vicious and
perverse. His infamy has reached here, Jiangnan(江南).

명춘⁹³⁶)에 나갈 적에 수풍⁹³⁷)이란 박씨 하나만 물어다 주면,
 네 원수는 다 갚을 것이다.”
 삼동⁹³⁸)이 다 지나고 삼춘⁹³⁹)이 방장커늘,⁹⁴⁰
 온갖 날짐승들이 모두 고국을 찾아 환국⁹⁴¹)을 하니,
 놀보 제비도 환국을 하는데,
 이 제비 노정기⁹⁴²)가 좀 달키는⁹⁴³) 달튼가⁹⁴⁴) 보더라.
[중중모리] 안남산⁹⁴⁵) 지나고 밖남산⁹⁴⁶)을 지나,
 축국⁹⁴⁷)을 지나고,
 축산도⁹⁴⁸) 이천 리, 낙양성⁹⁴⁹) 오백 리, 소상강⁹⁵⁰) 칠백 리, 동정
 호⁹⁵¹) 팔백 리, 금릉⁹⁵²) 육백 리라.
 악양루⁹⁵³) 고소대⁹⁵⁴)와 오악 형산⁹⁵⁵) 구경하고,
 구정마탑⁹⁵⁶) 육십 리에 사마성⁹⁵⁷)이 삼십 리라.
 월하성⁹⁵⁸) 돌아들어 고소성⁹⁵⁹) 바라보니,
 한산사⁹⁶⁰) 거룩하고,
 아방궁⁹⁶¹) 육십 리에 만리장성⁹⁶²) 돌아들어,
 일만 오천 리 동설령⁹⁶³)을 날아드니,
 천하 제비 좋아라고 각국으로 흩어질 제,
 삼남⁹⁶⁴)으로 오는 제비 포기포기⁹⁶⁵) 때를 지어 서로 지저⁹⁶⁶) 언
 약⁹⁶⁷)한다.
 금년 구월 보름날, 이 곳에 와서 상봉하자 약속을 정한 후에,
 중천⁹⁶⁸)에 높이 떠서 강릉을 구경하고,
 적벽강⁹⁶⁹)을 돌아드니 소동파⁹⁷⁰) 조맹덕⁹⁷¹)은 이금은 안재재오?⁹⁷²)
 청석령⁹⁷³) 오백 리를 순식간에 당도하니 옥화관⁹⁷⁴)이 여기로다.
 심양강⁹⁷⁵) 팔백 리에 정주⁹⁷⁶)를 지나,
 순안⁹⁷⁷) 순천⁹⁷⁸) 칠십 리를 바라보니 평양이 여기로구나.
 연광정⁹⁷⁹) 높이 날아

When you go out next spring, give him this gourd seed,
Revenge Wind.

And you can revenge yourself on him.”

Winter goes, and spring comes.

It is time that all sorts of birds go back to their countries.

Nolbo's swallow goes back too.

Its route is different from that of Heungbo's swallow.

[Jungjungmori] The swallow passes over mountains.

It flies over Shu(蜀) Country.

It travels over Shu(蜀) Mountain, Luoyang(洛陽) City, Xiaoxiang
(瀟湘) River, Dongting(洞庭) Lake, and Nanjing(南京).

It sees Yueyang(岳陽) Tower and Gusu(姑蘇) Pavilion.

It travels over a tower and a castle.

It turns around a city and looks at Suzhou.

Hansansi(寒山寺) Temple looks holy.

It passes over Afang(阿房) Palace and reaches the Great Wall.

It flies through a pass covered with snow.

All the swallows in the world are delightfully spread to their
countries.

The swallows coming together to the southern regions in Korea
chirp to each other.

They promise to meet again here on the full moon this
September.

Nolbo's swallow flies high in the sky and watches Jiangling(江陵).

It turns around Chibi(赤壁) River. Where are Su Shi(蘇軾) and
Cao Cao(曹操) now?

It reaches Qingshi(青石) Pass in a breath. Yuhe(玉河) Hotel is
here.

It moves over a river and a town.

It flies over two villages and looks at Pyeongyang.

It goes over a pavilion in Pyeongyang.

만호장안⁹⁸⁰)을 구경하고, 수색⁹⁸¹)이 남한⁹⁸²) 문장 · 효자 · 열녀 가가
재⁹⁸³)라.

송객정⁹⁸⁴) 수운간⁹⁸⁵)을 지나

살⁹⁸⁶)같이 빨리 날아 개성 부중⁹⁸⁷)을 들어가니,

왕태조⁹⁸⁸) 고사적⁹⁸⁹)은 만월대⁹⁹⁰)뿐이오.

무악재⁹⁹¹) 양주군⁹⁹²)은 억만 세력을 응하였고,⁹⁹³)

제일 삼각⁹⁹⁴) 올라앉아 장안⁹⁹⁵)을 가만가만 둘러보니

남산은 천년산, 한강은 만년수라.⁹⁹⁶)

문물이 빈빈하고⁹⁹⁷)

풍속이 회회하여⁹⁹⁸)

만만세지금탕⁹⁹⁹)이라.

전라도는 운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인데,

운봉 함양 두 얼품¹⁰⁰⁰)에 놀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수풍¹⁰⁰¹)의 박씨를 입에다 가득 물고,

번뜻 수루루¹⁰⁰²) 펼 펼,

전라 감영¹⁰⁰³)을 당도하여 완산 칠봉¹⁰⁰⁴)을 구경하고,

거기서 짓쳐 달려¹⁰⁰⁵) 남원 광한루를 구경하고,

운봉 연재¹⁰⁰⁶)를 얼른 넘어 놀보 집을 당도.

놀보가 보고서 좋아라,

“얼씨구나, 내 제비 왔구나. 얼씨구나, 내 제비.

너를 내가 보내놓고 일각이 여삼추¹⁰⁰⁷) 기다렸더니,

이제 나를 찾아오니 천도지도가 반갑다.”¹⁰⁰⁸)

저 제비 거동을 보아.

수풍이¹⁰⁰⁹)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넘놀다,¹⁰¹⁰)

놀보 양주¹⁰¹¹) 앞은 앞에다가 박씨를 뚝 던져놓고 백운간¹⁰¹²)으로
날아간다.

In the city are numerous houses, beautiful scenic views, poets,
great children, and virtuous women.
It passes over pavilion and through sorrowful clouds.
It enters Gaeseong, traveling as fast as an arrow.
Manweoldae Tower is the only historical remain.
Yangju Region near a Muak Pass dealt with numerous foreign
invasions.
The swallow flies up to Bukhan Mountain and gazes at Seoul.
Nam Mountain and the Han River have long history.
Things are shiny.
Social customs are good.
This place is a strong fortress.
Unbong is in Jeolla Province.
Hamyang is in Gyeongsang Province.
Nolbo lives in a region where the two places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It holds the gourd seed, Revenge Wind, in its mouth.
It flies vigorously.
It arrives at Jeolla Office and sees the seven mountain peaks in
Wansan.
It flies vigorously to Gwanghallu Pavilion in Namweon.
It crosses over a pass to Unbong and reaches Nolbo's house.
Nolbo is pleased to see the swallow.
"Hurrah! My swallow has come. Hurray, my swallow.
Since you left,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I am glad you came back to m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nature."
Behold that swallow.
It moves around, holing the gourd seed, Revenge Wind, in its
mouth.
It drops the seed in front of Nolbo and his wife, and flies away
between white clouds.

37. (놀보 첫째 박) 놀보 집에 박이 열리자, 놀보가 샅꾼들 을 얻어 첫째 박을 탄다.

[아니리] 놀보가 박씨를 딱 주워 들고,
“여보소, 마누라. 제비가 박씨를 물어 왔네, 여.”
놀보 마누라는 놀보보다 조금 유식하던가,
박씨를 피작피작¹⁰¹³)하고 보더니,
“여보, 영감. 박씨는 틀림없는 박씨오마는
박씨에 글이 쓰였소.
원수 수 자, 바람 풍 자¹⁰¹⁴) 괴이하니¹⁰¹⁵) 심지어 말고 내버립시다.”
놀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마는,
“자네가 속¹⁰¹⁶)을 모르는 말이어.
강남의 문장¹⁰¹⁷)들이 글을 뒤집어 하느니.
비단 수 자¹⁰¹⁸) 쓴다는 것이 붓대가 잘 못 돌아가서 원수 수¹⁰¹⁹) 되고,
풍년 풍 자¹⁰²⁰) 쓴다는 것이 잘못되어 바람 풍 자¹⁰²¹) 되었으니,
걱정 말고 심세.”
동편 처마 담장 밑에다 구덩이를 깊이 파고,
신작 넣고¹⁰²²) 거름 넣고 다독다독¹⁰²³) 단단히¹⁰²⁴) 잘 심었것다.
박순¹⁰²⁵)이 내달아오는데,¹⁰²⁶) 북채만, 홍두깨¹⁰²⁷)만, 기동만,
박 잎사귀가 샷샷만씩 해가지고,
이놈의 년출¹⁰²⁸)이 온 동리로 막 뻗어 나가는데,
박넙쿨이 턱 걸친 집은 찌그러지고 상하고,
그때 돈으로도 집값 무느라고¹⁰²⁹) 수백 냥 물었던가 보더라.
하루는 이웃집 노인 한 분이 썩 오더니마는,
“네 이놈, 놀보야.

37. (Nolbo's First Gourd) Gourds sprout in Nolbo's house. Nolbo hires workers and saws the first gourd.

[Aniri] Nolbo picks up the gourd seed.
“Honey, the swallow brought us a gourd seed.”
Nolbo's wife is more knowledgeable than Nolbo.
Nolbo's wife takes a look at the seed, turning it over.
“Honey, this is certainly a gourd seed.
There are words on it.
Revenge and Wind. This is weird. Let's throw it away, not planting it.”
Nolbo ponders for a while.
“You are not knowledgeable enough.
Writers in Jiangnan(江南) make mistakes.
One wrote ‘Revenge’ instead of ‘Silk’ because their writing brush made a wrong move.
He intended to write ‘Good Harvest,’ not ‘Wind.’
Don't worry. Let's plant it.”
He digs a large hole below the east eaves near a fence.
He covers the seed with a straw shoe, puts manure in the hole, and pats it all down.
A vine comes out in the sizes of a drumstick, then a club, and finally a pillar.
Leaves are the size of a cylindrical hat.
The vine spreads to the entire village.
A house over which the vine crawls collapses.
He pays thousands of dollar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d house.
One day an old man living next door comes to Nolbo.
“Nolbo. You villain.

밤이면 지붕 위에 박통 속에서, ‘똥땅지당 지당 동쨍쨍 동지동 지동 딱’ 요망¹⁰³⁰)스럽게 하니, 당채¹⁰³¹) 잠을 못 자겠어.

네 이놈, 박 안 따 낼래?”

놀보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은금보화가 변화해서 그런 줄 알고,
“샌님,¹⁰³²) 오늘 박 따낼라요.”

“썩 따내라. 이놈.”

그날부터 놀보가 박 탈 샅꾼¹⁰³³)을 얻어 들이는데,
어쩐 일인지 이렇게 꼭 병신들만 얻어 들이겠다.

[휘모리] 안판낙포 곱사등이¹⁰³⁴) 곱배팔이¹⁰³⁵)

전동다리¹⁰³⁶) 청맹과니¹⁰³⁷) 쌍언청이¹⁰³⁸)

뻗다리¹⁰³⁹) 꿩젓이.¹⁰⁴⁰)

[아니리] 모두 이런 병신들만 얻어 들었는데,

어째서 그러냐고 놀보보고 물어보니, 박을 툭 따서 은금보화가 와
쏟아지면 성한 사람들은 모두 주워가지고 달아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병신들만 얻어 들었겠다.

“여보소, 역군¹⁰⁴¹)들.

삼시¹⁰⁴²) 먹고 닛 냥 줌세.

어서 가 박 따오소.”

박을 따다 놓고 툭을 걸고 한번 타보는데,

[진양조] “시르렁 실건 툭질이로구나. 헤이여루 당기여라 툭질이야.”

“홍보란 놈 박통에서는 쌀과 돈이 많이 나왔으되

내 박은 은금보화만 나오너라.”

“헤이여루 당기여라 툭질이야.”

“여봐라, 청보야!”

“왜야?”

“힘을 써서 어서 툭소리 맞어라.”¹⁰⁴³)

I can't sleep at night because unpleasant sounds are heard from a gourd on your roof.

You bastard! Why don't you pick the gourd?"

Nolbo ponders for a moment, and assumes that jewels must be making the noise in the gourd.

"Sir, I will pick the gourd today."

"Do it immediately, you scoundrel!"

From that day on, Nolbo hires workers to saw gourds.

Unexpectedly, he hires only crippled people.

[Hwimori] The crippled men are a hunchback, a man without an arm,

a lame man, a blind man, a harelipped man,

a man whose legs don't bend, and a man who moves arms wildly as he walks.

[Aniri] Nolbo hires only crippled people.

When asked why he hires only the crippled people, Nolbo answers that if jewels come out of a gourd, sound people would pick them up and run away.

So he hires only crippled people.

"Hello, workers.

You will be given three meals and five dollars.

Please bring a gourd here."

They bring a gourd and saw it.

[Jinyangjo] "Move the saw back and forth. Pull and push the saw."

"Rice and money came out of Heungbo's gourd.

I hope jewels come out of my gourd."

"Pull and push the saw."

"Hey harelipped man."

"What?"

"Respond to me forcefully in the saw song."

“헤이여루 흠질이야.”

“네 이눔아, 흠질이라 하지 말고, 톱질이라 하여.

여보소, 이 사람들 내 말 듣소. 은금보화가 나오거들랑 숨김없이 주워 주소.”

“시르렁 실건 당기여라 톱질이야.”

[휘모리]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속삭 속삭,
박이 반쯤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맹자견양혜왕 하신대, 왕왈 수불원천리이래하시니,”¹⁰⁴⁴⁾

38. (노인 등장) 박 속에서 한 노인이 나와서, 놀보의 아버 가 종살이하다 주인의 가산을 훔쳐 달아난 내력을 말 하고 호통친다.

[아니리] 이것이 박통 속이 아니라 서당¹⁰⁴⁵⁾ 속일세.

박이 짝 벌어져노니

박통 속에서 노인 한 분이 나오는데,

[휘모리] 뒷박이마¹⁰⁴⁶⁾ 송곳턱¹⁰⁴⁷⁾ 주먹상투¹⁰⁴⁸⁾ 빈대코,¹⁰⁴⁹⁾

똥오줌을 펴뿔 싸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네 이눔, 놀보눔아.

네 할아버지는 정월쇠,

네 할미는 이월덕이,

네 아버지는 마당쇠,

네 어머니는 사월덕이,

세대로¹⁰⁵⁰⁾ 각각 종일러니

병자년에 도망하여 부지거쳐¹⁰⁵¹⁾ 몰랐더니,

“Here goes the haw.”

“You villain. Don’t say haw. Say saw instead.

Listen to me, folks. If jewels come out, don’t put any of them into your pockets.”

“Pull and push the saw.”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The gourd is half-open, and a sound is heard.

“Mencius visits a king, and the king says that an old man happily traveled far to see me.”

38. (An Old Man Shows Up.) An old man comes out of the gourd. He scolds Nolbo, saying that Nolbo’s father was a servant, and that he stole belongings from his master and fled away.

[Aniri] It looks like this is not a gourd but a school.

The gourd opens up.

An old man shows up from the gourd.

[Hwimori] The old man’s forehead, chin, topknot, and nose look terrible.

He took a pee and a shit, which give off a bad odor.

“Nolbo, you bastard!

Your grandfather was Jeongweolsoe.

Your grandmother was Yiweolddeogi.

Your father was Madangsoe.

Your mother was Saweolddaegi.

Your ancestors were servants of my family in a row.

I didn’t know where they were after they ran away.

강남서 들은즉 예¹⁰⁵²) 와서 산다기에 너를 만나러 내 왔으니,
 네 계집, 자식들 상전¹⁰⁵³)에게 인사 못 드리겠느냐?
 이 때려죽일 놈, 이놈아!
 그리고 오늘부터 상전이라고 안 모셨다가는 네 다리 옹두리뼈¹⁰⁵⁴)를
 작신¹⁰⁵⁵) 꺾어눌 것이다. 이놈!”

39. (놀보 애걸) 놀보가 속량하겠다고 애걸하니 노인이 주 머니에 돈을 채워 오라고 한다.

[아니리] 놀보가 기가 막혀, 곰곰이 생각을 하니,
 선대¹⁰⁵⁶)의 증거가 없으니 상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하릴없이¹⁰⁵⁷) 상전님전에 비는데,
 [중모래] “비나이다, 비나이다, 상전님전 비나이다.
 선대의 증거가 없으니 낸들 알 수 있으리까?
 대전¹⁰⁵⁸)으로 바칠 테니 아주 속량¹⁰⁵⁹) 시켜주오.”

[아니리] “네 이놈, 그러면 얼마나 바칠래?”
 “오백 냥 드리지요.”
 “이놈 오백 냥 갖고 네 같은 종놈 사겠느냐?
 만 냥만 들여라.”
 “아이고, 그러면 천 냥 드리지요.”
 “에라,¹⁰⁶⁰) 너 같은 종놈을 데리고 다소¹⁰⁶¹)를 다투겠느냐?”
 흰 주머니 하나를 내어주며,
 “아나,¹⁰⁶²) 전곡간에¹⁰⁶³) 무엇으로 채우던지 이 주머니만 채워오너라.

I heard in Jiangnan(江南) you lived here, so I am here to see you.

Tell your wife and children to bow to me, your master, immediately.

You scoundrel to be beaten to death!

If you don't serve me as your master from now on, I will break your shin bones into pieces. You rat!"

39. (Nolbo Begs.) Nolbo begs to pay for his ancestors' wrongdoing with money. The old man gives Nolbo a bag, telling Nolbo to fill it up.

[Aniri] Confounded, Nolbo muses over.

He can't deny that the old man is his master because he doesn't have any evidence about his ancestors.

Inevitably, he begs to his master.

[Jungmori] "I beg you. I beg you, master.

Because I don't have any evidence about my ancestors, I don't know.

Let me give you money. Please forgive me."

[Aniri] "You rat. Then, how much can you give me?"

"I'll give you five hundred dollars."

"You villain! I can't buy a servant like you with five hundred dollars.

Make it ten thousand dollars."

"Then, let me give you a thousand dollars."

"My goodness. It is ridiculous that I bargain with a servant like you."

The old man sticks out a bag.

"Here you are. Go and fill up this bag with money or rice.

많이 준대도 늙어 말년에 가지고 가기도 귀찮허다”

놀보가 주머니를 받아들고 본즉

쌀이 되면 불과 서너 되쯤 들게 생겼고,

돈이 되면 불과 사오십 냥쯤 들게 생겼제.

40. (능천낭 내력) 놀보가 주머니에 돈을 넣는데, 아무리 넣어도 간 곳이 없다.

[중모레] 놀보가 보더니 좋아라고

주머니를 추켜들고¹⁰⁶⁴) 돈 궤 앞애가 앉아서 닷 냥을 넣어도 행.

백 냥을 넣어도 간 곳이 없고,

오백 냥을 넣어도 간 곳이 없구나.

“아이고, 이 주머니가 새는구나.”

쌀뒤주¹⁰⁶⁵)로 쫓아가서 닷 말을 집어넣어도 땡.

백 석을 넣어도 간 곳이 없고,

오백 석을 넣어도 간 곳이 없으니,

헛간으로 쫓아가서 살림살이 가산¹⁰⁶⁶) 등물¹⁰⁶⁷)을 집어넣는 대로 간

곳이 없으니,

놀보가 기가 막혀 주머니를 추켜들고 벌벌벌 떨면서 말을 한다.

[아니리] “아이고, 샌님. 이 주머니가 뭘 주머니요?”

“오, 그것 능천낭¹⁰⁶⁸)이라고 하는 주머니이니라.”

“아이고, 이 주머니가 사람 많이 상하게 생겼소.”

“아니야. 그 주머니가 잘 된 사람은 더 잘 되게 만들고,

못된 놈은 더 못살게 만드는 주머니이니라.

Even if you offer a lot, I am old, so I don't want to carry anything heavy."

Nolbo takes the bag and looks at it.

A few buckets of rice would fill the bag up.

Forty or fifty dollars would fill the bag up.

40. (Story about Ascension Bag) No matter how much money he puts in the bag, the bag doesn't get filled up.

[Jungmori] Nolbo is delighted.

He holds up the bag in front of a money box and puts in it five dollars, which disappear.

He puts in it a hundred dollars, which disappear.

He puts in it five hundred dollars, which disappear.

"Alas. This bag leaks!"

He goes to a rice box and puts in it five buckets of rice, which disappear.

He puts in it a hundred of bags of rice, which disappear.

He puts in it five hundreds of bags of rice, which disappear.

He goes to a barn and puts in it his belongings, which disappear once they go in the bag.

Struck dumb, Nolbo holds up the bag and speaks while trembling.

[Aniri] "Alas! Master, what is this bag?"

"Oh, this bag is called Ascension Bag."

"This bag appears to be innocent, but it can injure many people."

"No, that bag makes good people richer.

It brings sorrow to bad people like you.

어라¹⁰⁶⁹) 어라, 너무 많이 가져 왔는가 보다.

또 올 것인데 뭐.”

“아이고 쌤 언젠데 또 오실까요?”

“오냐, 나 갔다가 종종 심심하면 이렇게 한 번씩 찾아 올 테니,
올 때마다 이렇게 좀 채워 도라,¹⁰⁷⁰) 잉?”

주머니를 들고 두어 걸음 나가더니 인홀불견¹⁰⁷¹) 간 곳이 없제.
역군들이 어이없이 우두커니 섰으니,¹⁰⁷²)

“여보소, 역군들. 아까 그 노인이 상전이 아니라,

은금보화가 변화해서 나의 지기¹⁰⁷³) 떠보느라고 그런 것이오.

둘째 통에는 틀림없이 은금보화가 들었으니,

염려말고 박 따오소.”

역군들이 달려들어 또 한 통을 따다 놓고 타는데,

41. (놀보 둘째 박) 역군들이 놀보를 비꼬는 소리를 하며 둘째 박을 탄다.

[중모리] “시르령 실건 톱질이야. 헤이여루 당겨주소.”

“은금보화가 변화되면 그런 법도 있다더라.”

“시르령 실건 당겨주소.”

“여보소, 역군네들. 내 말을 듣소.

삼시 먹고 닷 냥 줌세.

은금보화가 나오거든 숨김없이 주워 주소.

여봐라 청보¹⁰⁷⁴)야.”

“왜야?”

“힘을 써서 어서 톱소리 맞아라.”

“에이여루 톱질이야.”

Gee, I think I took too much from you.
 I am going to go and come back.”
 “What? Come back? Master, when are you going to come back?”
 “I will go now. If I feel bored, I will come back to you.
 Whenever I come back, fill this bag up. OK?”
 The old man holds the bag, takes a couple of steps, and
 suddenly fades away.
 The workers stand up idly.
 “Hello, workers. The old man was not my master.
 Jewels transformed to the old man in order to test my will.
 There are sure to be jewels in the second gourd.
 Don’t worry. Bring the gourd here.”
 The workers go to another gourd, bring it, and saw it.

41. (Nolbo’s Second Gourd) The workers saw the second gourd, twisting the saw song.

[Jungmori]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That can happen if jewels make a transformation.”
 “Pull and push the saw.”
 “Hello, workers. Listen to me.
 You will be given three meals and five dollars.
 If jewels come out, pick them up and give all of them to me.
 Hey harelippped man!”
 “Why?”
 “Respond to me forcefully in the saw song.”
 “Here goes the haw.”

“어따,¹⁰⁷⁵⁾ 이놈아. 네가 흠소리라 하여노니 모두 다 호명¹⁰⁷⁶⁾하나보다.”

“시르렁 실건 시르렁 실건 시르렁 실건 당겨주소.”

[휘모리]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속삭 속삭 시르렁
속삭,

박이 반쯤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42. (상여 등장) 둘째 박 속에서 상여 한 채가 나와 놀보의 집터에 묘를 쓰려고 하니, 놀보가 천 냥을 주어 보낸다.

[아니리] 놀보가 듣더니마는,

“웁다, 인제 금반상기¹⁰⁷⁷⁾ 은반상기¹⁰⁷⁸⁾가 막 나달아온다.”¹⁰⁷⁹⁾

박이 짝 벌어져노니,

박통 속에서 물색¹⁰⁸⁰⁾ 좋은 상여¹⁰⁸¹⁾ 한 틀이 썩 나오는데,

[중모리]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어넘차 녀화너.

만 리 강남 먼먼 길에 놀보집 오기가 멀고도 멀구나.”

“어넘차 녀화너.”

“놀보놈 집구석이 어디메뇨?

그 놈의 집터가 명당¹⁰⁸²⁾이라 하니,

어서 집을 뜯고 묘를 쓰세.”

“어허넘차 녀화너.”

[아니리] 놀보 기가 막혀,

“대체 이거 웬 상여요?”

“You rat. Because you say haw, all the people are calling out their names.”

“Move the saw back and forth. Pull and push the saw.”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The gourd is half-open and something is heard.

‘Jingle, jingle, jingle, jingle.’

42. (A Bier Shows Up.) A bier comes out of the second gourd. The bier carriers want to use Nolbo’s house as a tomb. Nolbo gives a thousand dollars to send them back.

[Aniri] Nolbo listens to the bell sounds.

“Yes! Golden dishes and silver dishes will tumble out.”

The gourd is cut open.

A bier of good shape comes out of the gourd.

[Jungmori] ‘Jingle, jingle, jingle, jingle.’

“Yo-ho.

It is quite a long distance from Jiangnan(江南) to Nolbo’s house.”

“Heave-ho”

“Where is Nolbo’s house?

His house site is a good one for tomb.

Let’s tear his house down quickly and build a tomb on it.”

“Yo-heave-ho.”

[Aniri] Nolbo is puzzled.

“What bier on earth is this?”

“오, 네가 놀보냐?

먼저 박통 속에서 나오셨던 생원님이 돌아가셔서 이 박통으로 이 직¹⁰⁸³)을 하셨는데,

네 집터가 명당이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으니,
얼른 집 뜯어라.”

놀보가 집터 명당이란 말을 듣더니 죽어도 집은 안 뜯기로 들것다.

“아이고, 여보시오. 집은 내가 죽어도 못 뜯겠으니,

대전¹⁰⁸⁴)으로 받아 가시고,

이 상여는 제발 다른 데로 운상하옵소서.”¹⁰⁸⁵)

“네 이놈, 그럼 얼마나 바칠래?”

“한 오백냥 드리지요.”

“어라, 이놈. 오백냥 가지고 네 집 같은 이런 명당 사겠느냐?

만 냥만 들여라.”

“아이고, 그럼 천 냥만 드리지요.”

“그래라.”

돈을 받아들더니 인홀불견¹⁰⁸⁶) 간 곳이 없제.

역군들이 어이없어 모두 박을 안 타고 싹¹⁰⁸⁷) 가기로 드니,

“여보소, 이 사람들아. 둘째 통까지는 나의 지기 떠보자고 그런 것이고,

셋째 통에는 틀림없이 은금보화가 들었으니

염려 말고 박 타세.

어서 가 박 따오소.”

박을 또 따다 놓고 타는데

“Oh, are you Nolbo?

The old man of the first gourd passed away and was moved to this gourd.

He said in his will that your house site is an auspicious one. Tear this house down.”

Nolbo hears that his house site is a lucky one and refuses to tear his house down.

“Look, I can’t tear my house down even if I am threatened with death.

I will give you some money.

Please move this bier to another place.”

“You rat. Then, how much can you give?”

“Let me give you five hundred dollars.”

“You scoundrel. How can I buy a lucky site like this one with five hundred dollars?

Make it ten thousand dollars.”

“OK. Then, I will give you ten thousand dollars.”

“Fine.”

He takes the money and suddenly fades away.

The workers are dumfounded and determined to go away, refusing to saw any more gourds.

“Look, folks. The two gourds have been testing my will.

The third gourd must have jewels.

Let’s saw it. Don’t worry.

Please bring it over here.”

They bring the third gourd and saw it.

43. (놀보 셋째 박탐) 셋째 박 속에서 놀이패가 나와, 놀부에게 천 냥씩을 요구한다.

[중모리] “시르렁 실건 툽질이야. 헤이여루 당겨주소.”

“여보소, 역군네들. 염려 말고 박을 타소.

망하여도 내 망하고, 흥하여도 내가 흥할 것이니,

걱정을 말고 박을 타세.”

“시르렁 실건 시르렁 실건 시르렁 실건 당겨주소.”

“청보야!”

“왜야?”

“어서 힘을 써서 툽소리¹⁰⁸⁸) 맞어라.”

“오냐 맞는다.”

“흠질이야.”

“예끼, 이놈아. ‘흠질이야’ 하지 말고 ‘툽질이야’ 허여.”¹⁰⁸⁹)

[휘모리]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속삭 속삭 시르렁 속삭.

[아니리] 박이 딱 쪼개져노니

박통 속에서 남사당 여사당¹⁰⁹⁰) 거사¹⁰⁹¹) 각설이¹⁰⁹²) 초라니패¹⁰⁹³)

이런 것이 모두 나와서 놀보 마당에가 죽 늘어서더니마는,

놀보를 보고, “소인 문안이오. 소인 문안이오. 소인 문안이오.”

놀보가 어찌 바뻐던지,

“마오, 마오, 마, 마오. 대체 너희가 무엇들이냐?”

“예, 우리가 저 강남서 놀보 쌤님 박탄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하려고 남사당, 여사당, 거사, 초라니패, 각설이패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거 나오던 중 그중 낫다마는,

43. (Nolbo Saws the Third Gourd.) Entertainers come out of the third gourd, and ask Nolbo for a thousand dollars.

[Jungmori] “Here goes the saw. Pull and push the saw.”

“Look, workers. Let’s saw the gourd. Don’t worry.

I will be the one who rises or falls.

Don’t worry. Let’s saw the gourd.”

“Move the saw back and forth. Pull and push the saw.”

“Hey harelipped man!”

“What?”

“Respond to me forcefully in the saw song.”

“OK. Let me do it.”

“Here goes a haw.”

“You rat. Don’t say haw. Say saw instead.”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Aniri] The gourd is sawn open.

Traveling male and female entertainers, begging entertainers, and grotesque traveling entertainers come out of the gourd and stand up in Nolbo’s yard.

They say to Nolbo, “How are you doing, sir?”

Nolbo is bewildered.

“No, no. What on earth are you?”

“We heard in Jiangnan(江南) that you were sawing a gourd.

Traveling male and female entertainers, begging entertainers, and grotesque traveling entertainers are here to entertain you.”

“You are the best among the ones who came out of a gourd so far.

그럼 어디 한번 놀아봐라.”

“아니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노는데 행하¹⁰⁹⁴)가 천 냥이올시다.”

“뭣이? 천 냥이여?

어따,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마당쇠가 듣더니마는

“아따, 샌님도 기왕¹⁰⁹⁵) 없어질 살림 무엇이 아까워서 그래쥬소.¹⁰⁹⁶)

천 냥 주고 한번 재미있게 놀시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노는 구경이나 해 보자.

한번 놀아봐라.”

이놈들이 각기 멋대로 줄을 고르는데,¹⁰⁹⁷⁾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부르래 똥땅’

한참 놀더니,

남사당패하고 여사당패하고 짝을 지어 갖고 노는데,

여사당들이 앞에 곱게 꾸며 갖고 나와서 예쁘게 한 마디 메기면,¹⁰⁹⁸⁾

또 남사당들이 뒤에 섰다가 앞으로 달려들면서 왔다 갔다 뒤흔 소리 메
기고 한번 놀던 것이었다.

44. (양산도, 장타령) 사당패와 각설이패가 나와 각기 양산 도와 장타령을 한다.

[세마치] “나는 가네. 나는 간다.

저 님을 따라서 내가 돌아가는구나.”

“헤, 마라 마라 마라, 그리를¹⁰⁹⁹) 말어라.

사람의 팔시¹¹⁰⁰)를 네가 그리 말어라.”

“수벽사명양안태

Begin your show.”

“No. You should pay us a thousand dollars for a show.”

“What? A thousand dollars?

You rats! That’s too expensive.”

Madangsoe says,

“What’s the point in saving all your property when it’s going to disappear anyway?

Give them ten thousand dollars and have fun.”

“OK. Then, let me enjoy your show.

Begin your show.”

The entertainers correct the strings of their musical instruments.

‘The musical instruments make diverse sounds.’

They perform for a while.

The male and female entertainers perform in pairs.

The female entertainers dressed up elegantly step forward and sing beautifully a part of a song.

In response, the male entertainers step back and forth fast, as they sing another part of the song.

44. (The Folk Song and the Market Song) Traveling entertainers and begging entertainers sing a folk song and the market song.

[Semachi] “I am leaving. I am leaving.

I am going back, following my love.”

“No, no, no. Don’t do it.

Don’t look down on others.”

“The water is blue, and the sand is shiny.

불승청원각비래¹¹⁰¹)로구나.”

“헤, 마라 마라 마라,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팔시를 네가 그리 말어라.”

“금바위 말랑¹¹⁰²)에 쪽소리¹¹⁰³) 나뭇잎은 제멋에 지쳐서 다 떨어지는
구나.”

“헤, 마라 마라 마라,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팔시를 네가 그리 말어라.”

[아니리] 이렇게 놀고 나니,

이제 각설이들이 썩 나서더니마는 장타령¹¹⁰⁴)을 하는데,

전라도제¹¹⁰⁵)로 하겠다.

[동살풀이] “허절시구나, 들어간다.

각설 춘추¹¹⁰⁶)가 들어간다.

어따, 여봐라 순덕아. 이 내 말을 들어 보라.

너그¹¹⁰⁷) 부모가 너를 나,¹¹⁰⁸)

우리 부모가 나를 나,

고이나 곱게 잘 길러서,

삼간 초당¹¹⁰⁹)에다 집을 짓고 독서당¹¹¹⁰)에다 앉혔네.

진주나 기생 이애미,¹¹¹¹) 왜장¹¹¹²) 청정¹¹¹³)의 목을 안고 진주나 남

강에 떨어져서 만세유전¹¹¹⁴)에 빛났네.

어허, 품바가 잘한다.”

[아니리] 이렇게 하고 나니

또 한 놈이 썩 나서더니마는,

이놈은 경상도제¹¹¹⁵)로 메기던가 보더라.

[동살풀이] “허절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나오신다.

온갖 춘절¹¹¹⁶)이 들어간다.

A bird flew back, not being able to overcome a clear sorrow.
“No, no, no. Don’t do it.
Don’t look down on others.”
“Leaves of an oak tree on a golden rock on a mountain top fall
down, not holding their own energy.”
“No, no, no. Don’t do it.
Don’t look down on others.”

[Aniri] The male entertainers finish performing.
A begging entertainer moves forward and sings the market song.
They sing in Jeolla rhythm.

[Exorcism Mode] “Hurrah. Let me begin.
Let me begin the begging song.
Hey Sundeok. Listen to my word.
Your parents gave birth to you.
My parents gave birth to me.
They took good care of you and me.
They built a cottage with three rooms, and sent us to school.
A courtesan in Jinju, Nongae, hugged a Japanese general and
fell into a river, making her name shine for many generations.
Oh, great. Bravo.”

[Aniri] The begging entertainer finishes performing.
Another begging entertainer steps forward.
This man sings in Gyeongsang rhythm.

[Exorcism Mode] “Hurrah. Let me begin. Hurray. Let me begin.
Whoope. Let me begin. Yippee. Let me finish.
Spring goes.

오동장롱,¹¹¹⁷⁾ 깨끼장롱¹¹¹⁸⁾ 둘이나¹¹¹⁹⁾ 보려고 두었더니,
혼자 보니 웬일이냐?
어허, 품바가 잘한다.”

45. (귀 자 노래) 놀보가 귀찮다고 하자, 초란이패가 귀 자 노래를 부른다.

[아니레] 한참 이려고 나니
초라니패가 썩 불거지더니마는,¹¹²⁰⁾
[자진모리] “개골 개골 청개골아,¹¹²¹⁾
개골애기¹¹²²⁾ 집을 찾으라거든 아랫도리를 따달딸¹¹²³⁾ 걷고서 미나
리짱¹¹²⁴⁾으로 들어라.
어허이야 어허야 어허어 어이야,
이놈, 저놈, 저놈, 이놈, 거사 상투¹¹²⁵⁾가 제일ियो.”
[아니레] 한참 이려고 나니
놀보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들아, 귀찮허다.
이제 그만하고 가거라.”
[자진모리] “귀찮허단 말이 웬 말이오?
귀 자¹¹²⁶⁾ 근본¹¹²⁷⁾을 들어보오.
한발 달린 돌찌귀,¹¹²⁸⁾
두발 달린 까마귀,
세발 달린 통노귀,¹¹²⁹⁾
네발 달린 당나귀,
귀 자 머리는 놀보 심사¹¹³⁰⁾ 후생¹¹³¹⁾에는 무엇이 될랑고?”¹¹³²⁾

I wished to see a paulmownia wardrobe and a one-layered wardrobe with my love.
I can't believe I see them by myself.
Oh, great. Bravo."

**45. (Annoyance Song) Nolbo says he is annoyed.
Entertainers sing the annoyance song.**

[Aniri] The begging entertainer finishes his performance.
A group of female entertainers step forward.
[Jajinmori] "Croak, croak, a green frog.
If you want to find a frog nest, roll up your trousers and go to a dropwort field.
Yo-ho. Yo-ho. Yo-ho.
This rascal. That rascal. A topknot is the best."

[Aniri] The entertainers finish their performance.
Nolbo is stunned.
"You bastards. Don't annoy me.
Stop the performance and go away."

[Jajinmori] "How can you say you are annoyed?
Listen to my story about annoyance.
A hinge has only one leg.
A crow has two legs.
A brass pot has three legs.
A donkey has four legs.
Your character annoys people. What can you become after this life?"

‘또드랑땅땅 똥딱궁.’

“노세 노세 노세, 나가 노세.

돈이나 쪼깨,¹¹³³⁾ 쪼깨 달랑깨¹¹³⁴⁾ 안 주고,

얼른 행하¹¹³⁵⁾ 주시오.”

[아니리] “마당쇠야, 어라,¹¹³⁶⁾ 귀찮다.

어서 행하 쥐서 보내라.

내 정신이 하나도 없다.”

돈을 받더니 또 인홀불견¹¹³⁷⁾ 간 곳이 없제.

놀보 기가 막혀 우두커니 보고 있을 적에,

46. (놀보 아내 만류) 놀보 마누라가 박을 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 마지막 박통이 저절로 벌어진다.

[중모리] 놀보 마누라 기가 막혀, 우루루루 달려 들어, 박통 위에 가서 걸터 앉더니,¹¹³⁸⁾

“타지 마오. 타지 말어. 타지 마시오.

은금보화가 나오기를 바라다, 있던 형세¹¹³⁹⁾가 다 망해 가네.

나를 이 박과 같이 탔으면 탔지,

살려 두고는 못 타리다.

타지 마시오.”

[아니리] 놀보란 놈 화가 상명¹¹⁴⁰⁾까지 찼제.

“에이, 빌어먹을 놈의 박통 같으니라고.”

박통을 집어서 울 너머에다 혹 집어 던져노니

박통 속에서 은금보화가 와 쏟아져서

동네 사람들이 썩 다 주워가 버리제.

‘Ddodeurangddangddang Ddongddagdung.’
“Carpe diem. Carpe diem.
We asked for money, which you didn’t give.
Please give us money for the performance.”
[Aniri] “Madangsoe, I am annoyed.
Send them away with the money.
I am confounded.”
They take money and suddenly disappear.
Dumfounded, Nolbo vacantly looks around.

**46. (Nolbo’s Wife Stops Nolbo.) Nolbo’s wife tells
Nolbo not to saw another gourd. The last gourd
opens by itself.**

[Jungmori] Astonished, Nolbo’s wife runs to Nolbo, and lies
down across a gourd, facing down.
“Don’t saw this gourd. Don’t saw it.
Your wish to have jewels from a gourd will destroy everything
we have now.
If you want to saw this gourd, saw me too.
Over my dead body.
Don’t saw it.”

[Aniri] Nolbo is upset. Anger overflows his lungs.
“I hate this darn gourd.”
Nolbo picks up the gourd and throws it over a fence.
Jewels come out of the gourd.
Villagers pick up all of them and run away.

놀보란 놈, 들도 농도¹¹⁴¹⁾ 못할 즈음에
마저 남은 박통 하나가 제 손수 뚜굴뚜굴¹¹⁴²⁾ 뚜굴 뚜굴 굴리서 놀보
앞에 와 짹 벌어지더니,

47. (장비 등장) 마지막 박통 속에서 장비가 등장하여, 놀보 의 죄상을 말하고 호통친다.

[엇모래]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온다.
저 장수 거동 보라.
먹장낫¹¹⁴³⁾
고리눈¹¹⁴⁴⁾에
다박수염¹¹⁴⁵⁾을 거사려,¹¹⁴⁶⁾
흑총마¹¹⁴⁷⁾ 칩떠 타고,¹¹⁴⁸⁾
사모장창¹¹⁴⁹⁾ 들고,
놀보 앞애가 우뚝 서서,
“네 이놈, 놀보야. 강남서 들은즉 네놈 심술이 고약하여 어진 동생을
구박출문¹¹⁵⁰⁾ 쫓아내고,
제비라 하는 짐승은 백곡¹¹⁵¹⁾에 해가 없는데,
성한 다리를 분질러¹¹⁵²⁾ 공¹¹⁵³⁾ 받고자 한 일이니,
그 죄로 죽어보아라.”
[아니리] 놀보 정신이 아득하여, 혼불부신¹¹⁵⁴⁾이 되어 죽은 듯이 나뻗
이¹¹⁵⁵⁾ 었졌을¹¹⁵⁶⁾ 제,
그 때 홍보가 풍편¹¹⁵⁷⁾에 이 소문을 듣고
쫓아 와서 장군님전에 비는데,

Nolbo can neither keep nor throw away the last gourd.
The last gourd rolls around by itself, comes in front of Nolbo,
and opens itself.

**47. (Zhang Fei(張飛) Shows Up.) Zhang Fei(張飛)
comes out of the last gourd and accuses Nolbo of
his wrongdoing.**

[Eonmori] A warrior comes out. He comes out.
Behold the warrior.
His face is black.
There is a white circle around each of his eyes.
The end of his strong and short beard faces upward.
He is high on a black horse.
He holds a long spear whose top is of triangular shape.
He stands up high in front of Nolbo.
“Nolbo, you villain! I heard in Jiangnan(江南) you are so
perverse that you kicked your virtuous brother out of your
house.
A swallow is an innocent animal doing nothing wrong to a
human.
Your broke its healthy leg to get something from it.
You deserve to die.”
[Aniri] Disconcerted, Nolbo lies down and doesn't move as if
he were dead.
Meanwhile, Heungbo hears about what's going on with his
brother.
He comes over hurriedly and begs the warrior for mercy.

48. (홍보 애원) 홍보가 달려 와서 놀보를 살려 달라고 애원 하니, 장비가 용서하고 떠난다.

[중모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전에 비나이다.
우리 형님 지은 죄를 아우인 제가 대신 받겠사오니,
형님을 부디 살려주오.
만일 형님이 죽거든¹¹⁵⁸ 동생 저 혼자 살아서 뵈하리까?
우리 형님 살려주오.
우리 형님 살려주면 높고 높은 장군 은혜, 혼귀고향¹¹⁵⁹ 돌아가서 호
호만세¹¹⁶⁰를 하오리다.”
장군이 더욱 감심¹¹⁶¹하여,
“네 이놈, 놀보야. 네 죄상¹¹⁶²을 생각하면 당장에 죽이고 갈 일로되,
너의 동생 어진 마음으로 보아 살려두고 갈 것이니
차후는¹¹⁶³ 개과천선¹¹⁶⁴을 하렸다.”¹¹⁶⁵
두어 말을 하더니 인홀불견¹¹⁶⁶ 간 곳 없다.
[아니리] 홍보가 형님한테 물을 떠다 먹이고,
사지¹¹⁶⁷를 주물러서 겨우 일어나게 하니,
놀보가 그제야 정신을 차려,
“아이고 동생.”
“형님, 곤욕¹¹⁶⁸이 심하셨지요?”
“아이고, 동생. 내가 전사¹¹⁶⁹ 모든 잘못된 일을 동생 부디 용서하소.”
“형님, 제가 잘못되어 그랬지요.
형님, 제 살림이 많사오니,
서로 절반씩 반분하여¹¹⁷⁰
한 집에서 우애¹¹⁷¹하고 삽시다.”
“동생 볼 면목도 없고,¹¹⁷² 제수씨¹¹⁷³ 볼 면목도 없네.”

48. (Heungbo Begs.) Heungbo comes quickly and begs
Zhang Fei(張飛) to forgive Nolbo. Zhang Fei(張飛)
forgives Nolbo and leaves.

[Jungmori] “I beg you. I plead with you, general.
Let me be punished for my brother’s wrongdoing.
Please forgive my brother.
If my brother dies, what would I live for by myself?
Please forgive my brother.
If you forgive my brother, I will be eternally grateful for your
huge favor, general.”
The general is moved.
“Nolbo, you villain. Thinking about your wrongdoing, I should
kill you before I leave.
Thinking about your virtuous brother, however, I will let you
go.
Reform yourself and be a good person.”
After a couple of words, he suddenly disappears.
[Aniri] Heungbo brings water to his brother, who drinks it.
Heungbo massages Nolbo’s legs and arms, and helps him to sit
up.
Nolbo manages to gather his senses.
“Oh, my brother.”
“Brother, this must have been painful for you.”
“Brother, please forgive all of my past wrongdoings.”
“Brother, I am to be blamed for all of it.
Brother, I have a considerable fortune.
I will give you the half of it.
Let’s live together in the same house.”
“I feel ashamed to see you and your wife.”

49. (후일담) 놀보는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고, 착한 일을
하며 흥보와 사이좋게 살아간다.

[옛중모리] 그 때여 박놀보는 개과천선을 한 연후에,
흥보 살림 반분하여 형제간에 화목¹¹⁷⁴⁾을 하고,
대대로 자식들을 교훈시켜,¹¹⁷⁵⁾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함을 천추만세¹¹⁷⁶⁾ 빛내더라.
그 뒤야 뉘 알리오?
더질더질.¹¹⁷⁷⁾

49. (Subsequent Story) Nolbo repents of his wrongdoings,
does good things, and gets along well with
Heungbo.

[Eotjungmori] Nolbo transforms himself, becoming a good
person.

Heungbo gives Nolbo a half of his fortune, and lives happily
with Nolbo ever after.

Their descendents educate their children well.

They are loyal to the country and nice to their parents.

They instill brotherly love in their younger generations for a long
time.

Who knows after that?

Let me finish.

-
- 1) 東方.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
 - 2) 君子之國. 군자의 나라. 곧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 3) 禮儀之邦. 예의의 나라. 곧 예의를 잘 지키는 도덕적인 나라.
 - 4) 十室之邑. 열 가구가 사는 작은 고을. 아주 작은 고을.
 - 5) 忠臣. 충성스런 신하.
 - 6) 七歲之兒. 일곱 살 먹은 어린아이.
 - 7) 孝悌. 효도와 공경.
 - 8) 不良한. 어질지 못한. 착하지 못한.
 - 9) 堯舜時節.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인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요임금과 순임금은 중국 제왕의 모범으로서 이상적인 제왕으로 일컬어짐.
 - 10) 四凶.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나라를 해치던 흉악한 죄인인 공공(共工), 환두(驩兜), 삼묘(三苗), 곤(鯀)의 네 사람. 《서경》의 〈순전(舜傳)〉에 보면, 공공은 북쪽의 유주로 귀양을 보내고, 환두는 남쪽의 숭산으로 내쫓아서 가두고, 삼묘의 무리들은 서쪽의 삼위로 쫓아내고, 우임금의 아버지인 곤은 동쪽의 우산에 가두어 죽게 하였다고 함.
 - 11) 當年. 그 해. 그 연대.
 - 12) 盜跖. 춘추시대 노나라에서 도적질과 살인을 일삼던 유척(柳跖)을 가리킴. 도적질을 일삼았기 때문에 도(盜) 자를 붙여, 도적이라고 함.
 - 13) 一種. 어떤. 어떤 종류의.
 - 14) 癘氣. 돌림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
 - 15) 中年. 막연한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
 - 16) 三道. 세 도.
 - 17) 어름. 둘이 맞닿은 곳.
 - 18) 五臟.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내장’의 뜻으로 쓰였음.
 - 19) 육부(六腑)인데, 육부는 한의학에서 담(쓸개), 위, 대장(큰 창자), 소장(작은 창자), 삼초(위의 윗 부분, 위 부근, 배꼽 아래의 부분), 방광(오줌보) 등 여섯 가지 뱃속 기관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
 - 20) 五臟이 칠부(七腑)였던. 내장이 일곱 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던.
 - 21) 大將軍方. 음양설에서 흉한 방위를 맡은 장신(將神)의 하나인 대장군신이 맡은 방위. 이 방위에서 나무를 하면 해를 입는다고 함.
 - 22) 伐木. 나무를 베.
 - 23) 삼살방(三煞方)에. 삼살방에다. ‘삼살방’은 점술에서 세 가지 불길한 살(겁살·세살·재살)이 낀다는 방위.
 - 24) 권(勸)하고.
 - 25) 오귀방(五鬼方)에다. ‘오귀방’은 자연의 순리가 역행하여, 가장 나쁜 방위. 이 방위로 가면, 모든 일이 잘 안 된다고 함.
 - 26) 過客. 지나가는 나그네.
 - 27) 재울 듯이.

- 28) 초랭이. 기괴한 여자 모양의 탈을 쓰고, 붉은 저고리 푸른 치마를 입고 긴 대의 깃발을 가지고 다니던 유랑 연예인.
- 29) 추파를 던지고.
- 30) 居士. 조선조 후기의 유랑 배우. 절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승려에서 파생된 듯.
- 31) 小鼓. 농악에서 사용하는 작은 북으로, 매귀북이라고도 한다. 운두가 낮고 얇은 가죽으로 만들었다. 농악에서 보통 4-5명 이상 편성되는 소고잡이가 소고춤이나 상모놀이를 할 때에 그 음향보다는 맵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32) 冠. 모자.
- 33) 劫奪. 폭력을 쓰거나 위협을 하여 여자의 정조를 빼앗음.
- 34) 守節寡婦. 남편이 죽은 뒤 재혼하지 않고 사는 여자.
- 35) 모함(謀陷)하고.
- 36) 주저앉히고.
- 37) 祭酒. 제사지낼 때 쓰는 술.
- 38) 砒霜. 극약의 일종. 비석을 승화시켜 얻은 결정체로, 무서운 독이 있는데, 극히 적은 분량으로 외과적 치료에 쓰인다.
- 39)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 40) 상투를 한 사람이 머리에 매는 그물처럼 생긴 망건을 매는 끈.
- 41) 한 땀 한 땀 곱게 얼어놓은 갖의 올.
- 42) 말길질. '태권'은 몸을 날려 한 발로 맞은 편 사람의 다리를 쳐서 넘어뜨리는 우리나라 전통무술. 해방 뒤에 생긴 '태권도'의 전신.
- 43) 곱사등이. 곱추.
- 44) 허방을 만들어 놓고. '허방'은 땅바닥이 갑자기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곳.
- 45) 甕器塵. 웅기 그릇을 파는 가게.
- 46) 緋緞塵. 비단 파는 가게.
- 47) 물충질을 하고.
- 48) 이래놓으니. 이렇게 하니.
- 49) 三綱. 신하는 임금을 따르고,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의 윤리의식 세 가지.
- 50) 五倫.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 부부 사이에는 분별,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이르는 유교의 다섯 가지 윤리.
- 51) 倫紀인들. '윤기'는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
- 52) 왜가리. 해오라기과에 딸린 새. 강가나 논에 살면서 물고기, 조개, 개구리 따위를 잡아먹음.
- 53) 聲音. 목소리.
- 54) 고의춤. '고의춤'은 바지의 허리 부분을 여민 사이.
- 55) 內房. 여자들이 거처하는 안방.
- 56) 出入. 드나듦.
- 57) 돼지.

- 58) 새끼를 낳지 못 하는 돼지. 여기서는 쓸 데 없는 자식들을 비유한 말.
- 59) 함부로 많이 낳는 것처럼 하고.
- 60) 嚴冬. 매우 추운 한겨울.
- 61) 雪寒風에. 눈과 함께, 또는 눈 위로 불어오는 찬바람에.
- 62) 白夷叔齊. 중국 은나라의 처사. 고죽군(孤竹君)의 두 아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려고 하자,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효가 아니며, 신하로서 임금을 살해하려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나 무왕이 은(殷)을 평정하자,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수치로 여겨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결국 아사했다.
- 63) 굶주려.
- 64) 首陽山. 중국의 산서성(山西省)에 있는 산으로 백이 숙제가 굶어 죽은 곳.
- 65) 숲. 명령.
- 66) 본다고 하면. 본다면.
- 67) 好衣好食.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 68) 世上分別. 경험이나 식견 따위로 세상일을 따질 능력.
- 69) 一朝에. 하루 아침에. 아주 짧은 기간에.
- 70) 그리 말도록 금지하는 말.
- 71) 山中. 산골. 산속.
- 72) 산중에.
- 73) 살자 허니. 살자고 하니.
- 74) 百物. 여러 가지 물건.
- 75) 道傍. 길가. 여기서는 ‘도방처’를 가리킴. ‘도방처’는 길가와 같이 사람의 내왕이 많은 곳.
- 76) 강경(江景). 충청남도 강경읍을 가리킴.
- 77) 浦州. 지금의 전북 부안군 줄포(苗浦).
- 78) 법성(法聖). ‘법성’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
- 79) ‘젓궂어’인 듯.
- 80) 예절이나 풍속.
- 81) 뺨따귀. ‘뺨따귀’는 뺨을 낮추어 이르는 말.
- 82) 聖賢洞 福德村. 성현과 같이 마음이 착하고 어진 사람들이 사는, 복과 덕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꾸며 지어낸 이름.
- 83) 滋甚. 더욱 심함.
- 84) 各心으로. 제각각의 마음대로.
- 85) 코를 뚫어 코뚜레를 해야 할 만큼 자란 솟소. 힘이 세고 사람에게 달려들기도 하여 다루기가 매우 힘들.
- 86) 木聲音. 목소리.
- 87) 不寐症. 잠이 안 오는 증세.
- 88) 公論. 함께 모여 의논함.
- 89)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마음에 놀랍거나 못마땅한 정도로 심하다고 느낄 때 내는 소리.

- 90) 形勢. 생활의 경제적 형편.
- 91) 家長. 집안의 어른.
- 92) 肝腸.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93) 村名. 마을 이름.
- 94) 淳厚.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운데.
- 95) 間(間). 넓이의 단위. 건물의 칸살의 넓이를 잴 때 쓴다. 한 간은 보통 여섯 자 제곱의 넓이다.
- 96) 細雨. 가랑비.
- 97) 楔시대. 흙벽을 바르기 위하여 벽 속에 엮은 나뭇가지. 땃가지, 수수깡, 싸리 잡목 따위를 가로세로로 엮는다.
- 98) 구멍.
- 99) 세차게 불고.
- 100) 空石. 벼를 담지 아니한 빈 섬.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
- 101) 窓戶. 온갖 창과 문을 통틀어 일컫는 말.
- 102) 玩景. 풍경 따위를 즐길.
- 103) 開天圖. 하늘이 열린 그림. 곧 하늘의 별자리를 그린 그림.
- 104) 二十八宿. 천구를 황도에 따라 스물여덟으로 등분한 구획. 또는 그 구획의 별자리. '황도(黃道)'는 태양의 둘레를 도는 지구의 궤도가 천구(天球)에 투영된 궤도.
- 105) 僅僅이. 겨우겨우.
- 106) 懸鵲百結. 옷이 떨어져서 백 군데나 기웠다는 뜻으로, 누덕누덕 기워 짧아진 옷을 이르는 말.
- 107) 內外間. 부부간. 부부 사이.
- 108) 琴瑟. 거문고와 비파라는 뜻으로, 부부간의 금슬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109) 기운차게.
- 110) 감부기병에 걸려서 까맣게 된 밀이나 보리 따위의 이삭. 여기서는 '병들어 건강치 못한 자식'을 가리키는 말로 썼음.
- 111) 한심可歎. 한심하여 탄식할 만함.
- 112) 모두.
- 113) 軍馬떼.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 떼.
- 114) 모두.
- 115) 壽福. 오래 살고 복을 누리는 일.
- 116) 朝夕. 아침과 저녁의 식사.
- 117) 難堪. 맞부딪쳐 견뎌 내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움.
- 118) 兩主. 안주인과 바깥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119) 初年. 사람의 일생에서 젊은 시절.
- 120) 비하겠는가? 비교하겠는가?
- 121) 육개장의 국물. '육개장'은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뜬어 갖은 양념을 한 뒤에 파와 고춧가루를 넣어 다시 끓인 국.

- 122) 좋던데요.
- 123) 코를 뚫어 코뚜레를 해야 할 만큼 자란 수소. 힘이 세고 사람에게 달려들기도 하여 다루기가 매우 힘들.
- 124) 聲音. 목소리.
- 125) 公論. 함께 모여 의논함.
- 126) 가늘고 단단한 물건이 갑자기 끊어지는 모양, 또는 그 소리.
- 127) 形勢. 생활의 경제적 형편.
- 128) 장가.
- 129) 家長. 집안의 어른.
- 130) 肝腸.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31) 財數. 좋은 일이 생길 운수.
- 132) 還子. 관가에서 가을에 이자를 붙여 갚는 조건으로 꾸어주던 곡식, 또는 그러한 일.
- 133) 戶房. 조선조 때 승정원이나 지방 관청에서 호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아전.
- 134) 환자 몇 섬.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거칠게 엮어서 만든 기구로 한 말의 곱절의 용량을 담는다.
- 135) 九死一生이지. 아홉 번 죽음에 한 번 사는 셈 치는 것이지. 곧 매우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줄 알면서 행할 때 쓰는 말임.
- 136) 辛卯年 趙大妃 國喪時에. 신묘년(1891년) 조대비의 국상 때에. 조대비는 순조의 세자인 익종의 왕비이며 현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임. 철종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일찍 죽자, 대원군 이하응의 아들인 고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하고, 섭정을 하다가, 1891년 신묘년 4월에 죽었음. '국상'은 백성 전체가 복을 입던 왕실의 초상.
- 137) 흰 베로 싸개를 한 갓. 상을 당했을 때나 국상시에 썼음.
- 138) 갓의 테가 있는 둥글고 넓은 부분.
- 139) 漆. 옷칠. 물체의 겉에 발라 씌는 것을 막거나 광택을 내는 데 쓰는 물질. 또는 그것을 바르는 일
- 140) 그을려.
- 141) 도포(道袍). 소매가 넓고 길이가 발등에까지 미치며, 뒷자락에 띠 폭을 낸 옛날 선비의 통상 예복.
- 142) 櫥. 물건을 넣어두는 가구의 한 가지. 넣어두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책장, 옷장, 찬장 따위가 있음.
- 143) '닭장'의 전라도 사투리.
- 144) 治裝. 길 떠날 차비를 차림.
- 145) 秩廳. 관청에서 아전들이 일을 맡아 보던 청사.
- 146) 매만져서 모양을 내는 일.
- 147) 갓 바닥의 가에 둘러 댄 테.
- 148) 破笠. 부서진 갓.
- 149) 물건을 버티어서 이리저리 벌여 매는 줄. 여기서는 갓을 고정시켜 주는 줄.
- 150) 叢叢. 뽕뽕하게.
- 151) 조사 갓끈. 조사로 만든 갓끈. '조사'는 은조사(미단의 한 가지로 여름 옷감으로 씬)를

- 가리키는 듯함.
- 152) 망건편자. 망건을 졸라매는 띠.
- 153) 갓풀(아교)로 붙인 관자. '갓풀'은 짐승의 가죽, 힘줄, 창자, 뼈 따위를 진하게 곤 다음에 굳혀서 만든 풀. '갓'은 재료가 가죽임을 나타내는 접두사.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 154) 종이로 만든 당줄. '당줄'은 망건 양 쪽 끝 위 아래에 달아 망건을 졸라매는 데 쓰는 검은 노끈.
- 155) 頭痛나게. 두통이 생기도록.
- 156) 실로 만든 허리띠.
- 157) 곱돌로 담배통을 만든 담뱃대. '곱돌'은 만지면 양초와 같이 매끈매끈하고 지방 광택이 나는 암석과 광물의 통칭. 활석.
- 158) 여덟 八字 걸음. 八 자처럼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려, 거드름을 피우며 느리게 걷는 걸음.
- 159) 이리 쏘리고 저리 쏘리어 가지런하지 못한 모양.
- 160) 窮數. 궁핍한 운수.
- 161) 男兒. 남자.
- 162) 潘南 朴哥. 본관이 반남인 박 씨.
- 163) 戶房.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 호전관계(戶典關係)의 실무를 맡아보던 책임 향리.
- 164) 하계를 하나, 존경을 하나?. 말을 낮추어 할 것인가, 존댓말을 할 것인가.
- 165)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쓰는 말.
- 166) 끝은 맺지 말고.
- 167) 朴生員. 박씨 성을 가진 생원. '생원'은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는 뜻으로, 그 사람의 성(姓) 밑에 붙이는 말.
- 168) 糴道. 일정한 기간 동안 먹고 살아갈 양식.
- 169) 무슨 일에 드는 힘이나 수고. 여기서는 돈을 받고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일.
- 170) 座首.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향청(鄉廳) 또는 유향소(留鄉所)의 가장 높은 직임. 조선 건국 초기에 악질 향리의 규찰과 향촌의 교화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연로하고 덕망이 높은 자를 좌수로 삼고, 그 다음을 별감(別監)이라 하였다.
- 171) 營門. 병마절도사가 있던 곳. 영문은 본디 병영의 문을 뜻함.
- 172) 棍杖. 조선조 때 죄인의 불기를 치던 형구.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든 것으로,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었다.
- 173) 곱아놓은. 확실하게 정해진.
- 174) 말을 빌어 타고 내는 돈.
- 175) 정강이말. 다리로 걸어나는 것을 우습게 표현한 것임.
- 176) 내어주지. 내어주오.
- 177) 舉動. 일에 나서서 움직이는 태도.
- 178) 櫃門. 나무로 짠 네모진 께작의 문.
- 179) (자물쇠 따위가 서로 닿으면 걸리게 된) 단단한 물건이 세게 맞부딪쳐 달라붙는 소리,

- 또는 그 모양.
- 180) 秩廳. 관청에서 아전들이 일을 맡아 보던 청사.
- 181) 三綱五倫. '삼강'은 유교의 도덕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세 가지 도리. 곧,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함. '오륜'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도리.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함),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함),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할 일이 따로 있음), 장유유서(長幼有序.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는 순서가 있음), 봉우유신(朋友有信.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함)의 다섯 가지 도리.
- 182) 조금 후에 생기는.
- 183) 紙貨. 종이로 만든 돈.
- 184) 돈의 단위로, 한 돈의 십분의 일. 열 돈이 한 냥임.
- 185) '입'의 비어.
- 186) 길게 빼고.
- 187) 葉錢. 예전에 사용하던 낫쇠로 만든 돈.
- 188) 坐而不動.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 189) 根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내력.
- 190) 孟嘗君. (1)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정승.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 찾아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천하의 유능한 선비 수천 명을食客으로 두었다고 함. 진나라에 들어가 소왕(昭王)에게 피살될 뻔했을 때, 과거 그의 도움을 입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도둑질을 잘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유명함. (2) '돈'의 변말. 맹상군의 이름인 전문(田文)과 돈을 가리키는 전문(錢文)이 음이 같아에서 유래함.
- 191) 生殺之權. 살리고 죽이는 권한.
- 192) 富貴功名.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 193) 肉粥. 고기를 넣어 쑀 죽.
- 194) 먹기에 좋을 만큼糯糯하고 묽게.
- 195) 食困症. 음식을 먹은 후에 정신이 흐려지고 맥이 풀려서 졸음이 오는 증세.
- 196) 고자배기처럼 자는 잠. '고자배기'는 풀이나 나무를 베고 남은 부분이 썩은 것. '고자배기잠'은 고자배기처럼 조용히 깊이 자는 잠.
- 197) 국물.
- 198) 後酒. 일단 술을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증류하여 내리는 술. '술을 내린다'는 말은 증류한다는 뜻.
- 199) 작은 물방울이 자꾸 떨어지는 소리, 또는 모양.
- 200) 감추어진 일의 내용
- 201) 돈이네.
- 202) 鈔錢. 鈔으로 받은 돈.
- 203) 古今天地. 예부터 지금까지의 운세상.
- 204) 天不生無祿之人이요, 地不長無名之草다. 하늘은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게

- 하지 않고, 땅은 이름이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음. 곧 제 먹을 것과 할 일은 제각각 타고난다는 말.
- 205) ‘구멍’의 고어.
- 206) 죽사오리가. 죽겠습니까.
- 207) 棍杖. 조선조 때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구.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든 것으로,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중곤(重棍), 대곤(大棍), 중곤(中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었다.
- 208) 終身. 죽을 때까지.
- 209) 좀처럼 고치기 어렵게 속으로 깊이 든 병.
- 210) 본디 기러기의 한 종류를 오랜 세대에 걸쳐 인가에서 기른 결과, 날개가 짧아지고 몸이 비대하게 된 변종인데, 빛은 대개 희고, 부리는 노랑고, 헤엄은 잘 치나 멀리 날지 못한다.
- 211) 兵營. 병마절도사가 있던 영문(營門).
- 212) 버릇없이 구는 놈.
- 213) 풍안(風眼). 바람과 티끌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쓰는 안경. 보안경.
- 214) 여워주니. 결혼시켜주니.
- 215) 허위허위.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서두르는 모양.
- 216) 身世自嘆. 가련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스스로 탄식함.
- 217) 富貴榮華.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 온갖 영광을 누림.
- 218) 이놈의. ‘너’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 219) 兵營골. 병영이 있는 고을.
- 220) 大將旗. 도성이나 영문에 세워, 대장이 부하를 지휘하는 데 쓰던 깃발.
- 221) 肅靜牌. 사형을 집행할 때, 다른 사람이 떠들지 못 하도록 ‘肅’자와 ‘靜’자를 적어서 세워놓는 나무 패.
- 222) 深山 猛虎 威容같은. 깊은 산 속 사나운 호랑이의 위엄 있는 모습과 같은.
- 223) 勇 字 붙인. ‘勇’ 자는 군뢰(軍牢)들이 쓰던 전립(戰笠)의 앞에 낯쇠 조각으로 만들어 붙이던 글자.
- 224) 군뢰사령(軍牢使令) 군대 안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
- 225) 순진한. 순박한.
- 226) 使令.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 227) 三門間. 삼문이 있는 근처. ‘삼문’은 정문과 그 양쪽에 세운 두 개의 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대궐이나 관청의 문.
- 228) 궁둥이의 언저리. 뒤쪽 허리 아래 허벅다리 위 좌우쪽으로 살이 두툼한 부분.
- 229) 엮드려.
- 230) 엮드려놓으니.
- 231) 두 사람을 쌍으로 표현한 것임.
- 232) 排判之以後. 별러서 차린 후.
- 233) 불기塵. ‘불기를 파는 가게’란 뜻으로, 흥부가 불기를 내놓고 엮드려 있는 모양을 비꼬아 일컬은 말

- 234) '본래는 속이 물켜져 상했소.'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일이 잘못 되었소.'라는 뜻으로 쓰였음.
- 235) 九尺. 아홉 자. 약 270cm.
- 236) 피쇠의 아버지. '피쇠'는 피 많은 아이라는 뜻을 지닌 남자 이름.
- 237) 남이 하려는 일을 앞질러서 하는 짓.
- 238) 番手네들. 여러 번수들. '번수'는 대궐이나 관청을 지키는 병사.
- 239) 守番. 교대로 지키는 일.
- 240) 그럭저럭.
- 241) 妖妄스럽게. 요사스럽게 망령되게.
- 242) 魔錢되어. 마귀 붙은 돈이 되어.
- 243) 人事不省. 정신을 잃어 인사를 가리지 못함.
- 244) 남이나 스스로를 이르는 비어.
- 245) 흥에 겨워 절구공이처럼 뿔뿔이 서서 뛰어 오르내리며 추는 춤.
- 246) 嫗叔宅. 시아주버니 집. 남편의 형님의 집.
- 247) 多少間. 많든지 적든지 간에. 약간.
- 248) 錢穀間에.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간에.
- 249) '매'의 낮은 말.
- 250) '보리타다'가 '매를 되게 맞다'는 뜻이므로, 몽둥이로 매를 되게 맞는 일.
- 251) 倫紀. 윤리와 기강.
- 252) 있으므로.
- 253) 매만져서 모양을 내는 일.
- 254) 갓 바닥의 가에 둘러 댄 테.
- 255) 破笠. 부서진 갓.
- 256) 물건을 버티어서 이리저리 벌여 매는 줄. 여기서는 갓을 고정시켜 주는 줄.
- 257) 叢叢. 뻥뻥하게.
- 258) 조사로 만든 갓끈. '조사'는 은조사(비단의 한 가지로 여름 옷감으로 씬)를 가리키는 뜻함.
- 259) '갓풀'은 짐승의 가죽, 힘줄, 창자, 뼈 따위를 진하게 곤 다음에 굳혀서 만든 풀. '갓'은 재료가 가죽임을 나타내는 접두사.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 260) 종이로 만든 당줄. '당줄'은 망건 양 쪽 끝 위 아래에 달아 망건을 졸라매는 데 쓰는 검은 노끈.
- 261) 頭痛나게. 머리가 아프게.
- 262) 실로 만든 허리띠.
- 263) 곱돌로 담배통을 만든 담뱃대. '곱돌'은 만지면 양초와 같이 매끈매끈하고 지방 광택이 나는 암석과 광물의 통칭. 활석.
- 264) 서리 내린 추운 아침.
- 265) (두려워하거나 조심하느라고) 옆으로 걸음을 걸어.
- 266) 書房님. 예전에 평민이 벼슬 없는 젊은 선비를 부르거나, 하인이 젊은 주인을 부르던 말.
- 267) 祭享. '제사'의 높임말.

- 268) 犒軍. 호궤(犒饋). 음식물을 많이 배풀어 군사들을 위로함. 여기서는 ‘음식물을 많이 장만하여 여러 사람들을 많이 먹임’이라는 의미로 썼음.
- 269) 代錢. 대신하는 돈.
- 270) 豬肉. 돼지고기.
- 271) 片肉. 얇게 저민 길짐승의 고기.
- 272) 標紙. 증거의 표로 글을 적은 종이.
- 273) 오대째.
- 274) 獨身. 형제 없는 외아들.
- 275) 合掌.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냄.
- 276) 형님 앞에. 형님께.
- 277) 妻子. 아내와 자식.
- 278) ‘덜짱하게’, ‘말끔히’의 뜻으로 쓰이는 방언.
- 279) 변함없이 이제까지.
- 280) 人命이 在天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 곧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말.
- 281) 죽사오리카마는. 죽겠습니까마는.
- 282) 어쩔 수 없이.
- 283) 살겠나이다.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 284) 곡식 등을 재는 부피의 단위. 석(石).
- 285) 그것도.
- 286) 저것도.
- 287) 耳麥. 귀리. 보리와 비슷하며, 술, 과자의 원료, 또는 사료로 씀. 다른 사람들은 대개 ‘찌갱이’(술을 떠내고 남은 찌끼인 ‘재강’의 방언)로 부른다.
- 288) 잘게 부스러진 쌀알.
- 289) 兩端間에. 둘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간에.
- 290) 千石꾼. 나락 천 석을 추수하는 큰 부자.
- 291) 자물쇠나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고.
- 292) 行廊. 대문간에 붙어 있는 방. 옛날 대문 안에 죽 늘어 있어 하인들이 거처하는 방, 혹은 그 집.
- 293) 정하게 다듬지 않고 거칠게 대강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건목 치다’는 정하게 만들지 않고 건목으로 대강 만들다.
- 294) 잘라서. ‘치다’는 나뭇가지 등을 낫으로 잘라내다.
- 295) 옷감을 감아서 다듬잇돌 위에 얹어놓고 방망이로 반드럽게 다듬는 기구. 지름 10cm 쯤 되는 긴 몽둥이임.
- 296) 伏날. 초복, 중복 말복이 되는 날. ‘복날 개 잡듯 하다’는 말은 심하게 매를 때리는 일을 이룸.
- 297) 舉動. 일에 나서서 움직이는 태도.
- 298) 형편이나 위세 따위가 굽히는 데 없이 당당하게.
- 299) 몇 섬 정도의 벼.
- 300) ‘뒤지’라고도 함. 쌀 따위를 담아두는 세간. 나무로 껍썩같이 만들되, 네 기둥과 짧은

- 발이 있으며, 뚜껑 부분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된다.
- 301) 다물다물하게. '다물다물'은 물건이 무더기로 쌓인 모양.
- 302) 錢穀間. 돈이나 곡식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 303) 天祿房. '하늘이 내린 복록이 들어찬 방'이란 뜻으로, 공간에 붙인 이름.
- 304) 金櫃. 금으로 만든 께. '궤'는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직육면체 꼴로 뚜껑이나 문짝이 있게 나무로 짠 그릇.
- 305) 貫. 열 냇을 단위로 한 엽전 열 꾸러미. 궤.
- 306) 많은 돈.
- 307) 열 냇을 한 꾸러미로 하여, 열 꾸러미씩 쌓아놓은 돈.
- 308) 쌓아 놓은 물건을 뜯어내며.
- 309) 술을 떠내고 남은 찌꺼기인 '재깅'의 방언.
- 310) 句陳房. '구진'은 별의 이름으로 북극에 가장 가까운 여섯 별 중의 하나, 혹은 주되는 궁전의 뒤쪽에 있는 궁전이라는 뜻이므로, '구진방'은 뒤쪽에 있는 방이라는 의미로 쓰인 듯함.
- 311) 돼지때.
- 312) 돼지.
- 313) 黃鷄. 털이 누런 닭.
- 314) 白鷄. 털이 하얀 닭.
- 315) 날개죽지를 툇 툇 치고. 닭이 울기 전에 날개를 먼저 툇 툇 치는 모양을 가리킴.
- 316) 들어올려서 어깨에 메고.
- 317) 꼴짜기.
- 318) 강짜로 인한 싸움. '강짜'는 강새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인 다른 이성과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새암.
- 319) '머리'를 낫잡아 일컫는 말.
- 320) 날아가지도.
- 321) 中門. 사랑채에서 안채로 통하는 문.
- 322) '아주버님'을 속되게 일컫느라고 만들어낸 말. '아주버니'는 남편과 같은 항렬에서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 323) '도마뱀'의 방언. 아주뱀에 이어서 비꼬아 일컫는 말.
- 324) 였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서 하는 말. 상대방을 낮추어 일컫는다.
- 325) 如反掌.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
- 326) '시아주비'의 방언. 시동생. 남편의 남동생.
- 327) 古今天地. 예부터 지금까지의 온세상.
- 328) 殺之. 죽임. 죽이는 일.
- 329) '중장으로 치다'는 뜻으로 쓴 말인 듯. '중장(重杖)'은 몽둥이로 몹시 치는 형벌.
- 330) 凌遲. 능지처참(凌遲處斬). 대역 죄인에게 과하던 최대의 형벌. 머리, 양팔, 양다리, 몸뚱이의 순으로 여섯 부분으로 찢어서 각지에 보내어 여러 사람에게 구경시키는 형벌.
- 331) 撲殺. 때려 죽임.

- 332) 閻羅國.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저승'을 달리 일컫는 말.
- 333) 細細冤情. 자세한 억울한 사정.
- 334) 아될 것인데.
- 335) 빗도리길. 빗근길. 경사진 길.
- 336) 작대기. 주로 무엇을 버티는 데 쓰는 기름한 막대기.
- 337)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338) 江亭모퉁이. 정자가 있는 강가의 모퉁이.
- 339) 家貧에는 思賢妻요, 國亂에는 思良相이라.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
- 340) 말이나 행동 등이 어엿하고 무게가 있다. 여기서는 반어로 쓰고 있음.
- 341)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가늘고 긴 통나무. '마룻대'는 집의 용마루 밑에 서까래가 걸리게 된 도리. '도리'는 기둥과 기둥 위에 돌려 얹히는 나무.
- 342) 두 손으로 힘껏 붙들어 잡고.
- 343) 다리를 아무렇게나 제 멋대로 하고.
- 344) 서럽게.
- 345) 道僧. 본래 '도를 닦는 수도승'을 뜻하나, 민속에서는 '신통술에 아주 통달한 중'의 뜻으로 쓰인다.
- 346) 年年 묵은 중. 중이 된 햇수가 오래된 중.
- 347) '매우 혈어서 낡은'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차림새가 허술하고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로 쓰였음.
- 348) 원래는 송라(松蘿). 소나무겨우살이라는 풀로 엮어 만들어 주로 여승이 쓰는 모자.
- 349) 이리.
- 350) 성기게 꿰매고.
- 351) 저리.
- 352) 깊숙이.
- 353) 누덕누덕.
- 354) 長衫. 검은 베로 만든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은 중의 옷.
- 355) 念珠. (염불하는 수를 헤아린다는 뜻) 염불할 때 손으로 돌려 그 수효를 세는 기구. 여러 개의 보리자, 금강주, 또는 모감주나무의 열매 따위를 실에 꿰어서 만듦.
- 356) 團珠. 밤톨 만하게 깎은 나무 구슬 여덟 개로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 357) 瀟湘斑竹. 중국 소상강 가에서 나는, 아롱진 무늬가 있는 대나무.
- 358) 龍頭 새김. 용의 머리 모양을 새겨 붙임.
- 359) 六環杖. 도가 높은 중이 짚던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360) 힘없이 늘어져 흔들거리고.
- 361) 念佛. 불경을 외는 일.
- 362) 南無阿彌陀佛. 염불하는 소리의 한 가지. 아미타불에 돌아가 의지하여 구원을 원한다는 뜻의 말.
- 363) 觀世音菩薩. 대자대비의 상징으로서 가장 널리 높임을 받는 보살.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정성으로 외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함. 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을

- 가까이 곁에서 모시면서 부처의 교화를 돕는다고 함.
- 364) 上來所修功德海. 여태까지 닦은 공과 덕이 바다처럼 넓음. 불경 축원문의 한 구절.
- 365) 回向三千悉圓滿. 염불하여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니, 각 부처가 다스리는 삼천의 세계, 곧 온 우주가 다 원만하도다.
- 366) 奉位. 절에서 불공을 드릴 때, 소원을 적은 종이를 불상을 밝히는 등 밑에 받들어 붙이는 일.
- 367) 主上殿下壽萬歲. 임금님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며.
- 368) 王妃殿下壽齊年. 왕비전하의 나이도 임금님과 똑같기를 기원함.
- 369) 世子殿下壽千秋. 세자 전하께서 천 년 동안이나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함.
- 370) 國泰民安法輪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부처님의 교화와 설법으로 중생의 미망(迷妄)을 깨우침.
- 371) 양 팔을 짝 벌린 길이.
- 372) 물건. '세 발 장대로 저어도 거칠 문적이 없다'는 말은 아무 것도 가진 물건이 없다는 말.
- 373) 乞僧. 동냥을 다니는 중.
- 374) 哭소리. 소리를 내어 우는 울음소리.
- 375) 未判. 구분이 되지 않음.
- 376) 緣故. 그리 된 까닭. 이유.
- 377) 眷屬. 딸린 식구.
- 378) 多率. (식구나 딸린 사람을) 많이 거느림.
- 379) 大師. '중'을 높여 이르는 말.
- 380) 산모퉁이. 산모퉁이의 휘어 돌린 곳.
- 381) 明堂. 풍수지리에서 장차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는 뫼지리나 집터
- 382) 天下之第一江山.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 383) 岳陽樓. 중국 호남성 악양현에 있는, 동정호가 잘 보이는 성루. 두보의 '등악양루(登岳陽樓)'라는 시로 더욱 유명해졌음.
- 384) 成造. 본디 집을 지키는 신령을 뜻하였으나, 대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을 가리킴.
- 385) 壬坐丙向午門. 임방(壬方), 곧 북북서쪽을 등지고, 병방(丙方), 곧 남남동쪽을 향하게 하고, 오방(午方), 곧 남쪽으로 문을 냄.
- 386) 明年. 내년. 다음해.
- 387) 億十萬金. 많은 돈.
- 388) 長者. 큰 부자.
- 389) 三代進士. 삼 대에 걸쳐 연이어 진사가 남.
- 390) 五代及第. 오 대에 걸쳐 연이어 과거에 급제를 함.
- 391) 兵監司. 병사나 감사. '병사'는 병마절도사. '병마절도사'는 조선조 때 각 지방에 두어 병마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 '감사'는 조선조 때 각 도를 다스리던 관찰사를 달리 이르는 말.
- 392) 的實하니. 틀림이 없으니.
- 393) 수를 세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려.
- 394) 因忽不見. 갑자기 보이지 않음.

- 395) 道僧. 불도를 닦아 깨달은 중.
 396) 겨울 冬 字. 겨울 '동(冬)'이라는 글자.
 397) 갈 去 字. 갈 '거(去)'라는 글자.
 398) 삼월삼짇날. 음력 3월 3일.
 399) 올 來 字. 올 '래(來)'라는 글자.
 400) 봄 春 字. 봄 '춘(春)'이라는 글자. 앞부분부터 이어서 보면, '동겨래춘'이 되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뜻이 됨.
 401) 桃花杏花紛紛이요. 복숭아꽃 살구꽃이 어지럽게 피어 있고.
 402) 梨花滿地不開門. 당나라 때의 시인 유방평(劉方平)의 시 〈춘원(春怨)〉의 한 구절. 지는 배꽃 뜰에 쌓여도 문을 열지 않는다.
 403) 실실 東風에. 슬슬 부는 동풍에, 곧 봄바람에.
 404) 나비 蝶 字. 나비 '접(蝶)'이라는 글자.
 405) 춤출 舞 字. 춤출 '무(舞)'라는 글자.
 406) 피꼬리 수리루 날아 노래 歌 字가 좋을시고. '수리루'하고 우는 피꼬리의 노래가 듣기 좋음.
 407) 기는. 기어다니는.
 408) 짐승 獸. 짐승 '수(獸)'라는 글자.
 409) 나는. 날아다니는.
 410) 새 鳥. 새 '조(鳥)'라는 글자.
 411) 제비 燕 字. 제비 '연(燕)'이라는 글자. 곧 제비를 가리킴.
 412) 高樓巨閣. 높고 크게 지은 집.
 413) 窮僻江村. 매우 후미지어 으스스한 시골.
 414) 땅을 파고 거적으로 위를 덮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게 한 허름한 집.
 415) 알을 품어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왔겠다.
 416) 唐絲실. 중국에서 들여온 품질이 좋은 명주실.
 417) 동여매. 여러 차례 칭칭 감아.
 418) 萬里江南. 만 리나 멀리 떨어진 먼 강남. '강남'은 양자강 이남의 따뜻한 지방을 가리킴.
 419) 微物. 하찮고 보잘것없는 물건.
 420) 九萬長天. 구만 리나 되는 높고 넓은 하늘.
 421) 去中. 공중.
 422) 옛날의.
 423) 孫嬪. 제나라의 뛰어난 병법가. 후에 위나라의 장수가 된 방연(龐涓)과 함께 일찍이 귀곡선생에게 배웠는데, 위나라에 있을 때, 그의 재능을 시기한 방연의 참소에 의해, 발꿈치를 잘라내고 얼굴에 먹 글씨를 넣는 형벌을 받았다. 이 때 사신으로 와 있던 제나라 순우곤이 그를 몰래 빼내 데려다가, 제나라 위임금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제나라의 군사(軍師)가 되어, 위나라의 침략을 받은 한나라를 도와, 방연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를 유인하여 쳐부수자, 방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24) 兩足. 두 다리.
 425) 齊나라. 중국 춘추시대에 산둥성 일대에 있던 나라. 기원 전 1123년에 주나라 무왕이

- 강태공에게 봉하여 준 나라로, 기원전 386년에 가신인 전씨(田氏)에게 빼앗겼다.
- 426) 楚漢 적.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놓고 다투던 때.
- 427)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왔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고조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 때 그는 ‘교토사주구羹(狡兔死走狗烹)’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428) 一支手가 없었으니. 손 하나가 없었으나. 한신이 처음에는 항우를 따랐으나, 자기의 계책이 쓰이지 않으므로 도망하여 한나라에 들어갔다. 승상 소하는 그를 비범한 인물로 보고 추천하였으나, 임금이 흘려 듣자, 한신은 이에 크게 낙담하여 한나라로부터 도망하였다. 소하는 한신이 도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임금에게 알릴 사이도 없이 쫓아가 붙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하까지 도망하였다고 말하여, 임금은 마치 두 손을 잃은 듯이 낙담하여 크게 화를 냈다. 이 사실에서 한신이 손 하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한 고조가 ‘마치 두 손을 잃은 듯했다(如失左右手)’는 《사기(史記)》의 기록의 좌전이다.
- 429) 大將壇. 대장이 부대의 지휘를 위하여 나아가 서는 곳.
- 430) 一軍皆驚. 온 군사가 모두 놀람. 한나라 고조가 승상 소하의 뜻을 따라, 날을 가려 단을 쌓고, 장군을 맞이할 예의를 갖춘 뒤에 한신에게 대장을 제수하자, 제가 대장으로 뽐히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장수와 군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함.
- 431) 九萬長天. 한없이 높고 넓은 하늘.
- 432) 놀며 다니는.
- 433) 祖宗之望帝라. 임금 중에 촉나라 망제이다. 임금 중에서 촉 나라 망제의 님이었다. 망제는 주나라 말기에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컬은 두우를 말하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어, 그 님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434) 百鳥. 온갖 새.
- 435) 點考.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에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 436) 中原. 중국의 일부 지방을 가리키는 말. 오늘날에는 하남성, 산서성, 산둥성 서부 일대를 지칭하는 말로 황하의 중하류 지역을 일컬으나, 본래 한족의 본 거주지역, 즉 과거 주나라가 있던 곳을 지칭하던 말로서, 이곳을 지배해야 중국을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하던 지역이다. 주나라 이후 한족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양자강과 그 서쪽 영역도 중원으로 인식되어 화북평원까지 넓어졌다.
- 437) 갈새. 제비와 비슷하나, 제비보다 조금 큼. 등은 검은 갈색이고, 허리에는 하얀 띠가 있으며, 턱과 목이 약간 회고, 배는 검은 갈색, 깃 가장자리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이 있음.
- 438) 萬里 朝鮮. 만 리나 떨어진 먼 조선, 곧 우리나라.
- 439) 상처가 나으면서 살이 고르지 않게 붙어 도톰해져서.
- 440) 절뚝거리고.
- 441) 小鳥. 새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442) 아뢰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443) 서슴지 않고 단번에. 갑자기 곧. 한 번에.
- 444) 작고 단단한 쇠붙이나 나무 등이 가볍게 부러지는 소리.
- 445) 갸사오리카. 갸졌습니다까.
- 446) 洞燭. 특별히 깊게 헤아림.
- 447) 令. 명령.
- 448) 變. 갑자기 생긴 이상한 일이나 사고.
- 449) 明春. 내년 봄.
- 450) 出行. 길을 떠남.
- 451) 三冬. 겨울 석 달.
- 452) 春三月. 봄 삼월달.
- 453) 方壯커늘. 방장하니. 바야흐로 한창이니.
- 454) 報恩報. ‘은혜를 갚을 박’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455) 黑雲. 검은 구름.
- 456) 발길로 힘껏 차고.
- 457) 去中에. 공중에.
- 458) 西蜀. 중국의 사천성을 이르는 말.
- 459) 咫尺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 460) 蒼茫. 넓고 멀어서 아득함.
- 461) 祝融峰. 중국 호남성 형산현 서북쪽에 있는 형산의 일흔두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 462) 朱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새로 붉은 봉황으로 그려져 있는데, 남방의 신이라 한다.
- 463) 넘노는 듯. 넘나들면서 노는 듯.
- 464) 黃牛土·黃牛灘. ‘황우토’는 중국 호북성 이창현의 서쪽에 있는 황우산을 말하는데, 그 산의 절벽 아래로 ‘황우탄’이 흐른다.
- 465) 烏鵲橋. 황우탄 위의 다리를 전설 속의 오작교로 가정하여 이른 듯함.
- 466) 吳楚東南. 동정호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오나라와 남쪽에 있었던 초나라를 싸잡아 일컫는 말.
- 467) 遠浦歸帆. 바다 멀리서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배의 모습. 소상팔경의 하나.
- 468) 水碧沙明兩岸苔 不勝清怨却飛來라.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가 쓴 시 <귀안(歸雁)>에 있는 구절. <귀안>은 다음과 같다. ‘소상하사등한회(瀟湘何事等閑回) 수벽사명양안태(水碧沙明兩岸苔) 이십오현탄야월(二十五弦彈夜月) 불승청원각비래(不勝清怨却飛來), 소상 떠나 무슨 일로 등한히 돌아왔나? 물은 푸르고, 모래는 밝게 빛나며, 강 양쪽 언덕에는 이끼가 푸른데, 이십오현 비파를 달밤에 탈 때, 맑은 설음 못 이기어 문득 날아 돌아왔다.’
- 469) 一點二點. 하나 둘씩.
- 470) 平沙落雁. 평평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앉음. 소상팔경의 하나.
- 471) 白鷗. 갈매기.
- 472) 白鷺. 왜가릿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리·목·다리는 길고, 두루미와 비슷하나

다소 작다.

- 473) 滄波上. 푸른 물결 위.
474) 夕陽村. 저물 무렵의 마을. 소상팔경 중 어촌석조(漁村夕照)를 가리킴.
475) 거기이다.
476) 回雁峰. 중국 형산의 일흔두 봉우리 중의 하나. 기러기가 이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북쪽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477) 黃陵廟. 요 임금의 두 딸이자, 순 임금의 두 왕비였던 아황과 여영을 모신, 소상강가에 있는 사당.
478) 二十五弦彈夜月. 이십오현 비파를 달밤에 탐.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가 쓴 시 〈귀안(歸雁)〉에 있는 구절.
479) 斑竹. 소상가에서 난다는 알록 무늬가 있는 대.
480) 杜鵑聲. 두견새의 소리.
481)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482)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의 동남쪽에 있는 누대.
483) 鳳去臺空江自流. 봉황은 날아가고, 누대는 비었는데, 그 아래로 강물이 흐른다. 이백의 시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의 한 구절.
484) 黃鶴樓. 중국 호북성 무장 서남쪽 양자강가에 있는 누대.
485)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황학은 한번 가서 돌아오지 않고, 흰 구름만 천 년을 유유히 떠서 흐른다. 최호의 시 〈황학루(黃鶴樓)〉의 한 구절.
486) 金陵. 남경의 옛 이름.
487) 酒肆村. 술집이 있는 마을.
488) 空宿窓外桃李開. 홀로 자는 창 밖에 복숭아꽃 오얏꽃이 피어 춘정을 더하는구나.
489) 落梅花를 툇 차 舞筵에 필경 떨어치고. 떨어지는 매화 꽃잎을 발로 차서 춤추는 자리에 떨어뜨리고. 두보의 시 〈성서피범주(城西陂泛舟)〉의 한 구절인 ‘연축비화낙무연(燕蹴飛花落舞筵)’(제비가 떨어지는 꽃잎을 차서 춤추는 자리에 떨어뜨리다)를 변형한 것임.
490) 二水. 중국 광서성 홍양현에서 시작되어 상수(湘水)와 나뉘어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심강과 합쳐져 서강(西江)이 되는 강. 상수와 나뉘기 때문에 ‘이수(二水)’라고 함.
491) 鷄鳴山. 중국 안휘성 합비현 서북쪽에 있는 산.
492) 張子房. 이름은 양(良), 자(字)가 자방. 뛰어난 지략가로 한나라의 고조를 도운 개국 공신이었으나, 뒤에는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와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선도에 기울어 동해의 신선인 적송자와 놀았다 함.
493)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어 조조의 군사를 깨뜨리기 위하여 칠성단을 쌓은 곳.
494) 七星壇. 복두칠성을 모시는 제단. 공명이 동남풍을 빌기 위해 남명산에 쌓았던 제단.
495) 燕趙之間. 옛 중국의 연나라와 조나라의 사이.
496) 長城. 만리장성을 가리킴.
497) 礪石山. 중국 요동에 있는 산.
498) 燕京. 북경의 옛 이름.

- 499) 皇極殿. 명나라 때 궁궐에서 친자가 정치를 하기 위하여 나가 앓던 곳.
- 500) 萬戶長安. 수많은 집이 가득한 서울.
- 501) 正陽門. 북경성의 정남쪽 문.
- 502) 上達門. 북경성 안의 17리에 걸쳐 이어진 자금성의 아홉 문 중의 둘째 문인 '천안문(天安門)'을 가리킨 듯함.
- 503) 鳳關. 지명인 듯하나 분명하지 않음. 이를 동관(潼關)으로 보면, '동관'은 북경과 요동 사이에 있는 지명임.
- 504) 薩·彌勒. 보살과 미륵.
- 505) 百이로다. 백 개나 된다. 곧 많다는 말.
- 506) 여기서 '순식간에' 정도의 의미로 쓴 말인 듯함.
- 507) 寧古塔: 중국 흑룡강성 남동부에 있는 도시
- 508) 統軍亭: 의주의 서북쪽 압록강가의 높은 데에 있는 경치가 좋은 정자
- 509) '안쪽에 가까이 있는 남산과 바깥쪽에 멀리 있는 남산'이라는 뜻으로 지어붙인 이름.
- 510) 石壁江. 의주 가까이에 흐르는 강 이름인 듯함.
- 511) 龍川江. 평안북도 용천에 있는 강 이름인 듯함.
- 512) 左虎嶺. 가상의 고개 이름인 듯.
- 513) 부산 擺撥. 부산한 파발. '파발'은 공문 따위를 급히 전하려고 일정한 거리마다 설치한, 역마를 갈아타던 곳, 또는 그 공문을 나르던 사람.
- 514) 換馬고개. 말을 갈아타는 고개라는 뜻을 지닌 고개 이름인 듯. '환마(還馬)'는 금의환향이라는 뜻이므로, 환마를 '還馬'로 보면, '환마고개'는 금의환향하는 고개라는 의미임.
- 515) 북쪽 20리에 있는 다리.
- 516) 練光亭. 평양의 대동강 가에 있는 정자. 대동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덕암(德岩)이라는 바위 위에 있는데, 조선조 중종 때 세워졌음.
- 517) 浮碧樓. 평양의 대동강 가에 있는 누대.
- 518) 長林. 길게 펼쳐진 수풀.
- 519) 松都. 개성의 옛이름.
- 520) 滿月臺. 개성 송악산 밑에 있는 고려 왕궁터.
- 521) 觀德亭. 개성에 있는 고려 때의 정자.
- 522) 朴淵瀑布.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폭포. 개성(開城)에서 40리 가량 되는 천마산(天摩山)에 있으며, 부근에는 약수가 있고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송도삼절(松都三絶)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523) 時刻에. 빨리.
- 524) 三角山. 서울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 525) 地勢. 땅의 형세.
- 526) 天龍. 풍수지리에서, 명당을 이루는 큰 산세를 몰고 내려오는 가장 큰 산줄기.
- 527) 大元脈. 큰 줄기를 이루는 산맥.
- 528) 中嶺. 산줄기의 중간 마루.
- 529) 굽이쳐 흘러내려.
- 530) 金華. 인왕산 옆의 금화산.

- 531) ‘계산(桂山)’의 와전인 듯. 오늘날의 종로구 계동 일대의 산줄기.
 532) 分界. 나뉘.
 533) 春塘. 창경궁 안의 춘당대(春塘臺).
 534) 迎春. 경복궁의 동쪽 문인 영춘문(迎春門).
 535) 道峰. 도봉산(道峰山).
 536) 望月臺. 산봉우리 이름인 듯.
 537) 彬彬하고. 빛나고.
 538) 嬉嬉하여. 기쁘고 즐거워.
 539) 萬萬歲之金湯. 오랜 세월 동안의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 ‘금탕’은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준말. 성은 쇠와 같고, 성을 둘러싼 연못은 끓는 물과 같다는 말로, 방어가 튼튼함을 가리키는 말.
 540) 어름에. 두 지역이 맞닿은 곳에.
 541) 지체없이 빨리.
 542) 七牌. 칠패거리. 지금의 중구 중림동 부근.
 543) 八牌. 칠패에 연이어 지어 붙인 이름.
 544) 지금의 서울역 부근에 있던 다리 이름인 듯.
 545) 아야고개. 오늘날의 이태원 고개.
 546) 銅雀江. 동작동에 가까이 흐르는 한강의 한 지류.
 547) 越江. 강을 건넌.
 548) 僧房. 남태령과 동작강 사이에 있는 지명인 듯.
 549) 南泰嶺. 동작동과 과천 사이의 고개.
 550) 죽지. 새의 날개가 몸에 붙은 부분.
 551) 건축에서 간과 간 사이의 두 기둥머리를 건너지른 나무.
 552) 知之知之 主知主知 去之年至 又之拜요, 落之脚之 折之燕之 恩至德至 酬之次로 舍之匏之 來之拜요.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나, 한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 또한 지니고 있음. ‘아시는지요, 아시는지요? 주인님, 주인님. 떠나갔던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떠나갔던 제비가 또 인사를 드립니다. 떨어져서 부러진 다리를 이어주신 은덕을 갚으려고 박씨를 물고 와서 인사드립니다.’
 553)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554) 堂上堂下 飛去飛來. 집 처마 위 아래로 날아오고 날아감.
 555) 翩翩히. 가볍게 훨훨 날아.
 556) 黑龍. 검은 빛깔의 용.
 557) 如意珠. 부처의 사리에서 나와 용의 턱 아래에 있다는 구슬. 이것을 지니면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하여 붙은 이름.
 558) 彩雲間. 여러 가지 고운 색깔의 구름 사이.
 559) 넘노는. 오락가락하며 날아다니는.
 560) 丹山. 봉황새가 산다는 전설 속의 산.
 561) 竹實. 봉황이 먹고 산다는, 대나무 열매 속에 있는 씨.
 562) 幽谷 靑鶴. 깊은 산골짜기의 푸른 학.

- 563) 松柏間. 소나무와 잣나무 사이.
 564) 괴이(怪異)하게. 이상아룻하게.
 565) 급하거나 경솔하지 않고, 자세하고 침착하게.
 566) 折骨兩脚. 뼈가 부러진 두 다리.
 567) 宛然. 매우 분명함.
 568) 五色 唐絲. 여러 가지 색깔의 중국에서 들어온 품질이 좋은 명주실.
 569) 알록달록하니.
 570) 報恩鮑. 은혜를 갚을 박.
 571)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572) 작은 물건이 잇따라 구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573) 떨어뜨려버리고.
 574) 白雲間. 흰 구름 사이.
 575) 蓮實. 연밥. 연꽃의 열매. 약으로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
 576) 當하고. 어떤 때나 형편에 이르거나 처하고.
 577) 원수놈의.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 조각.
 578) 北斗七星님. 민속에서 자손의 탄생과 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는 신.
 579) 三神帝王님. 민속에서 아기 낳는 일을 맡은 삼신을 높여 이르는 말.
 580) 짚자리에 떨어뜨릴 적에. 곧 태어날 때에. 옛날에는 짚을 깔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임.
 581) 命. 목숨.
 582) 壽福. 오래 살며 길이 복을 누리는 일.
 583) 點指. 무엇이 생기는 것을 미리 지시해 줌.
 584) 몹쓸놈의.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 조각.
 585) 다리를 아무렇게나 제 멋대로 하고.
 586) 툇같은 기구를 써서 밀었다 당겼다 하여 갈라지게 해서.
 587) 박의 안에 씨가 박혀 있는 하얀 부분. 씨가 있는 부분은 버리고, 살만 긁어서 식용으로 씹.
 588) 스르렁. 물건이 끌리면서 조금 크고 시원스럽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589) 슬근. 물체가 서로 맞닿아 가볍게 스치며 자꾸 비벼지는 모양.
 590) 抱恨. 한을 품음. 여기서는 간절한 소망.
 591) 툇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592) 맞이하소. 두 편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부르는 것을 가리킴.
 593) 나에게.
 594) 保命. 목숨을 온전하게 지킴.
 595) 江上에. 강물 위에.
 596) 石. 섬. 곡식을 재는 부피의 단위로 180 l.
 597) 無福者는 鷄卵에도 有骨)라더니. 복이 없는 사람은 계란에도 뼈가 들어있었다더니. 복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이 좀처럼 잘 되지 않음을 이르는 말.
 598) 祖上櫃. 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궤. '궤'는 물건을 넣도록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그릇
 599) 좋지 않은. 나쁜.

- 600) 一萬 九萬 石. 많은 쌀을 우습게 일컬은 것임.
- 601) 一萬 九萬 兩. 많은 돈을 우습게 일컬은 것임.
- 602) 흥에 겨워 절구공이처럼 뻗뻗이 서서 뛰어 오르내리며 추는 춤.
- 603) 열 냇씩 꿰어 만들어 놓은 돈뭉치.
- 604) 孟嘗君. 맹상군은 (1)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정승.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 찾아 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천하의 유능한 선비 수천 명을 식객으로 두었다고 함. 진나라에 들어가 소왕(昭王)에게 피살될 뻔했을 때, 과거 그의 도움을 입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도둑질을 잘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유명함. (2) '돈'의 변말. 맹상군의 이름인 전문(田文)과 돈을 가리키는 전문(錢文)이 음이 같은 데서 유래함.
- 605) 生殺之權. 살리고 죽이는 권한.
- 606) 富貴功名.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 607) 건너 마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
- 608) 伯父님. 큰아버님.
- 609) 慶事. 기쁘고 좋은 일.
- 610) 藉勢. 뺨기고 으스스함.
- 611) 恨. 한탄함.
- 612) 門前乞食. 남의 문 앞에서 밥을 빌어먹음.
- 613) 石崇. 진(晉)나라 때의 대부호(大富豪)로서 땀나무 대신 촛불을 사용하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들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권신 사마소(司馬昭)의 인척인 왕개(王愷)와 부를 다투었으나 왕개가 항상 졌다고 한다. '팔왕의 난' 때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에 의해 살해되었다.
- 614) 陶朱公.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왕 구천(句踐)의 충신인 범여를 가리킴. 본디 초나라 사람으로, 자는 소백(小伯).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 왕 부차(夫差)를 죽여 원수를 갚게 했는데, 후에 제나라에서 크게 치부하였음.
- 615) 饑民을 줄란다. '기민을 주다'는 '흉년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다'라는 뜻.
- 616) 銀金寶貨. 금은 보석을 아울러 일컫는 말.
- 617) 嚴冬雪寒.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추위.
- 618) 驅迫을 당(當)하여. 몹시 못 견디게 학대를 당하여.
- 619) 櫛 속에 들어가도. '깍'은 관을 넣는 걸레. 여기서는 '죽어도'의 뜻임.
- 620) 兄弟는 一身 手足이라. 형제는 한 몸의 손발과 같다.
- 621) 遙看扶桑三百尺. 삼백 자나 되는 높은 높이에, 멀리 바라보이는 해 뜨는 곳.
- 622) 日光緞. 옛 비단의 일종. 해나 햇빛 무늬를 놓음.
- 623) 姑蘇臺. 춘추 시대 오나라 임금 부차가 고소산에 지은 누대.
- 624) 岳陽樓. 중국 호남성 악양현에 있는, 동정호가 잘 보이는 성루.
- 625) 謫仙峨帽가 月光緞. 적선(謫仙)의 아미산월가(峨帽山月歌)의 월광단(月光緞)을 뜻함. 이 적선, 곧 이태백이 쓴 시 <아미산월가(峨帽山月歌)>에 나오는 달을 그려 넣은 월광단.
- 626)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던 신녀.
- 627) 瑤池宴. 서왕모가 산다는 요지에서 벌이는 잔치.

- 628) 進上하던. 바치던. '진상'은 임금님께 물건을 바치는 것을 말함.
- 629) 天桃紋. 하늘나라에서 난다는 복숭아를 그려놓은 비단.
- 630) 天下九州. 고대 중국에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나누었던 아홉 개의 주. '온천하'를 뜻함.
- 631) 山川草木. 산과 냇물과 풀과 나무. 온갖 자연.
- 632) 地圖紋. 지도가 그려진 비단.
- 633) 登泰山小天下.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 공자가 태산에 올라 하였다는 말.
- 634)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 635) 大緞. 한단(漢緞). 중국에서 나던 비단의 하나.
- 636) 南陽 草堂. 중국 하남성 남양현에 있던, 제갈량이 벼슬에 나가기 전에 살던 집. '초당(草堂)'은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역새나 짚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637) 景. 경치.
- 638) 臥龍緞. 용이 새겨진 비단. 제갈량의 호가 와룡이었으므로 지어 붙인 이름.
- 639) 四海. 온세상.
- 640) 紛紛. 시끄러운 모습.
- 641) 雷鼓喊聲. 천둥이 치듯 큰 소리가 남.
- 642) 永綃緞.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한 가지. 모초(毛綃)와 비슷한데 품질이 조금 낮음. '영초(英綃)'라고도 함.
- 643) 風塵. 바람에 불려 일어나는 티끌. 여기서는 전장에서 일어나는 티끌, 곧 전쟁을 가리킴.
- 644) 太平乾坤. 태평한 온 세상.
- 645) 大願緞. '큰 소망을 담은 비단'이라는 뜻으로 만든 가상의 비단 이름.
- 646) 念佛打令. 《유예지》에 전하는 곡 이름의 하나. 현행 영산회상 중 일곱째 곡인 염불한 입 초장의 첫째 장단에서 스무째 장단에 해당하는 곡. 여기서는 그저 민속음악 무용곡의 이름으로 썼음.
- 647) 長短. 전통음악에서 박자를 가리키는 명칭인 '장단'의 '단'이 비단 이름 끝에 붙는 '단'과 같기 때문에 비단 이름 뒤에 썼음.
- 648) 부엌이 달려 있는 안채의 방.
- 649) 큰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 방.
- 650) 옆으로 여닫는 창.
- 651) '국화새김'은 국화무늬를 새겨 넣은 것을 가리키며, '완자문'은 긴자 무늬로 창살을 짠 문을 가리킴.
- 652) 草堂前. 몸채의 옆이나 뒤에 따로 지은 초당 앞. '초당(草堂)'은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역새나 짚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653) 花階上. 화단 위.
- 654) 葡萄紋. 포도를 그린 무늬.
- 655) 花欄春城. 봄날에 꽃들이 난만하게 폼.
- 656) 萬化方暢.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이 한창 피어나 자람.
- 657) 蜂蝶. 벌과 나비.
- 658) 紛紛. 어지러이 날아다님.
- 659) 花草緞. 꽃과 풀 무늬를 그려 넣은 비단.

- 660) 년출紋. 덩굴 무늬.
- 661) 統營漆. 통영에서 나는 질 좋은 칠.
- 662) 玳瑁盤. 대모로 만든 쟁반.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
- 663) 安城鑰器. 안성에서 나던 최고급 낫그릇.
- 664) 대접紋. 등글고 크기가 대접만한 무늬를 크게 놓은 비단.
- 665) 康衢煙月. 큰 길거리에 연기에 어린 은은한 달빛. 태평한 시대의 평화로운 풍경.
- 666) 擊壤歌. 풍년이 들어서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를 일컫는 말. 중국 요임금 때 늙은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워 하여 땅을 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함. 그 내용은 ‘일출이작 일입이식 착정이음 경전이식 제력우아하유재(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于我何有哉, 해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네. 샘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 있으리)’임.
- 667) 舍哺緞. 배불리 먹는다는 뜻의 이름을 지닌 비단. 가상의 이름임.
- 668) ‘가셨다’는 뜻으로 지어 부른 가상의 비단 이름.
- 669) 손바닥을 펴고 늘어뜨린 손.
- 670) 덩석. 무엇을 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 671) 桃李佛手. 복숭아나 오얏처럼 생긴 노리개.
- 672) 獨守空房. 홀로 빈 방을 지킴.
- 673) 相思緞.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비단’이라는 뜻으로, 가공의 비단 이름.
- 674) 秋月. 가을 달.
- 675) 貢緞. 무늬가 없고 두꺼운 비단.
- 676) 深山窮谷. 깊은 산 깊은 골짜기.
- 677) 松林間. 소나무 수풀 속.
- 678) 虎皮緞. 호랑이 가죽 무늬와 같이 생긴 비단.
- 679) 洋太紋. 갓끈으로 많이 쓰이는 양태문 갑사.
- 680) 銀造紗. 중국산의 얇은 비단으로, 주로 여름 옷감으로 씬.
- 681) 富貴多男. 부귀하고 아들을 많이 둬.
- 682) 福壽緞. 福자와 壽자가 새겨진 비단.
- 683) 飽食. 배부르게 음식을 먹음.
- 684) 過客. 지나가는 나그네.
- 685) 宮綃緞. 비단의 한 가지. 옅고 무늬가 둥글다. 흔히 땃깃감으로 씬. 궁초의 ‘궁’ 자가 곤궁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窮’자와 음이 같기 때문에, 포식 과객과 연결시킨 것임.
- 686) 가상의 비단 이름. ‘피초단’의 ‘초’자가 본받다는 뜻을 지닌 ‘肖’자와 음이 같기 때문에 ‘피만 부리며 본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어 붙인 것임.
- 687) 松竹緞. 소나무와 대나무가 그려진 비단. 소나무와 대나무가 절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개 있는 송죽단’이라고 하였음.
- 688)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
- 689) 細발浪綾. 말이 가늘고 얇은 비단.
- 690) 중국산 명주의 하나. 촉감이 가늘가늘하여 주로 여자들의 여름 옷감으로 쓴다.
- 691) 靑紗. 푸른색 사. ‘사’는 얇은 비단.

- 692) 紅紗. 붉은색 사. '사'는 얇은 비단.
- 693) 通絹. 아주 얇은 비단.
- 694) 白浪綾. 흰색 낭릉. '낭릉'은 얇은 비단.
- 695) 紅浪綾. 붉은색 낭릉. '낭릉'은 얇은 비단.
- 696) 月下紗紬. 비단 이름인 듯하나 불명. 다른 데서는 '모래사주'로 부르기도 한다.
- 697) 唐布. 당저포(唐苧布). 폭이 조금 넓고 울이 특특한 모시.
- 698) 무당들이 쓰는 굵은 베.
- 699) 細洋布. '가는 서양 베'라는 의미인 듯.
- 700) 水紬. '수화주(水禾紬)'나 '수아주'의 준말. 품질이 아주 좋은 비단.
- 701) 統衣紬. 병사의 군복을 짓는 옷감.
- 702) 黃苧布. 게추리.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 삼 겹질의 겹겹질을 굵어버리고 만든 실로 짠 것.
- 703) 賣買. 사고파는 흥정.
- 704) 甲紗. 품질이 좋은 얇은 비단. 여름 옷감이나 땀기로 많이 씀.
- 705) 細麻布. 가는 삼실로 짠 고운 베.
- 706) 極上細木. 아주 울이 가늘고 고운 무명.
- 707) 細모시. 울이 아주 가는 모시.
- 708) 生絹. 명주실로 얇게 짠 비단의 한 가지.
- 709) 三八. 삼팔주(三八紬). 중국에서 나는 명주의 한 가지.
- 710) 甲紬. 품질이 좋은 고급 명주.
- 711) 庫紗. 고급 비단의 한 가지. 감이 약간 두껍고 깔깔하며 윤이 나는 여름 옷감.
- 712) 官紗.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한 가지. 생사로 짠 여름 옷감.
- 713) 靑貢緞. 푸른색 공단. '공단'은 두껍고 무늬가 없으며 윤이 있는 고급 비단.
- 714) 紅貢緞. 붉은색 공단.
- 715) 白貢緞. 하얀색 공단.
- 716) 黑貢緞. 검은색 공단.
- 717) 松花色. 소나무 꽃 색깔. 곧 노란 색깔.
- 718) 數年. 여러 해.
- 719) 願. 소원(所願).
- 720) 三回裝. 여자의 저고리 깃, 소매부리, 거드랑이를 자주 또는 남빛 형식으로 꾸민 것.
- 721) 恩功. 은혜와 공덕.
- 722) 때가 묻어 더러워지지 않는.
- 723)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곱소리(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것.
- 724) 두루마기.
- 725) 行纏. 바지고의를 입을 때 가드하게 하기 위해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베조각.
- 726)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을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 가드하게 발목을 졸라 매는 줍다란 끈.
- 727) 보기 좋은 모양새.

- 728) 여자의 길게 땀은 머리끝에 드리는 형짚이나 끈.
 729) 여자의 가슴에 매던 띠.
 730) 單衣. 속곳. 속속곳과 단속곳의 총칭.
 731) 옛날 여자 속옷의 한 가지. 속속곳 위 단속곳 밑에 입는데, 가랑이 통은 넓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게 만들고, 아래로 여미도록 되었음. 주로 여름에 입음.
 732) 옛 복장에서 여자가 맨 속에 입는 속옷으로, 다리통이 넓고 밑이 막혀 있음.
 733) 어찌할 수 없는. 꼭.
 734) 零落없는. 조금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735) 寶貨. 보물.
 736) 외배미 들. 한 배미로 된 들. 곧 그렇게 평평한 넓은 들. '배미'는 논이 한 구역.
 737) 億十萬金. 많은 돈.
 738) 素砂들. 충청북도 북쪽에 있는 넓은 들.
 739) 數萬金. 여러 만 냥이 되는 돈. 곧 많은 돈.
 740) 富益富.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됨.
 741)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742) 큰 자귀. '자귀'는 나무를 깎는 연장.
 743) 작은 자귀.
 744) 연장의 하나로, 나무에 구멍을 파거나 다듬는 데 씀. 가늘고 긴 쇠의 날을 세워 위에는 나무로 머리를 만들어 망치로 때려 구멍을 팸.
 745) (사람이나 동물을) 때리는 데 쓰는 단단하고 찰막한 몽둥이
 746) 주로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데 쓰는 농기구. 삽처럼 생긴 나무로 된 몸 끝에 쇠로 날을 박았는데, 자루가 길다.
 747) 東山下. 동쪽에 있는 산 아래.
 748) 넓은.
 749) 壬坐丙向. '임좌'는 임방(壬方)을 등진 자리, '병향'은 병방(丙方)을 향한 자리. 따라서 '임좌병향'은 북북서쪽을 등지고 남남동쪽을 향한 자리를 말함.
 750) 八卦를 놓아. 풍수지리설에 따라 방위를 잡아서.
 751) 사방으로 빙 둘러친 담.
 752) 朱欄畫閣. 단청을 아름답게 한 누각.
 753) 中門. 대문 안에 거둬 세운 문.
 754) 솟을대문.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솟게 만든 대문.
 755) 風磐.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처럼 생긴 물건. 쇠조각으로 봉어 모양을 달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음.
 756) 千石지기. 벼 천 석을 추수할 만큼의 농사.
 757) 萬石지기. 벼 만 석을 추수할 만큼의 농사.
 758) 百家口 종문서. 백 가구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문서.
 759) 넘칠 정도로 가득한 모양.
 760) 잘 매만져서 모양을 내는 일, 또는 그 재료.
 761) '다물다물'에서 파생된 말인 듯. '다물다물'은 무엇이 무더기 무더기로 쌓인 모양.

- 762) 舍廊.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쳐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 763) 잘 손질하여 모양을 냄.
- 764) 본다고 하면. 보면.
- 765) 角壯 壯版. 보통 것에 견주어 더 넓고 두꺼운 장판지로 바닥을 바른 장판.
- 766) 소란 반자. 정(井) 자를 여럿 모아놓은 것처럼 반자들을 짜고, 그 구멍마다 네모진 판자를 넣어 만든 반자. '반자'는 방이나 마루에 종이나 나무로 반반하게 만든 천장.
- 767) 卍字 밀창. 卍 자 무늬가 여럿 이어져서 이루어진 미단이문.
- 768) 樺榴文匣. 곱고 단단하며 붉은 빛을 띤 자단목으로 만든, 문서나 문구 따위를 넣어두는 긴 께.
- 769) 玳瑁冊床. 대모로 만든 책상.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
- 770) 詩傳. 주희가 주해를 단 《시경(詩經)》.
- 771) 書傳. 송나라 때에 주희의 제자인 채침이 주해를 단 《서경(書經)》.
- 772) 周易. 삼경(三經)의 하나로, 중국 주(周)나라 초에 지어진 길흉을 판단하여 점치는 책.
- 773) 李白. 이태백(李太白). 태백(太白)은 자(字)이고 호(號)는 청련(靑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받았다. 신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 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 774) 杜詩에. 두보의 시에다가.
- 775) 通史略. 북송의 사마광이 편년체로 엮은 역사책인 《자치통감(自治通鑑)》과, 원나라 증선지가 엮은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아울러 일컫는 말.
- 776) 건넌마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
- 777) 좋음도. 좋기도.
- 778) 이럭저럭.
- 779) 근심은.
- 780) 거들먹거리고. 신이 나서 버릇없이 굴면서.
- 781) 몸에 병이나 탈이 없느냐?
- 782) 무엇이웁니까? 무엇입니까?
- 783) 官家. 시골 사람들이 그 고을 수령을 이르던 말.
- 784) 끈이나 실 따위로 감거나 둘러 묶어.
- 785) 銀金寶貨. 금은 보석을 아울러 일컫는 말.
- 786) 天下에.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 787) 嫗叔. 시아주머니. 남편의 형님.
- 788) 四肢. 팔다리.
- 789) 家長. 집안의 어른. 남편.
- 790) 前日. 지난날.
- 791) 豪奢. 지나칠 만큼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러한 사치.
- 792) 충청도 한산에서 나던 울이 가는 모시.
- 793) 중국에서 들어온 푸른색 물감.
- 794) 푸르스름하게 들어.
- 795) 치마의 마루폭.

- 796) 넓게.
 797) 弟嫂. 동생의 아내.
 798) 安城鑪器. 안성에서 나는 질 좋은 놋그릇.
 799) 統營漆板. 경상남도 통영에서 나는 질 좋은 옷칠 소반.
 800) 질 좋은 은.
 801) 구리로 만든 젓가락.
 802) 執吏書吏. 관아에서 일을 보던 구실아치.
 803) 數 벌이듯. 계산을 위해 산대를 벌여 놓듯. '산대'는 옛날 계산을 위해 쓰던 대나무 막대기로, 산가지라고도 함.
 804) 烏竹板. 빗갈이 검고 작은 대나무인 오죽에다 꽃을 그려 붙여 만든 소반.
 805) 대 모양 陽刻 唐畫器. 대 모양을 돌을새김하여 그려 넣은 중국산 사기 그릇.
 806)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이어 얽힌 모양. 여기서는 송편을 찢 때 넣는 솔잎이 얽혀 있는 모양을 가리킨 듯.
 807) 반듯.
 808) 貞節編. 네모 반듯하게 자른 흰떡.
 809) 팔을 껍질 채로 삶아 찢 떡.
 810) 蘋果. 사과.
 811) 眞淸. 벌꿀.
 812) 生淸. 불에 끓이지 않은 꿀.
 813) 鳥卵 산적. 달걀을 풀어 섞워 구운 산적. '산적'은 쇠고기 따위를 길게 썰어 양념을 하여 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814) 위에다 곁들여.
 815) 소의 밥통의 고기로 만든 회.
 816) 소·양 따위의 새김질하는 짐승의 셋째 밥통.
 817)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 쓰는 놋그릇.
 818) 淸團. 꿀물에 경단(참쌀로 만든 작고 동그란 떡)을 담근 것.
 819) 水團.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경단을 담근 것.
 820) 'жат배기'는 잣을 문힌 박산(산자의 몸이나, 엿을 반듯하고 얇게 잘라 잣이나 호두 따위를 양쪽에 붙인 유밀과).
 821) 軟脯. 살점을 떼서 말린 고기.
 822) 山菜. 산나물.
 823) 水芹채. 수근을 잘게 썰어 만든 채. '수근'은 미나리.
 824) 靑銅火爐. 청동으로 만든 화로.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
 825) 白炭숯. 떡갈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숯. 숯 가운데서 가장 화력이 셴.
 826) 껍질.
 827) 위에 얹어 부어라.
 828) 연계(軟鷄)찜. 어린 닭 찜.
 829) 단단한 물건을 깨무는 소리.
 830) 포드닥. 작은 날짐승이나 물고기가 날개나 꼬리를 가볍게 치는 소리.

- 831) 메추리 고기로 끓인 탕국.
 832) 뜨거운데.
 833) 쇠로 만든 젓가락.
 834) 箸. 젓가락.
 835) 덩석. 무엇을 냉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836) 적서.
 837) 過夏酒. 소주와 약주를 섞어 빚어서 주로 여름에 마시는 술.
 838) 花盞. 꽃 무늬가 새겨진 술잔.
 839) 였소. 여기 있소.
 840) 薄酒하나. 박주이지만. 보잘것없는 술이지만.
 841) 弟嫂. 계수(季嫂). 동생의 아내.
 842) 품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
 843) 小大喪날. 상중의 소상과 대상. '소상'은 사람이 죽은 지 한 돌만에 지내는 제사. '대상'은 사람이 죽은 지 두 돌만에 지내는 제사.
 844) 勸酒歌. 술을 권하며 부르는 노래.
 845) 매초롬하게. 젊고 건강하여 아름다운 태가 나게.
 846) 媳叔님. 시아주버니. 남편의 형님.
 847) 아주버니를 높여 이르는 말. '아주버니'는 남편과 항렬이 같은 사람 가운데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848) 古今天地. 옛부터 지금까지의 온세상.
 849) 至誠이면.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850) 感天이라. 하늘을 감동시킨다.
 851) 錢穀藉勢. 돈과 곡식이 있다고 빠지고 으시대는 일.
 852) 嚴冬雪寒.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추위.
 853) 驅迫을 당하여. 몹시 못 견디게 학대를 당하여.
 854) 郭. 관(棺)을 넣는 곁.
 855) '속을 차리다'는 '마음을 바로잡다'. 따라서 여기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서는 '마음대로 하려면' 정도의 의미.
 856) 몸을 뒤로 조금 젖히고 멀찍이서.
 857) 處分에 하옵시오. 처분대로 하십시오.
 858) 온돌방에서 위쪽으로 굴뚝 가까이 있는 부분.
 859) 花草穢. 문쪽에 화초의 그림을 그려 만든 장롱.
 860) 그렇지 않아도.
 861) 몹을 만들어 놓아두었다는 의미.
 862) 시식잖은. 갈잖고 되잖은.
 863) 每事. 모든 일
 864) 不如튼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제일임.
 865) 작은 개천.
 866) 房帳. 겨울철에 외풍을 막기 위하여 방문이나 창문에 치는 휘장.

- 867) 고추장.
- 868) 온돌방에서 연기가 나가는 통로 위에 깔아 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 869) 坐而不動.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 870) 부부가 되는 짝.
- 871) 부러뜨려.
- 872) 열가량으로부터 열이 좀 더 되는 수.
- 873) 巨富. 아주 큰 부자.
- 874) 長者.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
- 875) 제비집을 가리킴.
- 876) 제비집의 무게 때문에 집이 동쪽으로 기울 정도였다는 뜻.
- 877) 휘몰아 쫓거나 낚아채리.
- 878) 春節. 봄철.
- 879) 三刻. 세 때. 여기서는 석 달의 의미로 쓰였음. 뒤에 ‘지나고’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함.
- 880) 夏四月. 여름 4월.
- 881) 8일.
- 882) 燕子. 제비.
- 883) 피꼬리는 피꼬꼬꼬 울기 때문에, 피꼬리가 운다는 말을 제 이름을 제가 부른다고 표현한 것임.
- 884) 들어올려서 어깨에 메고.
- 885) 方丈山. 지리산의 다른 이름.
- 886) 右道峰. 오른 쪽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지어 붙인 것.
- 887) 左道峰. 왼 편에 있는 산 이름으로 지어 붙인 것.
- 888) 건너편에 있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889) 맞은편에 있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890) 층층(層層)으로.
- 891) 둘러 있는데.
- 892) (떨기나무나 덩굴풀 따위가)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 893) 닭이나 참새 따위를 쫓을 때 외치는 소리.
- 894) ‘빨리 돌아서’ 정도의 의미인 듯.
- 895) 行하느나. 가느나.
- 896) 鳶飛戾天. 솔개가 하늘 높이 날다. 《시경》 〈대아(大雅)〉에 있는 구절.
- 897) 솔개. 수릿과에 딸린 새. 매보다 크고 날카로운 굽은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들쥐, 물고기, 조개류 따위를 잡아 먹는다.
- 898) 南飛鳥鵲. 남쪽으로 날아가는 까마귀와 까치.
- 899) 春日黃鶯. 봄날의 피꼬리.
- 900) 層巖絕壁. 층층이 바위가 쌓인 높은 절벽.
- 901) 天火日. 정월·오월·구월에는 자일(子日), 이월·유월·시월에는 묘일(卯日), 삼월·칠월·십일월에는 유일(酉日)에 해당하는 날로, 이 날에 상량을 올리거나 지붕을 얹으

- 면 불이 난다고 함.
- 902) 火及棟樑. 기둥과 들보에 불기운이 끼었다는 뜻.
- 903) 身數. 한 사람이 지닌 운수.
- 904) ‘성조(成造)’라고도 함. 본디 집을 지키는 신령을 뜻하였으나, 대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을 가리킴.
- 905) 몇.
- 906) 吉羽 之亢羽 之. 吉羽亢羽 . 새가 날아올랐다 내렸다 함.
- 907) 草席노. 자리를 만들려고, 벼짚이나 보릿짚, 왕골 따위로 꼬아 만든 줄.
- 908) 靑國時調. 청나라에서 부르는 시조.
- 909) 그러한 음조(音調)로.
- 910) 點考.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에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 911) 爪毒. 손톱으로 긁은 자리에 균이 들어서 생긴 염증.
- 912) 자꾸 파닥파닥하는 모양. ‘파닥’은 작은 새가 가볍고 빠르게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913) 크고 가볍게 떠는 모양.
- 914) 失物. 잃은 물건. 물건을 잃어버림.
- 915) 自將作技. 스스로 피를 부릴.
- 916) 수단이나 방법.
- 917) 가늘고 약한 물건이 부러지는 모양.
- 918) 去中. 공중.
- 919) 九萬長天. 한없이 높고 넓은 하늘.
- 920) 가볍게 흔들리는 모양.
- 921) 병이나 탈이 없는.
- 922) 萬里 江南. 만 리나 떨어진 먼 강남.
- 923) 江南之杜鵑. 강남의 두견새는.
- 924) 祖宗之望帝라. 임금 중에 촉나라 망제이다. 임금 중에서 촉 나라 망제의 넷이었다. 망제는 주나라 말기에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컬은 두우를 말하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어, 그 넷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925) 百鳥. 온갖 새.
- 926) 點考.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에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 927) 칼새. 제비와 비슷하나, 제비보다 조금 큼. 등은 검은 갈색이고, 허리에는 하얀 띠가 있으며, 턱과 목이 약간 회고, 배는 검은 갈색, 깃 가장자리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이 있음.
- 928) 상처가 나으면서 살이 고르지 않게 붙어 도톰해져서.
- 929) 절뚝거리고.
- 930) 小鳥. 새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931) 아뢰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932) 不測한. (마음씨 행동 따위가) 엉금하고 께뻘한.
- 933) 天幸. 하늘이 내린 행운.

- 934) 洞燭. (웃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살핌.
- 935) 不測한.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껄쩍하고 엉클한.
- 936) 明春. 내년 봄.
- 937) 讐風. 원수를 갚을 풍과
- 938) 三冬. 겨울의 석달.
- 939) 三春. 봄 석 달.
- 940) 方壯커늘. 만물이 바야흐로 한창이니.
- 941) 還國. 고국으로 돌아감.
- 942) 路程記. 여행할 길에 대해 적은 글. 제비가 강남에서 홍보 집까지 오는 행로는 우리나라 사신들이 다니던 길의 노정과 같다.
- 943) 다르기는. ‘놀보 제비노정기’는 박록주바디의 특징적인 사설임을 일컬음.
- 944) 다르딘가.
- 945) ‘안쪽 가까이에 있는 남산’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산 이름인 듯.
- 946) ‘바깥 쪽에 멀리 있는 남산’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산 이름인 듯.
- 947) 蜀國. 촉나라. 중국 사천성의 옛 이름.
- 948) 蜀山道. 촉산 가는 길. ‘촉산’은 중국 산둥성 문상현에 있는 산.
- 949) 洛陽城. 중국 하남성 북부에 있는 옛 도시.
- 950) 瀟湘江. 중국 호남성 동정호 남쪽 언덕의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 부근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소상팔경(瀟湘八景)이 있음.
- 951) 洞庭湖.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민물 호수. 양자강의 중류에 있음.
- 952) 金陵. 남경(南京)을 이름. 중국 강소성의 성도. 옛부터 여러 번 도읍지가 되었으므로 유적이 많음.
- 953) 岳陽樓. 중국 동정호에 있는 이름난 누대.
- 954) 姑蘇臺. 중국 춘추시대에 오나라 임금 부차가 지은, 강소성 고소산에 있는 누대.
- 955) 五嶽 衡山. ‘오악’은 중국에서 일컫는 다섯 산으로 동악(東嶽) 태산(泰山), 서악(西嶽) 화산(華山), 남악(南嶽) 형산(衡山), 북악(北嶽) 향산(恆山), 중악(中嶽) 숭산(嵩山)을 이름. ‘형산’은 오악 중 남악으로 일컬어지는 산으로 중국 호남성에 있음.
- 956) 불명.
- 957) 불명.
- 958) 月下城. ‘달빛 아래 신선이 노는 곳’이란 의미로 지어진 지명.
- 959) 姑蘇城. 중국 강소성 호현에 있는 소주(蘇州).
- 960)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961) 阿房宮. 중국의 진시황이 함양에 짓다가 만 크고 호화로운 궁전. ‘아방궁’의 이름은 그 일대인 아방촌에 세워진 궁궐이란 뜻으로 뒷사람들이 붙인 이름.
- 962) 萬里長城. 중국의 화북과 내몽고와의 경계선에 동서로 길게 뻗은 성벽으로 된 유적. 산해관에서 감숙성 가옥관에 이름. 전국시대에 현재의 위치보다 훨씬 북쪽에, 흉노를 막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쌓았던 것인데, 진시황이 완성했음. 남북조시대에는 거란을 막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에 쌓았으며, 현존하는 것은 명나라가 몽고인에 대비하여 쌓

- 은 것임. 길이 약 2,400km, 높이 약 6-9m, 두께는 4.5m임.
- 963) 冬雪嶺. 눈덮인 높은 고개.
- 964) 三南.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세 지방을 함께 부르는 말.
- 965) '무리무리'의 뜻으로 쓰인 의태어. '포기'는 '떨기(叢)'에서 온 말.
- 966) 지저귀며.
- 967) 言約. 약속.
- 968) 中天. 하늘 가운데.
- 969) 赤壁江. 중국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을 흐르는 양자강을 이름.
- 970) 蘇東坡. 송나라 시인으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 이름은 식(軾), 동파(東坡)는 호임. <적벽부(赤壁賦)>로 유명함.
- 971)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호임.
- 972) 而今은 安在哉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 973) 靑石嶺. 만주 요령성에 있는, 우리나라 사신들이 연경을 갈 때에 지나던 곳.
- 974) 玉河館. 북경 서쪽으로 흐르는 사하(沙河)에 있는 옥하교 위에 있던, 우리나라 사신이 묵던 곳. 나중에는 북경 안의 조선관으로 숙소를 옮겼다.
- 975) 瀋陽江. 중국 요동성의 성도인 심양 부근을 흐르는 강 이름인 듯.
- 976) 定州. 평안북도 남서 해안에 있는 읍.
- 977) 順安. 평안남도의 평양과 순천 사이에 있는 고을.
- 978) 順川. 평안남도 순천군의 군청 소재지.
- 979) 練光亭. 평양의 대동강가에 있는 정자. 대동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덕암(德岩)이라는 바위 위에 있는데, 조선 중종 때 세워졌음.
- 980) 萬戶長安. 수많은 집이 가득한 서울.
- 981) 秀色. 뛰어나게 아름다운 산천의 경치.
- 982) 불명.
- 983) 文章 孝子 烈女 家家在라. 문장가와 효자와 열녀가 집집마다 있다.
- 984) 送客亭. 평양의 서쪽에 있던 정자.
- 985) 愁雲間. 슬픔을 느끼게 하는 구름 사이.
- 986) 화살.
- 987) 府中. 부 안에. '부'는 조선시대 행정구역 명칭.
- 988) 王太祖. 고려 태조 왕건을 가리킴.
- 989) 古史蹟. 역사상으로 남아 있는 옛날의 중요한 자취.
- 990) 滿月臺. 개성 북쪽의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는, 고려 왕조 450년 동안의 왕궁터.
- 991)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고개.
- 992) 楊州郡. 본디 한양은 양주군의 한 고을이었다.
- 993) 億萬 勢力을 應하였고. 수많은 세력을 대하였고.
- 994) 三角山.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 995) 長安. 서울.
- 996) 南山은 千年山, 漢江은 萬年水라. 남산은 천년을 내려온 산이요, 한강은 만년을 흐르는 물이다.

- 997) 彬彬하고. 빛나고.
- 998) 嬉嬉하여. 기쁘고 즐거워.
- 999) 萬萬歲之金湯. 오랜 세월에 걸쳐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 ‘금탕’은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준말. 성은 쇠와 같고, 성을 둘러싼 연못(해자)은 끓는 물과 같다는 말로, 방어가 튼튼함을 가리키는 말.
- 1000) 어름. 두 지역이 맞닿은 곳.
- 1001) 讐風. 원수를 갚을 바람이라는 뜻.
- 1002) 크게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는 모양.
- 1003) 監營. 감사(監司)가 일을 보던 관청.
- 1004) 전주의 남서쪽에 있는 산의 일곱 봉우리.
- 1005) 세차게 달려.
- 1006) 남원에서 운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고개.
- 1007) 一刻이 如三秋. 짧은 동안도 삼년 같이 생각된다는 뜻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몹시 간절함을 이르는 말.
- 1008) 天道之度가 반갑다. 자연의 섭리로 제비가 돌아와서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다.
- 1009) 讐風이. ‘원수를 갚을 바람’을 의인화한 표현.
- 1010) 넘나들며 놀다가.
- 1011) 兩主. 부부를 일컬음.
- 1012) 白雲間. 흰 구름 사이.
- 1013) 물건을 들추어가며 뒤집는 모양.
- 1014) 怨讐 讐 字, 바람 風 字. 원수 ‘수(讐)’라는 글자와 바람 ‘풍(風)’이라는 글자.
- 1015) 怪異하니. 이상야릇하니.
- 1016) 감추어진 일의 내용.
- 1017) 文章. 여기서는 ‘문장가(文章家)’들을 일컬음. 글을 잘 짓는 사람들.
- 1018) 緋緞 緞 字. 비단 수(繡)라는 글자.
- 1019) 怨讐 讐. 원수 수(讐)라는 글자.
- 1020) 豐年 豐 字. 풍년 풍(豐)이라는 글자.
- 1021) 바람 風 字. 바람 풍(風)이라는 글자.
- 1022) 거름기가 직접 씨앗이 닿지 않도록 흰 짚싹을 놓고.
- 1023) 무르거나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살살 두드려 누르는 모양.
- 1024) 튼튼하게.
- 1025) 새로 돌아온 박의 연한 싹.
- 1026) 박이나 앞으로 기운차게 달려 나오는데.
- 1027) 다듬잇감을 감아서 다듬이질을 할 때 쓰는, 단단한 나무로 둥글고 길게 만든 도구.
- 1028) 덩굴.
- 1029) 갇아야 할 것을 치르느라고.
- 1030) 妖妄. 요사스럽고 망령됨.
- 1031) 당최. 도대체.
- 1032) 생원님. 일반 백성이 양반 선비를 부르던 말.

- 1033) 대신 일을 하여 품삯을 받는 사람.
 1034) 앞 뒤 곱사등이. 가슴과 등의 뼈가 병적으로 붙쑥 나온 사람.
 1035) 병으로 말미암아 꼬부라져 붙거나 팔뚝이 없는 팔을 가진 사람.
 1036) 절름발이.
 1037) 길으로는 멀쩡하나 실상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
 1038) 선천적으로 윗입술이 두 군데가 찢어진 사람.
 1039) 다리가 뻗뻗하여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
 1040) 장애 때문에 걸을 때마다 팔을 휘저으며 다니는 사람.
 1041) 役軍. 공사터에서 샅일을 하는 사람.
 1042) 三時. 아침, 점심, 저녁.
 1043)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앞소리를 메기어라.
 1044) 孟子見梁惠王하신대, 王曰叟 | 不遠千里而來하시니. 《맹자》 〈양혜왕편(梁惠王篇)〉에 나오는 말. 맹자가 양혜왕을 뵈니 왕이 말하기를 노인장께서 천 리 길을 멀다 않고 찾아주시니.
 1045) 書堂. 글방. 책을 두고 공부를 하는 방.
 1046) 뒷박이마. 되 대신으로 쓰는 바가지처럼 못생긴 이마.
 1047) 송곳처럼 끝이 뾰족한 턱.
 1048) 주먹처럼 뭉툭하게 생긴 상투.
 1049) 납작한 코.
 1050) 世代로. 대대(代代)로. 대를 이어서.
 1051) 不知去處. 간 곳을 모름.
 1052) 여기.
 1053) 上典. 종에 대하여 그 주인을 이르던 말.
 1054) 짐승의 정강이에 튀어나온 뼈.
 1055) 마르고 단단한 것이 부러지는 모양, 또는 그 소리.
 1056) 先代. 앞선 세대.
 1057) 어찌할 수 없이.
 1058) 代錢. 대신으로 내는 돈.
 1059) 贖良. 노비가 몸값을 내고 양민이 됨.
 1060) 생각을 단념하거나 무엇을 포기할 때 내는 소리.
 1061) 多少. 많고 적음.
 1062) 였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며 하는 말.
 1063) 錢穀間에. 돈이나 곡식이나 간에.
 1064) 힘있게 위로 끌어올려 들고.
 1065) 쌀을 넣어두는 뒤횑. ‘뒤횑’은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두는 세간의 하나. 나무로 꺾꽂이 만드는데, 네 기둥과 발이 있으며, 뚜껑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된다.
 1066) 家産. 집안의 재산.
 1067) 等物. 여러 가지 물건.
 1068) 凌天囊. 그 속에 넣은 것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주머니.

- 1069) ‘비켜라’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1070) 채워 달라.
 1071)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보이지 않음.
 1072) 서 있으니.
 1073) 志氣, 의지와 기개.
 1074) ‘언청이’의 다른 이름.
 1075)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할 때 내는 소리.
 1076) 呼名, 이름을 부름.
 1077) 金飯床器. 금으로 만든 반상기. ‘반상기’는 격식을 갖추어 밥상 하나를 차리게 만든 한 벌의 그릇.
 1078) 銀飯床器. 은으로 만든 반상기.
 1079) 밖이나 앞으로 기운차게 달려 나온다.
 1080) 物色, 사정이나 형편.
 1081) 喪輿, 사람의 시체를 실어서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
 1082) 明堂, 풍수지리에서 장차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는 뗏자리나 집터.
 1083) 移職, 직장이나 직업을 옮김.
 1084) 代錢, 대신으로 내는 돈.
 1085) 運喪하옵소서. 상여를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1086)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보이지 않음.
 1087) 모두.
 1088) 톱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1089) 해.
 1090) 男寺黨 女寺黨, 남자 사당과 여자 사당. ‘사당’은 조선조 후기에 생긴 유랑 연예인으로 남사당은 ‘거사’라고도 함.
 1091) 居士, 결사(乞士)가 변하여 된 말.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춤과 노래와 재주를 피워서 돈을 벌던 패들.
 1092) 장타령을 부르면서 구걸을 하던 사람.
 1093) 기괴한 여자 모양의 탈을 쓰고, 붉은 저고리 푸른 치마를 입고 긴 대의 깃발을 가지고 다니던 유랑 연예인.
 1094) 行下, 놀이를 끝낸 기생이나 광대들에게 주는 보수.
 1095) 既往, 이미.
 1096) 그렇게 하십니까.
 1097) 음정을 맞추는데.
 1098) 두 편이 노래를 주고받고 할 때 한 편이 먼저 부르면.
 1099) 그렇게 하지를.
 1100) 愼視, 사람을 업신여겨 하찮게 대함.
 1101) 水碧沙明兩岸苔 不勝清怨却飛來.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가 쓴 시 〈귀안(歸雁)〉에 있는 구절. 〈귀안〉은 다음과 같다. ‘소상하사등한회(瀟湘何事等閑回) 수벽사명양안태(水碧沙明兩岸苔) 이십오현탄야월(二十五弦彈夜月) 불승청원각비래(不勝清怨却飛來)’

- 來). 소상 떠나 무슨 일로 등한히 돌아왔나? 물은 푸르고, 모래는 밝게 빛나며, 강 양쪽 언덕에는 이끼가 푸른데, 이십오현 비파를 달밤에 탈 때, 맑은 설움 못 이기어 문득 날아 돌아왔다.’
- 1102) ‘맨 꼭대기’라는 뜻의 방언
- 1103) 상수리나무의 방언.
- 1104) 場打令. 흔히 ‘각설이타령’이라고 함, 동냥하는 사람이 시장이나 거리로 돌아다니며 부른 노래.
- 1105) 전라도 지역에서 부르는 음조(音調).
- 1106) 각설 春秋. ‘춘추’는 공자가 쓴 경서의 하나인데, ‘각설 춘추’는 각설이 타령의 사설을 우습게 높여 이르는 말.
- 1107) 너희.
- 1108) 낱아.
- 1109) 三間草堂. 방이 세 칸인 초가집.
- 1110) 讀書堂. 조선 왕조 때에 문관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을 뽑아 학업을 닦는 데에만 힘을 쏟도록 하던 곳.
- 1111) 논개(論介). 임진왜란 때의 기생으로, 전복 장수 출생.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되어 왜장들이 축석루에서 주연을 베풀 때 왜장 게야무라를 안고 남강에 투신 자살했음.
- 1112) 倭將. 일본의 장수.
- 1113) 게야무라 로구스케(毛谷村六助). 임진왜란 때 조선에 침입했던 일본 장수.
- 1114) 萬歲流傳. 오랫동안 세상에 널리 전함.
- 1115) 경상도 지역에서 부르는 음조(音調).
- 1116) 春節. 봄철.
- 1117) 梧桐櫺籠. 오동나무로 만든 장롱.
- 1118) ‘홀장롱’이라고도 하는 단층으로 된 옛날 장롱.
- 1119) 둘이서.
- 1120) 앞으로 비어져 나오더니마는.
- 1121) 청개구리야.
- 1122) 개구리.
- 1123) 뿔뿔. 작은 물건이 여러 겹으로 등글게 말리는 모양.
- 1124) 미나리를 심는 논. 땅이 걸고 물이 많이 괴는 곳이 좋다.
- 1125) 예전에, 장가든 남자가 머리털을 끌어 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 감아 맨 것.
- 1126) ‘귀’라고 하는 글자.
- 1127) 어떤 것의 본바탕이나 내력.
- 1128)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게 하기 위하여 문설주와 문짝에 박아 서로 맞추어 꽃게 된 쇠붙이로 된 물건.
- 1129) 통노구. 질 나쁜 낫쇠로 만든 술.
- 1130) 귀 자 머리는 놀보 心思. 벌레같은 놀보의 마음을 비꼬아 이르는 말. 귀(貴)라는 글자의 윗부분이 벌레 충(虫)이므로, 놀보의 마음이 벌레와 같다는 뜻.
- 1131) 後生. 죽어서 저승에서 사는 삶.

- 1132) 될까?
- 1133) 조금.
- 1134) 달라니까.
- 1135) 行下. 놀이를 끝낸 기생이나 광대들에게 주는 보수.
- 1136) 그만두라는 뜻으로 하는 말.
- 1137)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보이지 않음.
- 1138) 엎드리더니.
- 1139) 形勢. 경제적인 형편.
- 1140) '숨구멍', '숨통'의 방언
- 1141) 들지도 놓지도.
- 1142) 데굴데굴.
- 1143) 먹같이 검은 얼굴.
- 1144) 눈동자의 둘레에 흰 고리가 둘러 눈.
- 1145) '더벅수염'의 방언. 다박술처럼 짧고 억세며 더부룩한 수염. 다박나룻.
- 1146) 거스르게 하고. 끝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 1147) 黑驄馬. 몸은 청백색이고 갈기는 검은빛이 나는 중국의 호북 지방에서 나던 좋은 말.
- 1148) 높이 올라 앉아 타고.
- 1149) 蛇矛長槍. 창끝이 뱀의 머리처럼 세모로 된 긴 창.
- 1150) 驅迫出門. 못건디게 굴어 쫓아냄.
- 1151) 百穀. 온갖 곡식.
- 1152) 부러뜨려.
- 1153) 여기서는 '업적에 대한 보답'이란 의미로 쓰였음.
- 1154) 魂不附身. 몸시 놀라 뉘을 잃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
- 1155) 납작하게 찬찬히 엎드리는 모양.
- 1156) 엎드려 있을.
- 1157) 風便. 어떤 말을 누구에게랄 것 없이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를 이르는 말.
- 1158) 죽는다고 하면. 죽으면.
- 1159) 魂歸故鄉. 님이 고향으로 돌아감.
- 1160) 浩浩萬歲. 호탕하게 만세를 누림.
- 1161) 感心. 마음에 느끼어 감동함.
- 1162) 罪狀. 죄를 저지른 형편과 상태.
- 1163) 此後는. 이 이후로는.
- 1164) 改過遷善. 허물과 잘못을 고치고 옳은 길로 들어섬.
- 1165) 틀림없이 하라.
- 1166)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보이지 않음.
- 1167) 四肢. 팔과 다리를 이름.
- 1168) 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1169) 前事에. 전에 있던 일에.

- 1170) 半分하여. 절반으로 나누어서.
- 1171) 友愛. 형제간 또는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함.
- 1172) 面目도 없고. 부끄러워 남을 대할 용기도 없고.
- 1173) 계수씨(季嫂氏). 동생의 아내를 높여 일컫는 말.
- 1174) 和睦.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 1175) 教訓시켜. 가르치고 훈계하여.
- 1176) 千秋萬歲. 천만 년. 아주 오랜 세월.
- 1177) 관소리의 끝에 쓰이는 맺음말. 정확한 어원이나 뜻은 알 수가 없다. ‘어질더질’이라고도 한다.

김수연 창

Sung by Kim Su-yeon

1. (놀보 심술)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지역에 놀보와
홍보 형제가 살았는데, 형 놀보는 심술이 사납기로 유명
하였다.

[아니리] 옛날 운봉, 함양 두 얼품¹⁾에 홍부 놀부 두 형제가 사는데,
홍보는 아우요, 놀보는 형이라.

사람마다 오장²⁾이 육본디,³⁾ 놀보만은 오장이 칠보더랍니다.⁴⁾

어찌하여 그런고 하니

왼쪽 갈비 밑에 심술보가 장기 궁짜⁵⁾처럼 똥도도롬허니⁶⁾ 생겨가지고,
밥만 먹으면 심술을 일삼는다, 꼭 이렇게 하겠다.

[자진모리] 대장군방⁷⁾ 벌목⁸⁾허고,

삼살방에⁹⁾ 이사 권코,¹⁰⁾

오구방에다¹¹⁾ 집을 짓고,

길 가는 과객¹²⁾ 양반 채울 듯기¹³⁾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쫓고,
거사¹⁴⁾ 보면 소고¹⁵⁾ 도적,

양반 보면은 관¹⁶⁾을 찢고,

의원 보면은 침 도적질,

초상난¹⁷⁾ 데 춤을 추고,

불난 데 부채질 활활,

호박에다 말뚝 박고,

고추밭에 말 달리고,

비단전¹⁸⁾에다 물총 놓고,¹⁹⁾

물 이고 가는 여자 귀 잡고 입 맞추고,

다 큰 큰애기 겁탈,²⁰⁾

수절 과부²¹⁾는 모함잡고,²²⁾

1. (Nolbo's Perverseness) Two brothers, Nolbo and Heungbo, lived near the border between Gyeongsa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The elder brother, Nolbo, was notorious for his perverseness.

[Aniri] Once upon a time, two brothers, Heungbo and Nolbo, lived in a region where Unbong comes in contact with Hamyang.

Heungbo is the younger brother, and Nolbo is the elder brother. Unlike other human beings, Nolbo has an extra internal organ. Let me tell you why.

A perversity bag of two inches sticks out under his left ribs. Nolbo constantly performs perverse acts as follows:

[Jajinmori] Nolbo tells others to cut down trees to bring bad luck to them.

He encourages people to move to unlucky sites.

He tells people to build houses in unlucky sites.

He detains travelers as if he will provide a place to sleep, but kicks them out after the sun sets.

He steals small drums from traveling entertainers.

He tears off the hats of high class people.

He steals acupuncture needles from doctors.

He dances during funerals.

He fans burning houses

He drives stakes into pumpkins.

He runs horses in pepper fields.

He sprays water in silk stores.

When a woman carries a water pot on her head, he grabs her ears with his hands and kisses her.

He rapes young ladies.

He puts false charges on faithful widows.

길가에 허방놓고,²³⁾
 봉사 입에다 뚱칠허고,
 우는 애기는 발가락 빠리고,
 배 앓는 놈은 살구 주고,
 곱사동이²⁴⁾는 뒤집어놓고,
 애 뺨 부인은 배를 차고,
 소리허는데 잔소리.
 풍류²⁵⁾허는데 나발 불고.
 이놈이 이리 심술이 많을진대,²⁶⁾
 삼강²⁷⁾을 아느냐? 오륜²⁸⁾을 아느냐?
 이 난장²⁹⁾을 맞을 놈이.

2. (놀보가 흥보를 쫓아냄) 하루는 놀보가 공연한 트집을 잡아 흥보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니, 흥보 내외가 아이들 을 데리고 울면서 떠나간다.

[아니리] 이놈이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모를진대,
 형제 윤기인들³⁰⁾ 어찌 알 수 있으리오?
 하루는 놀보가 심술이 나서
 제 동생 흥보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네 이놈, 흥보야!
 너도 이제 나이 사십이 다 된 놈이
 형의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네 처자식 데리고 당장에 나가거라.”
 “아이고, 형님. 별안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He digs holes on the roads.
He pastes dung on a blind man's mouth.
He lets a crying baby suck his toe.
He gives apricots to a person with stomachache.
He lays hunchbacks on their backs.
He kicks pregnant women in their bellies.
He makes noises while singers sing.
He blows trumpets when people recite poems.
He is perverse as described above.
He doesn't know the basic ethical rules.
He is a man to be beaten up.

2. (Nolbo Kicks Heungbo Out.) One day, Nolbo tells Heungbo to get out of his house, making a false charge against him. Heungbo and his wife leave along with their children, shedding tears.

[Aniri] Nolbo doesn't know basic ethical rules.
How can he know the moral rules related to brother?
One day, his bad temper kicks in.
He calls Heungbo and speaks to him.
"Heungbo, you villain!
You are almost in your forties now.
You shouldn't rely on your brother for living.
Get out of my house along with your wife and children."
"My goodness! What are you talking about out of blue?"

“무슨 말씀이시고 무엇이고,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별 수 있어?”

[중모레] 홍보 하릴없어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시니,

어느 영³¹⁾이라 어기오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졌소?

자식들을 불러 보오.

큰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놈아, 이리 오너라.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옵시오.”

“오냐, 잘 가거라.”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를 어찌잔 말이나?

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동령³²⁾에 달이 솟네.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네 것, 내 것 다툼 없이

평생에 호의호식,³³⁾ 먹고, 입고, 쓰고도, 입고, 남아

세상분별³⁴⁾을 몰랐더니,

홍보놈의 신세가 일조예³⁵⁾ 이리 될 줄을 귀신인들 알겠느냐?

어느 곳으로 갈꼬? 갈 곳이 막연허구나.

아서라,³⁶⁾ 산중³⁷⁾으로 가자.

산중에 가 사자허니³⁸⁾ 백물³⁹⁾이 귀하여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⁴⁰⁾으로 가자.

일 원산,⁴¹⁾ 이 강경이,⁴²⁾ 삼 포주,⁴³⁾ 사 범성이,⁴⁴⁾ 도방에 가 사자허니,

비린내 짓궂어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나?”

“I don’t want to hear you. Just get out of here as I told you.”

[Jungmori] With a heavy heart, Heungbo goes to his wife.

“Hello, honey! My brother wants us to get out of here.

We have to leave because we can’t disobey him.

Please call the children.

The first child, where are you? The second child, come here.

Bother, we are leaving. Take care.”

“Good. So long!”

“Alas! Woe is me! What will become of me?

The sun is about to set.

The moon rises on the east mountain pass.

When my parents were alive, my brother and I shared everything.

We had enough clothes and food for the rest of our lives.

I didn’t know the world was cruel.

Nobody knew my fate would go down like this in a day.

Where should we go? We have no place to go.

Let’s go to a mountain.

We can’t live on a mountain because daily necessities are precious there.

Let’s go to a crowded place.

Let’s consider crowded places: Weonsan, Ganggyeong, Poju, and Beopseong.

We can’t live there because of the bad smell.

Where should we go?”

3. (홍보 아내 탄식) 홍보네가 고생하며 사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조르자, 홍보 아내가 형세를 생각하며 탄식한다.

[아니리] 그렇저렇⁴⁵⁾ 성현동 복덕촌⁴⁶⁾을 당도하여
빈 집 한 칸 의지하고 근근이⁴⁷⁾ 살아갈 적에,
철⁴⁸⁾ 모르는 자식들은 제 각기 나았으며 저희 어머니를 조르는데,
한 놈이 나았으며,
“어머니, 나는 서리쌀밥⁴⁹⁾에 육개장국⁵⁰⁾ 한 그릇만 먹었으면.”
또 한 놈이 나았으며,
“어머니, 나는 호박떡 한 시루만 해주시오.
호박떡은 더워도 달고, 식어도 달고, 참 맛이 좋지.”
각심으로⁵¹⁾ 조를 적으,
홍보 큰아들이 나았으며,
[중모리] “밥도 싫고, 옷도 싫고,
밤이나 낮이나 잠 못 자는 설움 있소.”
“어서 말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⁵²⁾하고, 나 장가 좀 들여주요!”
“무엇이라고?”
[진양조] “어따,⁵³⁾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듣거라.
내가 형세⁵⁴⁾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
중한 가장⁵⁵⁾을 굶기고,
어린 자식을 벗기겠느냐?
하느님이 주시는 복이니 굶으라면 굶을 것이요, 죽이시면 죽을 터이다.
철 모르는 자식들아,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⁵⁶⁾이 다 녹는다.”

3. (Heungbo's Wife Laments.) Life is hard for Heungbo's family. The oldest son asks to be married. Heungbo's wife laments over their fate.

[Aniri] Somehow, Heungbo's family arrives at Virtue Village. They manage to live in a house with one room. Immature, each of the children badgers his mother for something.

One of them moves forward.

"Mom, I want to eat a bowl of hot spicy meat soup with white rice."

Another steps forward.

"Mom, give me a pot of pumpkin rice cake.

Pumpkin rice cake is sweet and delicious, wether hot or cold."

Each child has his own wish.

The first son speaks.

[Jungmori] "I want neither food nor clothes.

Sorrow keeps me awake all night."

"Why is that so?"

"Please discuss my marriage with daddy!"

"What?"

[Jinyangjo] "God! You rascal! Listen to me!

If I were rich, you would be married.

My husband wouldn't be starving.

The children wouldn't be poorly clothed.

We have no choice but to go hungry or die, accepting our fate.

Immature children, I feel bad because I can't give you food and good clothes."

4. (돈타령) 홍보가 매품을 팔기로 하고 돈을 받아, 돈타령을 부르며 돌아오자, 홍보 마누라도 돈타령을 하며 좋아한다.

[아니리] 이때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그 없이 사는 살림에 밤낮으로 눈물만 짜니, 거 무슨 재수⁵⁷⁾가 있겠소?
나 읍내 나가 환자섬⁵⁸⁾이나 얻어 오리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환자섬인들 누가 줄 리가 있겠소?”
그 때여 홍보가 읍내를 나가 호방⁵⁹⁾을 만나 환자 말을 하니,
호방 허는 말이, “박생원, 그러지 말고 매품⁶⁰⁾이나 한번 팔어보시오?”
“거,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말고.”

“다름 아니라, 우리 골 좌수⁶¹⁾가 영문⁶²⁾에 걸렸는디,

좌수 대신 곤장⁶³⁾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서른 냥을 주고,

우선 마삿⁶⁴⁾ 닷⁶⁵⁾ 냥을 준다하니,

그 품이나 한 번 팔아 보오.”

“그 품 내가 팝시다.”

[중모리] 저 아전 거동⁶⁶⁾을 보아라.

케문⁶⁷⁾을 절척⁶⁸⁾ 열고

돈 닷 냥을 내어주니,

홍보가 받아 들고,

“나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오.”

박홍보 좋아라고, 질척⁶⁹⁾ 밖으로 썩 나서서,

4. (Money Song) Heungbo gets caned for money and comes back home with money, singing the money song. His wife gets ecstatic, singing the song with him.

[Aniri] Heungbo's wife comes in.

"Darling, don't cry.

We are poor. You cry day and night. How can we be lucky? Let me go downtown and borrow a bag of relief rice from the government office."

"We are this poor. How can the government lend us the relief rice?"

Heungbo goes downtown, meets a government employee, and talks about the relief rice.

The official says, "Mr. Bak, forget the relief rice. Why don't you get caned for money?"

"I am happy to be caned if I make some money."

"OK. A respected man in our town committed a crime in the military office.

Be beaten with a club ten times on his behalf.

You will make 30 dollars, 3 dollars for each stroke.

And you will be given 5 dollars for a horse ride in advance.

What do you say about that?"

"I'd like to get caned for him."

[Jungmori] Behold that officer.

He opens a coffer, making a loud sound.

He gives 5 dollars to Heungbo.

Heungbo takes the money.

"OK. I am going there."

"Come back in one piece."

Delighted, Heungbo leaves the government office.

“얼씨구나! 좋구나!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⁷⁰⁾ 서른닷 냥이 들어간다.

우리 집을 어서 가자.”

저의 집 문전에 당도하여,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

루루루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⁷¹⁾ 옳제,

당돌히 앉아서 좌이부동⁷²⁾이 웬 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나온다. 홍보 마누라 나오면서.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 못 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요.”

홍보가 좋아라고, “여보게 마누라! 이 돈 근본을 자네 아나? 돈의 근본
을 자네 알어?

생살지권⁷³⁾을 가진 돈,

부귀공명⁷⁴⁾이 붙은 돈

맹상군⁷⁵⁾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가다 오다가 생긴 돈, 이리저리 생긴 돈.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홍보 마누라도 좋아라고,

“여보, 영감. 이 돈이 웬 돈이오?

일수돈⁷⁶⁾을 얻어왔소?

월수⁷⁷⁾ 체계⁷⁸⁾ 파수돈⁷⁹⁾을 얻어왔소?

돈이란 말이 웬 말이오?”

“아니로세, 아니로세. 우리 재수 대통하여 횡재⁸⁰⁾ 돈이 생기었네.”

“횡재라니 웬 말이오? 생천생지⁸¹⁾ 아니어든 무슨 횡재가 생기었소?

어디 봐요, 돈 봐.”

“Whoopee! Yippee!

With one move, a man made 35 dollars.

Let me go home in a hurry.”

He arrives in front of his house.

“Sweetheart! If the head of the family comes back home, you ought to come out fast and greet him.

How dare you sit there without moving?

Gee, how rude you are!”

[Jungjungmori] Heungbo’s wife comes out.

“Darling, I didn’t know you had come. I am sorry.

Come here. Come here.”

Heungbo is delighted. “Honey! Do you know about the nature of money?

Money can make a person live or die.

Money is accompanied by wealth, nobility, and fame.

Money is round like a wheel of a cart and moves around.

We make money here and there.

Where have you been? Hurrah! Yippee.”

Heungbo’s wife is elated too.

“Darling, how did you get this money?

Did you borrow it at a daily interest?

Did you borrow it at a monthly interest?

How did you get this money?”

“No, it’s not that kind of money. We are fortunate to have this windfall.”

“Is this a windfall? This must not be a windfall. Let me take a look at the money.”

5. (홍보 아내 만류) 홍보 아내가 홍보의 매품팔이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래]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이 고을 좌수가 병영⁸²⁾ 영문에 걸렸는디,
좌수 대신 곤장 열 대를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서른 냥을 주고,
우선 마삿 닷 냥을 준다기에,
내가 대신 가자 허고 마삿 닷 냥을 받아왔으니,
이 걸로 쌀 팔고, 고기 사서 저 어린 자식들을 구환⁸³⁾헙시다.”
홍보 마누가가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중헌 가장 매품 팔아 먹고 산다는 말은 고금천지⁸⁴⁾ 처음이라,
붙들고 만류를 허는디,

[진양조] “여보, 영감! 여보 영감, 매품이라니 웬 말이오?
남의 죄를 어이⁸⁵⁾ 알아 대신 말이 웬 말이오?
말을 들어보면, 병영 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⁸⁶⁾ 골병⁸⁷⁾이
든답디다.
음지⁸⁸⁾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 되느니.
천불생무륙지인이요, 지부장무명지초라.⁸⁹⁾
하날⁹⁰⁾이 무너져도 솟아날 궁기⁹¹⁾가 있는 법이니,
제발덕분에 가지 마오.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5. (Heungbo's Wife Pleads,) Heungbo's wife asks her husband not to be canned for money.

[Aniri] "Let me tell you about this money.

A respected man in our town is to be punished by the government.

I heard if I take ten strokes with a club on his behalf, I will make 30 dollars, 3 dollars for each stroke, and 5 dollars for a horse ride.

I told them I would do it, and got 5 dollars for the horse ride. Let's buy rice and meat and relieve our young children of hunger."

Hearing what he said, Heungbo's wife is stunned.

She never heard of a family making a living by having its precious head caned for money.

She stops him.

[Jinyangjo] "Hello, honey! Get caned for money? I can't believe this.

How can you get caned for the crime you didn't commit?

I heard one stroke of the military office causes a deep wound.

A bad fate becomes good; a good fate becomes bad.

Each person is fated to eat something and have a job.

We have a way to survive even if heaven collapses.

Please don't go there.

Honey, how poor you are! Please don't go."

6. (병영 길) 홍보가 신세자탄을 하며 병영 길을 간다.

[아니리] “시끄럽네, 이 사람아.

매 맞는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는가?

거 쓸 데 없는 볼기 매 맞고 돈 좀 벌면 어때?

내 다녀오리다.”

[중모리] 아침밥을 지어 먹고, 병영 길을 내려간다.

허유허유⁹²⁾ 내려가며, 신세자탄⁹³⁾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⁹⁴⁾ 높은 집에 호가사⁹⁵⁾로 잘 사는데,

이놈의 팔자는 박복허여 매품 팔아서 먹고사니.”

그렇저렇 당도하니 병영골⁹⁶⁾이 무서웁다.

치어다보느냐,⁹⁷⁾ 대장기요,⁹⁸⁾

내려 굽어보니 숙정패⁹⁹⁾로구나.

심산 맹호 엄용같은¹⁰⁰⁾ 용 자 불인¹⁰¹⁾ 군로사령¹⁰²⁾이 이리 가고, 저

리 간다.

그때여 박홍보는 슷헌¹⁰³⁾ 사람이라, 벌벌벌 떨며 들어간다.

7. (홍보 헛걸음) 홍보가 매품을 팔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홍보 아내는 걱정하며 기다리다가 홍보를 반겨 맞는다.

[아니리] 홍보가 삼문¹⁰⁴⁾ 궁기¹⁰⁵⁾를 들여다보니

죄인들이 볼기¹⁰⁶⁾를 맞느라고 장관¹⁰⁷⁾이었다.

홍보가 생각하기를, ‘아마 저 사람들은 내 앞에 와서 돈 수십 냥을 벌어가는가 보다.

6. (On the Way to the Military Office) Heungbo goes to the military office, lamenting over his fate.

[Aniri] “I don’t want to hear you.

A man doesn’t die simply because he is caned.

What’s wrong with using my idle bottom to make some money?
I’ll be back.”

[Jungmori] Heungbo eats breakfast and goes to the military office.

As he walks unnaturally, he laments over his fate.

“Alas! Woe is me!

Some were born with a good fate to live in a splendid house.
My fate is bad to make a living by being caned for money.”
He manages to arrive at the military office, which looks formidable.

He looks up and sees a commanding flag,

He looks down and sees a plank which says, “Be quiet!”

The guards and soldiers move around like fierce tigers and dragons in the military office.

Heungbo, timid by nature, trembles as he enters the gate.

7. (Heungbo’s Effort Comes to Nothing.) Heungbo comes back with empty hands. His wife waiting for him with concern welcomes him back.

[Aniri] Heungbo peeps through a hole of the gate.

It is quite a show that criminals are spanked on their bottoms.
Heungbo thinks, ‘It appears those people are making a lot of money ahead of me.

나도 불기 까고 얹져¹⁰⁸⁾ 불까?

삼문간¹⁰⁹⁾에서 불기를 까고 얹져노니,¹¹⁰⁾

한 군로¹¹¹⁾가 나오며, “아니, 당신 박생원¹¹²⁾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

“어찌 오셨소?”

“아, 나도 좌수 대신 매 맞고 돈 벌어갈라고 왔지.”

“허허, 아까 박생원 대신이라고 와서 곤장 열 대 맞고,

돈 서른 냥 받아가지고 벌써 떠났소.”

홍보가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 놈이 어떻게 생겼든가?”

“키가 구 척¹¹³⁾이나 되고, 뼈대가 굵직굵직허니 아주 매를 썩 잘 맞습
디다.”

“아이구, 이게 웬 말이여!

집안에 계집이 내가 떠나올 적에, 가시오, 마시오 울음을 울더니,

옆집 피쇠애비¹¹⁴⁾란 놈이 발등거리¹¹⁵⁾허였구나.”

[중모레] “번수네들,¹¹⁶⁾ 그리 험가? 수번¹¹⁷⁾이나 평안히 허게.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매 맞으러 가는 데도 손재¹¹⁸⁾가 붙었으니,

이 지경이 웬 일이여?

내 집이라 들어가면, 엇 달라고 우는 놈은 떡 사주마고 달래이고,¹¹⁹⁾

떡 달라고 우는 놈은 밥해 주마고 달랬는디,

돈이 있어야 말을 허지.”

그렇저렇 저희 집 문전을 당도허니,

그 때여 홍보 마누라는 자기 영감 병영 가신 후에 후원을 정히¹²⁰⁾

썰고, 정화수¹²¹⁾를 받쳐놓더니,

“비나니다.¹²²⁾ 비나니다. 하느님전¹²³⁾ 비나니다.

Let me get down with my hips exposed.'

Heungbo exposes his buttocks and lies down near the door.

One officer comes out. "Isn't this Mr. Bak?"

"That's right."

"What brought you here?"

"I am here to be caned on behalf of the respected man and make some money."

"A while ago, a man claiming he came here instead of you and got beaten 10 times.

He took 30 dollars and left already."

Hearing this, Heungbo is dumfounded.

"Hey, what did he look like?"

"He was tall. His bones were so strong that he took the strokes easily."

"My goodness! I can't believe this!

When I was leaving home, my wife stopped me in tears.

Mr. Sly living next door moved ahead of me."

[Jungmori] "Soldiers, I understand. Keep up on your work. I am leaving.

I am unlucky to lose even the chance to be beaten for money.

I can't believe my fate.

Back home, I can appease a child crying for a rice jelly with the promise to buy him a rice cake, and a child crying for a rice cake with the promise to give him rice.

Money enables me to do all this."

He manages to arrive in front of his house.

Meanwhile, after Heungbo left for the military office, his wife cleaned the backyard and prepared a bowl of clean water.

"I pray. I pray. I pray to God.

병영 가신 우리 영감 매 한 대도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주야
축수¹²⁴)로 비나니다.”

틸기를 다 힌 후에 한 곳을 바라보니,
기운 없이 오는 모양 자기 영감이 분명하여,
우루루루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영감. 어찌 그리 더디 오시오?

매 맞은 장처¹²⁵)나 어디 봐요.”

8. (홍보 아내 좋아함) 홍보가 매를 맞지 않고 돌아오자, 홍보 아내가 좋아하며 춤을 춘다.

[아니레] “시끄럽네, 이 사람아! 장처고 상처고, 공연히 가시오 마시오
울음을 울더니,

뒷집 피쇠애비란 놈이 발등거리를 허였다네.”

“아이고 여보 영감, 발등거리가 다 무엇이요?”

“거 내 앞에 와서 내 대신 매 맞고 돈 벌어갔다 그 말일세.”

“아니, 그럼 영감께서는 매를 맞지 않으셨단 말씀이요?”

“내가 언제 임자보고¹²⁶) 거짓말 허든가?”

홍부 마누라가 좋아라고,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좋아라,

“얼씨구나 절씨구.

영감이 엇그저께 병영 길을 떠날 적,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주야축수¹²⁷)로 빌었더니,

매 아니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 아니 즐거운가?

얼씨구나 절씨구.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My husband went to the military office. I pray day and night
that he comes back home without being caned.
After praying, she looks at a certain place.
She sees a man depressed. He is surely her husband.
She runs to him.
“Oh, honey. What took you so long?
Let me take a look at the bruise.”

**8. (The Joy of Heungbo's Wife) Heungbo returns home
without being caned. His wife dances with joy.**

[Aniri] “I don't want to hear you! Forget the bruise. You made
a big fuss, stopping me.
Mr. Sly living next door moved ahead of me.”
“Honey, what do you mean?”
“He was caned ahead of me and left with the money.”
“Does that mean you were not caned?”
“Did I ever tell you a lie?”
Heungbo's wife is joyous.

[Jungjungmori] Heungbo's wife is delighted.
“Hurrah! Whoopee!
After you left for the military office the day before yesterday,
I prayed to God day and night that you would come back
without being spanked.
Isn't it great that you came back without being spanked?
Hurrah! Whoopee!
I am happy even if I am poorly clothed!

끓어 죽어도 나는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어어어어어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9. (홍보가 놀보집을 건너감) 홍보가 곡식을 얻으러 옷을 차려 입고 놀보 집으로 간다.

[아니레] “여보, 영감. 영감께서는 매를 맞지 않으셨으니 좋기는 허요
마는,¹²⁸⁾

연일 굶은 저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구환헌단 말씀이요?.

그러나 저러나 형제간밖에는 없으니,

우리 이러지 말고, 건넌말¹²⁹⁾ 시숙¹³⁰⁾한테 가서 죽게 된 사정을 여쭙
어 보시오.”

“대체 마누라 말이 옳네.”

[자진모리]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가 건너간다.

홍보 치레¹³¹⁾를 볼작시면,¹³²⁾

다 떨어진 헌 파립¹³³⁾

별잇줄¹³⁴⁾ 총총¹³⁵⁾ 매어 조사갓끈¹³⁶⁾을 달아 써,

떨어진 헌 망건, 갓풀관자,¹³⁷⁾ 종이당줄¹³⁸⁾ 두통나게¹³⁹⁾ 졸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 실띠¹⁴⁰⁾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놀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조대¹⁴¹⁾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서리 아침¹⁴²⁾ 치운¹⁴³⁾ 날에 팔짱끼고 옆걸음쳐¹⁴⁴⁾ 손을 불며, 이리

저리 건너간다.

“형님 동생 홍보 문안이요.”

I am happy even if I starve to death!
Hurrah! Whoopee! Hurray! Yippee! Hurrah! Hurray! Whoopee!"

9. (Heungbo Goes to Nolbo's House.) Heungbo dresses up and goes to Nolbo's house to get grain.

[Aniri] "Honey, it is great that you didn't get caned.
But how can we feed the children who went hungry for days?
By the way, only a brother is dependable.
Why don't you go to your brother in the neighboring village and
tell him about our miserable situation?"
"That's a good idea, sweetheart."

[Jajinmori] Heungbo goes to Nolbo's house.
Behold how he looks.
His cylindrical hat is broken.
His hat is fastened with a string on his chin.
He fastened an old headband tightly with a leather ring and a
paper string.
A string ties his old coat around his hungry belly.
He holds a stone pipe in one hand.
He holds an old fan in the other hand.
In the cold morning with frost, he walks sideways with his arms
folded, blowing on his hands.
"Brother, this is Heungbo."

10. (홍보 애원) 홍보가 놀보에게 처자식이 굶고 있으니 곡 식이나 돈을 달라고 애원한다.

[아니레] 놀부가 홍부라는 말을 듣더니마는,
“내가 구 대째 독신¹⁴⁵⁾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인 줄은 삼척동자¹⁴⁶⁾가
다 아는데,
내게 동생이라니, 어인¹⁴⁷⁾ 동생이란 말이오?
아마 다른 집으로 갈 걸 잘못 찾아왔나 보오.”
홍보가 빌면 될 줄 알고,
[진양조] 두 손 합장¹⁴⁸⁾ 무릎을 꿇고,
“비나니다. 비나니다. 형님전에¹⁴⁹⁾ 비나니다.
몹쓸너르¹⁵⁰⁾ 목숨이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었다가 형님을 찾아 뵈오
러 왔소.
그제 저녁 굶은 처자¹⁵¹⁾가 어제 점도록¹⁵²⁾ 그저¹⁵³⁾ 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드러니¹⁵⁴⁾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까지 굶었내다.¹⁵⁵⁾
천석꾼¹⁵⁶⁾ 형님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합니다.
쌀이 되거든 한 말만 주시고, 보리가 되거든 두 말만 주시웁고, 돈이
되거든 석 냥만 주시오면,
여러 날 굶어서 죽게 된 권속¹⁵⁷⁾들을 구환하여 살리겠내다.¹⁵⁸⁾
형님 저를 살려 주오.”

11. (놀보 매질) 놀보가 마당쇠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홍보를 마구 때린다.

[아니레] “오, 네가 바로 그 홍보냐?

10. (Heungbo Implores.) Heungbo begs Nolbo for some food or money, saying that his wife and children are starving.

[Aniri] Nolbo hears Heungbo is here.

“Even a child knows I don’t have a brother, being the only son for nine generations in a row.

How can I have a brother?

You must have come to the wrong house.”

Heungbo believes begging will work.

[Jinyangjo] Heungbo holds his two hands together and kneels down.

“I beg you. I beg you, brother.

I am sorry I am yet alive and came back to you.

My wife and children didn’t eat dinner the day before yesterday. They didn’t eat the whole day yesterday and didn’t eat breakfast today.

I feel bitter to be starved to death when my brother is a millionaire.

Please give me a bucket of rice, two buckets of barley, or three dollars.

I’ll save my family who went hungry for several days.

Brother, help me.”

11. (Nolbo’s Beating) Nolbo orders his servant to bring a club and beats Heungbo.

[Aniri] “Oh, are you Heungbo?

네 이놈, 잘 왔다.

너 기왕에¹⁵⁹⁾ 온 김에 보리나 좀 타 갈래?”

“아이고, 형님. 보리는 곡식이 아니오니까?

보리라도 많이만 주시옵소서.”

“애, 마당쇠야!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깨¹⁶⁰⁾ 하려고 처내온¹⁶¹⁾ 건
목¹⁶²⁾ 하나 가지고 오너라.

오늘 한 놈 식홀 놈¹⁶³⁾ 있다.”

대문을 후닥닥¹⁶⁴⁾ 걸어놓더니마는, 제 동생 홍보를 때리는데,

[자진모리] 놀보놈 거동¹⁶⁵⁾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우에 번듯¹⁶⁶⁾ 들고,

“네 이놈, 강도놈아!

잘 살기 내 복이요, 못살기도 네 팔자라.

벋섬¹⁶⁷⁾ 주자현들, 마당에 두지¹⁶⁸⁾ 안에 다물다물이¹⁶⁹⁾ 들었으니, 너
주자고 두지 혈며,

전곡간¹⁷⁰⁾ 주자현들, 천록방¹⁷¹⁾ 금궤¹⁷²⁾ 안에 가득가득히 환¹⁷³⁾을
지어 때돈¹⁷⁴⁾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왜돈¹⁷⁵⁾ 혈랴?”¹⁷⁶⁾

몽둥이를 드러메고¹⁷⁷⁾ 좁은 골¹⁷⁸⁾ 벼락치듯, 담에 걸친 구렁이 치듯,
후닥딱!

“아이고, 박¹⁷⁹⁾ 터졌소! 아이고 형님, 허리 부러졌소. 사람 좀 살려주
시오!”

몽둥이를 피하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허건마는,

대문을 걸어노니 날도¹⁸⁰⁾ 뛰도 못허고,

그저 퍽퍽 맞는디,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좀 살려주오! 아이고, 형수씨! 나 좀 살려주오!”

Welcome, you villain.

Since you are here, do you want to get some barley?"

"Oh, brother. Barley is also food.

Please give me a lot of it."

"Hey, Madangsoae! Bring me the dry club I got from Jiri Mountain to pound clothes.

I'll make a person cold today."

Nolbo locks the gate and beats his brother up.

[Jajinmori] Behold Nolbo!

He holds up the club high above his eyes.

"Hey, robber!

I was fated to be rich; you to be poor.

Rice is stored in the rice box in the yard. I hate to open the box to give you some.

I may give you some money or grain. My golden safe in the storehouse is filled with bundles of money. But I hate to untie a bundle to give you some."

Nolbo holds up the club and hits Heungbo as if lightning hit in a small valley and as if he hit a serpent crawling over a wall.

"Ouch! My head fell apart. Brother, my backbone got broken. Forgive me."

Heungbo moves around to avoid the club.

The gate is locked up, so he can't run away.

He just takes the blows while running to the kitchen.

"Ouch! Sister-in-law, help me. Sister-in-law, help me."

12. (홍보 탄식) 형수에게 밥주걱으로 뺨을 맞은 홍보가 통곡하며 돌아온다.

[아니리]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훨씬 더 독허든가 보더라.
밥 푸던 주걱을 들고 중문¹⁸¹)에 딱 섰다가,
“아니, 아주뺨¹⁸²)이고, 동아뺨¹⁸³)이고 언제 나한테 전곡¹⁸⁴) 갖다 맡겼던가?”
허고 뺨을 때려노니,
형님한테 맞던 것은 여반장¹⁸⁵)이요,
형수한테 뺨을 맞고보니,
[진양조]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툭 꺼지는 듯,
“여보 형수씨! 여보, 여보, 아주머니!
형수가 시아재¹⁸⁶) 뺨 치는 법은 고금천지¹⁸⁷) 어디 가 보았소?
아이고 하나님! 박홍보를 벼락을 때려 주면, 염라국¹⁸⁸)을 들어가서
부모님을 뵈옵는 날은 세세원정¹⁸⁹)을 다 헐라네.
지리산 호랑아, 홍보놈 물어가그라!
세상 만사가 귀찮허구나.”
부러진 작대기 찾아 줘더니, 매운 것 먹은 사람처럼 후후 불며, 저의
집으로 건너간다.

13. (홍보 아내 탄식) 홍보 아내가 사정을 짐작하고 울다가 목을 매려하니, 홍보가 만류한다.

[아니리] 이때 홍보 마누라 달려들며,
“여보, 영감. 무엇을 얻었소?

12. (Heungbo Wails.) Heungbo wails, beaten on the cheek with a rice scoop by his sister-in-law.

[Aniri] Nolbo's wife is far more cruel than Nolbo.
She stands at a gate with a rice scoop in her hands.
"Forget that I am your sister-in-law. Have you left any food for me?"
She hits Heungbo.
Being beaten by his brother was nothing.
He is hit by his sister-in-law.
[Jinyangjo] Heungbo feels as if heaven swirls, and as if the ground collapses.
"Hello, sister-in-law! Sister-in-law!
Have you every seen a sister-in-law hit a brother-in-law on his cheek?
Oh God! Kill me with lightning. I'll go to the world of the dead, see my parents, and tell them in detail about how I was unfairly treated.
Tiger from Jiri Mountain! Please bite me away.
I don't want to live any more."
Heungbo grabs a broken club and goes back to his home in tears, blowing on his wound.

13. (The Lamentation of Heungbo's Wife) Having guessed what had happened, Heungbo's wife cries and tries to hang herself. Heungbo stops her.

[Aniri] His wife greets Heungbo.
"Honey, did you get anything?"

쌀이 되거든 밥을 짓고, 돈이 되거든 쌀을 팔어다가¹⁹⁰⁾ 저 어린 자식들을 구환첩시다.”

“여보 마누라, 그런 것이 아니라,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형님 양주¹⁹¹⁾ 분이 반가이 맞으시며,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왔다고 꾸중을 단단히¹⁹²⁾ 하시더니, 더운 점심을 지어 먹이고 돈 닷 냥과 쌀 서 말을 주시기에 가지고 오다가,

요 너머 강정모퉁이¹⁹³⁾에서 도적놈이 달려들며,

‘너 이놈 홍보야! 목숨이 중허냐, 재산이 중허냐?’

허더니 썩¹⁹⁴⁾ 뺏어가고, 앞어뺨¹⁹⁵⁾ 한 번에 대번¹⁹⁶⁾ 쥐¹⁹⁷⁾가 나데그려.”

홍보 마누라 기가 맥혀,

[중모레] “그런대도¹⁹⁸⁾ 내가 알고, 저런대도¹⁹⁹⁾ 내가 아요.

형님 속²⁰⁰⁾도 내가 알고, 시숙님 속도 내가 아요.

돈 닷 냥, 쌀 서 말이 무엇이오?

내게다가 그런 말 허지도 마오.

야속허지, 우리 시숙.

전곡만 생각하고 형제 윤기²⁰¹⁾를 몰라보시고, 이리 몹시 쳤단 말이오?

아이고 분허여라! 원통허여라! 분허여서 못 살겠네!”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남이 들어, 남 보기로²⁰²⁾ 마누라 이리 설리 올면, 내 집에 흥만 나지 않소?

그러니 내가 나가 일자리라도 좀 알아보고 오리다.”

그 때여 홍보 마누라는 곰곰 생각다가 설움이 북받쳐 울음을 우는데,

[진양조]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 설운 가난이야.

잘 살고 못 살기는 삼신제왕²⁰³⁾이 마련을 했나.

북두칠성님이 짚자리에 떨어칠 때²⁰⁴⁾ 명²⁰⁵⁾과 수복²⁰⁶⁾을 마련을 했나?

If you got rice, let's cook it. If you got money, let's buy rice for the hungry children."

"Honey, when I went to my brother's house, my brother and sister-in-law welcomed me.

They scolded me for not visiting them even once.

They gave me hot lunch, five dollars, and three buckets of rice.

I was bringing them over here.

At the pavilion around the corner, a bandit attacked me.

'Heungbo, you villain! Which is more valuable, your life or your stuff?'

They snatched the stuff from me and slapped me on the cheek.

I got a cramp right away."

Heungbo's wife is speechless.

[Jungmori] "Whatever you say, I know what happened.

I know about your brother.

Five dollars and rice?

Don't even try to tell me a lie.

Your brother is heartless.

He beat you up because he hated to give you grain, forgetting his duty to his brother.

Alas! I feel resentful. I feel bitter! I am grieved to death!"

"Darling, don't cry.

If neighbors hear you cry sadly, we'll be the disgrace of the town.

I'll go downtown to find a job."

Heungbo's wife broods over and wails, sorrow rising up in her mind.

[Jinyangjo] "Poverty, poverty! I hate you.

Does the god of birth determine our fate?

Does the Big Dipper determine our length of life and fortune when we are born?

나는 세상에 삼겨나서²⁰⁷⁾ 불의행사²⁰⁸⁾ 헛 일 없이 밤낮 주야로 벌었
 어도 삼순구식²⁰⁹⁾을 헐 수가 없네.
 가장²¹⁰⁾은 부황²¹¹⁾이 나고, 자식들은 아사지경²¹²⁾이 되니, 내가 차라
 리 자결하여 이런 꼴을 안 볼라네.”
 치마끈으로 목을 매어 죽기로만 작정을 헐 제,
 홍보가 보고서 우루루루루루 달려들어,
 “아이고 마누라! 마누라 이게 웬 일이오?
 부인의 백년 팔자²¹³⁾는 가장²¹⁴⁾에게 매였는디,
 박복현²¹⁵⁾ 나를 만나 이 고생을 허네그려.”
 홍보 내외 붙들고 울고, 울고 말류고²¹⁶⁾ 울음을 우는디,
 사람의 인륜²¹⁷⁾으로 볼 수가 없네.

14. (중타령) 중 하나가 홍보 집에 와서 동냥을 청한다.

[아니레] 이리 한참 설리 올 제, 뜻밖에 홍보 살리려는 도승²¹⁸⁾이 하나
 내려오는디,
 [엇모래]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 중의 거동을 보소.
 연년 묵은 중,²¹⁹⁾
 헐디현²²⁰⁾ 중.
 양이수견미복면 초의불침부불선²²¹⁾
 다 떨어진 올치²²²⁾ 송낙²²³⁾ 이리 송치고,²²⁴⁾ 저리도 송쳐,
 형겼으로 구멍 막아 노닥노닥²²⁵⁾ 기운 장삼²²⁶⁾,
 울무²²⁷⁾ 염주²²⁸⁾ 목에 걸고, 단주²²⁹⁾ 팔에 걸어,
 소상반죽²³⁰⁾의 열두 마디 용두²³¹⁾ 새긴 육환장,²³²⁾

Since I was born, I haven't done anything wrong, and I just worked day and night, but I have been hungry all along. Since my husband and children are about to starve to death, I would rather kill myself and stop seeing this misery." Heungbo's wife tries to hang herself with a skirt belt. Heungbo runs to her. "What's this, sweetheart? A wife's fate depends on that of her husband. You are in this misery because you married me." The husband and wife hold and stop each other, wailing. How pitiful they are!

14. (Monk Song) A Buddhist monk comes and begs for food.

[Aniri] While Heungbo and his wife cry, a Buddhist monk having a magical power comes to save Heungbo.
[Eonmori] A monk comes down from a mountain. Behold the monk. The monk is old. He wears shabby clothes. He looks as if he had been secluded from the mundane world. His old hat is sparsely sewed here and there. His hemp coat is patched up in many places. He wears strings of beads on his neck and arm. A dragon head is engraved on his bamboo cane of 12 joints with six iron rings.

쇠고리 길게 달아 처절철 철철 흔들흔들 흐늘거리고²³³⁾ 내려와서,
 사람이 말 물으면 허리를 굽히고,
 ‘나무아미타불²³⁴⁾ 관세음보살.’²³⁵⁾
 이 집 저 집 다 지내고 염불허고 내려온다.
 흥보 문전을 당도허여,
 “동냥 쪼끔 주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댁에 동냥 왔소!”

15. (도승이 집터를 잡아줌) 도승이 사정을 듣더니, 집터 하나를 잡아주고 사라진다.

[아니리] 흥부가 나오며,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 이 댁에 시주²³⁶⁾나 하시라 왔소이다.”
 “보시다시피 서 밭²³⁷⁾ 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는 집²³⁸⁾이오.
 다른 집에 가셨다가 후일에 들리시면 후히 대접허오리다.”
 저 중이 대답허되,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인의 처분이오나,
 소승이 밖에서 듣자 허니 안에서 생사가 미판²³⁹⁾이오니,
 혹 무슨 곡절²⁴⁰⁾이라도 있사온지요?”
 “우리 양주²⁴¹⁾ 먹을 것이 없어 서로 다투다 죽기로 작정허였나이다.”
 “가궁헌²⁴²⁾ 일이외다.
 소승²⁴³⁾ 이 비록 잘 알지는 못 하오나, 집터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
 소승의 뒤를 따르시옵소서.”

The large iron rings shake and make sounds, as he comes down.
If someone speaks to him, he bends himself.
'Merciful Buddha and Goddess of Mercy, please save us.'
He visits houses, chanting a prayer.
He arrives at the gate of Heungbo's house.
"Please give me some food.
Merciful Buddha and Goddess of Mercy, please save us.
I am here to beg for some food!"

**15. (The Monk Picks a House Site.) Hearing the story,
the monk picks a lucky house site for Heungbo
and disappears.**

[Aniri] Heungbo comes out. "Who are you looking for?"
"I'm here to beg for some food."
"As you see, I have nothing in my house.
Please go to another house and come later. And I'll give you
a lot of food."
The monk responds, "It's up to you to give me something or
not.
But I heard something outside. Death seems to be near.
What's going on?"
"Having no food, I and my wife had a quarrel and decided to
die together."
"How poor you are!
I'm not knowledgeable, but I'll recommend a good house site
to you.
Please follow me."

홍보가 좋아라고 도승의 뒤를 따라가는데,

[진양조] “감계룡²⁴⁴)

간좌곤향²⁴⁵)

탐랑득거문파²⁴⁶)에 문필봉²⁴⁷) 창고사²⁴⁸)가 좌우로 높았으니,

이 터에다 집을 짓고 안빈하고²⁴⁹) 살으시면,

가세²⁵⁰)가 속발²⁵¹)허고,

재물²⁵²)이 짐중²⁵³)

용지불갈²⁵⁴) 취지무궁²⁵⁵) 기룬²⁵⁶) 일이 없으리다.”

전한입주 자리²⁵⁷)에다가 막대기 내서 꽂아놓더니마는 인홀불견²⁵⁸)

간 곳이 없네.

그제야 홍보가 도승인 줄 짐작허고,

있던 집을 헐어다 그 자리에다 의지를 허고,

동지 선달 치운²⁵⁹) 날에 못 먹고 텅텅 빈 배에 아니 죽고 살어날 제,

정월, 이월, 삼월이 돌아오니 산수경개²⁶⁰) 장히²⁶¹) 좋네.

16. (제비가 찾아옴) 봄이 돌아오니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새끼를 친다.

[중중모리] 유색황금눈²⁶²) 찔꼬리는 노래허고,

이화백설향²⁶³)에 나비는 앓어 춤춘다.

유작유소²⁶⁴) 짓는 재주 내 집보다 단단.

산량자치²⁶⁵) 우는 소리 너는 때를 얻었도다.

집은 방장²⁶⁶) 새려는데 소리개²⁶⁷)는 비오비오,²⁶⁸)

집은 방장²⁶⁹) 새려는디²⁷⁰) 저 새 소리는 비웃 비웃.

먹을 것은 없는디 솟쩍다²⁷¹) 우우.

포곡²⁷²)은 운다마는 논이 있어야 농사 짓지.

Heungbo is delighted and follows the monk.

[Jinyangjo] “This is on a mountain range stretching from the north or northeast.

It lies with the northeast in the back and the southwest in the front.

Mountain peaks producing a literary artist and a billionaire are high on the left and right.

Build a house here and live a disinterested life.

You’ll become rich quickly.

You’ll get more and more property.

You’ll lack nothing no matter how much you spend.”

The monk sticks trees into the spots for pillars and suddenly disappears.

Heungbo now thinks that the monk has divine power.

He tears down his hut and builds a house there.

Heungbo’s hungry family manages to survive the cold winter.

Spring comes, the scenic view is quite beautiful.

16. (Swallows come.) Spring comes, and a couple of swallows fly in and give birth to babies.

[Jungjungmori] A nightingale sings a song on a beautiful golden bud of a willow.

The pear flower gives off fragrance, and a butterfly dances.

A magpie builds a strong nest.

A hen pheasant chirps at the right moment.

Heungbo’s house leaks, and a hawk cries that it rains.

Heungbo’s house leaks, and a bird chirps that it rains.

An owl cries that there will be a good harvest.

A cuckoo sings, but there is no rice paddy.

대승²⁷³)아 나지를 말어라, 누에가 있어야 뽕을 따지.
 먹을 것이 없었으니 계견²⁷⁴)을 내가 기르겠나?
 살해를 아니하니 미륵님²⁷⁵)이 도와주네.
 삼월 동풍 방초시 삼월 동풍²⁷⁶) 방춘화시²⁷⁷) 비금주수²⁷⁸)가 즐길 제,
 강남서 나온 제비 홍보 문전을 당도하여,
 홍보가 보고 좋아라고,
 “어, 땀다, 내 제비야. 어디 갔다가 이제 온가?
 소박한 세상 인심 부귀를 추세하여²⁷⁹) 찾아올 리가 만무²⁸⁰)터니,
 네가 나를 찾아오니 어찌 아니 반가운가?”
 저 제비 거동을 보라.
 남남지성²⁸¹) 하례²⁸²)하고, 좋은 진흙을 물어다가 처마 끝에다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까,²⁸³) 밥 물어다 기른다.

17. (제비 강남으로 날아감) 홍보가 날기 공부를 하다 떨어 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구해주시, 그 제비가 죽지 않 고 살아 강남으로 날아간다.

[아니레] 하루는 무지한 대맹이²⁸⁴)가 제비 새끼를 다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날기 힘을 쓰다 거중²⁸⁵)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거늘,
 어지신 홍보 씨가 당사실²⁸⁶)로 제비 다리를 창창²⁸⁷) 동여²⁸⁸) 매어주니,
 그 제비 죽지 않고 살아
 구월구일이 당도하니,

Don't fly, bird! No silkworm, no mulberry leaves.
 How can I raise a dog or a chicken when I don't have food?
 Buddha helps those who don't take life.
 When a spring wind blows on a sunny day, all animals are
 happy.
 A couple of swallows from Jiangnan(江南) arrive at Heungbo's
 house.
 Heungbo is delighted.
 "Hey my swallows! Why are you late?
 Nobody visits me because they pursue wealth and power.
 But you came to me, so I am glad."
 Behold the swallows.
 After greeting him, they build a nest with good mud at the end
 of the eaves.
 They lay eggs, hatch them, raise the young, bringing food to
 them.

**17. (The Swallow Flies to Jiangnan(江南)) A young
 swallow falls down while learning to fly and
 breaks its legs. Heungbo saves it. The swallow
 survives and flies to Jiangnan(江南).**

[Aniri] One day, a ruthless serpent eats all the young swallows
 except one.
 The swallow falls down while practicing flying, breaking its legs,
 putting itself near death.
 Virtuous, Heungbo binds up the broken legs with silk thread.
 The swallow recovers.
 It is fall now.

만 리 강남²⁸⁹⁾을 들어갈려고 한 번 날아보는데,
 [진양조] 뗏다, 보아라.
 저 제비가 둥그렇게, 둥그렇게 구만장천²⁹⁰⁾에 높이 떠, 거중으로 둥
 둥, 펄펄 날거늘,
 홍보가 보고서 좋아라고,
 “반갑구나, 내 제비야.
 부러진 다리를 원망을 말어라.
 고적의²⁹¹⁾ 손빈²⁹²⁾이는 양족²⁹³⁾이 없었어도 제나라²⁹⁴⁾ 가서 대장이
 되고,
 초한적²⁹⁵⁾ 한신²⁹⁶⁾이도 일지수가 없었어도,²⁹⁷⁾ 대장단²⁹⁸⁾ 높은 집에
 일군개경²⁹⁹⁾을 허였으니,
 멀고먼 만 리 강남을 부디 평안히 잘 가거라.”
 제비 저도 섭섭히여라고,
 빨랫줄에 가 내려앉더니마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허더니,
 구만장공³⁰⁰⁾ 높이 떠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만리 강남을 들어
 간다.

18. (제비 점고) 강남으로 날아간 제비는 제비 왕에게 홍보 가 구해준 사연을 알리고,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한다.

[아니리] 수 일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 두견은 조종지망제라,³⁰¹⁾
 각국 나갔든 제비 차례로 점고³⁰²⁾를 허는데,
 “중원³⁰³⁾ 나갔던 명매기!³⁰⁴⁾

The swallow flies high to go to Jiangnan(江南) thousands of miles away.

[Jinyangjo] Behold the swallow!

It hovers around high in the sky, flying with strength and vigor. Heungbo is delighted.

“I feel good, swallow!

Don’t mind your broken legs.

Sun Pin(孫嬪) didn’t have legs, but he became the commander-in-chief of Qi(齊) Country.

Han Xin(韓信) lost his arm, but he became the commander-in-chief to the surprise of the troops.

Have a safe trip to Jiangnan(江南) far from here.”

The swallow also feels sad.

It sits down on a clothesline and responds to Heungbo.

It then rises up high and flies here and there, and heads to Jiangnan(江南).

18. (Inspection of Swallows) The swallow flies to Jiangnan(江南). He tells the king of the birds that Heungbo saved him, and that he wants to return his favor.

[Aniri] The swallow reaches Jiangnan(江南) within several days. A cuckoo is the king of birds in Jiangnan(江南).

Swallows who have been to each country are inspected.

“The swift who has been to Zhongyuan(中原)!

노국³⁰⁵) 갔든 분홍제비!

만 리 조선³⁰⁶) 나갔던 홍보 제비!”

[중중모리] 홍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홍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리가져서³⁰⁷) 전둥거리고³⁰⁸) 들어와,

“예!”

제비 장수 호령을 허되,

“이놈! 너는 왜 다리가 봉통아리가졌노?”

홍보 제비 여짜오되, “만 리 조선을 나갔다가,

소조³⁰⁹) 운수 불길하여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으나,

어진 홍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었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소리까?³¹⁰)

제발 덕분에 통촉³¹¹)허오.”

19. (제비 노정기) 다음해 봄이 되자, 제비가 보은포 박씨를 입에 물고 홍보 집을 찾아온다.

[아니리] 제비 장수 분부하시되, “그러기에 너의 부모가 나의 장령³¹²)

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³¹³)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³¹⁴)에 나갈 제 출행날³¹⁵)을 내가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거라.”

그렇저령³¹⁶) 삼동³¹⁷)이 지나고 춘삼월³¹⁸)이 방장커늘,³¹⁹)

하루는 홍보제비가 보은포³²⁰) 박씨를 물고 만 리 조선을 나오는데,

경치가 장히 좋든가 보더라.

The pink swallow who has been to Lu(魯) Country!
Heungbo's swallow who has been to Korea thousands of miles
away!"

[Jungjungmori] Heungbo's swallow comes in. He comes in.
The broken legs are swollen. He hobbles in.
"Yes!"

A swallow general yells at him.

"You rascal! Why are your legs swollen?"

Heungbo's swallow answers, "I was in Korea thousands of miles
away.

I was unlucky to fall down, breaking my legs and putting myself
near death.

Heungbo, a virtuous man, saved me.

How can I return his favor?

Please be considerate of my wish."

19. (The Swallow's Journey) When spring comes, the swallow holds a favor-returning gourd seed in its mouth and returns to Heungbo's house.

[Aniri] The swallow general replies, "Your parents went there,
disobeying my order.

So they got into the disaster.

When you go out next spring, I'll pick a lucky date for you.
Go to Korea on that date."

One way or another winter goes and spring has come.

One day Heungbo's swallow holding the favor-returning gourd
seed in its mouth flies to Korea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cenic view is great.

[중중모리] 흑운³²¹) 박차고,³²² 백운 무릅쓰고,
 거중에³²³) 등등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³²⁴) 지척이요,³²⁵
 동해 창망³²⁶)허구나.
 축융봉³²⁷)을 올라가니
 주작³²⁸)이 넘는다.³²⁹
 황우토 · 황우탄³³⁰) · 오작교³³¹) 바라보니,
 오초동남³³²) 가는 배는 북을 등등 울리며,
 어기야 어야 저어가니 원포귀범³³³)이 이 아니냐?
 수벽사명양안태요,
 불승청원각비래라.³³⁴
 날아오는 저 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일점 이점이³³⁵) 떨어지니 평사낙안³³⁶)이 이 아니냐?
 백구³³⁷) · 백로³³⁸) 짝을 지어 창과상에³³⁹) 왕래하니,
 석양천³⁴⁰)이 거기노라.
 회안봉³⁴¹)을 넘어 황릉묘³⁴²) 들어가,
 이십오현탄야월³⁴³)에
 반죽³⁴⁴) 가지 쉬어 앉어
 두견성³⁴⁵)을 화답³⁴⁶)허고,
 봉황대³⁴⁷) 올라가니
 봉거대공강자류,³⁴⁸
 황학루³⁴⁹)를 올라가니
 황학일거불부반
 백운천재공유유라.³⁵⁰
 금릉³⁵¹)을 지내어

[Jungjungmori] The swallow passes through black and white clouds.
 It flies high in the sky and looks around.
 Xishu(西蜀) is close.
 The East Sea is far away.
 The swallow flies over Zhurong(祝融) Mountain Peak.
 A red phoenix flies up and down there.
 The swallow gazes at the Wuque(烏鵲) Bridge on Huangniu(黃牛) River.
 A boat heads to Wu(吳) Country in the east and Chu(楚) Country in the south, while making a drumming sound.
 Yo-heave-ho. It is a fishing boat coming back to port from the sea.
 Moss is on both banks near blue water and shiny sand.
 A bird overpowered by grief comes back.
 Wild geese fly, holding reeds in their mouths.
 They fly down on a flat sandy plain one by one.
 Sea gulls and white herons move back and forth in pairs on the surface of blue water.
 The evening sky is above them.
 The swallow passes over Huiyan(回雁) Mountain Peak and reaches Huangling(皇陵) Tomb.
 A lute with 25 strings is played.
 The swallow takes a rest on a bamboo branch.
 He responds favorably to a cuckoo's song.
 The swallow flies up to Fenghuang(鳳凰) Tower.
 The phoenix left the tower below which a river flows.
 The swallow flies up to Huanghe(黃鶴) Tower.
 The yellow crane has gone and never comes back.
 Only white clouds have been flowing for a thousand years.
 The swallow passes over Nanjing(南京).

주사촌³⁵² 들어가,³⁵³
 공숙창외도리개³⁵⁴라.
 낙매화를 툇 차 무연에 펄렁 떨어치고,³⁵⁵
 이수³⁵⁶를 지내어 계명산³⁵⁷을 올라,
 장자방³⁵⁸은 간 곳 없고,
 남병산³⁵⁹ 올라가니 칠성단³⁶⁰이 빈 터요,
 연조지간³⁶¹을 지내어,
 장성³⁶²을 지내어, 갈석산³⁶³을 넘어
 연경³⁶⁴을 들어가 황극전에³⁶⁵ 올라 앉어 만호 장안³⁶⁶ 구경허고,
 정양문³⁶⁷ 내달라, 상달문³⁶⁸ 지내
 동관³⁶⁹을 들어가니, 사·미륵³⁷⁰이 백이로다.³⁷¹
 요동 칠백 리를 순식간에 지내어,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다라
 영고탑,³⁷² 통군정³⁷³을 올라앉아,
 안남산·밖남산³⁷⁴·석벽강³⁷⁵·용천강³⁷⁶·좌우령³⁷⁷을 얼른 넘어,
 부산 파발³⁷⁸·환마고개³⁷⁹·강동다리³⁸⁰ 건너,
 평양의 연광정³⁸¹·부벽루³⁸²를 구경허고,
 대동강 장림³⁸³을 지나,
 송도³⁸⁴를 들어가
 만월대³⁸⁵·관덕정³⁸⁶·박연폭포³⁸⁷를 구경허고,

It arrives at a village with a tavern,
 Peach flowers and plum flowers bloomed, exciting a sexual
 desire.
 The swallow snatches a falling ume flower and throws it to a
 dancing party.
 The swallow flies over Ershui(二水) River and Jiming(鷄鳴)
 Mountain.
 Zhang Zifang(張子房) is gone.
 The swallow flies up to Nanping(南屏) Mountain where there
 is an altar site.
 The swallow flies in between Yan(燕) Country and Qi(齊)
 Country.
 The swallow passes over the Great Wall and Jieshi(碣石)
 Mountain.
 It flies to the emperor's office and sees the numerous houses
 in the city.
 It leaves the city vigorously through the big gates.
 It arrives at a region where there are many Buddhist statues.
 The swallow passes through the wide region, Liaodong(遼東),
 in a breath.
 The swallow crosses Amnok River and arrives at Euiju City.
 It goes over a tower and a pavilion there.
 The swallow flies over mountains, rivers, and passes.
 The swallow moves over a busy pass and a bridge.
 The swallow watches Yeongwang Pavilion and Bubyek Tower
 in Pyeongyang City.
 The swallow now passes by a place called Jangnim by Daedong
 River.
 The swallow now enters Gaeseong.
 It sees Manweol Pavilion, Gwandeok Pavilion, Seonjuk Bridge,
 and Bagyeon Waterfall.

임진강을 시각에³⁸⁸ 건너,
 삼각산³⁸⁹에 올라 앉어
 지세³⁹⁰를 살펴보니,
 천룡³⁹¹의 대원맥³⁹²이 중령³⁹³으로 흘러쳐,³⁹⁴
 금화³⁹⁵ · 금성³⁹⁶ 분계하고,³⁹⁷ 춘당³⁹⁸ · 영춘³⁹⁹을 휘돌아 도
 봉⁴⁰⁰ · 망월대⁴⁰¹ 솟아 있고, 삼각산⁴⁰²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허고,⁴⁰³
 풍속이 희희하야⁴⁰⁴
 만만세지금탕이라.⁴⁰⁵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 함양 두 얼품에⁴⁰⁶ 홍보가 시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남대문 밖 썩⁴⁰⁷ 내달아
 칠패⁴⁰⁸ · 팔패⁴⁰⁹ · 배다리⁴¹⁰ 지내, 애고개⁴¹¹를 얼른 넘어
 동작강⁴¹² 월강,⁴¹³ 승방⁴¹⁴을 지내어,
 남태령⁴¹⁵ 고개 넘어,
 두 쪽지⁴¹⁶ 옆에 끼고
 수루루루 펄펄 홍보 문전을 당도하여,
 당상 당하 비거비래⁴¹⁷
 편편히⁴¹⁸ 노는 거동을
 무얼 같다고⁴¹⁹ 이르랴?
 북해 흑룡⁴²⁰이 여의주⁴²¹를 물고 채운간⁴²²으로 넘논⁴²³ 듯,
 단산⁴²⁴ 봉황이 죽실⁴²⁵을 물고 오동 속으로 넘노는 듯,

The swallow now crosses Imjin River quickly.
 The swallow flies up to Bukan Mountain.
 It investigates the geographical features.
 The central energy that produces lucky sites flows through half
 of the mountain range.
 It splits into two courses, getting around a pavilion and a gate,
 and producing high mountains.
 Things are shiny.
 Social customs are good.
 This place is a strong fortress.
 Hamyang is in Gyeongsang Province.
 Unbong is in Jeolla Province.
 Heungbo lives in a region where the two places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Behold the swallow!
 It holds a gourd seed in its mouth.
 It flies through South Gate in Seoul.
 It quickly goes over streets, stations, bridges, and passes in
 Seoul.
 It crosses a branch of the Han River and passes by a Buddhist
 temple.
 It goes over a pass near Seoul.
 It opens its wings wide.
 It flies vigorously, arriving at the front of Heungbo's house.
 The swallow moves up and down the eaves.
 It seems to have fun.
 How can it be described?
 It looks as if a black dragon in the northern sea flies up and
 down in the colorful clouds with a divine pearl in its mouth.
 It looks like a phoenix of Danshan(丹山) Mountain of red sand
 flying to and from a paulownia tree with a bamboo seed in its
 mouth.

집으로 펄펄 날아들어,
 들보⁴²⁶⁾ 우에 올라 앉어
 제비말로 지지 운다.
 “지지주지
 거지연지
 낙지각지
 함지배오.”⁴²⁷⁾ 빼드드드드드.”⁴²⁸⁾
 홍보가 보고서 좋아라,
 “어, 떴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는가?”
 홍보가 보고 찬찬히⁴²⁹⁾ 살펴보니,
 아리롱아리롱허니⁴³⁰⁾ 어찌 아니 반가운가.
 저 제비 거동을 봐라.
 박씨를 입에다 가로 물고, 홍보 양주⁴³¹⁾ 앉은 옆에 펼쳐놓고,⁴³²⁾
 거중에 등실 높이 떠 백운간⁴³³⁾으로 날아간다.

20. (가난타령) 추석이 다가와도 먹을 것이 없어 홍보 아내는 가난타령을 하며 탄식한다.

[아니레] 홍보 양주 주워 들고 바라보니 박씨가 분명쿠나.
 동편 처마 끝에 단단히⁴³⁴⁾ 심어 두었더니,
 일취월장⁴³⁵⁾허여 박이 세 통이 열렸겠다.
 이 때는 어느 땐고 허니, 팔월 추석이 돌아왔는디,
 먹을 것이 없어 홍보 마누라가 자탄⁴³⁶⁾으로 울음을 우는디.
 [중모레]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르⁴³⁷⁾ 가난이야.
 복이라 허는 것은 어이허면⁴³⁸⁾은 잘 타는고?

The swallow flies into the house.
 It sits on a crossbeam.
 It says something.
 "Do you remember me, master?
 I came back!
 I fell down and broke my legs.
 I have brought a gourd seed."
 Heungbo is delighted.
 "My swallow! It's been so long since I've seen you."
 Heungbo takes a hard look at the swallow.
 He is glad to see the mottled swallow.
 Behold the swallow.
 It holds the seed in the right angle with its mouth and drops
 it by Heungbo and his wife.
 It flies away high in between white clouds.

**20. (Poverty Song) Thanksgiving Day comes. Having
 no food, Heungbo's wife laments and sings the
 poverty song.**

[Aniri] Heungbo and his wife pick up the seed. It is clearly a
 gourd seed.
 They plant it below the eaves in the east.
 The seed grows fast, bearing three gourds.
 Thanksgiving Day is around the corner.
 Having no food, Heungbo's wife laments in tears.
[Jungmori] "Poverty! Poverty! Evil poverty!
 How can I have good luck?

북두칠성님⁴³⁹)이 북 마련을 허셨는가.

삼신제왕님⁴⁴⁰)이 짚자리⁴⁴¹)에 떨어칠 제⁴⁴²) 명⁴⁴³)과 수복⁴⁴⁴)을 짐
지⁴⁴⁵)허느냐?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영화로 잘사는디,
이년의 팔자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 일이나?
이 때는 어느 땐고?

팔월 명절이 돌아왔는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올벼⁴⁴⁶) 잡어⁴⁴⁷) 햅쌀밥을 짓고,
동산에 가 알밤을 주워,
풋콩⁴⁴⁸)을 까고, 송편을 빚어,
어린 것들을 곱게곱게 입히어 선산⁴⁴⁹) 성묘를 가라는디,⁴⁵⁰)
우리네 팔자는 박복허제,⁴⁵¹) 한가위 명절에도 조상 차례를 못 올리니.”
홍보 내외 붙들고 말류는디⁴⁵²)
사람의 인륜으로 볼 수가 없네.

21. (첫째 박) 홍보 내외가 첫째 박을 타면서 밥이 나오기를 빈다.

[아니리] 이때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아, 이렇게 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박이나 한 통 따다가, 박속⁴⁵³)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가 팔어다가 어린 자식들 구환⁴⁵⁴)이나 헐시다.”
홍보 내외 박을 한통 따다 놓고,
먼저 한 통을 타 보는디,
[진양조] “시리르렁⁴⁵⁵) 실건,⁴⁵⁶) 툇질이야 예여루 당겨 주소.”

Does the Big Dipper provide fortune?
Does the god of childbirth determine our fate when we come
into the world?
Some are fortunate to enjoy wealth and fame.
Why do I have a fate to be in such hardship?
What time of the year is it now?
It is Thanksgiving Day.
Villagers harvest crops and cook the newly harvested rice.
They pick up chestnuts in the near mountain.
They shell beans and made rice cakes.
They put new clothes on their children and visit their ancestors'
tombs.
But our fate is so bad that we can't even perform the ritual for
our ancestors on Thanksgiving Day."
Heungbo and his wife hold each other and wail.
It is hard to watch the scene.

21. (First Gourd) Heungbo and his wife saw the first gourd, hoping that rice comes out of it.

[Aniri] Heungbo steps forward.
“Honey, don't cry.
Let's do something other than crying.
Let's pick a gourd and cook the flesh inside.
Let's sell the shell to the rich and buy food for the hungry
children.”
Heungbo and his wife bring a gourd.
They start to saw it.
[Jinyangjo] “Here goes the saw. Pull the saw.”

“이 박을 어서 타서 박속일랑은 끓여 먹고, 바가질랑은 부잣집에다 팔어다가 목숨 보명⁴⁵⁷⁾을 하여 보세.”

“실근 시리렁, 당겨 주소.”

“여보게, 마누라. 툇소리⁴⁵⁸⁾를 맞아주소.”⁴⁵⁹⁾

“툇소리를 내가 맞자고 헛들, 배가 고파서 못 맞겼소.”

“배가 정 고프거들랑은 치마끈을 줄라매고 기운차게 당겨 주소.”

“에여루 당겨 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은 아무 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밥 한 통만 많이 나오느라.

평생에 밥이 포한⁴⁶⁰⁾이로구나.”

“에여루 당겨 주소.”

“시르르르르릉. 시리렁 실근 시리렁 실건 시리렁 실근.

당그여라,⁴⁶¹⁾ 툇질이야.”

[자진모래]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시리렁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식씩 콧 콧.

22. (쌀과 돈이 많이 나옴) 박 속에서 나온 껌작 두 개에서 쌀과 돈이 많이 나온다.

[아니리]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놈이 썩 다 가져가고 난테없는 껌⁴⁶²⁾ 두 짝만
들었거늘,

홍보가 기가 막혀,

“복이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날로 두고 헛 말이로구나.”

“Let’s saw this gourd open, eat the flesh inside, sell the shell to the rich, and preserve our life.”

“Pull the saw.”

“Hello, sweetheart. Respond to me in the saw song.”

“I want to, but I am too hungry to do it.”

“If you are that hungry, tighten your belt, and pull the saw hard.”

“Pull the saw.”

“I wish when this gourd is opened, nothing other than a bucket of rice comes out.

Rice is my lifetime wish.”

“Pull the saw.”

“Yo-ho!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Pull the saw. Here goes the saw.”

[Jajin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22. (A Lot of Rice and Money Come Out.) Two boxes come out from the gourd, and a lot of rice and money come from them.

[Aniri] The gourd is sawn open.

A thief must have stolen the flesh inside. There are only two boxes to their surprise.

Heungbo is struck dumb.

“An unlucky person breaks his nose even when he falls down on his back.

That saying applies to me.”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탁’⁴⁶³)이라 씌었것다.
 “웁제. 이것이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흥보가 한 궤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수북허고,
 또 한 궤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그득⁴⁶⁴)허여노니.
 흥보가 좋아라고 궤 두 짝을 한번 떨어 부어 보는데,
 [휘모레]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열고 보면 돈과 쌀이 하나 가득,
 툇 떨어 돌아섰다 열고 보면, 쌀과 돈이 하나 가득,
 툇툇 떨어 돌아다보면 돈과 쌀이 하나 가득.
 “오냐, 어서 많이 나오너라!
 일년 삼백육십일을 그저 꾸역꾸역 나오너라.
 나라에 상납허여 부국 저축을 허로 가자.”

23. (흥보 내외 좋아함) 흥보 내외가 좋아라고 춤을 추며 노래한다.

[아니레] 어찌 떨어 부어났던지, 쌀이 일만 구만 석⁴⁶⁵)이요, 돈이 일만
 구만 냥⁴⁶⁶)이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우리 그냥 춤이나 한번 추고 놀아봅시다.”
 “아이고 여보, 영감. 아 제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Heungbo takes a close look at the boxes.
There are words: 'Heungbo, open this.'
"I see. This tells me to open this."
Heungbo opens a box carefully.
It is full of rice.
He opens the other box.
It is filled with money.
Heungbo gets ecstatic and turns the two boxes upside down to
pour things out.
[Hwimori] They pour things out again and again.
They turn around and open the boxes, which are filled with rice
and money again.
They pour things out, turn around, and open the boxes, which
are filled with rice and money again.
They pour things out, turn around, and see the boxes filled with
rice and money again.
"Hurrah! Come out quickly!
Come out for 365 days a year!
Let's offer the stuff to the government and make it rich!"

23. (Heungbo and His Wife are Excited.) Heungbo and his wife dance and sing joyously.

[Aniri] Heungbo poured out so much rice and money that they
are piled up like a mountain.
"Honey, money and rice have come out this much.
Let's dance and have some fun."
"Sweetheart, I don't know how to dance."

“거 춤을 출 줄 모르거든, 내 뒤에 따라댕김서⁴⁶⁷⁾ 절굿대춤⁴⁶⁸⁾이라도 한번 추어보시오.”

홍부 내외 좋아라고 춤을 추며 놀아보는디,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우리 집이 가난키로 삼남⁴⁶⁹⁾에 유명터니,

오늘날 부자가 되니,

석송⁴⁷⁰⁾이를 부리허며, 도주공⁴⁷¹⁾을 내가 부리허랴?

여보아라, 큰 자식아.”

“예.”

“건넌말⁴⁷²⁾ 건너가서, 너의 백부님⁴⁷³⁾을 모셔오너라.

경사⁴⁷⁴⁾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홍보 마누라도 좋아라고 춤을 추며 노닌다.

“얼씨구나, 나도 좋네, 얼씨구 절씨구야.

어화, 세상 여러분네들, 이 내 말씀을 들어보소,

언충신 행동경,⁴⁷⁵⁾ 마음씨만 잘 먹으면 이런 경사를 보시리라.

부자라고 자세⁴⁷⁶⁾를 말고,

가난타고 한⁴⁷⁷⁾을 마소.

나도 오늘날 제비 덕에 쌀과 돈이 많이 생겼으니 기민을 줄란다.⁴⁷⁸⁾

불쌍허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If you don’t know how to dance, follow me and move up and down.”

Heungbo and his wife dance joyously.

[Jungjungmori] “Hurrah! Hurray! Whoopee! Yippee! Hurrah! Hurray! Whoopee! Yippee!

We were famous for being poor in Korea.

Today we became rich.

I don’t envy the ancient billionaires: Shi Chong(石崇) and Tao Zhu Gong(陶朱公).

Hey, my eldest son!”

“Yes.”

“Go over to your uncle in the neighboring village and bring him over here.

A good thing is to be shared between brothers.

Hurrah! Hurray! Whoopee!”

Heungbo’s wife is also joyous and dances.

“Hurrah! I am happy too. Whoopee! Yippee!

Hey, folks in the world! Listen to me!

If your words, deeds, and thoughts are respectable, such a fortune will fall on you.

If you are rich, don’t act arrogant.

If you are poor, don’t lament over yourself.

Because I got a lot of rice and money thanks to a swallow, I’ll help the poor.

Hey, poor people in the world! Come to my house!

Hurrah! Hurray! Whoopee! Yippee!”

24. (둘째 박) 흥보가 둘째 박을 타다가, 금은보화가 나오면 형님을 주겠다고 하며 마누라에게 형제 윤리를 이른다.

[아니리]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또 저 박 속에서는 무엇이 나올랑가 한번 타 봅시다.”

흥보 내외 또 한 통을 갖다 놓고 타 보는데,

[중중모리]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시리령 실근, 당겨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은 아무 것도 나오지를 말고, 은금보화⁴⁷⁹⁾만 나오너라!
은금보화가 나오게 되면, 형님 갖다가 드릴란다.

시리령 실근 시리령 실근 시리령 실근 시리령 실근 당겨주소.”

흥보 마누라가 이 말 듣고,

[중모리] “나는, 나는 안 탈랴요.

엄동설한⁴⁸⁰⁾ 치운⁴⁸¹⁾ 날에⁴⁸²⁾ 수다헌⁴⁸³⁾ 어린 것들과 구박을 당하
여⁴⁸⁴⁾ 나오던 일을 꼭 속에 들어도⁴⁸⁵⁾ 못 잊겠소.

나는, 나는 안 탈랴요.”

흥보가 듣고 화를 내며,

“타지 말어라. 타지 말어! 안 탈라면 말려무나.

답답헌 사람아.

여자라 허는 것은 상하 의복이로다.

의복은 떨어지면, 다시 지으면 또 의복이요,

형제는 일신수족⁴⁸⁶⁾이로다.

수족 한번 끊어지면 둘 다 병신이 되느니라.

우리 형님은 한번 아차 돌아가시면, 조선 팔도 너룬⁴⁸⁷⁾ 곳에 얼굴인
들 어디서 보겠느냐?

24. (Second Gourd) While sawing the second gourd,
Heungbo says that if jewels come out, he'll give
them to his brother, and talks about ethical rules
between brothers.

[Aniri] "Sweetheart, there were a lot of rice and money in this gourd.

Let's saw that gourd open and see what will come out of it."

Heungbo and his wife begin to saw the other gourd.

[Jungjungmori]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I hope if this gourd is sawn open, nothing comes out except jewels!

If they come out, I'll give them to my brother.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Heungbo's wife heard his words.

[Jungmori] "I refuse to saw this gourd.

Even in my coffin, I can't forget your brother treated us, including our children, harshly on the cold day in winter.

I don't want to saw this gourd."

Heungbo gets angry.

"Don't saw it. Don't saw it. I don't care.

How narrow-minded you are!

A woman is like a piece of clothing.

If clothes get old, we can change them for new ones.

But a brother is like a hand or a leg.

If it is cut off, both are crippled.

If my brother dies, we won't be able to see him again in this country.

안 탈라면 말려무나.”

홍보 마누라 이 말 듣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잘못 되었소.
다시는 그런 말 안 허리다.”

“아먼,⁴⁸⁸⁾ 그래야제.”

[중중모리]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시리령 실근 당겨주소.”

“강상⁴⁸⁹⁾에 둥둥 뜬 배 수천 석을 실었은들 내 박 한 통을 당할쏜가?”

“시리령 실건 시리령 실건 시리령 실건 시리령 실건, 당겨주소.”

[휘모리]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시리령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식씩 콕 콕.

25. (비단 타령) 둘째 박 속에서 온갖 비단이 나온다.

[아니리]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온갖 비단이 나왔겠다.

홍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이 박 속에서는 이렇게 비단이 많이
나왔으니,

우리 무엇무엇인지 한번 세어나 봅시다.”

[중중모리] 붉은단,⁴⁹⁰⁾ 푸른단,⁴⁹¹⁾ 일광단,⁴⁹²⁾ 적선아미가 월광단,⁴⁹³⁾

서왕모⁴⁹⁴⁾ 요지연⁴⁹⁵⁾의 진상허던⁴⁹⁶⁾ 천도문,⁴⁹⁷⁾

백설이 만공산헌데 절개 있는 송죽단,⁴⁹⁸⁾

등태산소천하⁴⁹⁹⁾의 공부자⁵⁰⁰⁾의 대단,⁵⁰¹⁾

I don't care whether you saw it or not."

Heungbo's wife responds, "Oh, sweetheart! I was wrong.

I won't say such a thing again."

"Good! That's what I like to hear."

[Jjungmori]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My gourd exceeds a ship with tons of rice in a river."

"Pull and push the saw. Move the saw back and forth."

[Hwimori] The saw makes sounds, moving back and forth.

25. (Silk Song) All sorts of silk come out of the second gourd.

[Aniri] The gourd gets open.

All sorts of silk come out of it.

Heungbo is excited. "Darling, a lot of silk came out of the gourd.

Let's check them out one by one."

[Jungjungmori] These are red silk, blue silk, sunlight silk, and moonlight silk.

The divine peach silk is associated with the story that a divine peach is offered to an ancient goddess, Xi Wang Mu(西王母), during the party by a divine pond, Yaochi(瑶池).

A pine and bamboo silk is related to a snowfall piled up on an empty mountain.

Confucius wearing silk said on Tai(泰) Mountain that the world looks small.

남양 초당⁵⁰²의 경⁵⁰³ 좋은 데 만고재사⁵⁰⁴의 와룡단,⁵⁰⁵
 오랑캐를 내몰았소 태평건곤⁵⁰⁶ 대원단,⁵⁰⁷
 쓰기 좋은 양태문,⁵⁰⁸
 인정 있는 은조사,⁵⁰⁹
 부귀다복⁵¹⁰ 복수단,⁵¹¹
 삼순구식⁵¹²의 궁초⁵¹³로다.
 길주 명천 가는 배,⁵¹⁴
 강진 해남 극상세목⁵¹⁵, 한산 모시,⁵¹⁶ 임천 모시,⁵¹⁷
 생초,⁵¹⁸ 삼팔,⁵¹⁹ 외사,⁵²⁰ 갑사⁵²¹까지 그저 꾸역꾸역 나오는데,
 홍보 집이 부자가 되네.

26. (홍보 내외 옷차림) 홍보 내외가 비단으로 옷을 차려 입는다.

[아니리] “여보, 마누라. 이렇게 비단이 많이 나왔는데,
 아, 마누라 시집온 이후로 비단이라고는 처음 봤을 테니,
 한번 옷이나 한번 해 입으시오.”
 “여보, 영감. 나는 평생 송화색⁵²² 삼회장⁵²³ 저고리가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뭘 색이 좋습디어?”⁵²⁴
 “나는 평생 검지 않는⁵²⁵ 먹공단⁵²⁶이 좋네.”
 흥부 마누라가 한번 꾸며보는데,
 [중중모리] “먹공단 망건,⁵²⁷ 먹공단 갓끈, 먹공단 두루마기,⁵²⁸ 먹공
 단 조끼, 먹공단 저고리, 먹공단 바지, 먹공단 버선, 먹공단 허리띠,
 먹공단으로 수건을 들고, 어떨까? 날 보소.”
 “영감께서는 하릴없는⁵²⁹ 까마귀 같소그려.”

Kong Ming(孔明) silk was worn by the hero, Kong Ming(孔明),
who lived in a thatched house in a beautiful scenery.
Hope silk concerns the fact that the world became peaceful after
barbarians were driven out.
A fine silk is used for making a hat string.
A kind of thin Chinese silk is related to compassion.
Good luck and life silk is associated with wealth and many sons.
A poverty silk reminds us of hunger.
A beautiful hemp cloth is woven with fine threads.
A fine cotton cloth, a fine hemp cloth from Hansan and
Imcheon,
and silk of other sorts come out endlessly.
Heugbo becomes rich.

26. (Heungbo and His Wife Dress Up.) Heungbo and his wife dress up in silk.

[Aniri] "Sweetheart, we got so much silk.
This must be the first time you've seen silk since you married
me.
Make clothes out of silk for yourself."
"Honey, I like yellow coats the most throughout my life.
What color do you like, darling?"
"I like black silk because it doesn't get dirty."
Heungbo's wife makes clothes.
[Jungjungmori] "If I am dressed up with a black hair-fastener,
a black hat-string, a black overcoat, a black vest, a black jacket,
black trousers, black socks, and a black belt,
and if I hold a black towel, how will I look?"
"You clearly will look like a crow in those clothes."

홍보 মানুষ라도 꾸미는디,
“송화색 댕기,⁵³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단의,⁵³¹⁾ 송화
색 속곳,⁵³²⁾ 송화색 속속곳,⁵³³⁾ 송화색 버선, 송화색 허리띠,⁵³⁴⁾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어떤가? 날 보소.”

27. (셋째 박) 홍보 내외가 노래를 부르면서 셋째 박을 탄다.

[아니리] “그리고 보니 মানুষ라는 하릴없는 꾀꼬리 같소그려.

우리가 한통 남은 박을 마저 탑시다.”

[중모리] 또 한 통을 들여놓고,

“시리령 실건, 툇질이야. 시리령 시리령 실건 실건 실건, 툇질이야.”

“이 박 속에서 나오는 보화⁵³⁵⁾는 김제 만경 오백리들⁵³⁶⁾을 억십만
금⁵³⁷⁾을 주고 사자.

충청도 소사들⁵³⁸⁾을 수만금⁵³⁹⁾을 주고 사면, 부익부⁵⁴⁰⁾가 되겠구나.”

“시리령 실건, 툇질이야!”

28. (홍보 집 짓기) 박통 속에서 사람들이 나와 홍보 집을 지었는데, 대궐 같은 집에 온갖 살림살이가 가득하다.

[휘모리] 시리령 시리령 시리령 시리령 박이 반쯤 벌어진다.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군수군.

Heungbo's wife makes clothes.

"If I am dressed up with a yellow ponytail ribbon, a yellow jacket, a yellow skirt, yellow underwear, yellow undergarments, yellow panties, yellow socks, and a yellow belt, and if I hold a yellow handkerchief, How will I look?"

27. (Third Gourd) Heungbo and his wife saw the third gourd while singing a song.

[Aniri] "You definitely look like a nightingale in those clothes. Let's open the last gourd."

[Jungmori] They bring the last gourd.

"Here goes the saw. Here goes the saw."

"If jewels come out of this gourd, I'll buy wide rice paddies in Gimje with a lot of money.

If I buy fields in northern Chungcheong Province, I'll become richer."

"Here goes the saw."

28. (Building a House for Heungbo) People come out of the gourd and build a palace-like house for Heungbo. It is filled with all kinds of household goods.

[Hwimori] Pull the saw. The gourd is half-open. Whispering sounds are heard from the gourd.

대짜구⁵⁴¹⁾ 든 놈, 소짜구⁵⁴²⁾ 든 놈, 끝⁵⁴³⁾ 든 놈, 호미 든 놈, 몽치⁵⁴⁴⁾
든 놈, 가래⁵⁴⁵⁾ 든 놈이 그저 꾸역 꾸역 꾸역 나와 홍보 집을 짓는다,

[진양조] 동산하⁵⁴⁶⁾ 너룬⁵⁴⁷⁾ 터에 임좌병향⁵⁴⁸⁾ 터를 다져,
팔괘를 놓아⁵⁴⁹⁾ 엔담⁵⁵⁰⁾을 치고,
주란화각⁵⁵¹⁾을 좌우로 세웠난디,
안팎 중문,⁵⁵²⁾ 소소리대문,⁵⁵³⁾
풍경⁵⁵⁴⁾ 소리가 더욱 좋다.
천석지기⁵⁵⁵⁾ 발문서와, 만석지기⁵⁵⁶⁾ 논문서와, 백 가구 종문서⁵⁵⁷⁾가
가득 담뱃 들어 있고,
안방 치레 볼작시면, 큰 병풍, 작은 병풍, 새별⁵⁵⁸⁾같은 순금 대야가
다문⁵⁵⁹⁾ 다뻑⁵⁶⁰⁾ 놓였으니,
홍보가 보고 좋아한다.

[중모리] 사랑⁵⁶¹⁾ 치레⁵⁶²⁾ 볼작시면,⁵⁶³⁾ 각장 장판,⁵⁶⁴⁾ 소란반자,⁵⁶⁵⁾
완자 밀창의⁵⁶⁶⁾ 화류문갑,⁵⁶⁷⁾ 대모책상⁵⁶⁸⁾까지 놓여 있고,
시전,⁵⁶⁹⁾ 서전,⁵⁷⁰⁾ 주역⁵⁷¹⁾이며, 이백,⁵⁷²⁾ 두시,⁵⁷³⁾ 통사략⁵⁷⁴⁾을 좌
우로 좌르르르르 벌였난디,
박홍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좀도⁵⁷⁵⁾ 좋네.
이러령성 저리령성⁵⁷⁶⁾ 흐트러진 근심일량,⁵⁷⁷⁾
마누라와 같이 모여 앉아서 거드령거리고⁵⁷⁸⁾ 놀아보자.”

People holding a large tool to slice wood, a small tool to slice wood, a chisel, a hoe, a club, and a shovel come out continuously, and build a house for Heungbo.

[Jinyangjo] They make a wide house site below the east mountain facing the south.

They set up a wall arou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nature.

They build beautiful towers on the left and right.

There is a gate after the high main gate.

A bell makes a beautiful sound on the eaves.

The house is full of title deeds of fields, rice paddies, and servants.

In the main house, there are a large folding screen, a small folding screen, and golden basins looking like Venus.

Heungbo is pleased to see them.

[Jungmori] In the auxiliary house, a thick laminated floor paper, a mosaic ceiling,

a sliding door, a stationery chest, a desk made of turtle shell, classical books, an ancient poetry book, and an ancient history book are displayed.

Heungbo is pleased to see them.

“Hurrah! Hurray! Whoopee! Yippee!

Let me forget troubling things.

Let me have fun together with my wife!”

29. (놀보가 홍보 집을 찾아옴) 놀보가 찾아오자 홍보는 놀보를 반가이 맞아 부자된 내력을 말하고, 아내에게 인사를 여쭙도록 하니, 홍보 아내가 인사를 드리러 나온다.

[아니레] 그 때여 놀보란 놈이, 홍보가 부자 되었던 소문을 듣고 건너 갔지.

‘이놈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가?’

홍. 강상지괴변⁵⁷⁹)이로고.’

“야 이놈, 홍보야!” 허고 불리노니,

홍보가 달려나와, “형님. 건너오셨습니까?” 허고 인사를 드리니

“야, 이 집이 네 집이냐?”

“예, 제 집이올습니다.”⁵⁸⁰)

“그 집 참 좋다. 나하고 바꾸자.”

“형님 처분껏⁵⁸¹) 허십시오.”

“내가 요새 네 소문을 들으니, 네가 도적질을 잘 한다면서야?

영문⁵⁸²) 포졸⁵⁸³)들이 너를 잡을라고 난리가 났으니,

방문 쇄때⁵⁸⁴)와 농문⁵⁸⁵) 쇄때는 나한테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십 년 만 있다 오니라.

그 동안 네 집은 내가 잘 봐주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이놈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는 제비 한 쌍이 날아와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새끼 여섯 마리를 낳았는데,

무지한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다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날기 공부 힘을 쓰다 거중에⁵⁸⁶)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29. (Nolbo's Visit to Heungbo's House) Nolbo visits Heungbo's house. Heungbo welcomes him, tells the story of how he has become rich, and asks his wife to greet him. Heungbo's wife comes out to greet Nolbo.

[Aniri] Meanwhile, Nolbo heard that his brother has become rich and visits him.

'How did he become rich like this?

This is mysterious.'

Nolbo shouts, "Heungbo, you villain!"

Heungbo comes out quickly and greets him, "Welcome brother!"

"Hey, is this your house?"

"Yes, it is my house."

"It looks good. Why don't you change it with mine?"

"Suit yourself, brother."

"I heard you are stealing from others these days.

The police are out there to arrest you.

Give me the keys to the storeroom and to the wardrobes. Go away and come back in ten years.

I'll take good care of your house while you are away."

"Brot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n, how did you become rich like this? You bastard!"

"Let me tell you how. One day, a couple of swallows came to our house, built a nest at the end of the eaves, and had 6 babies. A ruthless serpent ate them all except one.

While learning to fly, it fell down, broke its legs, and put itself near death.

명대 껍질과 당사실⁵⁸⁷⁾을 구하여 살려주었더니,
 그 이듬해에 나오면서 박씨를 물고 와,
 그 박씨를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렸지요.
 팔월 추석은 돌아오고, 먹을 것이 없어 박속이나 끓여 먹을까 허고
 박을 탔더니,
 아, 그 속에서 은금보화⁵⁸⁸⁾가 많이 나와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
 아, 형님 동생 제가 도적질 할 리가 있습니까?”
 “야, 그 부자 되기 천하⁵⁸⁹⁾ 쉽구나.”
 사랑으로 모시고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건넌말 시숙님⁵⁹⁰⁾이 건너오셨으니 나와 인사 드리오.”
 흥보 마누라가 시숙 왔단 말을 듣더니 사지⁵⁹¹⁾가 벌렁벌렁 떨리나,
 가장⁵⁹²⁾의 명을 거역치 못하여 나오는데,
[중중모리]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전일⁵⁹³⁾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 없나,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금보화가 없나, 녹용
 인삼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⁵⁹⁴⁾를 많이 시키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 세모시에다가⁵⁹⁵⁾ 당청아물⁵⁹⁶⁾을 포로소름하게
 놓아,⁵⁹⁷⁾
 주름은 잘게 잡고, 말⁵⁹⁸⁾은 널리⁵⁹⁹⁾ 달아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아니리]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아, 이놈이 제수⁶⁰⁰⁾가 인사를 드리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제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웅 되었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체도 아니허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리는데,

I wrapped its legs up with a pollack's skin and a silk thread.
In the following year, it came back with a gourd seed.
I planted the seed and got three gourds.
When Thanksgiving Day was around the corner, we had no
food, so we sawed a gourd to eat the flesh inside.
I became rich because a lot of jewels came out of the gourd.
Brother, would I steal things from others?"
"Hey, it is quite easy to become rich."
Heungbo takes Nolbo to an auxiliary house.
"Sweetheart, my brother has come from the neighboring village.
Say hello to him."
Heungbo's wife trembles fast, upon hearing that her
brother-in-law has come.
She comes out, though, not being able to go against her
husband's wish.
[Jungmori] Heungbo's wife comes out. She comes out.
In the past, she didn't have food or clothes. What a drastic
change!
She now has silk, money, rice, jewelry, deer's antlers, and
ginseng.
Her daughters-in-law wear luxurious clothes.
She also wears a fancy cloth from Hansan dyed blue.
The pleat is short. The upper part of her skirt is wide.
She comes out with toddling steps.

[Aniri] Heungbo's wife bows to Nolbo.
Nolbo doesn't answer his sister-in-law's bow.
"Heungbo, I saw her last when I kick her out. A mudfish has
become a dragon."
Heungbo's wife pretends she didn't hear him.
She goes to the kitchen and prepares some food.

30. (음식상 차림) 흥보 마누라가 온갖 음식을 준비한다.

[자진모리] 음식을 차리는데,

안성 유기⁽⁶⁰¹⁾ · 통영 칠판⁽⁶⁰²⁾ · 천은⁽⁶⁰³⁾ 수저 · 구리 저⁽⁶⁰⁴⁾ 집리 서
리⁽⁶⁰⁵⁾ 수 벌이듯⁽⁶⁰⁶⁾ 주루루루루 벌여놓고,

꽃 그렸다 오죽판⁽⁶⁰⁷⁾ ·

대모 양각 당화기⁽⁶⁰⁸⁾ ·

얼기설기⁽⁶⁰⁹⁾ 송편 ·

네 귀 번듯⁽⁶¹⁰⁾ 정절편⁽⁶¹¹⁾ ·

주루루 엮어 산피떡⁽⁶¹²⁾과,

평과⁽⁶¹³⁾ · 진청⁽⁶¹⁴⁾ · 생청⁽⁶¹⁵⁾ 놓고,

조락 산적⁽⁶¹⁶⁾ 옷김쳐,⁽⁶¹⁷⁾

양회⁽⁶¹⁸⁾ · 간 · 처넵⁽⁶¹⁹⁾ · 콩팥 양편⁽⁶²⁰⁾에다가 벌여놓고,

청단⁽⁶²¹⁾ · 수단⁽⁶²²⁾ 잣배기며,⁽⁶²³⁾

인삼채 · 도라지채 · 낙지 · 연포⁽⁶²⁴⁾ · 콩기름에,

갇은 양념 모아놓고,

산채⁽⁶²⁵⁾ · 고사리 · 수근⁽⁶²⁶⁾ · 미나리 · 녹두채 맛난 장국 주루루루루
들이붓고,⁽⁶²⁷⁾

청동화로⁽⁶²⁸⁾ 백탄숯⁽⁶²⁹⁾ 부채질 활활,

계란을 툇툇 깨어 옷딱지⁽⁶³⁰⁾를 떼고 길게 늘이워라.⁽⁶³¹⁾

꼬꼬 울었다 영계찜⁽⁶³²⁾ · 오도독⁽⁶³³⁾ 포도독⁽⁶³⁴⁾ 메초리탕,⁽⁶³⁵⁾

손 뜨건디 쇠저⁽⁶³⁶⁾ 말고 나무 저⁽⁶³⁷⁾를 드러라.

고기 한 점을 덥떡⁽⁶³⁸⁾ 집어 맛난 기름의 간장국에다 풍덩 들이
쳐,⁽⁶³⁹⁾ 피~.

30. (Preparing for Food) Heungbo's wife makes all sorts of food.

[Jajinmori] Heungbo's wife makes food.

She lay out good brassware, a good meal table, silver spoons, and copper chopsticks in an orderly manner.

On the meal table there is a picture of a black bamboo tree and flowers.

A bamboo tree is engraved on the china.

Some rice cakes look like a half-moon.

Some rice cakes are four-sided.

Some red-bean rice cakes are tied together.

An apple, honey, unboiled honey,

roasted meat with an egg and vegetables,

a raw cow stomach, a liver, a sheep stomach, and a kidney are laid out on the left and right.

A mixture of honey and rice cake, a mixture of tea and rice cake, a mixture of pine-nuts and honey,

ginseng, platy codon, a small octopus, dried meat, bean oil, and all sorts of sauces are prepared.

She puts wild greens, fernbrake, parsley, mung beans, and soup into the bowls.

She fans the oak charcoal fire under a bronze fire pot.

She breaks an egg, takes the shell out, and puts the egg over other food.

She boils a cackling young chicken and makes a crunching quail soup.

Give him wooden chopsticks instead of iron ones because they get hot.

She grabs the meat, dips it into delicious oily soy source, and roasts it.

31. (홍보 মানুষ라 포악) 놀보가 권주가를 요구하니, 홍보 মানুষ라가 화를 내며 나간다.

[아니리] 과하주⁶⁴⁰ 좋은 술을 화잔⁶⁴¹에 가득 부어,
“옛소,⁶⁴² 시숙님. 박주오나⁶⁴³ 약주 한 잔 드시지요.”
이놈이 제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야, 홍보야! 너는 형제간이라 내 속⁶⁴⁴을 잘 알지?
나는 소대상⁶⁴⁵ 가서도 권주가⁶⁴⁶ 없이는 술 안 먹는다.
네 각시 곱게 채려 입은 김에 권주가 한 마디 시켜라.”
홍보 মানুষ라가 이 말을 듣더니,
[진양조] “옛소, 시숙님! 여보, 여보, 아주버님! 제수더러 권주가 허란
말씀 고금천지⁶⁴⁷ 어디 가 보았소?
지성이면⁶⁴⁸ 감천이라,⁶⁴⁹ 나도 이제는 돈과 쌀이 많이 있소.
전곡자세⁶⁵⁰를 그만 하시오.
엄동설한⁶⁵¹ 치운⁶⁵² 날에 자식들을 앞세우고, 구박을 당허여⁶⁵³ 나
오던 일은 나는 죽어도 못 잊겠소.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속을 차리면⁶⁵⁴ 뿔하러 내 집에 왔소?
안 갈라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떨쳐버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31. (Heungbo's Wife Expresses Her Anger.) Nolbo asks
Heungbo's wife for the drinking song. She loses
her temper and leaves the room.**

[Aniri] Heungbo's wife pours wine into a glass.

"Here you go, brother-in-law. Please drink this glass of wine."
Nolbo is supposed to just take the drink from his sister-in-law.
"Hey Heungbo! You know about me because I'm your brother.
I don't drink wine without the drinking song even in a house
in mourning.

Your wife is dressed up. Have her sing the drinking song."
Heungbo's wife heard him.

[Jinyangjo] "Hey brother-in-law! How can you ask your
sister-in-law to sing the drinking song?

I'm now rich too because I worked hard and heaven moved.
Don't act arrogant on reason you are rich.

I can't forget you treated our family harshly, and we, including
our children, left your house in cold winter.

I hate you. Get out of here!

If you wised up, what did you come to my house for?

If you don't get out, I will leave."

She goes into the main building.

32. (화초장 타령) 놀보가 흥보에게 화초장을 얻어, 이름을 외우며 집으로 돌아간다.

[아니리] 놀보가 가만히 듣더니마는,

“야, 흥보야. 네 계집 못 쓰겠다. 썩 버려라. 내가 새장가 들여 주마.”

“형님 처분대로 하시지요.”

“그리고 저 윗목⁽⁶⁵⁵⁾에 있는 벌그린⁽⁶⁵⁶⁾ 거, 저게 무엇이냐?”

“예. 그것이 화초장⁽⁶⁵⁷⁾이올시다.”

“화초장? 그러면 그 속에 뭇 들었냐?”

“은금보화가 담뿍⁽⁶⁵⁸⁾ 들었지요.”

“그러면 그것 날 도라.”⁽⁶⁵⁹⁾

“그렇지 않아도 형님 건너오시면 드릴라고 뭇 지어 뵈지요.”

“이리 내라. 내가 짚어지고 갈란다.”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지워 보내드리지요.”

“쫓쫓쫓, 시식잖은⁽⁶⁶⁰⁾ 놈.

밤새 좋은 보물은 다 빼내고, 빈 궤⁽⁶⁶¹⁾만 보낼라고?

아서라.⁽⁶⁶²⁾ 매사⁽⁶⁶³⁾는 불여튼튼이라⁽⁶⁶⁴⁾ 허였으니, 내가 짚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화초장을 짚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데,

[중중모리]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⁶⁶⁵⁾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⁶⁶⁶⁾ 천장. 아니다.

32. (Flower Wardrobe Song) Nolbo gets Flower Wardrobe from Heungbo. While going back home, he keeps saying the name of the wardrobe.

[Aniri] Nolbo has been listening to Heungbo's wife.

"Hey, Heungbo! Your wife is bad. Dump her. I'll get you a new one."

"Brother, suit yourself."

"By the way, what is the red thing on the upper part of the floor?"

"It is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What's in there?"

"It is full of jewels."

"Then, give it to me."

"I intended to give it to you, when you visit here."

"Hand it over to me now. I'll carry it to my home."

"After you are gone, I'll have a servant carry it to your home."

"How foolish you are!

You are trying to take the jewels out tonight and send only the empty wardrobe to me.

No! We should play safe in all matters, so I'll carry it myself."

Carrying Flower Wardrobe, Nolbo keeps saying the name of the wardrobe so as not to forget it.

[Jungjungmori] "I got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Flower Wardrobe.

I got Flower Wardrobe."

Nolbo crosses a stream.

"God, I forgot the name!

Lower Wardrobe? No.

Room Wardrobe? Roof Wardrobe? No.

고추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⁶⁶⁷⁾ 아니다.”

이놈이 꺼꾸로⁶⁶⁸⁾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나?

갑갑혀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거 무엇이나?”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구석⁶⁶⁹⁾이라고 들어오면, 우루루루루루

쫓아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가 옳제,

좌이부동⁶⁷⁰⁾이 웬 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놀보 마누라 나온다. 놀보 마누라 나와.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이리 오시오. 이리 와.”

33. (놀보 제비 몰러 나감) 놀보가 이리저리 제비를 몰러 다닌다.

[아니리] 놀보가 화초장을 지고 들어가며,

저는 아는 듯이 묻겠다.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짊어진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이고, 그거 화초장 아니오?”

“방정맞은 놈의 여편네가 화초장은 또 어떻게 안다?”⁶⁷¹⁾

“하이고, 우리 친정서 그러는디, 그걸 화초장이라 헛디다.”

이놈이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바빨세라.

제비를 청하려고 제비 집을 짓는디,

Pepper Wardrobe? Soybean Wardrobe? No.
 Body Wardrobe? Stone Wardrobe? No.”
 Reversing the order of the words doesn’t help.
 “Wardrobe Flower, Robeward Flower. Alas! What is this?
 I’m anxious to know it. Alas! What is it?”
 Nolbo gets into his house.
 “Hello, honey!
 If the family head comes back home, his wife is supposed to
 come out fast and greet him.
 How can you just sit there?
 How rude you are!”
 Nolbo’s wife comes out. She comes out.
 “Darling, I didn’t know you were back. I didn’t know.
 Welcome back. This way, please.”

33. (Nolbo Goes Out to Chase Swallows.) Nolbo runs around to chase swallows.

[Aniri] Nolbo goes inside, carrying Flower Wardrobe on his
 back.
 He asks as if he knows what it is.
 “Sweetheart, what is this thing that I’m carrying?”
 “Oh, that is Flower Wardrobe.”
 “How does this frivolous woman know the name?”
 “My parents used to call it Flower Wardrobe.”
 Nolbo puts Flower Wardrobe down quickly.
 He gets to work to build nests for swallows.

신 잘 삼는⁽⁶⁷²⁾ 사람들 십여 명을 정하여,
 삼시⁽⁶⁷³⁾ 먹고 닛 낭씩에 제비집 수십 개를 밤낮 없이 찢어내어,⁽⁶⁷⁴⁾
 안채, 사랑채, 행랑, 곳간, 서당, 별당,⁽⁶⁷⁵⁾ 뒷간,⁽⁶⁷⁶⁾ 앞뒤청하,⁽⁶⁷⁷⁾ 들
 보,⁽⁶⁷⁸⁾ 서끝⁽⁶⁷⁹⁾까지 빈 틈 없이 다 달아놓고,
 제비를 기다려도 소식이 막연허니,⁽⁶⁸⁰⁾
 이놈이 제비에게 환장⁽⁶⁸¹⁾이 되어,
 종이만 보아도 간제비⁽⁶⁸²⁾만 접어놓고,
 어찌다 화가 나면 목제비질⁽⁶⁸³⁾만 허는구나.
 말경⁽⁶⁸⁴⁾에는 피를 내어 제비를 후리러⁽⁶⁸⁵⁾ 나가는디,
[중중모레] 이 때 춘절⁽⁶⁸⁶⁾ 삼각⁽⁶⁸⁷⁾ 하사월⁽⁶⁸⁸⁾ 초과일,⁽⁶⁸⁹⁾ 연자⁽⁶⁹⁰⁾ 나
 비는 펄펄.
 수양버들에 앉은 피꼬리 제 이름을 제 불러.⁽⁶⁹¹⁾
 복희씨⁽⁶⁹²⁾ 맺은 그물을 에후리쳐⁽⁶⁹³⁾ 드러메고⁽⁶⁹⁴⁾ 망당산⁽⁶⁹⁵⁾으로 나
 간다.
 이편은 우두봉,⁽⁶⁹⁶⁾ 저편은 좌두봉,⁽⁶⁹⁷⁾
 건년봉,⁽⁶⁹⁸⁾ 맞은봉⁽⁶⁹⁹⁾ 좌우로 칭칭⁽⁷⁰⁰⁾ 돌렸난디,⁽⁷⁰¹⁾
 “어어 이루어!”
 덩풀⁽⁷⁰²⁾을 툭 쳐, “후여! 허허허, 저 저 제비.”
 방장산⁽⁷⁰³⁾ 짓둘러⁽⁷⁰⁴⁾ 덩풀을 툭 쳐,
 “후여,⁽⁷⁰⁵⁾ 뗏다, 저 제비 어느 곳으로 행하나?”⁽⁷⁰⁶⁾
 연비여천⁽⁷⁰⁷⁾의 소리개⁽⁷⁰⁸⁾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남비오작⁽⁷⁰⁹⁾의 까치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춘일황앵⁽⁷¹⁰⁾의 피꼬리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층암절벽⁽⁷¹¹⁾의 비둘기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
 “저기 가는 저 제비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천화일⁽⁷¹²⁾에 지은 집이로다. 화급동량이라.⁽⁷¹³⁾
 내 집으로 들오너라. 이 이 이리 와.”

He hires several experts in making straw shoes.
 With food and money provided, they make dozens of swallow
 nests day and night.
 The main building, the auxiliary building, the servant building,
 the warehouse, the reading house, the separate house, the toilet
 building, the wooden floors, crossbeams, and rafters are thickly
 placed with nests.
 Nolbo waits for swallows in vain.
 He goes mad because they don't come.
 He folds a paper in a way associated with the word 'swallow.'
 If he is angry, he puts his head down like a dead swallow.
 In the end, he hits upon an idea and goes out to snatch a
 swallow.
[Jungjungmori] Swallows and butterflies fly on a spring day,
 A nightingale chirps in a willow tree.
 He carries a net on his shoulder and goes to Jiri Mountain.
 Mountain peaks are here and there.
 There are mountain peaks in the four directions.
 "Hey swallow!"
 He hits a bush. "Hey swallow! Look at that swallow!"
 He goes all around Jiri Mountain, hitting the bushes.
 "That swallow in the sky! Where are you going?"
 An eagle flies in the sky. He takes it to be a swallow.
 A crow and a magpie fly in the south sky. He takes them to
 be swallows.
 He sees a yellow spring nightingale. He takes it to be a swallow.
 He sees a pigeon on a cliff. He takes it to be a swallow.
 "Hey swallow over there! Don't go to that house.
 It is an unlucky house to be burned down.
 Come to my house. Come here."

-
- 1) 어름. 둘이 맞닿은 곳.
 - 2) 五臟.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내장'의 뜻으로 쓰였음.
 - 3) 육부(六腑)인데. 육부는 한의학에서 담(쓸개), 위, 대장(큰 창자), 소장(작은 창자), 삼초(위의 위 부분, 위 부근, 배꼽 아래의 부분), 방광(오줌보) 등 여섯 가지 배속 기관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
 - 4) 五臟이 칠부(七腑)더랍니다. 내장이 일곱 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 5) 將棋宮작. 장기 놀이에서 임금을 나타내는 가장 큰 장기말로써, '초(楚)' 자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고, '한(漢)' 자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다.
 - 6) 약간 불룩하게.
 - 7) 大將軍方. 음양설에서 흉한 방위를 맡은 장신(將神)의 하나인 대장군신이 맡은 방위. 이 방위에서 나무를 하면 해를 입는다고 함.
 - 8) 伐木, 나무를 베.
 - 9) 삼살방(三煞方)에. 삼살방에다. '삼살방'은 점술에서 세 가지 불길한 살(겁살·세살·재살)이 낀다는 방위.
 - 10) 권(勸)하고.
 - 11) 오귀방(五鬼方)에다. '오귀방'은 자연의 순리가 역행하여, 가장 나쁜 방위. 이 방위로 가면, 모든 일이 잘 안 된다고 함.
 - 12) 過客. 지나가는 나그네.
 - 13) 재울 듯이. 잠을 재워줄 듯이.
 - 14) 居士. 조선조 후기의 유랑 배우. 절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승려에서 파생된 듯.
 - 15) 小鼓. 농악에서 사용하는 작은 북으로, 매귀북이라고도 한다. 운두가 낮고 얇은 가죽으로 만들었다. 농악에서 보통 4-5명 이상 편성되는 소고잡이가 소고춤이나 상모놀이를 할 때에 그 음향보다는 맷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16) 冠. 모자.
 - 17) 初喪. 집안에 죽은 사람이 생김.
 - 18) 緋緞塵. 비단 파는 가게.
 - 19) 물총질을 하고.
 - 20) 劫奪. 폭력을 쓰거나 위협을 하여 여자의 정조를 빼앗음.
 - 21) 守節寡婦. 남편이 죽은 뒤 재혼하지 않고 사는 여자.
 - 22) 모함(謀陷)하고.
 - 23) 허방을 만들어 놓고. '허방'은 땅바닥이 갑자기 움푹 패어 빠지기 쉬운 곳.
 - 24) 곱사등이. 꼬추.
 - 25) 전통 실내악의 한 가지로, 정악곡인 영산회상곡을 말함.
 - 26) 많다면.
 - 27) 三綱. 신하는 임금을 따르고,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유교의 윤리의식 세 가지.
 - 28) 五倫.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애, 부부 사이에는 분별,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이르는 유교의 다섯 가지 윤리.

- 29) 亂杖. 신체의 부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때로 치던 고문.
- 30) 倫紀인들. '윤기'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 31) 命. 명령.
- 32) 月出東嶺. 동쪽에 있는 고갯마루에 달이 뜬.
- 33) 好衣好食.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 34) 世上分別. 경험이나 식견 따위로 세상 일을 따질 능력.
- 35) 一朝에. 하루 아침에. 아주 짧은 기간에.
- 36) 그리 말도록 금지하는 말.
- 37) 山中. 산골. 산속.
- 38) 살자 하니. 살자고 하니.
- 39) 百物. 여러 가지 물건.
- 40) 道傍. 길가. 여기서는 '도방처'를 가리킴. '도방처'는 길가와 같이 사람의 내왕이 많은 곳.
- 41) 一元山. 첫째는 원산. '원산'은 함경남도 남쪽에 있는 시의 지명.
- 42) 二江景. 두 번 째는 충청남도 강경읍을 가리킴.
- 43) 三浦州. 세 번 째는 포주. '포주'는 지금의 전북 부안군 줄포(茁浦).
- 44) 四法聖. 네 번째는 법성. 법성'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
- 45) 그러저럭.
- 46) 聖賢洞 福德村. 성현과 같이 마음이 착하고 어진 사람들이 사는, 복과 덕이 많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꾸며 지어낸 이름.
- 47) 僅僅이. 어렵사리 겨우.
- 48)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 49) 서리처럼 흰 쌀밥.
- 50) 육개장의 국물. '육개장'은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갖은 양념을 한 뒤에 파와 고춧가루를 넣어 다시 끓인 국.
- 51) 各心으로. 제각각의 마음대로.
- 52) 公論. 함께 모여 의논함.
- 53)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마음에 놀랍거나 못마땅한 정도로 심하다고 느낄 때 내는 소리.
- 54) 形勢. 생활의 경제적 형편.
- 55) 家長. 집안의 어른.
- 56) 肝腸.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마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57) 財數. 좋은 일이 생길 운수.
- 58) 還子섬. 환자 몇 섬. '환자'는 조선 시대에, 곡식을 사창(社倉)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하여 짚으로 거칠게 엮어서 만든 기구로 한 말의 곱절의 용량을 담는다.
- 59) 戶房. 조선조 때 승정원이나 지방 관청에서 호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아전.
- 60)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받는 일. '품'은 무슨 일에 드는 힘이나 수고, 또는 돈을 받고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일.

- 61) 座首.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향청(鄉廳) 또는 유향소(留鄉所)의 가장 높은 직임. 조선 건국 초기에 악질 향리의 규찰과 향촌의 교화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연로하고 덕망이 높은 자를 좌수로 삼고, 그 다음을 별감(別監)이라 하였다.
- 62) 營門. 병마절도사가 있던 곳. 영문은 본디 병영의 문을 뜻함.
- 63) 棍杖. 조선조 때 죄인의 불기를 치던 형구.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든 것으로,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중곤(中棍), 대곤(大棍), 소곤(小棍), 치도곤(治盜棍)의 다섯 가지가 있었다.
- 64) 말을 빌려 타고 내는 돈.
- 65) 다섯.
- 66) 舉動. 일에 나서서 움직이는 태도.
- 67) 櫃門. 나무로 짠 네모진 껍짝의 문.
- 68) (자물쇠 따위가 서로 닿으면 걸리게 된) 단단한 물건이 세게 맞부딪쳐 달라붙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69) 秩廳. 관청에서 아전들이 일을 맡아 보던 청사.
- 70) 葉錢. 예전에 사용하던 낫쇠로 만든 돈.
- 71) 도리(道理)에.
- 72) 坐而不動.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 73) 生殺之權. 살리고 죽이는 권한.
- 74) 富貴功名.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 75) 孟嘗君. (1)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정승.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 찾아오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여 천하의 유능한 선비 수천 명을食客으로 두었다고 함. 진나라에 들어가 소왕(昭王)에게 피살될 뻔했을 때, 과거 그의 도움을 입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도독질을 잘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유명함. (2) ‘돈’의 변말. 맹상군의 이름인 전문(田文)과 돈을 가리키는 전문(錢文)이 음이 같은 데서 유래함.
- 76) 日收돈. 돈을 빌린 다음 본전과 이자를 일정한 날짜로 나누어 날마다 갚는 돈.
- 77) 月收. 돈을 빌린 다음, 본전과 이자를 일정한 달수로 나누어 달마다 갚는 돈.
- 78) 장체계(場遞計). 비싼 이자로 돈을 꾸 다음, 장날마다 본전과 이자를 갚는 일.
- 79) 派收돈. 5일마다 본전과 이자를 갚는 돈.
- 80) 橫財. 뜻밖에 재물을 얻음. 뜻밖에 얻은 돈.
- 81) 生天生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남.
- 82) 兵營. 병마절도사가 있던 병영.
- 83) 救患. 어려움에서 구함.
- 84) 古今天地. 예부터 지금까지의 온 세상.
- 85) 어찌. 어떻게.
- 86) 終身. 죽을 때까지.
- 87) 좀처럼 고치기 어렵게 속으로 깊이 든 병.
- 88) 陰地. 그늘진 땅.

- 89) 天不生無祿之人이요, 地不長無名之草라. 하늘은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게 하지 않고, 땅은 이름이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음. 곧 제 먹을 것과 할 일은 제각각 타고난다는 말.
- 90) 하늘.
- 91) '구멍'의 고어.
- 92) 허위허위.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서두르는 모양.
- 93) 身世自嘆. 가련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스스로 탄식함.
- 94) 高臺廣室. 높은 누대와 넓은 방. 곧 부자로 잘 사는 집을 가리킴.
- 95) 好家舍. 화려하게 잘 지은 집.
- 96) 병영이 있는 고을.
- 97) 쳐다보느냐. 여기서는 '쳐다보니'.
- 98) 大將旗요. 대장기는 도성이나 영문에 세워, 대장이 부하를 지휘하는 데 쓰던 깃발.
- 99) 肅靜牌. 사형을 집행할 때, 다른 사람이 떠들지 못 하도록 '肅'자와 '靜'자를 적어서 세워 놓는 나무 패.
- 100) 深山 猛虎 嚴容같은. 깊은 산 속 사나운 호랑이의 위엄 있고 강한 모습과 같은.
- 101) 勇 字 붙인. '勇' 자는 군뢰(軍牢)들이 쓰던 전립(戰笠)의 앞에 쇠쇠 조각으로 만들어 붙이던 글자.
- 102) 군뢰사령(軍牢使令). 군대 안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
- 103) 수한. 순진한. 순박한.
- 104) 三門. 정문과 그 양쪽에 세운 두 개의 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대궐이나 관청의 문.
- 105) 구멍.
- 106) 궁둥이의 언저리. 뒤쪽 허리 아래 허벅다리 위 좌우쪽으로 살이 두드룩한 부분.
- 107) 壯觀. 크게 구경거리가 될 만하다거나 매우 볼 보기 좋다는 뜻으로, 남의 행동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말.
- 108) 엮드려.
- 109) 三門間. 삼문이 있는 부근.
- 110) 엮드려놓으니.
- 111) 군뢰(軍牢). 조선 시대에,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던 병졸.
- 112) 朴生具. 박씨 성을 가진 생원. '생원'은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는 뜻으로, 그 사람의 성(姓) 밑에 붙이는 말.
- 113) 九 尺 . 아홉 자. 한 자는 약 30cm.
- 114) 피쇠의 아버지. '피쇠'는 피 많은 아이라는 뜻을 지닌 남자 이름.
- 115) 남이 하려는 일을 앞질러서 하는 일.
- 116) 番手네들. 여러 번수들. '번수'는 대궐이나 관청을 지키는 병사.
- 117) 守番. 교대로 지키는 일.
- 118) 損財. 손재수(損財數). 재물을 잃을 운수.
- 119) 달래고.
- 120) 靜히. 깨끗이.
- 121)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우물물.

- 122) 뵈니다.
- 123) 하느님前. 하느님 앞에. 하느님께.
- 124) 晝夜祝手. 밤낮으로 두 손 모아 뵈.
- 125) 仗處. 형벌로 매를 맞은 곳.
- 126) 임자에게. '임자'는 친한 사람끼리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할 때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이인칭 대명사.
- 127) 晝夜祝手. 밤낮으로 두 손 모아 뵈.
- 128) 좋기는 하오마는. 좋습니다만.
- 129) 건너 편에 있는 마을.
- 130) 媳叔. 시아주머니. 남편의 형님.
- 131) 매만져서 모양을 내는 일.
- 132) 본다고 하면. 보면.
- 133) 破笠. 부서진 갓.
- 134) 물건을 버티어서 이리저리 벌여 매는 줄. 여기서는 갓을 고정시켜 주는 줄.
- 135) 叢叢. 뽕뽕하게.
- 136) 조사로 만든 갓끈. '조사'는 은조사(비단)의 한 가지로 여름 옷감으로 썸)를 가리키는 뜻함.
- 137) '갓풀'은 짐승의 가죽, 힘줄, 창자, 뼈 따위를 진하게 곤 다음에 굳혀서 만든 풀. '갓'은 재료가 가죽임을 나타내는 접두사.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 138) 종이로 만든 당줄. '당줄'은 망건 양 쪽 끝 위 아래에 달아 망건을 졸라매는 데 쓰는 검은 노끈.
- 139) 頭痛나게. 머리가 아프게.
- 140) 실로 만든 허리띠.
- 141) 곱돌로 담배통을 만든 담뱃대. '곱돌'은 만지면 양초와 같이 매끈매끈하고 지방 광택이 나는 암석과 광물의 통칭. 활석.
- 142) 서리 내린 추운 아침.
- 143) 추운.
- 144) (두려워하거나 조심하느라고) 옆으로 걸음을 걸어.
- 145) 獨身. 형제 없는 외아들.
- 146) 三尺童子. 키가 서 자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 147) 어떤.
- 148) 合掌.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냄. 또는 그런 예법.
- 149) 형님前에. 형님 앞에. 형님께.
- 150) '몹쓸'을 강조한 말.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 151) 妻子. 아내와 자식.
- 152) 저물도록. 하루 내내.
- 153)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 154) '떨쩍하게', '말끔히'의 뜻으로 쓰이는 방언.
- 155) 굵었나이다. 굵었습니다.

- 156) 나락 천 석을 추수하는 큰 부자.
- 157) 眷屬. 권솔(眷率). 한 집에 거느리는 식구.
- 158) 살리겠나이다. 살리겠습니다.
- 159) 既往에. 이미 그렇게 된 바에.
- 160) 옷감을 감아서 다듬잇돌 위에 얹어놓고 방망이로 만드럽게 다듬는 기구. 지름 10cm 쯤 되는 긴 몽둥이임.
- 161) 솥아 빼거나 잘라 내서 가지고 온.
- 162) 정하게 다듬지 않고 거칠게 대강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건목 치다'는 정하게 만들지 않고 건목으로 대강 만들다.
- 163) 식혀버릴 놈. 곧 죽일 놈이라는 뜻.
- 164) 일을 급하게 서둘러 아주 빨리 해치우는 모양.
- 165) 舉動. 일에 나서서 움직이는 태도.
- 166) 형편이나 위세 따위가 급하는 데 없이 당당하게.
- 167) 몇 섬 정도의 벼.
- 168) '뒤지'라고도 함. 쌀 따위를 담아두는 세간. 나무로 껍짝같이 만들되, 네 기둥과 짧은 발이 있으며, 뚜껑 부분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된다.
- 169) 다물다물하게. '다물다물'은 물건이 무더기로 쌓인 모양.
- 170) 錢穀間. 돈이나 곡식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 171) 天祿房. '하늘이 내린 복록이 들어찬 방'이란 뜻으로, 공간에 붙인 이름.
- 172) 金櫃. 금으로 만든 캐. '캐'는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직육면체 꼴로 뚜껑이나 문짝이 있게 나무로 짠 그릇.
- 173) '관(貫)의 잘못. 열 냇을 단위로 한 엽전 열 꾸러미. 캐.
- 174) 많은 돈.
- 175) 열 냇을 한 꾸러미로 하여, 열 꾸러미씩 쌓아놓은 돈.
- 176) 쌓아 놓은 물건을 뜯어내며.
- 177) 들어올려서 어깨에 메고.
- 178) 골짜기.
- 179) '머리'를 낫잡아 일컫는 말.
- 180) 날아가지도.
- 181) 中門. 사랑채에서 안채로 통하는 문.
- 182) '아주버님'을 속되게 일컫느라고 만들어낸 말.
- 183) '도마뱀'의 전라도 사투리.
- 184) 錢穀. 돈과 곡식.
- 185) 如反掌.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
- 186) '시아주비'의 방언. 시동생. 남편의 남동생.
- 187) 古今天地. 예부터 지금까지의 온세상.
- 188) 閻羅國.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저승'을 달리 일컫는 말.
- 189) 細細冤情. 사소한 억울한 사정.
- 190) 사다가.

- 191)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192) 정도가 보통보다 심하게.
- 193) 江亭모통이. 정자가 있는 강가의 모통이.
- 194) 모두. 전부.
- 195) 손바닥을 얹어서 때리는 뺨.
- 196) 대번에. 서슴지 않고 단숨에.
- 197)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경련을 일으켜 갑자기 오그라들거나 뻣치어 굳어지는 현상.
- 198) 그런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 199) 저렇다고 해도.
- 200)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 201) 倫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 202) 남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 203) 三神帝王. 민속에서 야기 낳는 일을 맡은 삼신을 높여 이르는 말.
- 204) 北斗七星님이 뉘자리에 떨어칠 때. 북두칠성님이 뉘자리에 떨어뜨릴 때에. 곧 태어날 때에. 옛날에는 짚을 깔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임. ‘북두칠성’은 칠원 성군(七元星君)이라고도 부르며, 민속에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한다는 신.
- 205) 命. 목숨.
- 206) 壽福. 오래 살며 길이 복을 누리는 일.
- 207) 생겨나서.
- 208) 不義行使. 옳지 않은 일을 함.
- 209) 三旬九食. 30일에 아홉 번 식사를 할 정도로 굶으며 지냄.
- 210) 家長. 남편.
- 211) 浮黃.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 212) 餓死之境. 굶어죽을 지경.
- 213) 百年八字. 한 평생의 운수.
- 214) 家長. 한 가정을 이끌어어나가는 사람. ‘남편’을 달리 이르는 말. 여기서는 남편.
- 215) 薄福한. 복이 없는.
- 216) 만류(挽留)하고.
- 217) 人倫. 인간 관계의 질서.
- 218) 道僧. 본래 ‘도를 닦는 수도승’을 뜻하나, 민속에서는 ‘신통술에 아주 통달한 중’의 뜻으로 쓰인다.
- 219) 年年 묵은 중. 중이 된 햇수가 오래된 중.
- 220) ‘매우 혈어서 늙은’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차림새가 허술하고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로 쓰였음.
- 221) 兩耳垂肩眉覆面 草衣不針復不線. 도승의 모습을 노래한 잠삼(岑參)의 시 〈태백호승가(太白胡僧歌)〉에 나오는 구절. 두 귀는 어깨까지 늘어지고, 긴 눈썹은 얼굴을 덮었으며, 초의는 바느질하지도 않았고, 또 꿰매지도 않았네. ‘초의’는 속세를 떠나 숨어 사는 사람의 의복.
- 222) 청울치. 침당굴에서 곱겹질을 벗겨낸 속겹질. 노나 베 등의 재료로 쓰임.

- 223) 원래는 송라(松蘿). 소나무겨우살이라는 풀로 엮어 만들어 주로 여승이 쓰는 모자.
- 224) 성기게 꿰매고.
- 225) 누덕누덕.
- 226) 長衫. 검은 베로 만든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은 중의 옷.
- 227) 포아풀과에 속한 한해살이풀로, 열매는 보리보다 굵고 윤이 나며, 식용이나 약재로 씀.
- 228) 念珠. (염불하는 수를 헤아린다는 뜻) 염불할 때 손으로 돌려 그 수효를 세는 기구. 여러 개의 보리자, 금강주, 또는 모감주나무의 열매 따위를 실에 꿰어서 만들.
- 229) 團珠. 밤톨 만하게 깎은 나무 구슬 여덟 개로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 230) 瀟湘斑竹. 중국 소상강 가에서 나는, 아롱진 무늬가 있는 대나무.
- 231) 龍頭. 용의 머리.
- 232) 六環杖. 도가 높은 중이 짚던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233) 힘 없이 늘어져 흔들거리고.
- 234) 南無阿彌陀佛. 염불하는 소리의 한 가지. 아미타불에 돌아가 의지하여 구원을 원한다는 뜻의 말.
- 235) 觀世音菩薩. 대자대비의 상징으로서 가장 널리 높임을 받는 보살.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정성으로 외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함. 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을 가까이 곁에서 모시면서 부처의 교화를 돕는다고 함.
- 236) 施主. 절에 물건을 베풀어줌.
- 237) 세 발. '발'은 양 팔을 짝 벌린 길이.
- 238) '서 발 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것이 없는 집'이라는 말은 아무 것도 가진 물건이 없는 집이라는 말.
- 239) 生死가 未判. 생사가 구분이 되지 않음. 죽게 생겼음.
- 240) 曲折. 순조롭지 아니하게 얽힌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
- 241)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夫婦)'를 이르는 말.
- 242) 可矜한. 불쌍한. 가련한.
- 243) 小僧. 중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244) 坎癸龍. 감방(坎方)과 계방(癸方)에서 뻗어나온 용맥(龍脈), 곧 산줄기. 감방은 정북쪽, 계방은 정북에서 15도 동쪽의 방위임.
- 245) 艮坐坤向. 간방(艮方, 동북방)을 등지고 곤방(坤方, 서남방)을 향한 좌향(坐向). 산, 수, 방위, 사람의 풍수지리의 기본요소 중에서 좌향론(坐向論)은 방위에 관계된 술법이다. 원래 좌향이란 혈의 위치에서 본 방위, 즉 혈의 방위를 좌(坐)로, 혈의 정면을 향(向)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 246) 貪狼得巨門派. 풍수지리에서 산모양을 구성(九星)에 비유해 일컫는 명당자리. 득(得)과 파(派)는 수세(水勢)의 출입방위를 말함.
- 247) 文筆峰. 풍수지리에서 문장가가 난다고 하는 산. 집터나 밭자리의 오른쪽 앞부분에 솟은 뾰족한 산봉우리.
- 248) 倉庫砂. 풍수지리에서 부자가 난다고 하는 산의 형세.
- 249) 安貧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냄.
- 250) 家勢. 집안 살림살이의 형편.

- 251) 速發. 빨리 일어남.
- 252) 財物. 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
- 253) 漸增. 점점 늘어남.
- 254) 用之不竭. 써도 다함이 없음. 곧 그렇게 풍부하다는 말.
- 255) 取之無窮. 취하여도 다함이 없음. 곧 그렇게 풍부하다는 말.
- 256) 그리운. 아쉬운.
- 257) 塵閤 立株. 자리. ‘진’은 주나라 때 시가의 2묘(敝) 반의 집터를 가리키고, ‘한’은 담장이 라는 뜻. 따라서 ‘전한 입주 자리’는 담으로 두른 집터의 기둥을 세울 자리라는 뜻.
- 258) 因忽不見. 갑자기 보이지 않음.
- 259) 추운.
- 260) 山水景概. 자연의 경치.
- 261) 壯히. 매우. 씩.
- 262) 柳色黃金嫩. 눈 트는 어린 버들잎은 황금 빛을 띠어 곱고. 이백의 시 〈궁중행락사(宮中行樂詞)〉 8수 중 두 번째 수의 첫째 구임.
- 263) 梨花白雪香. 흰 눈같은 배꽃 향기가 풍긴다. 이백의 시 〈궁중행락사(宮中行樂詞)〉 8수 중 두 번째 수의 둘째 구임.
- 264) 維鵲有巢. 까치는 손수 제 집을 지어 가짐. 《시경》 ‘소남’에 있는 구절임.
- 265) 山梁雌雉. 산비탈의 암탉.
- 266) 方將. 곧. 장차.
- 267) 수릿과에 딸린 새. 매보다 크고 날카로운 굽은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들쥐, 물고기, 조개류 따위를 잡아 먹는다.
- 268) ‘비가 온다’는 뜻으로 쓴 새소리의 의성어.
- 269) 方將. 곧. 장차.
- 270) (비가) 내려고 하는데.
- 271) 소쩍새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숫쩍다’는 ‘술 적다’와 음이 같음. 그래서 소쩍새가 울면, 술이 작을 정도로 많은 곡식이 나서 풍년이 든다고 함.
- 272) 布穀. 뻬꾸기. 뻬꾸기는 입하 무렵에 나오고, 처서에 들어가는 철새이므로 농사철과 관련이 깊어, ‘곡식을 뿌리다(布穀)’는 뜻으로 일컬음.
- 273) 戴勝. 오디새. ‘오디새’의 ‘오디’가 뽕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가리키므로, ‘누에가 있어야 뽕을 따지’라는 구절이 이어짐.
- 274) 鷄犬. 닭과 개.
- 275) 彌勒님. 미륵을 높여 일컬은 말. 도솔천에 살며, 억만 년 뒤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 돌로 새긴 부처.
- 276) 東風. 동쪽에서 부는 봄바람.
- 277) 芳春和時. 화창한 때.
- 278)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모든 짐승.
- 279) 趨勢려여. 재물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붙좃아서 따라서.
- 280) 萬無. 결코 없음.
- 281) 喃喃之聲. 재재거리며 우는 소리.

- 282) 賀禮. 축하 인사.
- 283) 알을 품어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여.
- 284) 대망(大蟒)이. 아주 큰 구렁이 또는 이무기.
- 285) 去中. 공중.
- 286) 唐絲絲. 중국에서 들어온 품질이 좋은 명주실.
- 287) 친친. 든든하게 자꾸 감거나 동여매는 모양.
- 288) 동여. 여러 차례 칭칭 감아.
- 289) 萬里江南. 만 리나 떨어진 먼 강남. '강남'은 양자강 이남의 따뜻한 지방을 이르는 말.
- 290) 九萬長天. 구만 리나 되는 높고 넓은 하늘.
- 291) 옛적의.
- 292) 孫賓. 제나라의 뛰어난 병법가. 후에 위나라의 장수가 된 방연(龐涓)과 함께 일찌기 귀곡선생에게 배웠는데, 위나라에 있을 때, 그의 재능을 시기한 방연의 참소에 의해 발꿈치를 잘라내고 얼굴에 먹글씨를 넣는 형벌을 받았다. 이 때 사신으로 와 있던 제나라 순우곤이 그를 몰래 빼내 데려다가 제나라 위임금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제나라의 군사(軍師)가 되어, 위나라의 침략을 받은 한나라를 도와, 방연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를 유인하여 쳐부수자, 방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293) 兩足. 두 다리.
- 294) 齊나라. 중국 춘추시대에 산둥성 일대에 있던 나라. 기원 전 1123년에 주나라 무왕이 강태공에게 봉하여 준 나라로, 기원전 386년에 가신인 전씨(田氏)에게 빼앗겼다.
- 295) 楚漢적.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놓고 다투던 때.
- 296)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섰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고조의 기쁨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 때 그는 '교토사주구팽(狡兔死走狗烹)'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297) 一支手가 없었어도, 손 하나가 없었어도, 한신이 처음에는 항우를 따랐으나, 자기의 계책이 쓰이지 않으므로 도망하여 한나라에 들어갔다. 승상 소하는 그를 비범한 인물로 보고 추천하였으나, 임금이 홀려들자, 한신은 이에 크게 낙담하여 한나라로부터 도망하였다. 소하는 한신이 도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임금에게 알릴 사이도 없이 쫓아가 붙들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하까지 도망하였다고 말하여, 임금은 마치 두 손을 잃은 듯이 낙담하여 크게 화를 냈다. 이 사실에서 한신이 손 하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한 고조가 '마치 두 손을 잃은 듯했다(如失左右手)'는 《사기(史記)》의 기록의 와전이다.
- 298) 大將壇. 대장이 부대의 지휘를 위하여 나아가 서는 곳.
- 299) 一軍皆驚. 온 군사가 모두 놀람. 한나라 고조가 승상 소하의 뜻을 따라, 날을 가려 단을 쌓고, 장군을 맞이할 예의를 갖춘 뒤에 한신에게 대장을 제수하자, 제가 대장으로 뽐히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장수와 군사들이 깜짝 놀랐다고 함.
- 300) 九萬長空. 구만 리나 되는 높고 넓은 하늘.

- 301) 祖宗之望帝라. 임금 중의 촉나라 망제이다. 임금 중에서 촉 나라 망제의 낮이었다. 망제는 주나라 말기에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컬은 두우를 말하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어, 그 낮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302) 點考. 이름을 적어놓은 장부에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확인하는 일.
- 303) 中原. 중국의 일부 지방을 가리키는 말. 오늘날에는 하남성, 산서성, 산둥성 서부 일대를 지칭하는 말로 황하의 중하류 지역을 일컬으나, 본래 한족의 본 거주지역, 즉 과거 주나라가 있던 곳을 지칭하던 말로서, 이곳을 지배해야 중국을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하던 지역이다. 주나라 이후 한족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양자강과 그 서쪽 영역도 중원으로 인식되어 화북평원까지 넓어졌다.
- 304) 갈새. 제비와 비슷하나, 제비보다 조금 큼. 등은 검은 갈색이고, 허리에는 하얀 띠가 있으며, 턱과 목이 약간 회고, 배는 검은 갈색, 깃 가장자리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이 있음.
- 305) 露國. 예전에, ‘러시아’를 이르던 말.
- 306) 萬里 朝鮮. 만 리나 떨어진 먼 조선, 곧 우리나라.
- 307) 상처가 나으면서 살이 고르지 않게 붙어 도톰해져서.
- 308) 절뚝거리고.
- 309) 小鳥. 새가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310) 갠사오리카. 갠졌습니까.
- 311) 洞燭. 특별히 깊게 헤아림.
- 312) 將令. 군대를 거느리는 장수의 명령.
- 313) 變. 갑자기 생긴 이상한 일이나 사고.
- 314) 明春. 내년 봄.
- 315) 出行날. 길을 떠나는 날.
- 316) 그럭저럭.
- 317) 三冬. 겨울 석 달.
- 318) 春三月. 봄 삼월달.
- 319) 方壯커늘. 방장하니. 바야흐로 한창이니.
- 320) 報恩報. ‘은혜를 갚을 박’이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321) 黑雲. 검은 구름.
- 322) 발길로 힘껏 차고.
- 323) 去中에. 공중에.
- 324) 西蜀. 중국의 사천성을 이르는 말.
- 325) 咫尺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 326) 蒼茫. 넓고 멀어서 아득함.
- 327) 祝融峰. 중국 호남성 형산현 서북쪽에 있는 형산의 일흔두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 328) 朱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새로 붉은 봉황으로 그려져 있는데, 남방의 신이라 한다.
- 329) 넘나들면서 논다.
- 330) 黃牛土・黃牛灘. 황우토는 중국 호북성 이창현의 서쪽에 있는 황우산을 말하는데, 그

- 산의 절벽 아래로 황우탄이 흐른다.
- 331) 烏鵲橋. 황우탄 위의 다리를 전설 속의 오작교로 가정하여 이른 듯함.
- 332) 吳楚東南. 동정호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오나라와 남쪽에 있었던 초나라를 싸잡아 일컫는 말.
- 333) 遠浦歸帆. 바다 멀리서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배의 모습. 소상팔경의 하나.
- 334) 水碧沙明兩岸苔 不勝清怨却飛來.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가 쓴 시 〈귀안(歸雁)〉에 있는 구절. 〈귀안〉은 다음과 같다. 소상하사등한회(瀟湘何事等閑回) 수벽사명양안태(水碧沙明兩岸苔) 이십오현탄야월(二十五弦彈夜月) 불승청원각비래(不勝清怨却飛來). 소상 떠나 무슨 일로 등한히 돌아왔나? 물은 푸르고, 모래는 밝게 빛나며, 강 양쪽 언덕에는 이끼가 푸른데, 이십오현 비파를 달밤에 탈 때, 맑은 설음 못 이기어 문득 날아 돌아왔다.
- 335) 一點 二點으로. 하나 둘씩.
- 336) 平沙落雁. 평평한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앉음. 소상팔경의 하나.
- 337) 白鷗. 갈매기.
- 338) 白鷺. 왜가릿과의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리·목·다리는 길고, 두루미와 비슷하나 다소 작다.
- 339) 滄波上에. 푸른 물결 위에.
- 340) 夕陽村. 저물 무렵의 마을. 소상팔경 중 어촌석조(漁村夕照)를 가리킴.
- 341) 回雁峰. 중국 형산의 일흔두 봉우리 중의 하나. 기러기가 이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북쪽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342) 黃陵廟. 요 임금의 두 딸이자, 순 임금의 두 왕비였던 아황과 여영을 모신, 소상강가에 있는 사당.
- 343) 二十五弦彈夜月. 이십오현 비파를 달밤에 탐.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가 쓴 시 〈귀안(歸雁)〉에 있는 구절.
- 344) 斑竹. 소상가에서 난다는 알록 무늬가 있는 대.
- 345) 杜鵑聲. 두견새의 소리.
- 346)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347)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의 동남쪽에 있는 누대.
- 348) 鳳去臺空江自流. 봉황은 날아가고, 누대는 비었는데, 그 아래로 강물만 흐른다. 이백의 시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의 한 구절.
- 349) 黃鶴樓. 중국 호북성 무창 서남쪽 양자강가에 있는 누대.
- 350)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황학은 한번 가서 돌아오지 않고, 흰 구름만 천 년을 유유히 떠서 흐른다. 최호의 시 〈黃鶴樓〉의 한 구절.
- 351) 金陵. 남경의 옛 이름.
- 352) 酒肆村. 술집이 있는 마을.
- 353) 들어가니.
- 354) ‘空宿窓外桃李開’의 잘못. 홀로 지는 창 밖에 복숭아꽃 오얏꽃이 피어 춘정을 더하는구나.
- 355) 落梅花를 톡 차 舞筵에 펄펄 떨어치고, 떨어지는 매화 꽃잎을 발로 차서 춤추는 자리에 떨어뜨리고. 두보의 시 〈성서피범주(城西陂泛舟)〉의 한 구절인 ‘연축비화낙무연(燕蹴

- 飛花落舞筵)(제비가 떨어지는 꽃잎을 차서 춤추는 자리에 떨어뜨리다)을 변형한 것임.
- 356) 二水. 중국 광서성 홍양현에서 시작되어 상수(湘水)와 나뉘어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심강과 합쳐져 서강(西江)이 되는 강. 상수와 나뉘기 때문에 '이수(二水)'라고 함.
- 357) 鷄鳴山. 중국 안휘성 합비현 서북쪽에 있는 산.
- 358) 張子房. 이름은 양(良), 자(字)가 자방. 뛰어난 지략가로 한나라의 고조를 도운 개국 공신이었으나, 뒤에는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와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선도에 기울어 동해의 신선인 적송자와 놀았다 함.
- 359) 南屏山. 중국 강소성 상요현의 북쪽에 있는 산으로,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어 조조의 군사를 깨뜨리기 위하여 칠성단을 쌓은 곳.
- 360) 七星壇. 복두칠성을 모시는 제단. 공명이 동남풍을 빌기 위해 남명산에 쌓았던 제단.
- 361) 燕趙之間. 옛 중국의 연나라와 조나라의 사이.
- 362) 長城. 만리장성을 가리킴.
- 363) 礪石山. 중국 요동에 있는 산.
- 364) 燕京. 북경의 옛 이름.
- 365) 皇極殿에. '황극전'은 명나라 때 궁궐에서 천자가 정치를 하기 위하여 나가 앉던 곳.
- 366) 萬戶長安. 수많은 집이 가득한 서울.
- 367) 正陽門. 북경성의 정남쪽 문.
- 368) 上達門. 북경성 안의 17리에 걸쳐 이어진 자금성의 아홉 문 중의 둘째 문인 '천안문(天安門)'을 가리킨 듯함.
- 369) 潼關. 북경과 요동 사이에 있는 지명임.
- 370) 사(寺)·미륵(彌勒). 절과 미륵.
- 371) 백(百)이로다. 백 개나 된다. 곧 많다는 말.
- 372) 寧古塔. 중국 흑룡강성 남동부에 있는 도시
- 373) 統軍亭. 의주의 서북쪽 압록강가의 높은 데에 있는 경치가 좋은 정자
- 374) '안쪽에 가까이 있는 남산과 바깥쪽에 멀리 있는 남산'이라는 뜻으로 지어붙인 이름.
- 375) 石壁江. 의주 가까이에 흐르는 강 이름인 듯함.
- 376) 龍川江. 평안북도 용천에 있는 강 이름인 듯함.
- 377) 左右嶺. 가상의 고개 이름인 듯.
- 378) 부산한 파발(擺撥). '파발'은 공문 따위를 급히 전하려고 일정한 거리마다 설치한, 역마를 갈아타던 곳, 또는 그 공문을 나르던 사람.
- 379) 換馬고개. 말을 갈아타는 고개라는 뜻을 지닌 고개 이름인 듯. '還馬'는 금의환향이라는 뜻이므로, 환마를 '還馬'로 보면, '환마고개'는 금의환향하는 고개라는 의미임.
- 380) 평양 북쪽 20리에 있는 다리.
- 381) 練光亭. 평양의 대동강가에 있는 정자. 대동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덕암(德岩)이라는 바위 위에 있는데, 조선조 중종 때 세워졌음.
- 382) 浮碧樓. 평양의 대동강가에 있는 누대.
- 383) 長林. 길게 펼쳐진 수풀.
- 384) 松都. 개성의 옛이름.
- 385) 滿月臺. 개성 송악산 밑에 있는 고려 왕궁터.

- 386) 觀德亭. 개성에 있는 고려 때의 정자.
- 387) 朴淵瀑布.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폭포. 개성(開城)에서 40리 가량 되는 천마산(天摩山)에 있으며, 부근에는 약수가 있고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송도 삼절(松都三絶 개성에서 뛰어난 세 가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388) 時刻에. 빨리.
- 389) 三角山. 서울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 390) 地勢. 땅의 형세.
- 391) 天龍. 풍수지리에서, 명당을 이루는 큰 산세를 몰고 내려오는 가장 큰 산줄기.
- 392) 大元脈. 큰 줄기를 이루는 산맥.
- 393) 中嶺. 산줄기의 중간 마루.
- 394) 굽이쳐 흘러내려.
- 395) 金華. 인왕산 옆의 금화산.
- 396) ‘계산(桂山)’의 와전인 듯. 오늘날의 종로구 계동 일대의 산줄기.
- 397) 分界. 나뉘.
- 398) 春塘. 창경궁 안의 춘당대(春塘臺).
- 399) 迎春. 경복궁의 동쪽 문인 영춘문(迎春門).
- 400) 道峰. 도봉산(道峰山).
- 401) 望月臺. 산봉우리 이름인 듯.
- 402) 三角山.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 403) 彬彬하고. 빛나고.
- 404) 嬉嬉하야. 희희하여. 기쁘고 즐거워.
- 405) 萬萬歲之金湯. 오랜 세월 동안의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
- 406) 어름에. 두 지역이 맞닿은 곳에.
- 407) 지체없이 빨리.
- 408) 칠패(七牌)거리. 지금의 중구 중림동 부근.
- 409) 八牌. 칠패에 연이어 지어 붙인 이름인 듯.
- 410) 지금의 서울역 부근에 있던 다리 이름인 듯.
- 411) 아야고개. 오늘날의 이태원 고개.
- 412) 銅雀江. 동작동에 가까이 흐르는 한강의 한 지류.
- 413) 越江. 강을 건넌.
- 414) 僧房. 남태령과 동작강 사이에 있는 지명인 듯.
- 415) 南泰嶺. 동작동과 과천 사이의 고개.
- 416) 죽지. 새의 날개가 몸에 붙은 부분.
- 417) 堂上堂下 飛去飛來. 집 처마 위 아래로 날아오고 날아감.
- 418) 翩翩히. 가볍게 훨훨 날아.
- 419) 무엇과 같다고.
- 420) 黑龍. 검은 빛깔의 용.
- 421) 如意珠. 부처의 사리에서 나와 용의 턱 아래에 있다는 구슬. 이것을 지니면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하여 붙은 이름.

- 422) 彩雲間. 여러 가지 고운 색깔의 구름 사이.
- 423) 넘노는. 오락가락하며 날아다니는.
- 424) 丹山. 봉황새가 산다는 전설 속의 산.
- 425) 竹實. 봉황이 먹고 산다는, 대나무 열매 속에 있는 씨.
- 426) 건축에서 간과 간 사이의 두 기둥머리를 건너지른 나무.
- 427)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인데, 다른 곳에서는 ‘지지지지(知之知之) 주지주지(主知主知) 거지연지(去之年之) 우지배(又之拜)요, 낙지각지(落之脚之) 절지연지(折之燕之) 은지덕지(恩之德之) 수지차(酬之次)로, 함지포지(啣之匏之) 내지배(來之拜)요.’로 부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 이다. “아시는지요, 아시는지요? 주인님, 주인님. 떠나갔던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떠나갔던 제비가 또 인사를 드립니다. 떨어져서 부러진 다리를 이어주신 은덕을 갚으려고 박씨를 물고 와서 인사드립니다.”
- 428)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 429) 급하거나 경솔하지 않고, 자세하고 침착하게.
- 430) 알록달록하니.
- 431)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432) 떨어뜨려놓고.
- 433) 白雲間. 흰 구름 사이.
- 434) 틀림없이 튼튼하게.
- 435) 日就月將. 나날이 달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 436) 自歎. 혼자 스스로 탄식함.
- 437) 원수녀르. ‘원수’보다 강한 말. ‘녀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 438) 어떻게 하면.
- 439) 北斗七星님. 칠원성군(七元星君)이라고도 부르며, 민속에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한다는 신.
- 440) 三神帝王님. 민속에서 아기 낳는 일을 맡는다고 하는 삼신을 높여 이르는 말.
- 441) 짚으로 깐 자리.
- 442) 떨어뜨릴 제. ‘삼신제왕(三神帝王)님이 짚자리에 떨어칠 제’는 삼신 제왕님이 짚자리에 떨어뜨릴 때. 곧 태어날 때에. 옛날에는 짚을 깔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임.
- 443) 命. 목숨. 운명.
- 444) 壽福. 오래 살며 길이 복을 누리는 일.
- 445) 點指. 신이나 부처가 사람에게 정해줌.
- 446)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
- 447) 여기서는 ‘올벼를 추수하여’라는 뜻으로 씀. ‘잡다’는 보통은 식용으로 하기 위해 짐승을 죽여 장만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곡식으로 전이되어 쓰인 듯함.
- 448) 각지 속에 들어 있어 아직 덜 익은 콩.
- 449) 先山. 조상들의 무덤. 혹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산.
- 450) 가려고 하는데.

- 451) 薄福하지. 복이 없지.
- 452) 만류(挽留)하는데.
- 453) 박의 안에 써가 박혀 있는 하얀 부분. 써가 있는 부분은 버리고, 살만 끊어서 식용으로 씹.
- 454) 救患. 어려움에서 구함.
- 455) 스르렁. 물건이 끌리면서 조금 크고 시원스럽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456) 슬근. 물체가 서로 맞닿아 가볍게 스치며 자꾸 비벼지는 모양.
- 457) 保命. 목숨을 보전함.
- 458) 톱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 459) (두 편이 서로 주고받는 노래에서) 먼저 불러주소.
- 460) 抱恨. 한을 품음. 여기서는 간절한 소망.
- 461) 당기어라.
- 462) 櫃. 물건을 넣어두기 위하여 직육면체꼴로 뚜껑이나 문짝이 있게 나무로 짠 그릇.
- 463) 開圻. 봉한 편지나 서류를 뜯어 봄.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겉봉에 쓰던 말.
- 464) 가득.
- 465) 많은 양을 우습게 일컬은 것임.
- 466) 많은 양을 우습게 일컬은 것임.
- 467) 따라다니면서.
- 468) 흥에 겨워 절구공이처럼 뻗뻗이 서서 뛰어 오르내리며 추는 춤.
- 469) 三南.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470) 石崇. 진(晉)나라 때의 대부호(大富豪)로서 땀나무 대신 촛불을 사용하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들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권신 사마소(司馬昭)의 인척인 왕개(王愷)와 부를 다투었으나 왕개가 항상 졌다고 한다. '팔왕의 난' 때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에 의해 살해되었다.
- 471) 陶朱公.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왕 구천(句踐)의 충신인 범어를 가리킴. 본디 초나라 사람으로, 자는 소백(小伯).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 왕 부차(夫差)를 죽여 원수를 갚았는데, 후에 제나라에서 크게 치부하였음.
- 472) 건너편에 있는 마을.
- 473) 伯父님. 큰아버님.
- 474) 慶事. 기쁘고 좋은 일.
- 475) 言忠信 行篤敬. 말은 믿음 있게 하고, 행동은 공경하고 착실하게 함.
- 476) 藉勢. 빼기고 으스댐.
- 477) 恨. 한탄함.
- 478) 饑民을 줄란다. '기민을 주다'는 '흉년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다'라는 뜻.
- 479) 銀金寶貨. 금은 보석을 아울러 일컫는 말.
- 480) 嚴冬雪寒.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추위.
- 481) 추운.
- 482) 날에.
- 483) 數多한. 수가 많은.
- 484) 驅迫을 당하여. 몹시 못 견디게 학대를 당하여.

- 485) 櫛 속에 들어가도, ‘꼭’은 관을 넣는 걸레. 여기서는 ‘죽어도’의 뜻임.
- 486) 兄弟는 一身 手足이라. 형제는 한 몸의 손발과 같다.
- 487) 넓은.
- 488) 상대방에게 대답하는 감탄사 ‘그럼’ 또는 ‘아무럼’을 뜻하는 말.
- 489) 江上. 강물 위.
- 490) 붉은緞. 붉은색 비단.
- 491) 푸른緞. 푸른색 비단.
- 492) 日光緞. 옛 비단의 일종. 해나 햇빛 무늬를 놓음.
- 493) ‘적선(謫仙)의 아미산월가(峨嵋山月歌)의 월광단(月光緞)’이 아닌가 생각됨. 이적선, 곧 이태백이 쓴 시 〈아미산월가(峨嵋山月歌)〉에 나오는 달을 그려 넣은 월광단.
- 494)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던 신녀.
- 495) 瑤池宴. 서왕모가 산다는 요지에서 벌이는 잔치.
- 496) 進上하던. 바치던. ‘진상’은 임금님께 물건을 바치는 것을 말함.
- 497) 天桃紋. 하늘나라에서 난다는 복숭아를 그려놓은 비단.
- 498) 白雪이 滿空山한데 節概 있는 松竹緞. 흰 눈이 낙엽이 진 빈 산에 가득한데, 절개에 있는 송죽단. ‘송죽단’은 소나무와 대나무가 그려진 비단. 소나무와 대나무가 절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개 있는 송죽단’이라고 하였음.
- 499) 登泰山小天下.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 공자가 태산에 올라 하였다는 말.
- 500)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 501) 大緞. 한단(漢緞). 중국에서 나던 비단의 하나.
- 502) 南陽 草堂. 중국 하남성 남양현에 있던, 제갈량이 벼슬에 나가기 전에 살던 집. ‘초당(草堂)’은 집의 왼쪽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억새나 짚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 503) 景. 경치.
- 504) 萬古才士. 오랜 세월에 걸쳐 이름을 날릴 재주 있는 선비. 여기서는 제갈량을 가리킴.
- 505) 臥龍緞. 누워 있는 용이 새겨진 비단. 제갈량의 호가 ‘와룡’이었으므로 지어 붙인 이름.
- 506) 太平乾坤. 태평한 온 세상.
- 507) 大願緞. ‘큰 소망을 담은 비단’이라는 뜻으로 만든 가상의 비단 이름인 듯.
- 508) 洋太紋. 갓끈으로 많이 쓰이는 양태문 갑사.
- 509) 銀造紗. 중국산의 얇은 비단으로, 주로 여름 옷감으로 씬.
- 510) 富貴多福.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복이 많음.
- 511) 福壽緞. 福자와 壽자가 새겨진 비단.
- 512) 三旬九食. 30일에 아홉 번 식사를 함. 그렇게 굶고 지냄.
- 513) 宮綃. 비단의 한 가지. 넓고 무늬가 등글다. 흔히 땀깃감으로 씬. 궁초의 ‘궁’ 자가 곤궁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窮’자와 음이 같기 때문에, 삼순구식과 연결시킨 것임.
- 514) 吉州 明川 가는 배. 함경도 길주와 명천에서 나는 울이 가는 삼베인 세마포(細麻布)를 가리킨 듯.
- 515) 康津 海南 極上細木. 전라남도 강진과 해남에서 나는 아주 울이 가늘고 고운 무명.
- 516) 충청남도 한산(韓山)에서 나는 질 좋은 모시.
- 517) 충청남도 임천(林川)에서 나는 질 좋은 모시.

- 518) 生絹. 명주실로 얇게 짠 비단의 한 가지.
- 519) 三八. 삼팔주(三八紬). 중국에서 나는 명주의 한 가지.
- 520) ‘와사직(瓦斯織)’의 잘못. 와사로 짠 베. ‘와사’는 무명실의 거죽에 잔털같이 일어난 섬유를 가스 불에 태워서 반드르르하게 윤을 낸 실.
- 521) 甲紗. 품질이 좋은 얇은 비단. 여름 옷감이나 땀기로 많이 씀.
- 522) 松花色. 소나무 꽃 색깔. 곧 노란 색깔.
- 523) 三回裝. 여자의 저고리 깃, 소매부리, 거드랑이를 자주 또는 남빛 형질으로 꾸민 것.
- 524) 종던가요?
- 525) 때가 묻어 더러워지지 않는.
- 526) 먹貢緞. 먹처럼 검은 공단. ‘공단’은 두껍고 무늬가 없으며 윤기 있는 고급 비단.
- 527)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곱소리(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것.
- 528) 두루마기.
- 529) 조금도 틀림이 없는.
- 530) 여자의 길게 땅은 머리끝에 드리는 형질이나 끈.
- 531) 單衣. 속곳. 속속곳과 단속곳의 총칭.
- 532) 속속곳과 단속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 533) 옛 복장에서 여자가 맨 속에 입는 속옷으로, 다리통이 넓고 밀이 막혀 있음.
- 534) 여자의 가슴에 매던 띠.
- 535) 寶貨. 보물.
- 536) ‘외배미 들’의 잘못. 한 배미로 된 들. 곧 그렇게 평평한 들. ‘배미’는 논이 한 구역.
- 537) 億十萬金. 많은 돈.
- 538) 素砂들. 충청북도 북쪽에 있는 넓은 들.
- 539) 數萬金. 많은 돈.
- 540) 富益富.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됨.
- 541) 대자귀. 큰 자귀. ‘자귀’는 나무를 깎는 연장.
- 542) 소자귀. 작은 자귀.
- 543) 연장의 하나로, 나무에 구멍을 파거나 다듬는 데 씀. 가늘고 긴 쇠의 날을 세워 위에는 나무로 머리를 만들어 망치로 때려 구멍을 팜.
- 544) (사람이나 동물을) 때리는 데 쓰는 단단하고 짙은 몽둥이
- 545) 주로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데 쓰는 농기구. 삽처럼 생긴 나무로 된 몸 끝에 쇠로 날을 박았는데, 자루가 길다.
- 546) 東山下. 동쪽에 있는 산 아래.
- 547) 넓은.
- 548) 壬坐丙向. ‘임좌’는 임방(壬方)을 등진 자리, ‘병향’은 병방(丙方)을 향한 자리. 따라서 ‘임좌병향’은 북북서쪽을 등지고 남남동쪽을 향한 자리를 말함.
- 549) 八卦를 놓아. 풍수지리설에 따라 방위를 잡아서. ‘팔괘(八卦)’는 고대 중국인들이 사용하던 여덟 가지의 궤로 주역(周易)에서 자연계(自然界) 및 인사계(人事界)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치어서 여덟 가지의 상(象)으로 나타낸 것. 고대 중국인들이 운명 판단의

기본원리를 점쳐 보는 데 사용하여 발전해 온 것임. 건(乾), 태(兌), 이(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등.

- 550) 사방으로 빙 둘러친 담.
551) 朱欄畫閣. 단청을 아름답게 한 누각.
552) 中門. 대문 안에 거둬 세운 문.
553) 솟을대문.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솟게 만든 대문.
554) 風磬.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처럼 생긴 물건. 쇠조각으로 봉어 모양을 달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 소리가 나게 되어 있음.
555) 千石지기. 벼 천 석을 추수할 만큼의 농사.
556) 萬石지기. 벼 만 석을 추수할 만큼의 농사.
557) 百家口 叢文書. 백 가구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문서.
558) 셋별.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밝게 보이는 금성(金星)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559) '다물다물'에서 파생된 말인 듯. '다물다물'은 무엇이 무더기 무더기로 쌓인 모양.
560) 분량이 다소 범위에 넘치는 모양. 가득.
561) 舍廊.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쳐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562) 무슨 일에 실속 이상으로 꾸미어 드러냄.
563) 본다고 하면. 보면.
564) 角壯 壯版. 보통 것에 견주어 더 넓고 두꺼운 장판지로 바닥을 바른 장판.
565) 소란반자. 정(井) 자를 여럿 모아놓은 것처럼 반자들을 짜고, 그 구멍마다 네모진 판자를 넣어 만든 반자. '반자'는 방이나 마루에 종이나 나무로 반반하게 만든 천장.
566) 卍字 밀창. 卍 자 무늬가 여럿 이어져서 이루어진 미단이문.
567) 樨榴文匣. 곱고 단단하며 붉은 빛을 띤 자단목으로 만든, 문서나 문구 따위를 넣어두는 긴 께.
568) 玳瑁冊床. 대모로 만든 책상.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
569) 詩傳. 주희가 주해를 단 《시경(詩經)》.
570) 書傳. 송나라 때에 주희의 제자인 채침이 주해를 단 《서경(書經)》.
571) 周易. 삼경(三經)의 하나로, 중국 주(周)나라 초에 지어진 길흉을 판단하여 점치는 책.
572) 李白. 이태백(李太白). 태백은 자(字)이고 호는 청련(靑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받았다. 신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573) 杜詩. 두보의 시. 두보의 시를 모아놓은 책.
574) 通史略. 북송의 사마광이 편년체로 엮은 역사책인 《자치통감(自治通鑑)》과, 원나라 증선지가 엮은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아울러 일컫는 말.
575) 좋음도. 좋기도.
576) 이력저력.
577) 근심은.
578) 거들먹거리고 신이 나서 버릇없이 굴면서.
579) 綱常之怪變. 삼강과 오상(오륜)의 도덕에 어긋나는 괴이한 사건.
580) 제 집입니다.

- 581) 처분대로.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라는 지시나 결정대로.
- 582) 營門. 감영(監營). 감사가 일을 보던 관아.
- 583) 捕卒. 포도청의 군졸. ‘포도청’은 조선조 때 도둑이나 일반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 584) 열쇠 또는 자물쇠.
- 585) 장롱의 문.
- 586) 去中에. 공중에.
- 587) 唐絲실. 중국에서 들여온 품질이 좋은 명주실.
- 588) 銀金寶貨. 금은 보석을 아울러 일컫는 말.
- 589) 天下에.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 590) 嫗叔님. 남편의 형제를 높여 일컫는 말. 여기서는 남편의 형을 높여 일컫는 말.
- 591) 四肢. 팔다리.
- 592) 家長. 집안의 어른. 남편.
- 593) 前日. 지난날.
- 594) 豪奢. 지나칠 만큼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러한 사치.
- 595) 충청도 한산에서 나던 울이 가는 모시에다가.
- 596) 당청엿물. 중국에서 들여온 푸른색 물감.
- 597) 푸르스름하게 들여.
- 598) 치마의 마루폭.
- 599) 넓게.
- 600) 弟嫂. 동생의 아내.
- 601) 安城 鑪器. 안성에서 나는 질 좋은 놋그릇.
- 602) 統營 漆板. 경상남도 통영에서 나는 질 좋은 옷칠 소반.
- 603) 天銀. 질 좋은 은.
- 604) 구리 箸. 구리로 만든 젓가락. 여기서는 ‘구리 적사’의 잘못된 듯. ‘구리 적사’는 구리로 만든 석쇠. ‘석쇠’는 고기 또는 굳은 떡 따위를 굽는 데 쓰는 기구. 굵은 철사로 태를 하고, 가는 철사나 구리철사 등으로 잘게 그물처럼 엮어 네모지거나 둥글게 만듦.
- 605) 執吏書吏. 관아에서 일을 보던 구실아치.
- 606) 數 벌이듯. 계산을 위해 산대를 벌여 놓듯. ‘산대’는 옛날 계산을 위해 쓰던 대나무 막대기로, 산가지라고도 함.
- 607) 烏竹板. 빛깔이 검고 작은 대나무인 오죽에다 꽃을 그려 붙여 만든 소반.
- 608) ‘대 모양 양각(陽刻) 당화기(唐畫器)’의 잘못. 대 모양을 돌을새김하여 그려 넣은 중국 산 사기 그릇.
- 609)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이어 얽힌 모양. 여기서는 송편을 찔 때 넣는 술잎이 얽혀 있는 모양을 가리킨 듯.
- 610) 반듯.
- 611) 貞節餠. 네모 반듯하게 자른 흰떡.
- 612) 팔을 껌질 채로 삶아 찢 떡.
- 613) 苹果. 사과.

- 614) 眞淸. 벌꿀.
- 615) 生淸. 불에 끓이지 않은 꿀.
- 616) ‘조란(鳥卵) 산적’의 잘못. 달걀을 풀어 썩워 구운 산적. ‘산적’은 쇠고기 따위를 길게 썰어 양념을 하여 꼬챙이에 꿰어 구운 음식.
- 617) 위에다 곁들여.
- 618) 소의 밥통의 고기로 만든 회.
- 619) 소·양 따위의 새김질하는 짐승의 셋째 밥통.
- 620) ‘양푼’의 잘못. ‘양푼’은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 쓰는 놋그릇.
- 621) 淸團. 꿀물에 경단(찹쌀로 만든 작고 둥그란 떡)을 담근 것.
- 622) 水團.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경단을 담근 것.
- 623) ‘자배기’는 잣을 문헌 박산(산자의 몸이나, 엿을 반듯하고 얇게 잘라 잣이나 호두 따위를 양쪽에 붙인 유밀과).
- 624) 軟脯. 살점을 떼서 말린 고기.
- 625) 山菜. 산나물.
- 626) 수근(水芹)채. 수근을 잘게 썰어 만든 채. ‘수근’은 미나리.
- 627) 들이붓고.
- 628) 靑銅火爐. 청동으로 만든 화로.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
- 629) 떡갈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숯. 숯 가운데서 가장 화력이 셈.
- 630) 껌질.
- 631) ‘드리워라’로 해야 함. 위에 얹어 부어라.
- 632) 연계(軟鷄)찜. 어린 닭 찜.
- 633) 단단한 물건을 깨무는 소리.
- 634) 포드닥. 작은 날짐승이나 물고기가 날개나 꼬리를 가볍게 치는 소리.
- 635) 메추리탕. 메추리 고기로 끓인 탕국.
- 636) 쇠로 만든 젓가락.
- 637) 箸. 젓가락.
- 638) 덩석. 무엇을 땀땀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 639) 적서.
- 640) 過夏酒. 소주와 약주를 섞어 빚어서 주로 여름에 마시는 술.
- 641) 花薰. 꽃 무늬가 새겨진 술잔.
- 642) 여기 있소.
- 643) 薄酒이지만. 보잘것없는 술이지만.
- 644)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 645) 小大祥.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소상’은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대상’은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 646) 勸酒歌. 술을 권하며 부르는 노래.
- 647) 古今天地. 옛부터 지금까지의 온 세상.
- 648) 至誠이면.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 649) 感天이라. 하늘을 감동시킨다.

- 650) 錢穀藉勢. 돈과 곡식이 있다고 빼기고 으시대는 일.
- 651) 嚴冬雪寒.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추위.
- 652) 추운.
- 653) 구박(驅迫)을 당(當)하여. 몹시 못 견디게 학대를 당하여.
- 654) '속을 차리다'는 '마음을 바로잡다'. 따라서 여기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서는 '마음대로 하려면' 정도의 의미.
- 655) 윗목. 온돌방에서 위쪽으로 굴뚝 가까이 있는 부분.
- 656) 빨간.
- 657) 花草穢. 문짝에 화초의 그림을 그려 만든 장롱.
- 658) 가득.
- 659) 달라.
- 660) 같잖고 되잖은.
- 661) 櫃. 물건을 넣도록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그릇.
- 662)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 아랫사람에게 쓴다.
- 663) 每事. 모든 일
- 664) 不如튼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제일임.
- 665) 도랑. 작은 개천.
- 666) 房帳. 겨울철에 외풍을 막기 위하여 방문이나 창문에 치는 휘장.
- 667) 온돌방에서 연기가 나가는 통로 위에 깔아 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 668) 거꾸로.
- 669) 집안을 낮잡아 이르는 말.
- 670) 坐而不動.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
- 671) 아나?
- 672) 만드는.
- 673) 三時. 아침, 점심, 저녁의 세 끼니.
- 674) 엮어내어.
- 675) 別堂. 몸체의 곁이나 뒤에 따로 지은 집이나 방.
- 676) 변소.
- 677) 앞뒤廳下. 앞 뒤 마루의 아래.
- 678) 간(間)과 간 사이의 두 기둥머리를 건너지른 나무. 도리와는 'ㄱ'자 모양, 마루와는 'ㅊ'자 모양을 이룸.
- 679) 서까래.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가늘고 긴 통나무. '마룻대'는 집의 용마루 밑에 서까래가 걸리게 된 도리. '도리'는 기둥과 기둥 위에 돌려 엮는 나무. '보'는 간(間)과 간 사이의 두 기둥머리를 건너지른 나무. 들보. 도리와는 'ㄱ'자 모양, 마루와는 'ㅊ'자 모양을 이룸.
- 680) 漠然하니. 뚜렷하지 못하고 어렵듯하니.
- 681) 換腸.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달라짐.
- 682) 편지를 써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는 방식.
- 683) 목접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 684) 末境. 사태나 일의 경과에 있어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기간.
- 685) 휘몰아 쫓거나 다투어.
- 686) 春節. 봄철.
- 687) 三刻. 세 때. 여기서는 석 달의 의미로 쓰였음. 뒤에 '지나고'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함.
- 688) 夏四月. 여름 4월.
- 689) 8일.
- 690) 燕子. 제비.
- 691) 찢찌리는 찢꼴찌꼴 울기 때문에, 찢찌리가 운다는 말을 제 이름을 제가 부른다고 표현한 것임.
- 692) 伏羲氏. 그물을 만들었다는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
- 693) 둥글게 휘어 당겨.
- 694) 들어올려서 어깨에 매고.
- 695) '방장산(方丈山)'인 듯함. '지리산'의 다른 이름.
- 696) 右頭峰. 오른 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지어 붙인 것.
- 697) 左頭峰. 왼 편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으로 지어 붙인 것.
- 698) 건너편에 있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699) 맞은편에 있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이름.
- 700) 층층(層層)으로.
- 701) 둘러 있는데.
- 702) 덩불. (떨기나무나 덩굴풀 따위가)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 703) 方丈山. 지리산의 다른 이름.
- 704) '빨리 돌아서' 정도의 의미인 듯.
- 705) 닭이나 참새 따위를 쫓을 때 외치는 소리.
- 706) 行하나? 가는가?
- 707) 鷹飛戾天. 솔개가 하늘 높이 날다. 《시경》 〈대아(大雅)〉에 있는 구절.
- 708) 솔개. 수릿과에 딸린 새. 매보다 크고 날카로운 굽은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들쥐, 물고기, 조개류 따위를 잡아 먹는다.
- 709) 南飛鳥鵲. 남쪽으로 날아가는 까마귀와 까치.
- 710) 春日黃鶯. 봄날의 찢찌리.
- 711) 層巖絕壁. 층층이 바위가 쌓인 높은 절벽.
- 712) 天火日. 정월·오월·구월에는 자일(子日), 이월·유월·시월에는 묘일(卯日), 삼월·칠월·십일월에는 유일(酉日)에 해당하는 날로, 이 날에 상량을 올리거나 지붕을 엮으면 불이 난다고 함.
- 713) 火及棟樑. '기둥과 들보에 불기운이 끼었다'는 뜻.